

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

천지왕본풀이

초감제>들어가는 말미

천도천아(天都天皇)~, 지도지왕(地都地皇), 인도인왕(人都人皇), 상간지오륜지법(三綱五倫地法)으로~ 천신기는 지낫츰고,¹⁾ 흑신기는 지드투고~,²⁾ 천지이망주³⁾ 하늘에 칭칭허게 신수평⁴⁾ 잇십네다~.

삼버릿줄⁵⁾ 줄싸메나~ 데통기는 소통기, 지리기, 양산기~, 줄전나부⁶⁾ 드레⁷⁾ 놓고 안느로는~ 비저남은⁸⁾ 상당클,⁹⁾ 계수남은¹⁰⁾ 중당클, 준지남은 하당클, 촘실 7똥¹¹⁾ 오리베로~ 말 귀 7치¹²⁾ 네 귀 줍썩¹³⁾ 메영 팔만금세진(八門金蛇陳)을 치엿습네다~.

안느로는 제주 큰곳 십삼호(十三號) 몸을 받은 연양당주¹⁴⁾ 삼시왕~ 삼하늘 남천문밭 유정성(柳政丞) 띄님아기 고옛 선성(先生)님~ 어간(於間)허난 열두 본풀이로,

초감제>날과 국 섬김

날(日)은 어느 날~, 들(月)은 어느 들, 금년(今年) 해는 기해년(己亥年)~ 들은 갈라, 오동짓들 오널 초으셋날 이제 청헌 설연(設筵)허켄, 헤튼국은 들튼국 주리(周圍) 팔만 십이 제국~ 강남(江南) 들어 천저국(天子國)~ 일본(日本) 들어 주년국(周年國)입네다.

우리 국(國)은 천아해동(天下海東)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첫 서울 송테조(宋太祖) 개국(開國)허고, 들첸 시님 서울~, 셋첸 한성(漢城) 서울, 넷첸 웨정(倭政)은~ 삼십육 년(三十六年), 다섯 체는 조부올랑 상서울 마련허고, 안동방궐, 자동방궐, 먹자골은 스박궐~, 모시정궐, 불탄데 궐입네다~.¹⁵⁾ 경상도(慶尙道)는 칠십칠 관~, 전라도(全羅道)는 오십삼 관, 충청도(忠淸道)는 삼십삼 관, 일제주(一濟州)는 이거제(二居第)~, 삼남해(三南海)는 스진도(四珍島), 오강와(五江華)는 육관도(六莞島)서~, 그 중 제일 큰 섬은 제줍네다.¹⁶⁾ 저 산 압은¹⁷⁾ 당오벽(堂五百), 이 산 압은 절오벽(一五百), 어시생(御乘生)은 당돌머리~,¹⁸⁾ 아흔아홉(九十九) 굼버리~,¹⁹⁾ 혼 골 부족

1) 지낫츰고: 낫추고.

2) 지드투고: 돌우고.

3) 천지이망주: 큰대를 세우는 법.

4) 신수평: 신이 내려와서.

5) 삼버릿줄: 큰대를 묶는 세 갈래의 줄.

6) 데통기는 소통기 지리기 양산기~ 줄전나부: 큰대를 장식하는 기메의 여러 종류.

7) 드레: 다리(橋). 신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

8) 비저남은: 비자(樵子)나무는.

9) 상당클: 곳을 할 때 제장 벽의 상단에 달아매는 선반으로 신들이 좌정하는 장소.

10) 계수남은: 계수(桂樹)나무는.

11) 7똥: 같은.

12) 귀 7치: 귀 같이.

13) 줍썩: 무엇이 튀어나와 솟은 모양.

14) 연양당주: 당주 심방이 맹두 조상을 모시는 장소.

15) 안동방궐 자동방궐 먹자골은 스박궐 모시정궐 불탄데궐입네다: 서울의 옛 지명(地名)입니다.

16) 제줍네다: 제주입니다.

17) 압은: 앞은.

18) 당돌머리: 어승생의 동쪽에 있는 봉우리로 '아흔아홉골'이라고도 함.

19) 굼버리: 산 위에 우뚝하게 팬 곳 분화구(噴火口).

허난 범도 왕(王)도 곰도 못 난 섬입네다. 산은 갈라 할로영산(漢拏靈山) 땅은 금천~ 노기진 땅.²⁰⁾ 물은 황해수(黃海水-ㄴ)데 연평(永平) 팔년(八年) 모흥굴(毛興穴)²¹⁾ 고량부(高良夫)는 삼성왕(三姓王)이 도업허고~, 향파두리 짐통경(金通精)~ 만리토성(萬里土城) 둘러오난, 정이(旌義)²²⁾ 정당~, 이십칠 도 데정(大靜)²³⁾ 일경 삼십팔 련 주(州)이 목안(牧內)²⁴⁾ 팔십여 리, 옛날은~ 정이고을 원님 살고, 데정 고을 현감(縣監) 살고, 주이 목안 판관(判官) 살고, 명월(明月)은~²⁵⁾ 만호(萬戶) 살앙 삼고을 스관장을 살앗습네다. 옛날 섬도 께(-島字)는 질도 께(-道字)로 바꾸고~, 질도 께는 이천육년(二千六年) 칠월(七月) 일일(一日)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제주시(濟州市)는 서귀포시(西歸浦市) 읍면동(邑面洞)을 갈랑 제주시는 사라봉(沙羅峯)~²⁶⁾ 제주큰굿보존회²⁷⁾ 사무실로.

초감제>연유담음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을 유저생인 질 팽저생인 질입네다~. 유저남은²⁸⁾ 비여당~²⁹⁾ 마흔으덥(四十八) 초간주를 설련(設筵)허고, 팽저남은³⁰⁾ 비여다가 서른으덥(三十八) 이간주를 설련허고~, 신평남은³¹⁾ 비여당 스물으덥(二十八) 하간주를 설련허난, 브름 부난 브름 뚜벽 막고 뜻 도난 뜻 도벽을 막고~, 동산세별 신연 상간주~ 연양당주 육고비~³²⁾ 동심절(同心結)은 고비 첩첩 눌런 마흔으덥 모람장~, 서른으덥 빗골장, 스물으덥 고무살장, 솥솥도리³³⁾ 고삼 빗전~³⁴⁾ 브름 부난 브름 뚜벽 막고 뜻 도난 뜻 뚜벽을 막고 동산세별 신연 상간주~ 연양당죽집을 무언 제주큰굿보존회 사무실로 초뻘³⁵⁾ 녹음은 오용부 즈순(子孫)이~ 자료 냉기고,³⁶⁾ 두 번 께는 김돌산~ 즈순이 자료 냉기고, 오닐은 신이성방³⁷⁾ 서씨로 신축생입네다~ 오닐부떠 천지왕 본풀이~, 열두 본풀이를 허저십니다예-.

천지왕본풀이>본풀이

하늘 차지는³⁸⁾ 천지왕(天地王)님~, 땅 차지는 지부왕(地府王)~ 총명부인(聰明婦人)입네다. 천지왕님이~ 지부왕에 네립네다~. 지부왕 총명부인 가난(艱難) 공서 살았구나~. 밥 훈 상

20) 노기진 땅: 아주 좋은 땅.

21) 모흥굴(毛興穴): 탐라건국신화로 알려진 삼성신화에서 삼신인이 솟아났다는 곳. 삼성혈(三姓穴).

22) 정이(旌義): 조선시대 제주도의 행정구역인 삼읍(三邑) 가운데 하나 제주도 동남부 지역을 포괄함.

23) 데정(大靜): 조선시대 제주도의 행정구역인 삼읍(三邑) 가운데 하나 제주도 서남부 지역을 포괄함.

24) 목안(牧-): 제주목의 안 '제주목'은 조선시대 제주도의 행정구역인 삼읍(三邑) 가운데 하나 제주도 북부 지역을 포괄함.

25) 명월(明月):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는.

26) 사라봉(沙羅峯):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봉우리.

27) 제주큰굿보존회: 제주큰굿보존회.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을 두이레인 열나흘 동안 이어지는 큰 굿으로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음.

28) 유저남은: 유자나무는.

29) 비여당: 비어다가.

30) 팽저남은: 팽나무는.

31) 신평남은: 팽나무는.

32) 육고비: 젓부기 삼형제와 너사무너도령 삼형제가 의형제로 서로 결연하였음을 상징하는 종이 무구로 당주에 걸어둠.

33) 솥솥도리: 속들이.

34) 빗전: 붙여서.

35) 초뻘: 첫 번째는.

36) 냉기고: 남기고.

37) 신이성방: 심방을 일컫는 말.

38) 차지는: 차지는.

출릴³⁹) 쏘이⁴⁰) 엇언⁴¹) 농이왓⁴²) 꼭씨⁴³) 들런 제인 들어 제인장젯(--長者-)집 만연 들어 만연장젯집이~ 쏘 훈 뒤(升)를 빌레 가난~, 데미(大米) 쏘엔 데몰레⁴⁴) 소미(小米) 쏘엔 소몰레를 서터주난~,⁴⁵) 집에 오란 초불, 두 불, 제삼 불~⁴⁶) 싯쳐⁴⁷) 농곡 밥 훈 상을 출런 천지왕님 전(前)에 올리난에~ 천지왕님 첫 수꾸락에⁴⁸) 머흘이⁴⁹) 맥힉데다.⁵⁰)

“총명부인님아~, 정성(精誠)은 들엇우다만은 허데, 어떻헤연~⁵¹) 첫 수꾸락에 머흘이~ 맥힉네까?”

“그게 아닙네다~. 우리 고을에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 잘사는 제인 들어 제인장제 만연 들어 만연장젯 집이~ 쏘 훈 뒤 빌레 가민, 엇인 사름덜~⁵²) 가민 묵은 곡식(穀食) 꾸어 주영 세(新) 곡식으로 받곡~, 데미 쏘엔 데몰레~, 소미 쏘엔 소몰레를 서터 놓고, 뒤 알엔⁵³) 굿인 쏘을 놓고~ 뒤 우인⁵⁴) 좋은 쏘을 놓양, 꾸어 줄 떤 까깁⁵⁵) 꾸어 주고 받을 떤 뒤 소복⁵⁶) 받읍네다. 나도 쏘 훈 뒤 빌어다근⁵⁷) 초불, 두 불, 제삼 불을 싯천~ 밥 훈 상을 출렸우덴.”⁵⁸)

허난,

“이 밥이랑 나 두에~ 일천(一千) 명에 저 군스(軍士)~ 삼천(三千) 명에 오천(五千) 명에 저 군졸(軍卒) 시식걸명법을⁵⁹) 마련협서~.”

총명부인님 시식걸명법을 마련헤여두고~, 초경(初更), 이경(二更,) 삼경(三更) 깊은 밤을 지세웁네다~. 뚝날⁶⁰) 아적~⁶¹) 천지왕님이 옥황(玉皇)더레 올라 가젠 허난~ 총명부인님 곤는⁶²) 말이,

“천지왕님아~, 간밤에~ 벤 얘기~ 이름이나 지와 두영⁶³) 갑셴.”⁶⁴)

허난,

“아덜 성제(兄弟) 나건들랑~ 먼저 난 건 데별왕~, 말저⁶⁵) 난 건 소별왕 이름 지웁서. 톨도

39) 출릴: 차릴.
40) 쏘이: 쌀이.
41) 엇언: 없어서.
42) 농이왓: 바가지.
43) 꼭씨: 박씨.
44) 데몰레: 큰 모래(沙).
45) 서터주난: 섞어서 주니.
46) 초불 두 불 제삼 불: 초벌, 두 벌, 세 벌.
47) 싯쳐: 씻어.
48) 첫 수꾸락에: 첫 손가락에.
49) 머흘이: 돌이나 모래가.
50) 맥힉데다: 먹었습니다.
51) 어떻헤연: 어떻게 해서.
52) 사름덜: 사람들.
53) 알엔: 아래에는.
54) 우인: 위에는.
55) 까깁: 깎아.
56) 소복: 수복히.
57) 빌어다근: 빌어다가
58) 출렸우덴: 차렸다고
59) 시식걸명법을: 제사 끝낸 뒤에 제상의 각 제물을 조금씩 떠다 집으로 들어오는 어귀인 올레나 문밖 에 던져 잡신(雜神)을 사귀는 일을.
60) 뚝날: 뚝날.
61) 아적: 아침.
62) 곤는: 말하는.
63) 지와 두영: 지워 두고.
64) 갑셴: 가십시오.
65) 말저: 나중에.

성제 나건들랑~ 먼저 난 건 데털왕~, 말저 난 건 소털왕 이름 지왕, 아방을⁶⁶⁾ 좃이걸랑~⁶⁷⁾ 농이악 콕씨 세 방울~ 주명 삼진 정월(正月) 정해일(丁亥日) 정해일 첫 돛날⁶⁸⁾ 이 콕씨를 심 영~ 훈 콕줄랑 지봉더레⁶⁹⁾ 줄이 벌곡~, 훈 콕줄랑 땅더레~ 발이 벌으건, 아방국을 좃앙⁷⁰⁾ 보 냅센.”

해연 천지왕님은 옥항더레 올르옵데다에~.

총명부인님~ 벤 애긴 나난 아덜 성제(兄弟) 납데다~.⁷¹⁾ 먼저 난 건 데별왕~, 말저 난 건 소 별왕 이름 지왕구나~. 훈 설⁷²⁾ 두 설 예시일곱(六七) 설 넘어가니, 아방국도 ㄷ뿔간다.⁷³⁾ 어멍 국도 ㄷ뿔간다. ㅎ를날은~⁷⁴⁾ 소별왕이 굳는 말이,

“설운⁷⁵⁾ 나 성님(兄-)아~, 읍서.⁷⁶⁾ 우리 수치 꺼깁~⁷⁷⁾ 이기걸랑 이긴 사람 이싱 어멍 츠지 허고, 진 사름은 저싱 아방 츠지허게마씨~.”

“어서 기영 허렌.”⁷⁸⁾

“설운 나 성님아, 어떤 낭은⁷⁹⁾ 동지(冬至) 셋돌~⁸⁰⁾ 설한풍(雪寒風) 백눈(白雪) 우에 입이⁸¹⁾ 떨어지고~, 어떤 낭은 동지 셋돌 설한풍 백눈 우에 입이 아니 떨어지옵네까?”

“설운 나 동싱(同生)아~, 모른 소리 말라. 속이 텅텅 읍은⁸²⁾ 남은~ 입이 아니 떨어지고 속 이 굴인⁸³⁾ 남은 입이 떨어진다~.”

“설운 나 성님~, 모른 소리 맙서. 머구낭광⁸⁴⁾ 가시낭은⁸⁵⁾ 속이 텅텅 읍아도~ 입이 떨어지 곡, 왕데(竹) ㄴ작은⁸⁶⁾ ㄴ디ㄴ디~ 굴어도 입이 아니 떨어지옵네다.”

데별왕이 수치 꺼깁 지엿구나~.

“설운 나 성님아~, 어떻허난 동산에 메(묘)는 쫄르고~,⁸⁷⁾ 굴렁에~ 메는 집네까?”⁸⁸⁾

“설운 나 동싱아~, 비가 오민 동산에~ 건물이⁸⁹⁾ 땅 알더레⁹⁰⁾ 떨어지난~ 동산에 메는 쫄라 지고~, 굴렁에~ 메는 물을 먹으난 메가 질어진다~.”

“설운 나 성님, 모른 소리 맙서~. 우리 인간의~ 머리가 지중⁹¹⁾ 우에라도~ 쉬흔데 자 수페머

66) 아방을: 아버지들.

67) 좃이걸랑: 찾거든.

68) 첫 돛날: 첫 돼지날.

69) 지봉더레: 지봉으로.

70) 좃앙: 찾아서.

71) 납데다: 낳았습니다.

72) 훈 설: 한 살.

73) ㄷ뿔간다: 다뿔다.

74) ㅎ를날은: 하루는.

75) 설운: 서러운.

76) 읍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흔히 서두에 쓰는 표현.

77) 수치 꺼깁: 수수께끼 내기를 하여.

78) 기영 허렌: 그렇게 하라고.

79) 낭은: 나무는.

80) 셋돌: 설달 음력 12월.

81) 입이: 잎이.

82) 읍은: 속이 여문.

83) 굴인: 속이 빈.

84) 머구낭광: 머귀나무와.

85) 가시낭은: 가시나무는.

86) ㄴ작은: 마디(節)는.

87) 쫄르고: 짧고.

88) 집네까: 깊니까.

89) 건물이: 거꾸로 흐르는 물이.

90) 알더레: 아래로.

리 집네다~.”

데별왕이 수치 꺼꺼 지었구나.

“옵서. 우리 꽃씨나⁹²⁾ 심영 꽃빈장이나~⁹³⁾ 헤여 보게.”

“어서 기영 허라~.”

데별왕은 은수반(銀小盤)에~ 꽃씨 들이치난, 불리도 웨 불리⁹⁴⁾ 똥~ 불리 난 딘⁹⁵⁾ 송에⁹⁶⁾ 나고~, 송에 난 딘 가지 번고~, 동(東)더레 번은 가지, 서(西)더레 번은 가지, 남(南)더레 번은 가지, 북(北)더레~ 번은 가지, 중앙(中央)더레 번은 가지~ 스만오천육백(四萬五千六百) 가지가 똥엿구나. 동은⁹⁷⁾ 뭇이난⁹⁸⁾ 꽃은 피엿구나~. 종지만씩, 사발만씩~, 낭푼만씩⁹⁹⁾ 동청목(東靑木)은 서백금(西白金), 남적화(南長壽)는 북화수(北黑水)로구나. 흥번 보민 철년(千年)을 살 듯~, 흥번은 보민 말년(萬年)을 살 듯~, 번성(繁盛)꽃, 환생(幻生)꽃, 생불(生佛)꽃, 가지꽃, 불리꽃이 똥엿구나~.

소별왕이 은수반에 꽃씨를 들이치난, 불리도 웨 불리, 불리 난 딘 송에 나고, 송에 난 딘 가지 번엿구나~. 동은 뭇영 꽃은 핀 건 보난 검뉴울꽃이¹⁰⁰⁾ 똥어지난,

“옵서. 우리 이몽성에 깊은¹⁰¹⁾ 즘을 자게~.”

“어서 기영 허라.”

데별왕은 이몽성에 깊은 즘을 자고, 소별왕~은 여시 즘을¹⁰²⁾ 자앗구나. 소별왕이 먼저 일어나난,

‘나 앞에 꽃사발은 성님 앞더레¹⁰³⁾ 놓고, 성님 앞에 꽃 사발은 나 앞더레 놓앗구나.’

“설운 나 성님아, 즘은 무신¹⁰⁴⁾ 기영¹⁰⁵⁾ 깊은 즘을 잠이우꽈?¹⁰⁶⁾ 일어납~서.”

일어난 보난~,

‘꽃사발이~ 서로 바꿨구나예~.’

꽃사발이 서로 바꾸난~, 데별왕이 곤는 말이,

“나 동싱아, 널로부터 응큼헌 짓 허엿구나. 널랑 이싱 어멍 츠지허라. 날랑 저싱 아방 츠지허마~. 이싱 살젠 허민 살인(殺人), 역적(逆賊)~, 도둑, 방화(放火) 만허리라~.¹⁰⁷⁾ 남자 열다섯~ 넘어가민 늬이¹⁰⁸⁾ 여자 조름¹⁰⁹⁾ 쫓앙 땡기고, 여자 열다섯 넘어가민~ 늬이 남자 조름 쫓앙 땡기리라.”

91) 지중: 가장.

92) 꽃씨나: 꽃씨나.

93) 꽃빈장이나: 꽃구경이나.

94) 웨 불리: 외 뿌리.

95) 딘: 데는.

96) 송에: 송이.

97) 동은: 금방 땡기 시작한 열매는.

98) 뭇이난: 땡으니.

99) 낭푼만씩: 나무푼주만큼. ‘푼주’는 아가리는 넓고 밑은 좁은 너부죽한 그릇을 말함.

100) 검뉴울꽃: 시들어가는 꽃.

101) 깊은: 깊은.

102) 여시 즘을: 충분하지 못한 잠. 깊이 들지 아니한 잠.

103) 앞더레: 앞으로.

104) 무신: 무슨.

105) 기영: 그렇게.

106) 잠이우꽈: 잡니까.

107) 만허리라: 많으리라.

108) 늬이: 남의.

109) 조름: 꿈무니 뒤.

저싱법은 주년 날~ 춤실 7쁜 법이로구나. 이싱농장법이로~ 마련헤니, 삼진 정월 정혜일~ 첫 돛날에 천지왕님 준 농이악 곡씨~ 세 방울을 싱그난에,¹¹⁰⁾ 훈 곡줄은 지붕더레 줄이 번고, 훈 곡줄은 땅더레~ 밭이 번으난, 법으로써 오늘까지~ 우리 제주도는 삼진 정월 정혜일 첫 돛날에 천제 국제~ 포제법(酬祭法)이 마련이 됴엿우다. 데별왕~, 소별왕이 노각성 조부연줄로~¹¹¹⁾ 옥항더레 올라가단 보난, 높은 낭에 세 짐승에 말을 곤곡~, 만물 풀잎십세가¹¹²⁾ 말을 곤곡~, 기어뎡기는 길짐승에 말을 곤고,¹¹³⁾ 우리 인간이 말을 허고 보난, 구신(鬼神) 불려 생인(生人) 대답이요. 생인 불령 구신 대답허니~, 혼돈(混沌)이 세계가 뉘난 세피 7루¹¹⁴⁾ 석 섬 닷 말 칠 세 오 리~ 갖디다근¹¹⁵⁾ 허공더레 뿌리난~, 세 짐승도 말문 닫안 이녁끼리 통역(通譯)허고~, 만물 풀잎십세도~ 말문을 닫안 이녁끼리 통역허고, 길짐승도 말문을 닫안~ 이녁끼리 통역허난, 우리 인간만 말을 주고 받게 허십데다. 그 법으로 신청에 가르메법~¹¹⁶⁾ 마련헤 영 두고, 옥항 올라가니 용에 용상(龍床) 잇입데다~. 용상 우에 올라 타난 용이 용상이~ 우루 룡 우루 룡 올라가니,

“이 용상아, 저 용상아, 아방 타던 용상이로구나~.”

용이 뿔~ 훈짜¹¹⁷⁾ 끊어당 하늘 천저(天帝)님은 연구름을 타는 법입네다. 태국(泰國)의 천저님은 코끼리 용상 타는 법입네다. 우리나라 왕은 용이 용상 타는 법을~ 마련허십데다.

데별왕이 천양(天下) 알을 굶어 보난~, 낮인 뉘난¹¹⁸⁾ 헤가¹¹⁹⁾ 둘이 떠올르난~ 인간 세상에 만민(萬民) 백성(百姓)덜이~ 더워근 좇아¹²⁰⁾ 죽곡, 밤인 뉘난 둘이¹²¹⁾ 두 게(個) 뜨니 인간 세상 만민 백성덜이~ 추워 곳아¹²²⁾ 죽게 뉘어가니~, 데별왕이 천(千) 근 들어 활 훈 데~ 백(百) 근 들어 쌀(矢) 훈 데를 들런, 앞에 오는 헤 하나 맞청~ 헤 하나 쟁겨두곡~,¹²³⁾ 뒤에 오는 헤 하나 쏘아다근 동이 와당에 진도받지고~,¹²⁴⁾ 앞이 오~는 둘 훈 나 쟁겨두곡, 뒤에 오는 둘 하나 받쳐다가~ 서에와당¹²⁵⁾ 진도받지난, 요 하늘엔 헤도 하나~, 둘도 하나 떠옴데다.

하늘 초지는 천지왕님~, 땅 초지는 지부왕님, 데별왕은 저싱법~, 소별왕은 이싱법~, 남정중 화정네(南正重火正黎法)~¹²⁶⁾ 마련허니 인충도 삼백이고, 묘충도 삼백이고, 비충도 삼백이고~ 만물이 영장은 인간입다~. 삼십삼철(三十三天) 도솔천왕(兜率天皇)님도 도업입네다에~.

110) 싱그난에: 심으니.

111) 노각성 조부연줄로: 하늘에 오르내리는 길로서 잡고 오르내리는 줄로.

112) 풀잎십세가: 여러 종류의 풀이.

113) 곤고: 말하고.

114) 세피 7루: 송피(松皮) 가루.

115) 갖디다근: 가져다가.

116) 신청에 가르메법: 제청을 가리는 법.

117) 훈짜: 한짝.

118) 뉘난: 되니.

119) 헤가: 해가.

120) 좇아: 뜨거움이나 더위에 못 견디는 상태를 말함.

121) 둘이: 달이.

122) 곳아: 추워.

123) 쟁겨두곡: 섬겨두고.

124) 진도받지고: 떨어뜨리고.

125) 서에와당: 서쪽 바다.

126) 남정중화정네법: 『사략(史略)』 전옥(顛頊) 고양씨(高陽氏) 항목에서 따온 것. 여기서는 남정중의 예법 또는 다툼의 분한을 구별하는 법.

삼승할망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본풀이

천양불도(天皇佛道) 할마님, 지왕불도(地皇佛道), 인왕불도(人皇佛道), 서카(釋家)산은 서불법여래(如來)신정 맹진국 할마님은 상갑자년(上甲子年) 갑자월(甲子月) 갑저일(甲子日) 갑저시(甲子時) 삼진 정월 초사을날, 어머님 배(腹) 안네서 배울¹²⁷⁾ 일을 다 배완, 훈착¹²⁸⁾ 손엔 번성꽃(繁盛花), 훈착 손에 환생꽃(還生花)을 심어¹²⁹⁾ 금세상에 탄생(誕生)허니, 스월(四月) 초파일(初八日)날은 할마님 남방사주(藍紡紗紬) 봉에바지, 백방사주(白紡絲紬) 적저고리 물명지에¹³⁰⁾ 단속곳 데홍단(大紅緞) 열두 복(幅) 호탄치메,¹³¹⁾ 코짬이 보선,¹³²⁾ 멧지 줄장옷 열두 단추 메고 만산 쪽도리,¹³³⁾ 호양메 감테에 안은 7득 책¹³⁴⁾ 종이, 고운 붓,¹³⁵⁾ 삼천 장에 베릿돌,¹³⁶⁾ 오천 장에 먹을 곶아,¹³⁷⁾ 스월 초파일날 노각성 조부연줄로¹³⁸⁾ 옥황(玉皇)에 올랑 누룩으로 혜성 돌런 벨총당을 무어,¹³⁹⁾ 할마님 문 안네¹⁴⁰⁾ 지국허고,¹⁴¹⁾ 문 베껏디¹⁴²⁾ 구덕삼싱¹⁴³⁾ 걸레삼싱¹⁴⁴⁾ 업게삼싱¹⁴⁵⁾ 거느리난애, 헤튼국은 돌튼국 주리(周圍) 팔만십이제국 마련을 혜영, 산천(山川)이 좋은 집은 아덜을 채급(取扱) 시겨 주저. 산천이 부족헌 집은 톨을 채급시겨 주저. 아방 몸에 힌 피 네리웁곡, 어멍 몸에 감은¹⁴⁶⁾ 피, 움도리 방석, 애미 젓줄 땡경¹⁴⁷⁾ 종이붓을¹⁴⁸⁾ 씨왕, 할마님, 열 둘이 뉘민 할마님은 건지는 벗영 곤지에 걸고, 열두 복 호탄치메 멧지 줄장옷 벗영 간지에 걸어두고, 좋은 이불자리 건어 두영, 복덕자리¹⁴⁹⁾ 깎아근¹⁵⁰⁾ 할마님, 은결 7뜯¹⁵¹⁾ 손으로, 금결 7뜯 손으로 아기어멍 베를 늦똥¹⁵²⁾ 베는 7똥고,¹⁵³⁾ 7똥 베는 늦추와 근 손으로 술술 싹영 팔데문을 열령 청이실이 네리와근 동더레 머리혜영 나민 동부제(東富者), 서더레 머리혜영 나민 서게남(西艱難), 남더레 머리혜영 나민 남장수(南長壽), 북더레 머리혜

127) 배울: 배울.

128) 훈착: 한쪽.

129) 심어: 잡고.

130) 물명지에: 물명주에. 얇은 남빛 명주실로 짠 피륙.

131) 호탄치메: 훌치마.

132) 보선: 버선.

133) 쪽도리: 쪽두리.

134) 안은 7득 책: 책을 안은 모양.

135) 종이 고운 붓: 종이 속에 붓을 놓고 말아서 접은 모양.

136) 베릿돌: 벼루.

137) 곶아: 갈아.

138) 노각성 조부연줄로: 하늘에 오르내리는 길로서 잡고 오르내리는 줄로.

139) 무어: 마련하여.

140) 안네: 안에.

141) 지국허고: 좌정하고.

142) 베껏디: 바깥에.

143) 구덕삼싱: 아기를 낳히는 구덕을 지키는 신.

144) 걸레삼싱: 아기를 업는 멜빵의 수호신.

145) 업게삼싱: 업저지의 수호신.

146) 감은: 검은.

147) 땡경: 당겨서.

148) 종이붓을: 종이처럼 얇은 태(胎)를.

149) 복덕자리: 아이의 해산을 위해 보릿짚을 평평하게 깔아놓은 자리.

150) 깎아근: 깎아서.

151) 은결 7뜯: 은결같은.

152) 늦똥: 느슨한 긴.

153) 7똥고: 느슨하지 않은 짧은.

영 나민 북단맹(北短命)법 마련헤영, 할마님, 네운¹⁵⁴) 아기 초사을 초일레 열 상을 열일뤼, 스 무 상을 스무일뤼, 열다섯⁷⁷진 할마님이 키우고 열다섯이 됨민, 할마님이 무너사는¹⁵⁵) 법입네 다.

할마님은 흐를¹⁵⁶) 천 명, 흐를 만 명 네운 아기덜 돌보단 보난, 흐를날은 혼합천조별금상이 로구나. 흥진국이 데별상님은¹⁵⁷) 책갑(冊匣)지기, 준지(珍珠)지게, 선베후베, 삼만관성(三萬官屬), 육방하인(六方下人) 거느리영 인간에 호명(呼名)주레 네렘구나. 할마님은 덩기단 보난 브름썰에 브름썰에¹⁵⁸) 흥진국데별상 호명주레 네렘덴 허난, 할마님은 지나가난 흥진국데별상을 만났구나.

백 보(百步) 베껏데 업데헤영,¹⁵⁹

“공구허십니다~.”

“할마님은 누게우파?”

“난 인간에 생불(生佛)주는 할마님이우다. 우리 인간에 가민 단똥애기¹⁶⁰) 후손(後孫) 하나 잇이난¹⁶¹) 호명을 주지 마셴.”

헤영, 공구허십네덴 헤연 할마님은 가부렀구나. 흥진국이데별상님은,

‘요 늙은이 막상 헤여도, 핏네¹⁶²) 덩기¹⁶³) 나는 딜로 덩기는¹⁶⁴) 늙은이가 나 7튼 어른한테 인부력, 기부런 헤엿구나.’¹⁶⁵

인간에 오란 보은낭게,¹⁶⁶) 장적문세(帳籍文書), 호적문세(戶籍文書) 비췌 단똥애기 얼굴에 얹혀지고, 틀어지고 오목조목 흥파지엿구나.¹⁶⁷) 할마님은 그 손지(孫子) 안으난,

‘하늘이 높아도 땅엔 비가 내리는 법이고, 어떻허민¹⁶⁸) 영¹⁶⁹) 혈 수가 잇이리. 언젠간 흥번 나한티 굴복(屈伏)혈 때가 잇일테주.’

기다리단 보난, 흥진국이데별상 아덜 낭¹⁷⁰) 컨¹⁷¹) 장게 감구나.¹⁷²) 가마(駕馬) 연불줄 흥애기 소리에¹⁷³) 똥랑 강,¹⁷⁴) 아방 몸에 힌 피, 어멍 몸에 감은 피, 움도리 방석, 애미 젓줄 등 견¹⁷⁵) 종이봇을 씨왕 생불을 주엿구나. 흥진국데별상 메누리는 아긴 베연 열 둘이 똥데다. 테

154) 네운: 낸 해산(解產) 시킨.

155) 무너사는: 물러서는.

156) 흐를: 하루.

157) 흥진국이 데별상님은: 호구별상님은. ‘호구별상’은 천연두 즉 마마를 주관하는 신령이다. 매우 심술 맞고 번덕도 심하여 무속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신임.

158) 브름썰에 브름썰에: ‘브름썰에 구름썰에’의 잘못된 듯함.

159) 업데헤영: 엮드려서.

160) 단똥애기: 무남독녀(無男獨女).

161) 잇이난: 있으니.

162) 핏네: 피 냄새.

163) 덩기: 뒤에 나오는 ‘덩기는’이 먼저 나온 듯함.

164) 덩기는: 다니는.

165) 인부력 기부런 헤엿구나: 어떠한 수작을 하고자 함을 나타내는 말.

166) 보은낭게: 안개.

167) 흥파지엿구나: 흥파지엿구나.

168) 어떻허민: 어떻게 하면.

169) 영: 이렇게.

170) 낭: 날아서.

171) 컨: 커서.

172) 장게 감구나: 장가를 가는구나.

173) 흥애기 소리에: 혼인식을 위하여 가마 행차를 할 때 하인이 길을 비키라고 내는 소리에.

174) 똥랑 강: 따라 가서.

175) 등견: 당겨서.

독 7치¹⁷⁶⁾ 베는 불어도 메누리¹⁷⁷⁾ 애기 나지 못해엔 죽어간다. 흥진국데별상은,
 ‘메누리 죽는 꼴을 어떻 보리.’
 방에 간 문을 중간¹⁷⁸⁾ 근심 걱정해엿구나. 서신국이마누라님은 옥항에 올릅데다. 천앙보살
 님하고 데별상님은 친헌 친구지간이난,
 “나 오랏우다.¹⁷⁹⁾ 우리 메누리 애기 못 난 걱정이우다. 단수육갑(單數六甲) 오용팔관(五行八
 卦)이나 지퍼봅서.”¹⁸⁰⁾
 “할마님 노실(老失)이우다. 멩진국할마님 청헤여당, 메누리 살리곡, 애기 살립센.”
 허난, 집이 오랏구나. 흥진국이 데별상안테 이 말을 곱으난,¹⁸¹⁾
 ‘아차불사 나가 잘못해엿구나. 인간 호명 주레 갈 떼 멩진국할망이엔 헨게 나가 잘못헤어졌
 구나.’
 가젠 허난, 양반이 어떻 가리. 아니 가민 메누리가 죽을 거난, 어떻허리 진양도폭 입어간다.
 청세띠를 띠엿구나. 가막창신을 신언 할마님 사는 먼 문¹⁸²⁾ 베껏디 간 업데헤연,
 “할마님, 과연 잘못헤엿습네다. 나 췌를 용서헤영 우리 집이 강 우리 메누리 살려줍센.”
 은진무릅¹⁸³⁾ 제비 풀련, 두 속¹⁸⁴⁾ 합작헤영, 굽영¹⁸⁵⁾ 일억,¹⁸⁶⁾ 굽영 일억 헤어가난 할마님
 은 넘어가명 옆눈질로 히뜩 보고 넘어오명 힌 눈을 히엿구나.
 ‘여인이 몸이랑 어쩔 수가 었다. 한번 양반은 어떻허느리.’
 모진 강풍(強風)을 불엇더니 청세띠가 클러지어도¹⁸⁷⁾ 업데헌 디 업데헤엿구나.
 ‘양반이 종부레기로구나.’
 “흥진국이 데별상아 집이 가근¹⁸⁸⁾ 데 자 너비, 석 자 두 치, 느람지¹⁸⁹⁾ 솥섭으로¹⁹⁰⁾ 올레
 로¹⁹¹⁾ 무똥¹⁹²⁾ 깎지¹⁹²⁾ 드릴 노렌.”¹⁹³⁾
 허난, 흥진국이 데별상이 집이 오란, 느람지 솥섭으로 데 자 너비 석 자 두 치 올레로 무똥
 깎지 드리를 깎아간다. 할마님은 들어가명 건지는 벗영 곤지에 걸고, 호탄치메 멩지 줄장옷은
 벗영 간지에 걸어두고, 안네 간 보난 이불자리 걸어 텡 북덕자리 깎앗구나. 은결 7튼 손으로,
 금결 7튼 손으로 아기어명 베를 쓸어간다. 늦똥 베는 부뜨와 간다. 부똥 베는 늦추와 가는구
 나. 팔데문을 열령 청이실이 네루완 애긴 네왓더니 굴레 뱃긴 물이¹⁹⁴⁾ 뒤엿구나. 할마님은 집

176) 테독고치: 큰 향아리같이

177) 메누리: 며누리는.

178) 중간: 잠가서.

179) 오랏우다: 왔습니다.

180) 지퍼봅서: 짚어보십시오.

181) 곱으난: 말을 하니.

182) 먼 문: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

183) 은진무릅: 무릎.

184) 두 속: ‘두 손’의 잘못된 뜻함.

185) 굽영: 굽혔다가.

186) 일억: 일어났다.

187) 클러지어도: 풀어져도.

188) 가근: 가면.

189) 느람지: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 .

190) 솥섭으로: ‘느람지’를 깔아놓는 법이라고 함.

191) 올레로: 거릿길 쪽에서 집으로 가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서.

192) 무똥¹⁹²⁾ 깎지: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까지.

193) 드릴 노렌: 다리를 놓으라고.

194) 굴레 뱃긴 물이: 제어할 수 없는 말(馬)이. ‘굴레’는 입 안(口腔)을 나쁘게 이르는 말이니 굴레를 벗
 긴 말이라는 표현은 입에 채운 고삐가 없어서 통제할 수 없이 천방지축이 되었다는 뜻임.

이 오라 보난, 흥진국이 데별상님은 간 보난, 메누린 살려도 손진 굴레 벗긴 물이 뉘난, 할마님한테 다시 간,

“할마님아, 메누리는 살렸우다마는 어땡허난 굴레 벗긴 물이 뉘엿수다.”

“너도 너 손지 얼굴 보고프냐? 나도 나 손지 옛날 얼굴을 보고프덴.”

허난,

“할마님아, 나 기술(技術) 거 강 메꿀만이 메꾸와 보쿠덴.”¹⁹⁵⁾

헤연, 흥진국이 데별상님이 은준지(銀珍珠), 금준지(金珍珠) 석 섬 닷 말 칠세오리 갖영¹⁹⁶⁾ 간 아기 얼굴더레 뿌런 손으로 북북허게 쓸어가난, 오목조목 흥파진 디 다 메꾸와 고운 얼굴이 뉘엿구나. 할마님도 은7세를¹⁹⁷⁾ 갖영 간 콧주덩이¹⁹⁸⁾ 조악허게 거시난¹⁹⁹⁾ 천하도령(天下道令)이 나오데다. 흥진국데별상님이,

“할마님아, 나 기술이 좋덴 헤여도, 할마님 아니 더 험네까? 할마님 공을 어땡 가뜰네까?²⁰⁰⁾ 쉬은데 자 수페머리 끊영 째신을²⁰¹⁾ 삼양 용쟁길²⁰²⁾ 감양 올린들 할마님 공을 다 가뜰 수가 잇십네까?²⁰³⁾ 만리장성을 돌령 두 손 합작헤영 무릅이²⁰⁴⁾ 벗어지도록 허베헌덜상 할마님 공을 다 가뜰 수가 잇십네까? 우리나라 일도도벽 하갑수령(-司令) 주서참봉, 일정싱은 이정싱, 삼정싱은 육판서도 할마님이 네운 애깁네다~. 우리 인간은 할마님이 다 네운 즈순덜 아넵네까? 할마님아 생불꽃(生佛花)을 줍서. 환생꽃(幻生花)을 줍서. 번성꽃(繁盛花)을 줍서.”

삼승할망본풀이>비념

아기 엇영²⁰⁵⁾ 허는 즈순덜 아기 잇게²⁰⁶⁾ 헤여 줍서. 아기 어땡 머리로 발 끝7지, 머리로 손 끝7지 오장육부 삼백 소혈 소테 혈도 굴라 줍서. 피도 굴라 줍서. 자궁에 염짱도 견어 줍서. 움도리 방석에 염짱도 견어그네, 인공수정(人工受精) 받는 애기덜 아기 엇영, 아덜 엇영 허는 집이 선대선조(先代先朝) 부모조상(父母祖上)덜 삼맹일 기일 제스²⁰⁷⁾ 혈 조순, 제스 맹질 때 분(墳)에 분장 잔 올릴 즈순 주쟁 험서. 아덜이민 더 좋고, 똥이민 더 좋수다. 엇인 사람이 피곡석을 굴릅네까. 할마님에서 어땡 베(腹) 안네 들어간 애기 곱게, 곱게 삼 게월(個月) 넘고, 스 게월 넘어가 가민 아기 어땡 베 안네서 크는 데로 아기 어땡 노래게²⁰⁸⁾ 허지 맵서. 나쁜 음식에 탈나게 허지 맵서. 할마님아 아기 어땡 깊은 잠 못 자가민 베 안네 잇인 아기도 깊은 잠 못 자곡 험네다.

곱게 네와주곡 할마님아 오늘 이기서²⁰⁹⁾ 난산국에²¹⁰⁾ 본 푸난, 제주 백성덜 씨집 안 가는

195) 메꿀만이 메꾸와 보쿠덴: 메꿀 수 있는 만큼 메꿔 보겠다고.

196) 갖영: 가지어.

197) 은7세를: 은가위를.

198) 콧주덩이: 콧잔등.

199) 거시난: 건드리니.

200) 가뜰네까: 갇습니까.

201) 째신을: 째신을.

202) 용쟁길: 쟁기를.

203) 잇십네까: 있습니까.

204) 무릅이: 무릎이.

205) 엇영: 엇어서.

206) 잇게: 있게.

207) 제스: 제사(祭祀).

208) 노래게: 놀라게.

209) 이기서: 여기서.

210) 난산국에: 태어난 곳. 혹은 그 내력 본풀이.

즈순덜 씨집 가게 헤여 줍서. 장게 안 간 즈순덜 장게 가게 헤여 줍서.

씨집장게 가도 애기덜 아니 나켄²¹¹⁾ 헤는 즈순덜랑, 할마님, 불 꺼진 날랑 좃앙 강, 생불꽃을 줍서. 환생꽃을 줍서.

오뉴월 장마에 물웨²¹²⁾ 크듯, 물 향아리에 금붕어 크듯이 곱게 잘 크게 헤여 줍서. 아기 곱게 커가건 어린이집도 잘 가고, 유치원도 잘 가고, 초등학교도 가건 앞이명에 너른 이견,²¹³⁾ 듯이명에 빠른 이견 글도 자원허게 험서. 활도 자원허게 험서. 누웁 자당 일어난 양작허게²¹⁴⁾ 허지 맵서. 애기덜 곱게 잘 크꼭 사춘기에 가건들랑 사춘기도 곱게 들어오게 시겨줍센, 영 헤 영 오늘 할마님 난산국에 본을 풀엇습네다에-.

211) 나켄: 날겠다고.

212) 물웨: 물외.

213) 이견: 의견.

214) 양작허게: 소리내어 떼를 쓰는 모양.

구할망본풀이

구할망본풀이>들어가는 말미
동해용궁할마님~, 난산국에 본풀저 험네다.

구할망본풀이>본풀이

아방국은 동해용궁(東海龍宮), 어멍국은 서해요왕(西海龍王) 동해용궁똥님애기는 예산 신구월(-九月) 초아흐렛날 탄생해엿구나.

흔 설 나난 어머님 짓가심 두드린 쥬(罪), 두 설 나난 아버지 삼각수(三角鬚) 거시린 쥬, 세 설 네 설 나난 기어덩기멍 널어놓은 날레²¹⁵⁾ 허튼²¹⁶⁾ 쥬, 다섯으섯 설 나가난 동넷 어룬 말 곱양 곁데답 헌²¹⁷⁾ 쥬,

“너는 불효(不孝) 즈식(子息)이로구나.”

인간 귀양 보네켄 허난,

“어머님아, 나 인간에 가민 어떻게영 샅네까?”

“할망으로 자정(坐定)허라.”

“어떻 생불(生佛) 줍네까?”

“아방 몸에 흰 피, 어멍 몸에 검은 피, 움도리 방석, 애미 젓줄²¹⁸⁾ 똥경 종이붓을²¹⁹⁾ 씨왕 열 둘 감양 차렌.”

허당 보난, 아버지 호통 소리 남구나. 동해와당은 쥬철인²²⁰⁾ 아덜 불러다가 무쇄설갑(鐵石匣) 짜근, 저 바당더레 상거심 조심통쥬²²¹⁾ 질로 절강 증가간다.²²²⁾ 임박사 임부루주 계문계철(開門開鐵)허렌 헤연 데껴부난, 물 우이도²²³⁾ 흥당망당, 물 알에도²²⁴⁾ 흥당망당 떠 뎡긴다.

임박사가 이십 스물, 삼십 서른이 넘어가도 아기 엇어근 호에탄식(後悔歎息)허니, 흐를날은²²⁵⁾ 처녀 물가에 강 백일 불공(百日佛供) 드렸구나. 백일째 되는 날은 바당더레 보난 무쇄설갑이 들물 고게로 올람구나. 혼저²²⁶⁾ 올르난²²⁷⁾ 건전²²⁸⁾ 보난²²⁹⁾ 임박사 계문계철 허렌 허니, 상거심 조심통쥬 열언 보난 앞이멍엔 헛님, 듯이멍엔 들님, 양단 어께 금산세벌 백힌 듯헌 꼬딱헌²³⁰⁾ 아기씨가 잇엇구나.

“아기씨는 누게파?”²³¹⁾

215) 날레: 별을 찌기 위하여 멍석에 널어놓은 곡식.

216) 허튼: 흐트러뜨린.

217) 곁데답 헌: 바르게 하지 않은 대답을 한.

218) 젓줄: 젓줄.

219) 종이붓을: 종이처럼 얇은 태(胎)를.

220) 쥬철인: 무쇠장이는.

221) 상거심 조심통쥬: 큰 빗장으로 채우는 자물쇠.

222) 증가간다: 잠근다.

223) 우이도: 위에도.

224) 알에도: 아래도.

225) 흐를날은: 하루는.

226) 혼저: 재빠르게.

227) 올르난: 올라가서.

228) 건전: 건져서.

229) 보난: 보니.

230) 꼬딱헌: 고운.

231) 누게파: 누구십니까.

“나는 인간에 생불할망으로 오랏우덴.”

허난,

“우리 두갇이²³²⁾ 오늘까지 살아도 아기 엇영²³³⁾ 호이탄복(後悔歎服) 헤염수다.”

아방 몸에 힌 피 네리운다. 어멍 몸에 감은 피, 움도리 방석, 애미 젓줄, 종이붓을 씨완 열
들이 다 뉘엇구나. 베는 테독²³⁴⁾ 불엇인디, 애긴 열로²³⁵⁾ 네우는²³⁶⁾ 법은 아니 베우난, 겁
질에 처녀 물가에 간 데성통곡(大聲痛哭) 울어간다. 임박사는 각시 죽을 때가 뉘어가난, 진양
도폭 청세띠 금바랑(金啍囉) 옥바랑(玉啍囉) 들렁, 동악산(東惡山)은 서악산(西惡山), 남악산(南
惡山)은 북악산(北惡山) 올라근 금바랑 소리, 옥바랑 소리 옥항에 올리난 옥항상저(玉皇上帝)
님은,

‘인간에서 처량헌 바랑소리가 올라오람구나.’

지부스천왕(地府四天王)을 불러놓고,

“고요한 인간 세상에서 처량헌 바랑 소리가 나난 천양 알을²³⁷⁾ 둘러보라.”

천양 알을 둘러보니,

“임박사 각시 애기 베연, 애기 못 난 죽을 사경이 뉘엇우덴.”

허난, 멩진국이 뜨님아기 불러간다.

“강,²³⁸⁾ 임박사 각시 애기 네와동 오렌.”

허난, 멩진국에 뜨님아긴 춤실 은²³⁹⁾ 갓영²⁴⁰⁾ 네렛구나. 임박사 각시 아기 네와두고 처
녀 물가이 넘어 가단 보난, 꽃 ²⁴¹⁾ 아기씨가 데성통곡헤연 울엄구나.

“아기씨는 무사²⁴²⁾ 이디²⁴³⁾ 앓안²⁴⁴⁾ 데성통곡 울엄수꽂? 어멍허난²⁴⁵⁾ 아기썩 이기²⁴⁶⁾ 오랏
인디²⁴⁷⁾ 놀핏네가²⁴⁸⁾ 남수꽂²⁴⁹⁾ 난 임박사 각시 애기 네와동 감수덴.”

허난, 놀려 들언²⁵⁰⁾ 아기씨 머리,

“이년, 저년, 죽일 년, 잡을 년~ 데동통편에 청뎃섭에²⁵¹⁾ 목 걸령 죽일 년아, 네가²⁵²⁾ 벤 애
긴디 너가 네왓느냐?”

니 머리, 나 머리 하도 튼언 싸와가난,

“오라,²⁵³⁾ 우리 싸우지 말앙, 하늘 옥항에 올라가게.”

232) 두갇이: 부부(夫婦)가.

233) 엇영: 없어서.

234) 테독²³⁴⁾: 큰 향아리같이.

235) 열로: 어디로.

236) 네우는: 해산(解産)하는.

237) 알을: 아래를.

238) 강: 가서.

239) 은²³⁹⁾: 은가위.

240) 갓영: 가지고.

241) 꽃 ²⁴¹⁾: 꽃 같은.

242) 무사: 왜.

243) 이디: 여기.

244) 앓안: 앉아서.

245) 어멍허난: 어떻게 해서.

246) 이기: 여기.

247) 오랏인디: 왔는데.

248) 놀핏네가: 피비린내가.

249) 남수꽂: 납니까.

250) 놀려들언: 날려들어.

251) 청뎃섭에: 푸른 대나무 앞에.

252) 네가: 내가.

하늘 옥항에 올라가난, 옥항상저님한테 가난~, 사실 말을 곱았구나.²⁵⁴ 얼굴도 꺾따지고,²⁵⁵ 말도 꺾따지난,

“난 니네덜 구별(區別) 못헤기여.”²⁵⁶

은수반(銀小盤)을 네여 논다. 꽃씨를 심으렌 허난, 맹진국떡님아기 꽃씨 심으난, 불리²⁵⁷) 난 디 송에²⁵⁸) 나고, 송에 난 딴 가지 번고 가지 번으난, 동더레, 서더레, 남더레, 북더레, 중앙더레 번은 가지, 동은 못영²⁵⁹) 꽃은 피난 종지만씩, 사발만씩, 낭푼만씩²⁶⁰) 철년(千年)을 살 듯, 말년(萬年)을 살 듯, 동청목(東靑木), 서백금(西白金), 남적화(南赤花), 북하수(北黑水) 동더레 번은 가지, 스만오천육백(四萬五千六百) 가지, 번성꽃(繁盛花), 생불꽃(生佛花), 환생꽃(還生花), 가지꽃이 뒤엇구나.

동해용궁떡님아기 은수반에 꽃씨 심으난, 불리도 웨 불리, 송이도 웨 송이, 가지도 웨 가지, 동은 못영 꽃은 피난 검뉴울꽃이²⁶¹) 뒤엇구나.

옥항상저님이 꽃빈장²⁶²) 헤엇구나. 맹진국떡님아기랑 인간 생불 할망으로 들어사고, 동해용궁떡님아기랑 저싱할망으로 들어사렌 허난, 놀려 들언 상가지 꽃을 오독톡허게 꺼졌구나.²⁶³ 맹진국떡님아기 곤는²⁶⁴) 말이,

“동해용궁떡님아기야, 무사 상가지 꽃을 오독톡허게 꺼끔시니?”

“나도 저싱 가민 얻어먹어사 뉘 거난, 배(腹) 안네 생불 주영 놔두민 석 돌 백일 안네 피로 싯쳐, 물로 싯쳐 네리게 허고, 데으섯 돌 넘어가민 어멍 배 안네서 숨도 끊어지게 헤여불고, 어멍 배 배꽃데 네우민, 초사흘, 초일레 넘어가민 낮역시²⁶⁵) 꺾치,²⁶⁶) 밤역시 꺾치 우는 정끼(驚氣), 자는 정끼, 경짱(驚症), 경썰(驚勢) 불려주영 얻어먹고, 아기가 웃으민 웃은 깡,²⁶⁷) 도리도리허민 도리도리헌 깡, 손뺍 치영 짝짜꿍, 줌메줌메허민²⁶⁸) 그 깡을 얻어먹고 앓이민²⁶⁹) 앓인 깡, 기어뎅기민 기어뎅긴 깡, 사민²⁷⁰) 산 깡, 걸으민 걸음 걸은 깡 얻어먹켄.”

허난,

“걱정허지 말라. 동해용궁떡님아기야, 아기 어멍 뚫든²⁷¹) 치메 저고리도 네어주마. 아기 어멍 애기 업영 뎅기렌 걸레도 네어주마. 샷지생기도²⁷²) 네어주마. 오라. 우리 니영나영 화궐(和解)허게.”

253) 오라: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흔히 서두에 쓰는 표현.

254) 곱았구나: 말했구나.

255) 꺾따지고: 같아지고.

256) 못헤기여 ; 못하겠다.

257) 불리: 뿌리.

258) 송에: 송이.

259) 동은 못영: 열매가 맺혀.

260) 낭푼만씩: 나무푼주만큼. ‘푼주’는 아가리는 넓고 밑은 좁은 너부죽한 그릇.

261) 검뉴울꽃이: 시들어 가는 꽃이.

262) 꽃빈장: 꽃구경.

263) 꺼졌구나: 꺾었구나.

264) 곤는: 말하는.

265) 낮역시: 아기가 낮에 울며 보채는 행동.

266) 꺾치: 같이.

267) 깡: 값.

268) 줌메줌메허민: 짹짹하면.

269) 앓이민: 앓으면.

270) 사민: 서면.

271) 뚫든: 땀에 젖은.

272) 샷지생기도: 기저귀도.

맹진국똥님아기 받던 잔은 동해용궁똥님아기 받고, 동해용궁똥님아기 받던 잔은 맹진국똥님아기 잔을 받았, 일부 훈 잔 화취해엿습네다.

동해용궁똥님아기 난산국을²⁷³ 풀엿습네다. 하다 이 악심(惡心) 들게 허지 맙서. 아기덜 낮역시, 밤역시 우는 정끼, 자는 정끼, 경징, 경썰 허게 허지 맙서. 누웁 자당 일어난 올게 허지 맙서. 애기덜 숨 넘어 가게 허지 맙서. 피로 싯쳐, 물로 싯쳐 네리게 허지 맙센, 영 헤영,

구할망본풀이>비년

난산국을 풀엿습네다. 동해용궁똥님아기 오늘 상 받아근 청쫓독에 청스룩도²⁷⁴ 걷고, 소쫓독에 백소룩도 걷고, 탁쫓독에 흑스룩도 걷고, 남우광데 질테 스룩을 다 걷어근 물똥²⁷⁵ 좋고, 쉼똥²⁷⁶ 좋고, 유기전답(鎡器田畝) 좋은 달로 테역²⁷⁷ 단풍(丹楓) 좋은 달로 전송허정 허옵네다.

훈 설 적에 간 아기, 두 설 적에 간 아기, 세 설 적에 간 아기, 네 설 적에 간 아기, 다섯 설에 간 아기, 으섯 설에 간 아기, 일곱 설에 간 아기, 으덟 설에 간 아기덜, 아홉 설에 간 아기덜, 열 설에 간 아기, 열흔 설, 열두 설, 열세 설, 열네 설, 열다섯 설에 간 아기덜 덩기다근,²⁷⁸ 풀잎에 세잎에 체영²⁷⁹ 간 아기덜, 병원에 갓당 간 아기 네창에서 물에 빠정 거리에서 사고 만남 간 아기덜, 오늘 잘 악심 들게 허지 말앙, 인정(人情)²⁸⁰ 잘 받았, 요 멧질(魅-)로²⁸¹ 풀어네자. 천양(天皇) 가민 열두 멧질, 지왕(地皇) 가민 열흔 멧질, 인양(人皇) 가민 아홉 멧질, 동이 가민 청메(靑魅), 서이 가민 백메(白魅), 남이 가민 적메(赤魅), 북에 가민 흑메(黑魅), 중앙 황심메, 정월이라 상상 멧질, 이월이라 영등 멧질, 삼월이라 삼진 멧질, 스월이라 초파일 멧질, 오월이라 단오 멧질, 유월이라 유두 멧질, 칠월이라 칠석 멧질, 팔월이라 추석 멧질, 구월이라 봉운 멧질,²⁸² 시월은 단풍 멧질, 동짓들은 자리 알에 깔린 멧질, 육선들은 자리 우이 깔린 멧질, 방안방안, 구억구억²⁸³ 묻어진 멧질랑 물똥, 쉼똥, 유기전답 좋은 달로 잘 전송헷네다예. <다 풀엿습네다>

273) 난산국을: 태어난 곳. 혹은 그 내력 본풀이를.

274) 청스룩도: 일이 안 되게 하는 사기(邪氣)도.

275) 물똥: 말똥.

276) 쉼똥: 소똥.

277) 테역: 잔다.

278) 덩기다근: 다니다가.

279) 체영: 치어서.

280) 인정(人情): 굿을 할 때 신에게 바치는 돈, 옷, 지전(紙錢) 등.

281) 멧질(魅-):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도둑질, 싸움, 살인 등을 일으키게 하여 손해를 주는 사기(邪氣).

282) 봉운 멧질: '맹두 멧질'이라고 함. 맹두는 심방이 조상으로 모시는 무구로 신칼, 산판, 요령을 말함.

283) 구억구억: 구석구석.

초공본풀이

초공본풀이>들어가는 말미

초공 임정국 삼시당 하나님~, 난산국에 본을 풀져 험네다~. 성은 서씨로 신축생(辛丑生)입네다. 연주단발(剪爪斷髮) 신영백무(身嬰白茹) 은진무를 제비 꿀렸습네다. 난산국에 본을 풀건 제느립서예~.284)

성진(姓親) 땅은 황금산(黃金山)~ 주접선성(朱子先生)님, 웨진(外親) 땅은 천하(天下) 임정국 데감, 지에(地下) 내려 짐진국 부인님, 이 산 압은²⁸⁵⁾ 밭이 벌고, 저 산 압은 줄이 벌어, 왕데 월산 금하늘~ 노가단풍즈지맹왕아기씨, 원구월 초여드레(初八日) 본맹두, 신구월 여레드레(十八日) 신맹두, 삼구월 스물으드레(二十八日) 살아살축 삼맹두, 젯부기 삼형제, 남천문밖 유정싱(柳政丞) 딱님아기 초공은 신불리로²⁸⁶⁾ 난산국입네다예~.287)

초공본풀이>본풀이

옛날 옛적 천하 임정국 데감님 샅데다. 지에 내려 짐진국 부인님이 샅음데다. 남당법당 유기전답(鎡器田畝) 좋음데다. 네 귀에 풍경(風磬) 들런 동풍(東風)이 불민 서풍이 왕강신강, 서풍(西風)이 불민 동풍이 왕강신강, 늦인덕 정하님 거느리어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 잘 살아나난, 이십스물, 삼십서른 넘어도 남녀간에 아기 엇언²⁸⁸⁾ 호오탄복(後悔歎服) 허십데다.

흐를날은 임정국이 데감님, 삼천선비 일만선비 바둑 장게 노념놀이 허난, 그 바둑 장게 다 따난 걸추(傑出)헌 선비가 굳는²⁸⁹⁾ 말이,

“임정국 데감님아, 아기 엇인 돈을 경²⁹⁰⁾ 땅²⁹¹⁾ 강²⁹²⁾ 뭐 험 거뵈?”²⁹³⁾

영 허난, 임정국 데감님 두던 바둑 장게 두어 될 네령 오랏구나.

오단 보난 높은 낭에²⁹⁴⁾ 세 짐승이²⁹⁵⁾ 세길 궤완 먹이 물어단 오조조 일럼구나.

‘나도 뵈 못헌 세²⁹⁶⁾ 가막세도²⁹⁷⁾ 세끼 낭 오조조 일럼구나.’

네령오단 보난 황천데국(仰天大笑) 웃음소리가 낮구나. 간 보난 피조리 초막살이²⁹⁸⁾ 돌쩌귀 거적문²⁹⁹⁾ 둘안³⁰⁰⁾ 얻어먹는 게와시덜³⁰¹⁾ 사는 집이로구나. 창꼬냥³⁰²⁾ 툇란³⁰³⁾ 쏘안 보난, 아

284) 느립서예: 내립서.

285) 압은: 앞은.

286) 신불리로: 신의 뿌리로.

287) 난산국입네다예: 본디 태어난 곳과 그 내력입니다.

288) 엇언: 없어서.

289) 굳는: 말하는.

290) 경: 그렇게.

291) 땅: 따서.

292) 강: 가서.

293) 뭐 험 거뵈: 무엇을 할 것입니까.

294) 낭에: 나무에.

295) 세 짐승이: 새 짐승이.

296) 세: 새.

297) 가막세도: 까마귀도.

298) 피조리 초막살이: 아주 형편이 안 되게 없어서 지은 초막(草幕)살이.

299) 거적문: 문짝 대신에 거적을 친 문.

300) 둘안: 달아서.

301) 게와시덜: 거지들.

302) 창꼬냥: 창구멍.

303) 툇란: 뚫어서.

방 앞이 잇인³⁰⁴ 애기 어멍안티 가민 황천데국(仰天大笑) 웃음 웃고, 어멍안티 잇인 애기 아방안티 가난 황천데국(仰天大笑) 웃음 웃엄구나.

‘날만 못헌 얻어먹는 게와시도 아이 세끼 하나 난 웃엄구나. 나도 집이 가민 웃을 일 잇일 테주.’

임정국 데감님 집더레 내려오십데다예~. 내려오난~ 늦인덕 정하님은 안상노기(安城鑰器) 도 용칠반상(統營漆飯床)을 출련³⁰⁵ 들어간,

“상전님아 밥 먹읍서.”

밥을 아니 먹으난 짐진국 부인님이,

“이 밥 먹읍서. 웃을 일이 잇입네다.”

그 밥을 먹엇구나. 앞데자를 열어 논다. 은단팽(銀丹瓶)에 서단마게³⁰⁶ 막앗구나. 소라만단지, 능화도비(菱羅塗壁), 각진장판(角壯壯版)에 둥그려도 웃음이 아니 나오랏구나예~.

동계남(東觀音)은 은중절, 서계남(西觀音)은 상세절, 낭계남(南觀音)은 녹농절, 북하산은 미양안동절 푼처³⁰⁷ 지컨 데서(大師)님 하늘 7큰³⁰⁸ 굴송낙(-松絡), 지에 7큰 굴장삼(-長衫), 아강베포, 직부잘리,³⁰⁹ 호름준치,³¹⁰ 백파염줄(百八念珠) 목에 걸고 금주랑 철쭉데를³¹¹ 지편³¹² 금세상(今世上)에 권제(勸齋) 받으레 네립데다.

동으로 들언 서으로 나고, 서으로 들언 동으로 나고~, 뒤로³¹³ 받을 댜 흡으로 받으멍, 권제를 받았구나. 주년국 땅 네령 임정국 데감, 김진 짐진국 부인님 사는 집 알더레³¹⁴ 도느리며,³¹⁵

“소승은 절이 뵈네다.”

“어느 절당에 데섭네까?”

“동계남에 은중절에 살암수다. 서계남은 상세절 낭계남은 녹농절, 북하산 미양안동절에 사암네까?”

“어찌하여 이곳을 네립데까?”

“권제를 받으레 네렸우다. 권제를 받아단 헌 당(堂), 헌 절을 수리허고 멍(命) 없는 이 멍을 주저. 복(福) 없는 이 복을 주저. 생불(生佛) 없는 즈순은 생불을 주저.”

권제를 받으레 네렸우덴 허난, 임정국 데감 짐진국 부인님 높이 들러 낮이 스르르,

“헌 방울이 떨어지민 멍도 떨어질 듯 험네다. 복도 떨어질 듯 험네다.”

권제를 네어 주난 데서님은 나고 가난, 임정국 데감 짐진국 부인님 곧는³¹⁶ 말이,

“데서님아, 우리 부베간³¹⁷ 원천강(袁天綱) 스주팔저(四柱八字) 고남³¹⁸ 헤여봅서. 원천강

304) 잇인: 있는.

305) 출련: 차려서.

306) 서단마게: 마개. ‘서단’은 앞의 ‘은단’에 맞춘 조운(調韻).

307) 푼처: 부처.

308) 7큰: 가린.

309) 아강베포 직부잘리: 종이 들고 다니는 자루.

310) 호름준치: 종이 들고 다니는 자루.

311) 철쭉데를: 죽장(竹杖) 지팡이.

312) 지편: 짚어서.

313) 뒤로: 되로.

314) 알더레: 아래로.

315) 도느리며: 내리며. ‘도’는 조운(調韻).

316) 곧는: 말하는.

317) 부베간: 부부.

318) 고남: 사주팔자 따위를 가늠하다.

스주팔저에 아기 엇영 무유유화(無爲而化) 허렌 현 팔저파? 아니민 영급(靈給) 좋은 법당에 강³¹⁹⁾ 불공 드려 애기 잇일 팔저펜?”

영 허난, 단수육갑(單數六甲) 지퍼간다. 오용팔관(五行八卦) 지퍼건 곤는 말이,

“임정국 데감님, 짐진국 부인님아, 아기 엇언 무유유화허렌 현 팔전 아닙네다. 영급 좋은 법당에 강 불공 드려 봅서. 아기가 잇을 듯 험니덴.”

헤연, 데서님은 권제를 받았 절간 법당(法堂)더레 소곡소곡³²⁰⁾ 올라가십데다예~.

임정국 데감 짐진국 부인님 강모디는³²¹⁾ 강나룩, 수답(水畚)이는 수나룩, 모답이는 모나룩을 심엇구나. 상백미(上白米), 중백미(仲白米), 웨백미(下白米) 착쓸 엇이³²²⁾ 출려 간다. 가삿베(袈裟-)도 구만 장, 송낙베(松絡-)도 구만 장, 드리베도 구만 장, 물멩지,³²³⁾ 강멩지(-明紬), 세양페, 세미녕,³²⁴⁾ 고리비단,³²⁵⁾ 한비단, 능화도비(菱羅塗壁) 가문 암쇄³²⁶⁾ 마바루에 바리바리 실러트구나. 금마답에³²⁷⁾ 수리 두고,³²⁸⁾ 올레에 막음 두고, 첩첩삼중(疊疊山中)더레 소곡소곡 올라가십데다예~.

가단 보난 싱근 돌에,³²⁹⁾ 몰팡돌에³³⁰⁾ 잇엇구나. 쉬언 잇이난 법당 안네서 데서님이 속 하인 불러 간다.

“네눈이반동게가³³¹⁾ 양반은 보민 네 발을 주꾸고,³³²⁾ 중인 보민 두 발을 들렁 주꾸고, 하인을 보민 누영 주꾸는 네눈이반동게가 드리쿵쿵 네쿵쿵 주팠구나. 먼 올레 나고 보라. 어느 양반잇 덕에서 오랏이니?”

소사중은 먼 올레 나고 보난, 싱근 돌에 몰팡돌이로구나.

“소승은 절이 뺨네다. 어느 양반잇 덕에서 불공을 옹데가?”

“너히에 절간 법당에 영급이 좋덴 헤연, 불공을 오랏구나.”

“안드로 들어옵서.”

안드로 들어간다. 갓영 간 거 은분체에³³³⁾ 도금³³⁴⁾ 물려 놓고, 상탕(上湯)에 메를 짓고, 중탕(中湯)에 모욕(沐浴)허고, 하탕(下湯)에 수족(手足) 씻천 돌아올 땐 월광(月光)님도 사나사나, 지어갈 땐 일광(日光)님도 사나사나, 중천비단 당돌님 세양상 받안 옹던 옥계천신 일월님도 사나사나, 백일(白日) 불공(佛供)을 드렸구나. 백일제 뉘는 날이난 데서님이 나오랏구나.

“임정국 데감님아, 짐진국이 부인님아, 오늘은 백일제가 뉘엇우다. 꼬까막 은저울데³³⁵⁾ 저우리영 백 근이 차면은 아들이 나고, 백 근이 못 차민 여즈식이³³⁶⁾ 날 듯 허십네다.”

319) 강: 가서.

320) 소곡소곡: 거침없이 앞으로 걸어가는 모양.

321) 강모디는: 강답(-畚)은. 건답(乾畚) 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곧 마르는 논.

322) 착쓸 엇이: 쪼개진 쌀알 없이.

323) 물멩지: 물명주(-明紬). 얇은 남빛 명주실로 짠 피륙.

324) 세미녕: 무명.

325) 고리비단: 고리 무늬 비단.

326) 가문 암쇄: 검은 암소.

327) 금마답에: 마당에.

328) 수리 두고: 잠가서 봉한 표지를 하고. 흔히 ‘감봉수레 하고’라고 말함.

329) 싱근 돌에: 심은 돌에.

330) 몰팡돌에: 하마석(下馬石)에.

331) 네눈이반동게가: 두 눈에 반점이 있어 네 눈이 달린 것처럼 보이는 개가.

332) 주꾸고: 짓고.

333) 은분체에: 은부처에.

334) 도금: 돈(錢)과 금(金).

335) 꼬까막 은저울데: 까마귀 주둥이 같은 갈퀴에 달아매도록 만들어진 은저울(銀衡) 대추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함.

꼬까막 은저올데로 저우리난 백 근이 못 찾구나.

“출령 온 거 하영 출령 오라도 정성이 백 근이 못 차난, 여즈식이 날 듯 험네다. 내려가건 합궁일(合宮日)을 받안 천상베필(天上配匹) 무어³³⁷⁾ 봅서. 여즈식이 날 듯 허십네다.”

이 말을 들으난, 푼처님전 절 삼베(三拜) 올려두고, 금마답에 수리 두고, 올레에 막음을 두 언 첩첩산중(疊疊山中) 네령오라 간다.

네려오단 보난 हे는 열락서산(日落西山)에 다 지엇구나. 이 밤, 저 밤, 야사생경, 깊은 밤이 어욱페기³³⁸⁾ 으지혜연³³⁹⁾ 무정눈에³⁴⁰⁾ 즘을³⁴¹⁾ 자난, 꿈에 선몽(現夢)이 뒤엇구나.³⁴²⁾ 앞이멍엔 헤님이여. 뒷이멍엔 돌님이여. 양단 어께 금산세별 벳힌 듯 아기씨로구나. 물알에³⁴³⁾ 옥돌 7튼³⁴⁴⁾ 아기씨로구나. 가마귀 젓놀게³⁴⁵⁾ 7튼 아기씨가 콤안터레³⁴⁶⁾ 들어오랏구나. 일어난 보난 꿈이로구나.

나가건 해몽산에 간 해몽(解夢)을 해엿구나. 집이 오란 합궁일(合宮日)을 받았구나. 부베간에 천상베필(天上配匹)을 무우난에 석 돌 열흘 백일이 당허난, 짐진국이 부인님이 전에 먹던 밥도 아니고, 전에 먹던 장도 아니고, 물도 아니로구나.

“늦인덕이 정하님아, 어평허난 밥에는 골네가³⁴⁷⁾ 나고, 장에는 장칼네가³⁴⁸⁾ 나고, 물에는 펄네가³⁴⁹⁾ 나고, 입던 옷엔 뚝네가³⁵⁰⁾ 나암구나.”³⁵¹⁾

일곱여덟, 아홉열 둘이³⁵²⁾ 당헤엿구나. 아기씨가 나압데다.³⁵³⁾

“늦인덕 정하님, 먼 올레 나고 보라. 떼는 어느 떼고?”

늦인덕이 나간 먼 올레 나산,³⁵⁴⁾ 저 산더레 보난 구시월이 단풍이 지엇구나.

“상전님아, 상전님아, 구시월 단풍이 지엇우다.”

이 아기랑 이 산 압은³⁵⁵⁾ 발이 번고, 저 산 압은 줄이 번고, 왕데 월산 금하늘로 노가단풍 쯔지멩왕아기씨로 이름을 지와간다.

흔 두 설은³⁵⁶⁾ 넘어간다. 에시일곱 설 넘어간다. 상다락에 노념헌다. 중다락에 노념헌다. 하다락에 노념헌다. 열다섯 십오세 왕구녁이 차앗구나.³⁵⁷⁾

‘천하 임정국 데감님, 천하 베실³⁵⁸⁾ 살레웁서. 지에 내려 짐진국이 부인님, 지에 베실 살레

336) 여즈식이: 여자식이.

337) 무어: 뗏어.

338) 어욱페기: 역새포기.

339) 으지혜연: 의지하여서.

340) 무정눈에: 무정하게 감긴 눈에.

341) 즘을: 잠을.

342) 뒤엇구나: 되엇구나.

343) 물알에: 물아래.

344) 옥돌 7튼: 옥돌 같은.

345) 젓놀게: 날개.

346) 콤안터레: 품안에.

347) 골네가: 군내가. 본래의 맛이 변하여 나는 좋지 않은 냄새가.

348) 장칼네가: 묵은 장에서 나는 냄새가.

349) 펄네가: 물비린내가.

350) 뚝네가: 땀 냄새가.

351) 나암구나: 나는구나.

352) 둘이: 달(月)이.

353) 나압데다: 태어났습니다.

354) 나산: 나가서.

355) 압은: 앞은.

356) 설은: 살(歲)은.

357) 왕구녁 차앗구나: 혼인을 할 나이가 다 되엇구나.

옵서.’

펜지(便紙) 답장(答狀)이 오랏구나. 부베간이 탄복(歎服)을 허십데다.

“아덜이나 ㄱ뜨민³⁵⁹ 책실(冊實)로나 데령 갈 꺼 여즈식이라 어떻허민 좋고? 늦인덕 정하님 아, 우리덜 천하 베실, 지하 베실 살레강 오쿠메, 우리덜 강 올 동안 아기씨 궁 안네에 밥을 주고, 옷을 주고, 키와주민 우리덜 천하 베실, 지하 베실 살앙 오민 종반역³⁶⁰ 시겨주켤.”

허난.

“기영 험서.”³⁶¹

아기씨 궁 안네 놓앗구나. 마흔으둑 모람장, 서른으둑 백굴장, 스물으둑 고무살장,³⁶² 아방 중근³⁶³ 열쇄 어멍 갓영 간다. 어멍 중근 열쇄 아방 갓영 간다. 상거심 조심통쇄³⁶⁴ 놓아두고 천하 베실, 지하 베실 올라가십데다예~.

황금산(黃金山)이로구나. 삼천선비, 일만선비 바둑 장계 노념놀이 허단 걸추(傑出)헌 선비가 굳는 말이,

“일출동경(日出東嶺)에 두둥실 떠엇구나. 저 둘은 잘도 곱다.”

황금산 주접선성(朱子先生)님 굳는 말이,

“저 둘은³⁶⁵ 곱기는 고와도, 가지 계수나무 박힌 듯 허십네다. 저 둘보다 더 고운 아기씨가 금세상에 커엄수덴.”³⁶⁶

허난,

“본메 본짱³⁶⁷ 갓영 오겟느냐?”

“갓영 오쿠덴.”

허난, 주접선성님은 하늘 ㄱ른³⁶⁸ 굴송낙, 지에 ㄱ른 굴장삼,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 백파염줄(百八念珠) 목에 걸고, 손에 단줄(短珠)을 심고, 하늘 ㄱ른 금주랑 철쭉데를 지평 촌 촌(村村), 각리각리(各里各里) 동으로 들언 서으로 나고, 서으로 들언 동으로 나고, 뉘로³⁶⁹ 받을 떼 흡으로 발안 권제(勸齋)를 받으며 임정국 데감, 짐진국 부인 사는 디 먼 올레 오란,

“소승은 절이 뵙니다.”

“아이고 늦인덕이 정하님아, 먼 올레 나고 보라. 아바님이 오는가? 어머니가 오는가? 워낭 소리가 나암구나.”

늦인덕 정하님 먼 올레 나고 보란, 하늘과 ㄱ뜩헌³⁷⁰ 관장이 잇구나. 안네 가건,

“상전님아, 큰상전님은 아니 오고, 하늘과 ㄱ뜩헌 데서님이 오랏우다.”

“말문이나 들어보앗느냐?”

“아니 들어보앗우다.”

358) 베실: 벼슬.

359) ㄱ뜨민: 같으면.

360) 종반역: 종의 신분을 벗김.

361) 기영 험서: 그렇게 하십시요.

362) 마흔으둑 모람장 서른으둑 백굴장 스물으둑 고무살장: 기메의 하나인 ‘살장’을 다양하게 부르는 명칭임.

363) 중근: 잠근.

364) 상거심 조심통쇄: 큰 빗장으로 채우는 자물쇠.

365) 둘은: 달(月)은.

366) 커엄수덴: 크고 있다고.

367) 본메 본짱: 증거가 되는 사물.

368) ㄱ른: 가리는.

369) 뉘로: 되로.

370) ㄱ뜩헌: 가득한.

“강³⁷¹⁾ 말문이나 들어봐 오렌.”

허난, 먼 올레 나간,

“소승은 절이 뵈네다.”

“어느 절당에서 옵데가?”

“동계남은 은중절, 서계남은 상세절, 남계남은 녹농절, 북하산은 미양안동절 폰쳐 지컨 데서 님이고, 우리 법당에 당도 파락(破落)이 뵈고,³⁷²⁾ 절도 파락이 뵈언³⁷³⁾ 권제를 받아단 현 당, 현 절 수리(修理)허저. 우리 법당에 오랑 불공 드런 난 아기씨 노가단풍즈지맹왕아기씨가 금년 열다섯 멍(命)도 부족혈 듯, 복(福)도 부족혈 듯 헤연 권제 받으레 네렛습네다.”

안네 강 상전님한티 곱으난,³⁷⁴⁾

“난 문 안네 잇어부난 못 갈 꺼난 늦인덕이 정하님아, 나 데신 권제를 강 네어주렌.”

허난, 늦인덕 정하님,

“권제를 받으셧.”

나가난,

“늦인덕 정하님 뵈로 주는 거, 상전님 흡으로 주는 거 맞살³⁷⁵⁾ 수가 엇우덴.”

허난, 안네 강 곱으난,

“강 곱으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하 베실, 지하 베실 살레 가명 문 증가동³⁷⁶⁾ 가부난 못 나가켜 곱으라.”

강 곱으난,

“상전님안티 강 들어봅서. 그 문을 올민³⁷⁷⁾ 나올 수 잇우펜.”

허난, 강 곱으난,

“이 문만 올민 나가³⁷⁸⁾ 나가지켄.”

허난, 황금산(黃金山) 주점선성(朱子先生)님은 하늘 옥향 도성문 열려옴던 금정옥술발 천양낙뿔³⁷⁹⁾ 둘러 받안 흥번을 둘러 치난 천하가 요동(搖動)허고, 두 번을 둘러 치난 지하가 요동허고, 삼세 번을 둘러 치난 마흔으둑 모람장, 서른으둑 백골장, 스물으둑 고무살장, 상거심 즈심통췌 질로³⁸⁰⁾ 절강허게 열어지난, 아기씨는 하나님아 불 켜가? 청너울을 둘러 씨고³⁸¹⁾ 지에 님이 불 켜가? 흑너울을 둘러 씨고,

‘아니 보던 중 얼굴이사 무사 뵈우리아.’³⁸²⁾

백너울을 둘러 췌, 권제 받안 소곡소곡 먼 정에³⁸³⁾ 나옴데다~.

“데서님아, 흔착³⁸⁴⁾ 손은 어디 갓습네까?”

“흔착 손은 하늘 옥향에 단수육갑(單數六甲)을 지프레 갓습네다.”

371) 강: 가서.

372) 뵈고: 되고.

373) 뵈언: 되어서.

374) 곱으난: 말하니깐.

375) 맞살: 맞설.

376) 증가동: 잡가서.

377) 올민: 열면.

378) 나가: 내가.

379) 금정옥술발 천양낙뿔: 요령(搖鈴).

380) 질로: 절로.

381) 씨고: 쓰고.

382) 뵈우리아: 보여주겠느냐.

383) 정에: 정남에 대문 대신 가로 걸쳐놓는 길고 굽직한 나무.

384) 흔착: 한쪽.

“니 점괘랑 물었느냐? 나 점괘랑 물었느냐?”

“보점괘랑 물었우다. 높이 들러 낮이 스프르, 혼 방울이 떨어지민 멩도 떨어집네다. 복도 떨어집네다.”

권제를 높이 들러 낮이 스프르 비와 가난, 다 비와 가난 전뎛귀³⁸⁵⁾ 잘락허게 놓아부난, 권제 쓸은 땅 알더레 다 떨어지엇구나. 은수저를 내어주멍,

“방울방울 좃어놉서. 혼 방울 떨어지민 멩도 떨어집네덴.”

헤연, 혼 방울씩 좃어 가난 난데엇는³⁸⁶⁾ 손이 나오랏구나. 손으로 혼번, 두 번, 삼세 번을 머리 거시려³⁸⁷⁾ 가니 줌막줌막³⁸⁸⁾ 삼세 번을 노래난,³⁸⁹⁾

“이 중, 저 중, 궤심헌 중, 양반이 집이 권제 못 받으레 덩길 좋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알민 청뎛섭에³⁹⁰⁾ 목 걸령 죽일 좋아.”

“후욕(詬辱)몹서. 노욕(累辱)몹서. 석 들 열흘 백일이 뉘어가민 나 생각에 무디무디³⁹¹⁾ 날 꺼우다. 그때라근 황금산 주접선성 철쭉데 7³⁹²⁾ 보멍 읍셴.”

허난,

“늦인덕이 정하남아, 저 중 곤는 말 피아곡절(必有曲折)허다. 장삼기도 끊어오라. 송낙기도 끊영 오라. 장삼기 송낙기 끊영 오난, 젓가심더레 콤영³⁹³⁾ 저 중안티 요문이나 더꺼동 가렌.”

허난, 하늘 옥항 도성문 올려 읍던 금정옥술발 천항낙훤 둘러 발안 혼번을 둘러 치난 천하가 요동(搖動)허고, 두 번을 둘러 치난 지하가 요동허고, 삼세 번을 둘러 치난 상거심 즈심통 쉼 질로 절강 증가지엇구나. 데서님은 권제를 받아근 절간 법당더레 소곡소곡 올라가십데다 예~.

올라가난 석 들 열흘 백일 뉘어가난 전이 먹던 밥이 아니로구나.

“늦인덕이 정하남아, 어뎡허난 먹던 밥에는 골네가³⁹⁴⁾ 나고, 먹던 국에는 장칼네가 나고, 먹던 물에는 펄네가 나고, 입던 옷엔 뎡네가 남시니? 아이고 연드레도³⁹⁵⁾ 먹구져라.³⁹⁶⁾ 여미체(五味子)도 먹구져라.”

늦인덕 정하남 상전님 살리젠 송동바구니 옆에 끼언 굴미굴산 아야산을 신산곳을³⁹⁷⁾ 도올랏구나. 높은 낭에³⁹⁸⁾ 열매랑³⁹⁹⁾ 딸 수가 엇이난,

“멩천 7⁴⁰⁰⁾ 뜯하날남아, 모진 강풍(強風) 혼 주제만 불어 줍서. 높은 낭에 열매 떨어지민 좃영 강 우리 상전님 맥연⁴⁰¹⁾ 살리쿰덴.”

허난, 모진 강풍이 혼 주제 부난 높은 낭 열매가 떨어지언 송동바구니에 좃언 오란,

385) 전뎛귀: 전대(纏帶) 끄트머리.

386) 난데엇는: 난데없는.

387) 거시려: 건드려.

388) 줌막줌막: 움찔움찔. 놀래는 모양.

389) 노래난: 놀래니깐.

390) 청뎛섭에: 푸른 대나무 가지에.

391) 무디무디: 마디마디.

392) 7³⁹²⁾: 금 또는 흔적.

393) 콤영: 품어서.

394) 골네가: 군내가. 본래의 맛이 변하여 나는 좋지 아니한 냄새가.

395) 연드레도: 연다래도.

396) 먹구져라: 먹고 싶어라.

397) 굴미굴산 아야산을 신산곳을: 깊고 깊은 산 속을.

398) 낭에: 나무에.

399) 열매랑: 열매를.

400) 멩천 7⁴⁰⁰⁾: 멩천(明天) 같은.

401) 맥연: 먹여서.

“상전님아, 상전님아, 요거 먹언 살아납서.”

먹어가난,

“남네⁴⁰²⁾ 낭⁴⁰³⁾ 못 먹키어. 풀네⁴⁰⁴⁾ 낭 못 먹키어.”

아흠열 들은 나가난 눈은 곰박눈이⁴⁰⁵⁾ 뉘어지고, 코는 물똥코가 뉘어지고, 베는 두둥베가 뉘어두고, 발이 동동발 뉘어가난,

“아기씨 상전님 죽을 때가 뉘엇구나. 천하 임정국 데감님아, 천하 베실 삼 년 살 꺼 석 들에 마치고,⁴⁰⁶⁾ 석 들 살 꺼 단 사흘에 마천⁴⁰⁷⁾ 읍서. 죽은상전님 죽을 때가 뉘엇우다. 지에 짐진국 부인님아, 지에 베실 삼 년 살 꺼 석 들에, 석 들 살 꺼 단 사흘에 마깡⁴⁰⁸⁾ 읍서. 죽은상전님 죽을 때가 뉘엇습네덴.”

허난,

“비롯 여식이주만은 우리가 불공 드련 낱안 애기로구나. 삼 년 베실 석 들, 석 들 베실 단 사흘 마깡 예~ 천하 베실, 지에 베실 마깡 내려오는 질입네다.”

아바님은 아바님 방더레 들어갓구나. 어머님은 어머니 방에 들어갓구나.

“늦인덕 정하님아, 아바님안테 신신문안(現身問安) 가져. 어떻허민 뉘코?”

“남부모에 여즈식이난 은상식(銀裝飾)도 드리 놓서. 분상식(粉裝飾)도 드리 놓서. 헤거울, 들 거울, 몸거울 놓서.”

다 놓앗구나. 풀 써근 치메⁴⁰⁹⁾ 입언 소곡소곡 걸언,

“아바님전 신신문안입네다.”

“아이고 나 뜰애기야, 눈은 무사 곰박눈이?”

“아바님이 오는가? 어머님이 오는가? 멘날⁴¹⁰⁾ 멘날 창꼬냥으로 눈을 쏘안 보난 곰박눈이 뉘엇우다.”

“코는 무사 물똥코가 뉘엇이니?”

“아바님이 오는가? 멘날 울단⁴¹¹⁾ 코 나오민 코 풀단 보난 물똥코가 뉘엇우다.”

“베는 무사 두둥베가 뉘엇이니?”

“늦인덕 정하님이 종반역⁴¹²⁾ 시켜주켄 허난, 흠으로 허단 뉘⁴¹³⁾ 삼식(三食) 헤부난, 베는 두둥베가 뉘엇우다.”

“발은 무사 동동발이 뉘엇이니?”

“아바님이 오는가? 매일 매일 발을 동글동글 구르단 보난 동동발이 뉘엇우다.”

“아이고 나 뜰애기 착허다. 어멍안티 가라.”

“늦인덕 정하님아, 어멍안틴 어떻 가코?”

“여부모에 여즈식 무신 탈이 잇입네까?”

402) 남네: 나무 냄새.

403) 낭: 나서.

404) 풀네: 풀냄새.

405) 곰박눈이: 곰박 같은 눈이. ‘곰박’은 국자 모양으로 만들되 우묵한 바닥에 구멍을 송송 뚫어서 물에 삶은 떡 따위를 건지는 데 쓰는 조리 기구.

406) 마치고: 마치고.

407) 마천: 마쳐서.

408) 마깡: 마쳐서.

409) 풀 써근 치메: 풀 먹인 치마.

410) 멘날: 매일.

411) 울단: 울다가.

412) 종반역: 종의 신분을 벗김.

413) 뉘: 되.

은상식 분상식 두리 아니 놓고, 풀 째 치메 입언 자직자직,
“선신문안입네다예~.”
“아이고 나 툐아, 눈은 무사 곰박눈이 뻬이니? 코는 무사 물똥코가 뻬이니? 베는 무사 두둥
베가 뻬엇고? 발은 무사 동동발이 뻬엇이니?”
아방안티 곤는⁴¹⁴ 데로 그데로 ㄱ난,⁴¹⁵
“아이고 필아곡절(必有曲折)허다. 나도 헤 본 일이로구나.”
젓가슴을 헤천 보난 핏줄이 사앗구나.
“아이고 요년아, 저년아, 양반이 집이 스당(祠堂)공쟁이⁴¹⁶ 나앗구나. 궁 안네도 브름이 들
어서냐?”
앞뵈디랑 작두를 걸어간다. 뒷뵈디는 버텅을⁴¹⁷ 걸어간다. 쯔각(刺客)놈을 불려다 놓고 아기
씨 상전님 목에 큰칼을 씨앗구나. 늦인덕 정하님이 곤는 말이,
“큰상전님아, 큰상전님아, 족은상전님은 아뭇 쥬도⁴¹⁸ 엇우다. 날 죽입서. 나가 종이 심부름
잘못헤엇우다.”
아이고 경 허민 요년 죽이젠, 늦인덕 정하님 큰칼을 씨와가난, 아기씨 상전님 곤는 말이,
“어머님아, 어머님아, 종이 무신 쥬파? 나가 상전으로 심부름 잘못 시킨 쥬가 나를 죽이렌.”
허난,
“이거 아니 뻬로구나. 은데양을⁴¹⁹ 갖영 오라.”
은데양을 갖영 오난 물을 놓앗구나. 은젓가락을 놓안 베(腹) 안터레⁴²⁰ 보난 종이 애기가 삼
형제가 잇구나.
“이거 혼 목심⁴²¹ 죽이젠 허단, 다섯 목심 죽여질로구나.”
아방 눈에 골리난다.⁴²² 어멍 눈에 골리난다.
“흔저 나고가렌.”
허난, 아바님안티 선신문안(現身問安) 간,
“아바님아, 아바님아, 살암십서예~.”
“나 툐아가야, 느네 어멍 허는 일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나 아기가, 가당 못 넘어갈 데랑
금봉체⁴²³ 하나 주멍 요거 두리 놓안 넘어가렌.”
허고 어머님한테 강,
“어머님아 살암십서.”
“아이고 혼 시도 뻬기⁴²⁴ 싫다. 나고가렌.”
허난, 혼 설, 두 설, 열다섯 설까지 입던 옷 가문 암체에 시꺼 놓고, 늦인덕 정하님광 ㄱ
씨⁴²⁵ 먼 올레 나산 가단 보난 산에 불이 와랑와랑 부뻬구나.

414) 곤는: 말하는.

415) ㄱ난: 말하니.

416) 스당(祠堂)공쟁이: 양반의 집에 흉한 일이 생겼음을 뜻함.

417) 버텅을: 형들을.

418) 쥬도: 죄도.

419) 은데양을: 은대야를.

420) 안터레: 안에.

421) 목심: 목숨.

422) 눈에 골리난다: 눈 밖에 난다.

423) 금봉체: 금부채.

424) 뻬기: 보기.

425) ㄱ씨: 같이.

“늦인덕 정하님아, 저건 어떤 냇이꽈?”

“부모 놓아 텨 자식 먼저 놓아 노난, 부모 가심에 불 부뜨는 냇이우다.”

애산에⁴²⁶ 불 부뎡구나. 관관세⁴²⁷ 드리도 넘어간다. 가단 보난 굴렁에 진 물이 동산더레
찰랑찰랑 치데끼난,

“저건 어떤 냇이꽈?”

“저거는 부모 놓아동 자식 먼저, 먼저 나오난 건 물 거신 드리⁴²⁸ 뵈네다.”

요 드리도 맞아져 가는구나. 청일산(靑日山)이 당허난 청일산을 넘어간다. 청수와당(靑水海)
을 넘어가젠 허난, 금봉체 드리 놓안 청수와당을 넘어간다. 백일산(白日山)이 당허엿구나. 백
일산을 넘어간다. 백수와당(白水海)이 당헤연 금봉체 드리 놓안, 백수와당을 넘어간다. 건지산
이 잇구나. 머리 따왕 아기 베민 늡도 뵈기서랑⁴²⁹ 아닐 뵈로구나. 건지 여쨌 건지산을 넘어
간다. 수삼철 리(邃三千里) 낙수와당이 당헤엿구나. 가문 암쇄 지장(黍)밭디⁴³⁰ 들어간다.

“아이고 아기씨 상전님, 수삼철 리 넘어가젠 허난, 넘어가지 못헤연 관디청 눈물이로나.”

서산백옥(瑞山白玉) 그뜬 양지, 주옹아방 연주지듯 비세 그치⁴³¹ 울멍, 울멍 무정눈에⁴³² 즙
을 자난, 요왕에 거북이가 선몽(現夢)을 시겼구나.

“상전님아, 나 상전님 집이 키우던 강아진데, 나 죽으난 바당더레 던지난 거북이 환싱(幻生)
헤엿우다. 상전님아 혼저 일어납서. 나 등더레 돌아지민 수삼철 리 낙수와당을 넘어 안네쿠다
예~.”

일어난 보난 옆이 거북이가 잇엇구나. 거북이 등에 넘언 수삼철 리 낙수와당을 넘엇구나.
백몰레왓⁴³³ 넘어간다. 늦인덕 정하님이,

“상전님아, 상전님아, 가문 암쇄 늡이 지장밭디 들엇우덴.”

허난,

“아이고 예펜년 본 말랑 본 디 버리라. 들은 말랑 든 디 버리라.”

후육노육(詬辱累辱)허엇구나. 문이 당헤엿구나. 문이 넘어가젠 허난 호탄치메 벗언 훌훌이
버련⁴³⁴ 문에 인정 걸어두고, 늦인덕 정하님 여덜 폭 치메 입엇구나. 네 폭 씩 갈라 입언 황
금산(黃金山)더레 철쭉데 그 못 보멍⁴³⁵ 조심조심 올라가는구나. 올라가 가난 황금산 주접선성
(朱子先生)님은,

“소사야, 소사야, 먼 올레 혼저 네어 걸라. 장삼도 네어 걸라. 송낙도 네어 걸라.”

먼 올레 데문더레 딱허게 걸엇구나. 황금산에 올라간 안네 들어간 절을 소곡 허난,

“후육허고 노육혈 뎡 어떻게연디 나를 좇안 옹데가?”

나를 좇안 오랏거난 츠나룩⁴³⁶ 세 동이 주멍,

“요걸 강, 깡⁴³⁷ 오렌 착쓸 엇이⁴³⁸ 까렌.”

426) 애산에: 애달프게.

427) 관관세: 마르고 마른 띠.

428) 거신 드리: 거스른 다리.

429) 뵈기서랑: 보기 싫어.

430) 지장(黍)밭디: 기장 밭에.

431) 비세 그치: 비새(悲鳥)같이. 비새는 제비보다 조금 큰 새로 비가 올 때 잘 운다고 함.

432) 무정눈에: 무정하게 감기는 눈에.

433) 백몰레왓: 하얀 모래밭.

434) 버련: 찢어서.

435) 그 못 보멍: 흔적을 보면서.

436) 츠나룩: 찰벼.

437) 깡: 까서.

438) 착쓸 엇이: 쪼개진 쌀알 없이.

허난, 상전님 손으로 까젠 허난 손톱 아판 못 까고, 입으로 까가난 니빨 아판 못 까고, 비세 ㄱ치 울엇구나. 무정눈에 즘을 자난 하늘에 부영세, 땅 알에 도닥세, 알 땅에 노념세, 밧 땅에 시념세, 열두 복 호탄치메 베련 열두 문에 인정 걸언 놋두난 청나비, 백나비로 환싱헌 듯 동 입부위에⁴³⁹⁾ 다 앓았구나. 일어낭,

“주어 저 세.”

세달은⁴⁴⁰⁾ 날아가명 체는⁴⁴¹⁾ 문딱⁴⁴²⁾ 날아갓구나. 착쓸 엇이 갓연 들어가난,

“공은 들엇구나. 쥐가 들어구나만은 중은 두갓⁴⁴³⁾ 출령 안 삽니다. 시왕 연주데 내려두고, 고분연줄에 내려두고 불도땅에 강 몸 갈릅센.”

헤엇구나.

“예~, 조상님네 시왕고분연줄더레 제느릅니다~.”

불도땅에 네렸구나. 원구월은 초오드레(初八日)가 당허난, 본맹두가 솟아나저. 알로⁴⁴⁴⁾ 나젠 허난 아버지 못네 본 ㄱ못,⁴⁴⁵⁾ 어머니 ㄴ단 좃쟁이로⁴⁴⁶⁾ 나오랏구나. 본맹두도 원이자랑, 원이자랑. 신구월 여레드레(十八日) 당허난 신맹두가 솟아나저. 알로 나젠 허난 아버지 못네 본 ㄱ못, ㄴ단 좃쟁인 큰성님 나오랏구나. 웬 좃쟁이로⁴⁴⁷⁾ 나오난 신맹두도 원이자랑. 삼구월 스물오드레(二十八日) 당허난 살아살축 삼맹두가 솟아나젠 허난, 알로 나젠 허난 아버지 못네 본 ㄱ못, ㄴ단 좃쟁인 설운 큰성님 나고, 웬 좃쟁인 셋성님이 나고, 어머니 젓가슴 헤천 살아살 맹두가 솟아나니, 본맹두도 원이자랑, 신맹두도 원이자랑, 삼맹두도 원이자랑 이 아기덜 키왔구나.

흔 설, 두 설, 예시일곱 설이 당헤엇구나. 눈이나 티와보젠⁴⁴⁸⁾ 삼천서당에 보네젠 허난, 돈이 엇엇구나. 젓부기 삼형제 큰성님은 굴목에⁴⁴⁹⁾ 강 굴목지기로, 셋성님은 물지게 지영 물 지어 오고, 족은아신 훈장님 옆이 앓안 먹을 굴아간다. 넘어가명 흔 자(字) 배웁곡,⁴⁵⁰⁾ 넘어오명 흔 자 배웁곡, 붓도 엇고 종이도 엇이난 저녁에 올 떼민 굴목에 굼데로⁴⁵¹⁾ 제를 흙팡 손바닥으로 딱딱 놀령 하늘천 따지 배완, 맨날 집이 온 건 보민 젓부기 삼형제 옷에 제만 부쩍 오난 이름은 젓부기 삼형제로 이름을 지왔구나예~.

이름을 지완 흐를날은 잇이난, 넘어가명 들으난 서울상경 과거덜 본덴⁴⁵²⁾ 허난 집이 오란,

“어머님아, 어머님아, 삼천서당에 삼천선비, 일만선비 과거보레 간덴 험수다. 우리도 과거강 오쿠덴.”

허난 ,

“아이고 나 아기덜 왕레노쉐(往來路需) 엇언 어떻게 가코? 아이고 나 아기덜.”

어명 품삭헌⁴⁵³⁾ 거 흔 냥 썩 주난, 서울상경더레 올라가는구나. 삼천선비, 일만선비

439) 동 입부위에: 동이 전두리.

440) 세달은: 새들은.

441) 체는: 겨는.

442) 문딱: 모두.

443) 두갓: 부부.

444) 알로: 아래로.

445) ㄱ못: 금 또는 흔적. 여기서는 여성의 성기를 의미함.

446) ㄴ단 좃쟁이: 오른쪽 겨드랑이.

447) 웬 좃쟁이로: 왼쪽 겨드랑이로.

448) 눈이나 티와보젠: 글을 깨우친다는 뜻 정도임.

449) 굴목에: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

450) 배웁곡: 배우고.

451) 굼데로: 부지깽이로.

452) 본덴: 본다고.

“젯부기 삼형제가 서울상경더레 올라가노렌.”

허난, 황금산(黃金山)이 신령이로구나. 데서님이 앞이 가는 선비덜 과거 낙방헤연, 뒤에 가는 젯부기 삼형제 과거급제 헬로구나.⁴⁵⁴ 봄 비애기도⁴⁵⁵ 차 갓연 허젠 허민, 자우공논(左右公論)이 잇는 법이라. 삼천선비 일만선비덜이,

“우리가 젯부기 삼형젤 데령 가민, 과거를 못헬직허다.”

가단 보난, 베(梨)나무 베자수 집잇엇구나.

“우리 젯부기 삼형제 베낭⁴⁵⁶ 우터레 올려동 가게.”

젯부기 삼형제한티,

“느네덜 베낭 우에 강, 베 탕 오민 우리 왕네노섭 보테주켤.”

허난,

“기영 험서.”

삼천선비덜 굽은 디 굽어, 굽은 디 굽엿 젯부기 삼형제 베낭 우터레 올려두언 서울상경더레 올라가는구나예~.

삼천선비 서울상경 올라가명 동문도 잡앗구나. 서문도 잡앗구나. 남문도 잡앗구나. 붓전에 다 거두와 간다. 종이전에 먹전에 돈딱 거두볼엇구나.

젯부기 삼형제는 높은 낭에 올라가난, 올라가도 못허고 내려오도 못헤엇구나. 깊은 밤이 뉘니 황금산이 영급 신령으로 청룡(靑龍), 황룡(黃龍)이 얼켜진 듯 틀어진 듯 저서 꿈에 선몽(現夢)이 뉘엇구나. 일어나난 꿈이라. 나오란 보난 무지력 실총각덜이⁴⁵⁷ 높은 낭에 올랐구나.

“구신이나? 생인이나? 구신(鬼神)이건 옥항더레 올르고 생인(生人)이건 내려오렌.”

허난,

“우리덜은 젯부기 삼형제입네다. 삼천선비 께에⁴⁵⁸ 이 나무에 올라오란, 올라가도 내려가도 못헤염수다.”

“아이고 설운 애기덜아, 바지 다님을⁴⁵⁹ 클르라.”

바지 다님을 클르난, 베가 와르랑허게 알더레 떨어지엇구나. 사다리 놓안,

“흔저⁴⁶⁰ 내려오렌.”

허연 내려오난,

“나 아기덜 중간에 들언 고생헤엇구나. 흔저 서울상경더레 올라가라예~.”

서울상경더레 올라간다. 동문, 서문, 남문 다 잡아볼엇구나. 가단 보난 청만주에미가⁴⁶¹ 느다 들러 웨어, 웨어 들러 느다 질을 갈라가난 필아곡절(必有曲折)허다. 청비게, 백비게, 어러비게⁴⁶² 법은 마련헤여 두고, 강 보난 풋죽할망집이⁴⁶³ 잇엇구나. 들어간 풋죽 흔 사발씩 사 먹언 이 말, 저 말 할망이영 말 굴단 헤는 다 지난 젯부기 삼형제 시왕 청버들낭⁴⁶⁴ 알에 오

453) 품삭헌: 품삯을.

454) 헬로구나: 할 것이구나.

455) 비애기도: 병아리도.

456) 베낭: 배나무.

457) 무지력 실총각덜이: 무지렁이총각들이. 머리를 풀어헤친 총각을 얹잡아 부르는 말.

458) 께에: 께에.

459) 다님을: 대님을.

460) 흔저: 어서.

461) 청만주에미가: 푸른 뱀이.

462) 청비게 백비게 어러비게: 시왕맛이 할 때 긴 천을 이용하여 제장의 천장 등에 여러 방향으로 감고 연결하는 장식.

463) 풋죽할망집이: 팔죽할머니 집에.

464) 청버들낭: 버드나무.

란 헤트랭이 걸러지었구나.⁴⁶⁵⁾

그날 저녁에 황금산(黃金山)이 신령으로 선몽(現夢)을 헤엿구나.

“어저께 오라난 애기덜 아침이 오랏걸랑 꾀죽 쑤웁 뽕그랭이⁴⁶⁶⁾ 맥이고, 종이전에, 붓전에, 먹전에 강 다 구헤다 주언, 그 애기덜 쓴 글을 웨손지 상서관에 들어갈 때랑 상서관 무릅팍 알더레 놔주렌.”

꿈에 선몽(現夢)이 뒤엇구나. 일어난 보난 꿈이로구나. 허꿈 잇이난 젓부기 삼형제가 오랏구나. 꾀죽 쑤웁 뽕그랭이 맥연 종이영, 붓이영, 먹이영 네여 주난 큰성님은 천지혼합 천도천왕, 셋성님은 천지계벽 지도지왕, 족은아신 제청도업 인도인왕. 천지인 굽을⁴⁶⁷⁾ 갈랏구나. 그거를 써 주난 웨손진 물을 지언 상서관에 들어간 상서관 무릅팍 알더레 놓앗구나. 삼천선비, 일만선비 과거를 보앗구나. 과거를 보아동 과거 줄 선비는 아니 오랏구나. 상서관 무릅팍 알더레 베레보난,

“천하 명필이여, 이거는 누가 썼느냐?”

서로가 보멍 트렌트렌허난,⁴⁶⁸⁾

“이거 쓴 사름 데령오민 느네덜 과거 주켤.”

허난, 삼천선비, 일만선비 곤는 말이,

“요거는 젓부기 삼형제 쓴 글이 맞다.”

젓부기 삼형제 좃단 보난, 시왕 청버들낭 알에 헤트랭이 걸러지었구나.

“니네덜 상서관에서 오렌 햄저.”

가난,

“이거는 너네가 쓴 글이냐?”

“우리가 쓴 글입네다.”

헌번 써보렌 허난, 발가락에 꼽안 이레 활락, 저레 활락 허난,

“기특헌 선비로구나. 이만허민 과거 줄만허다.”

큰성님은 문선급제(文選及第), 셋성님은 장원급제(壯元及第), 족은아덜은 팔도도자원(八道都壯元)으로 급제를 주엇구나.

“어떻허난 양반이 애기덜은 중이 아니 주고, 애기, 중이 애기덜은 과거를 줍네까?”

“어떻헤연 중이 아기덜인줄 알겠느냐?”

“베옥상을 출려 줍서. 알아볼 도리 잇습네덴.”

허난, 베옥상을 출려 주난 이것, 저것 다 먹어도 술허고, 도세기 궤긴⁴⁶⁹⁾ 아니 먹언, 상 알더레 놓앗구나.

그 법으로 우리 심방덜은 그떼에 과거를 못 받으난 큰곳을 가나, 족은곳을 가나, 문전철갈이⁴⁷⁰⁾ 가민 책상궤 앞이 공깃상 받으는 법입네다.

과거 낙방이 뒤엇구나. 연주문(延秋門) 맞히민 과거를 주켤 허난, 삼천선비, 일만선비 연주문을 맞히지 못헤엇구나.

“우리덜 헌번 기술이나 부려보쿠다.”

465) 헤트랭이 걸러지었구나: 벌러덩 누웠구나.

466) 뽕그랭이: 배불리.

467) 굽을: 경계를.

468) 트렌트렌허난: 이해할 수 없어 의아해 하는데.

469) 도세기 궤긴: 돼지고기는.

470) 문전철갈이: 철강이는 계절제(季節祭)로 ‘뱃철성’이라고 부르는 사신(蛇神)을 모시고 있는 집에서 부(富)를 기원하며 행해짐.

“어서 기영 허렌.”

허난, 큰성님은 우이 맞히고, 셋성님은 알에 맞히고, 족은아시 초동 전동(靑銅) 7튼 풀따지⁴⁷¹⁾ 걸어간다. 봉에 눈을⁴⁷²⁾ 부릅뜬다. 화살데를 딱 노난 연주문이 와실랑허게 씨어지엇구나.⁴⁷³⁾

“이만헤여도 중이 아기덜 과거 줄만 허다.”

큰성님은 문선급제(文選及第), 셋성님은 장원급제(壯元及第), 족은아신 팔도도자원(八道都壯元)이로구나. 청일산도 네여 논다. 흑일산도 네여 논다. 어수예(御史花), 비수예, 삼만관속(三萬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피리단절, 옥단절, 비비동당 과거헤여근 네령 오라간다.

삼천선비, 일만선비덜은 집이 먼저 내려오랏구나. 노가단풍즈지멩왕아기씨 궁에 아덜 삼형제 너무 벌란허게⁴⁷⁴⁾ 날덴 헤여, 물멩지 전데(纏帶)로 목을 걸러단 지픈 궁은 야튼 궁, 삼천전제석궁에 가두왓구나. 늦인덕 정하남아 출병막(出兵幕)을 출렸구나. 물멩지 단속옷 하나 출병막을 놓아 멘드라두고 품펜지를 주멍,

“너네 상전덜 저 과거 돌려동 오민 너네 종반역⁴⁷⁵⁾ 시겨주켤.”

허난,

“어서 기영 협서.”

머리 풀언 산디지께기로⁴⁷⁶⁾ 머리 무끄고 치메 저구리 입어건 어주예, 삼녹거리에, 서강베포 땅에 가얏구나. 젓부기 삼형제도 과거헤연 어주예,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에서 만나난,

“아이고 상전님네 과거렌 허는 말이 뭇 말이파? 큰상전님은 그제켤 날 죽언, 어제켤 날 출병막을 출련, 오늘 품펜지 갖영 오랏우덴.”

허난,

“어멍, 어멍, 우리 어멍, 아방 엇인 우리덜 키와건, 아이고 어멍 엇인 이가 걸리믄 무얼 허리?”

청일산도 보네여 간다. 어수예, 비수예, 삼만관속, 육방하인, 피리단절, 옥단절, 행금,⁴⁷⁷⁾ 주테 모두 돌려두고 아방 엇인 우리 킵젠 허난 존심 밋음 먹엇구나. 동더레 벌은 머구냥⁴⁷⁸⁾ 끊어간다. 행건 벗언 우 튼⁴⁷⁹⁾ 두건 씨고, 두루막 벗언 옷독지에⁴⁸⁰⁾ 걸려 메연, 품펜지 콤에 콤고,

“어덜가코?⁴⁸¹⁾ 어덜가코?”

웨진 땅을 좇안 가난, 임정국 데감, 짐진국 부인님 가마문을 아니 열어주엇구나. 베석(拜席) 자리 네여 낳, 이걸 깎아⁴⁸²⁾ 놓안 절을 허렌 허난 절을 헤엿구나.

“아이고 나 아기덜, 나 아기덜, 느네 어멍 좇일컬랑⁴⁸³⁾ 느네 아방 좇앙 가라.”

471) 풀따지: 팔뚝.

472) 봉에 눈을: 봉황새처럼 동그랗게 부릅뜬 눈을.

473) 씨어이엇구나: 쓰러졌구나.

474) 벌란허게: 요란하게.

475) 종반역: 종의 신분을 벗김.

476) 산디지께기로: 발뽀질.

477) 행금: 거문고. 거문고는 삼국사기에 거문고는 중국 진(晉)나라의 칠현금(七絃琴)을 고구려의 왕산악(王山岳)이 개조하여 만든 악기인데 이를 연주하자 검은 학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 그래서 이름을 현학금(玄鶴琴)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현학금(玄鶴琴)을 줄여 현금(玄琴)이라고도 한다.

478) 머구냥: 머귀나무.

479) 우 튼: 위가 트인.

480) 옷독지에: 어깨에.

481) 어덜가코: 어디로 갈까.

482) 깎아: 깔아서.

“우리 아방은 누계짜?”

“느네 아방은 황금산(黃金山) 주점선생(朱子先生)이여. 황금산에 느네 아방 좃앙 가렌.”

허난, 나오젠 허난,

“나 아기덜, 이거 갖영 가라.”

베석자리 네여 주난, 신자리 법 마련허고 황금산더레 올라가단 보난, 너사무너도령 삼형제
가 비세(비치)484) 올엄구나.

“느넨 무사 이디485) 앓안486) 올엄시니?”

“우리는 아무도 엇영487) 우리벳기488) 삼형제벳기 엇우다.”

“아이고 우리영 ㄱ든 팔저(八字)로구나. 요레489) 오라. 요레 오라.”

어머니 출벳막 출린 건 물맹지 단속웃 갖영 온 거로 느단 굴로 들어간 웬 굴로 나오랏구나.
웬 굴로 들어간 느단 굴로 나오랏구나. 육형젤 무언,

“느네덜 여기 잇이렌.”

헤여 두언, 황금산(黃金山)더레 올라가단 보난 청만주애미가 따시490) 느다 들어 웨우, 웨우
들러 느다 길을 갈라가난 초걸레, 이걸레, 삼걸레 법 마련허고 황금산에 간 절을 소곡허난,

“난 양반애기 둔 도레(道理) 엇덴.”

허난,

“어평허민 아방애기 쉼 수가 잇입네까?”

“데공단491) 머리 삭발(削髮)허렌.”

허난, 쟈부기 삼형제 초전싱에 그리쳐간다. 양반 풀안 무반 삼아, 데공단 머리 삭발헤엿구
나. 하늘 굴룬 굴송낙, 지에 굴은 굴장삼, 아강베포, 직부잘리, 가사(袈裟). 송낙(松絡). 썬 절
을 허난,

“나 아덜이 적실허다. 설운 나 아기덜 어멍 좃이컬랑 심방질 허렌.”

허난,

“췌를492) 잡은 들 못힘네까? 어멍만 좃인덴 허민 심방질 허쿠덴.”

허난,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곳을 도올란 물사오기,493) 세사오기,494) 툐라다근495) 첫째 북
은 툐라단 아버지 절간 법당 북을 설련허고, 이제 북을 툐라단 올랑국을 설련허고, 셋째 북은
툐라단 삼동막이 설운 장계, 요섯 부체, 열두 가막췌, 든 변, 난 변 제왓구나.

백몰레왓디 네렛구나. 옥항에 전면녹이 네렛구나. 아끈 도간, 한 도간,496) 아끈 지기, 한 지
기, 아끈 물망, 한 물망, 동이 와당 췌철이497) 아덜 불러다가 남상잔에 객(刻)을 세겨간다. 하

483) 좃일컬랑: 찾을 것이면.

484) 비세(비치): ‘비세’는 제비새를 줄임말 ‘제비새가 올듯이’ 정도의 뜻임.

485) 이디: 여기.

486) 앓안: 앉아서.

487) 엇영: 없어서.

488) 우리벳기: 우리밖에.

489) 요레: 이쪽으로.

490) 따시: 다시.

491) 데공단: 중의 머리를 깎는 칼.

492) 췌를: 쇠를 무구를 뜻함.

493) 물사오기: 벋나무의 일종.

494) 세사오기: 벋나무의 일종.

495) 툐라다근: 툐어다가.

496) 아끈 도간 한 도간: 작은 도가니와 큰 도가니.

497) 췌철이: 무쇠장이.

늘보멍 오랏구나. 하늘 천(天) 자(字) 네여 준다. 땅으로 걸으멍 오랏구나. 따 지(地) 쩌(字) 네여 준다. 물으멍, 물으멍 오랏구나. 물음 문(問) 자(字) 남천문 객(刻)을 세겜구나.

“설운 나 아기덜, 서울상시관에 가난 무시 것이 좋아니?”

허니, 큰아덜은,

“베옥상이 좋읍데다.”

“초감제⁴⁹⁸ 상 받아보라, 그거보단 더 좋아지라. 셋아덜은 뵈이 좋아니?”

“베옥상이 좋아도 어수에(御賜花), 비수에 좋읍데다.”

“닐라근⁴⁹⁹ 초신맛이⁵⁰⁰ 헤여 보라. 그거보다 더 좋아지다. 족은아시 뵈이 좋으네?”

“나는 삼만관속(三萬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피리단절, 옥단절, 행금,⁵⁰¹ 주테 소리가 좋읍데다.”

“설운 나 아기야, 닐라근에 늑단 어깨라근 신소미,⁵⁰² 윈 어깨랑 금제비청⁵⁰³ 거느리영 흥포관디(紅袍冠帶), 조심데, 혈우레비 허튼짓⁵⁰⁴ 금정금납 거느리영 시왕데를⁵⁰⁵ 지퍼보라. 그거보다 더 좋아지라.”

초제 올려 초공하늘, 이제 올려 이공하늘, 삼제 올려 삼공하늘, 옥항 서른세 하늘에 져부기 삼형제, 어멍 좃이는 곳을 헤엿구나. 아이고 져부기 삼형제 곳을 허니 깊은 궁에 가두난 야픈 궁에 네올린다. 야픈 궁에 가두난 어머니 엄똥⁵⁰⁶ 허난 어머니 살앗구나예~.

“어머니 좃젠 우리 양반 풀안 심방질 헤엿우다. 읍서. 가게.”

어서 내려간다.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에 네렸구나. 유저생인 질, 팽저생인 질에 네렸구나. 유저남은 비어단 마흔여덟(四十八) 초간주를 설련허고, 팽저남은 비어단 마흔으덟, 서른으덟(三十八) 이간주를 설련허고, 신평낭을 비어단 스물으덟(二十八) 하간주를 설련허고, 브름이 부난 브름 뜨벽 막고 뜻뜨난 뜻 뜨벽을 막고, 동산세별 신년상간주 연양당주 옥고비 동심절을 믈져 놓앗구나. 마흔으덟 모람장, 서른으덟 백골장, 스물으덟 고무살장, 솥솥들이⁵⁰⁷ 좃아⁵⁰⁸ 빗져두고,⁵⁰⁹

“어머니, 이승 삼하늘 좃지협서. 우린 저싱 삼시왕더레 가쿠다. 져부기 삼형제 데령 잇이민 좃앙 올 쥌순 잇우덴.”

헤연, 삼시왕더레 올라가젠 헤연 양반이 원수 갇음허져. 양반이 잡으레 오는 칼은 으든닷(八十五) 돈 칼이로구나. 중이 잡으레 오는 칼은 일흔닷(七十五) 돈 칼이로구나. 하인 잡으레 오는 칼은 서른닷(三十五) 돈 칼이로구나. 팔져 굿인 형제간 잡으레 오는 칼은 혼 닷(五) 돈 칼이로구나. 시왕데번지⁵¹⁰ 설련허고 옥하설은 가단 보난에 유정싱(柳政丞)뜨님아기 싱근 돌에,

498) 초감제: 곳을 시작하여 처음에 하는 청신제차(請神祭次).

499) 닐라근: 너는.

500) 초신맛이: 초감제에 이어 하는 청신제차(請神祭次).

501) 행금: 거문고. 거문고는 삼국사기에 거문고는 중국 진(晉)나라의 칠현금(七絃琴)을 고구려의 왕산악(王山岳)이 개조하여 만든 악기인데 이를 연주하자 검은 학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 그래서 이름을 현학금(玄鶴琴)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현학금(玄鶴琴)을 줄여 현금(玄琴)이라고도 한다.

502) 신소미: 소무(小巫).

503) 금제비청: 악사들.

504) 흥포관디(紅袍冠帶) 조심띠 혈우레비 허튼짓: 무복(巫服) 차림.

505) 시왕데를: 시왕맛이를 뜻함 시왕맛이는 시왕을 청하여 기원하는 제차(祭次).

506) 엄똥: 언똥.

507) 솥솥들이: 솥들이.

508) 좃아: 여기서는 ‘오려서’의 뜻으로 쓰임.

509) 빗져두고: 붙여두고.

510) 시왕데번지: 멩두의 하나인 ‘신칼’을 뜻함.

물팡돌에 노름놀이험구나.

“요거 양반이 풀이여, 어뎡 원수 갇음허코?”

아바지한티 강 곶은난 육간제비를⁵¹¹⁾ 네여 준다. 파랑공에 째 오란 유정싹님아기 콤더레 노난, 그걸 갖영 놀당, 밤엔 물팡돌에 놓아동 가고, 아침인 오민 요걸 갖연 노는 게, 신에 신 병이 낫구나. 열일곱은 나난 눈 어둡고, 스물일곱 나난 눈 뜨고, 서른일곱 나난에 눈 뜨고, 마흔일곱 나난 눈 어둡고, 쉰일곱 나난에 눈 어둡고, 예순일곱 나난 눈 떳구나. ㅎ⁵¹²⁾ 정신 이나 출러보져. 알엿녁더레 네리단 보난 조복장제 집이 단똥애기 열두 메 무껏구나. 간,

“아이고 팔져 굶인 아이 뎡검수다.”

“아이고 팔져고, 스주고 우리 애기 열두 메 무껏구나.”

“영 해봅서. 흥번 진맥(診脈)이나 지퍼보게.”

진맥은 지편 보난, 속맥은 살고 걸맥만 죽엇구나.

“이 아기 시왕법 안네 잡헛우다. 백지알 데김 누릅센.”

헤연 문전더레 상 흥 상 놓안 7 큰 말은 엿이난, 먼산더레 보난 공신이 내려오난,

“공시웨다. 가세웨다.”

이 말을 곶안 초고비, 이고비, 삼고비, 사고비, 오고비, 육고비⁵¹³⁾ 꺼건 나오명 곤는 말이,

“나나 가불민, 이 아기 소한 게끔,⁵¹⁴⁾ 한 게끔 물언 일어날 꺼우다. 경 허건 굿허컬랑 남천 문밖 유정싹님아기 좃앙 읍서예~.”

나오라불엇구나. 유정싹님아기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에 두루쟁이도 아니고, 미치쟁이도 아니고, 뎡검시난 알엿녁 조복장제 집에서,

“우리 집이 왕, 십 년 전에 소지 꺼꺼난 굿헤여 줍서.”

“이런 시왕법 안네 잡헛구나. 백보 베꿏디 엿덴 건 누게가 똥겻느냐?”

유정싹님아기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에 뎡검시난 알엿녁 조복장제 집이서,

“십 년 전에 우리 집이 오란 백지알 데김 눌런 소지 꺼끄난 오랑 굿헤여 줍서.”

깜짝허게 놀리난,

“시왕법 안네 잡헛구나. 먼 정에 엿덴 건 누게가 똥겻느냐?”

“남천문밖 유정싹님아기네다.”

“부정도 가이라. 서정도 가이라.”

부정을 가엇구나.

“물멩지 전데에 목을 걸려 올리라.”

물멩지 전데에 목을 걸려 올렛구나.

“꼬까막 은저올데 저우리라.”

꼬까막 은저올데 저우리난, 백 근이 아니 차앗구나.

“무당서(巫堂書)를 네여 주라.”

무당서를 네여 주난, 신전 집에 강 통설(通書)헤연 오란, 유정싹님아기 신당 집이 간 무당서를 통설헤연 오난 따시 엿데엇구나. 꼬까막 은저올데 저우리난 백 근 차앗구나.

“어인테인(御印打印)⁵¹⁵⁾ 네어주라. 수리감봉 막음을 주라.”

511) 육간제비: 엽전 모양의 무구.

512) ㅎ: 조금.

513) 육고비: 젓부기 삼형제와 너사무너도령 삼형제가 의형제를 서로 결연하였음을 상징하는 종이 무구로 당주에 걸어둬.

514) 게끔: 거품.

515) 어인테인(御印打印): 신궁에서 무조신이 심방의 입무를 허가하는 의미에서 멩두로 찍는 도장.

아방 주던 계천문, 어인테인 놀러간다. 어멍 주던 모옥상잔으로 어인테인 ,수리감봉 막음을 주었구나.

“약밥약술⁵¹⁶⁾ 네어주라.”

약밥약술을 네어주언 먹었구나.

“연반물 치메 저구리 네어주라. 코집이 보선도⁵¹⁷⁾ 네어주라. 남수와시(藍水禾紬) 적쾌지(赤快子)도 네어주라. 이멍걸이⁵¹⁸⁾ 네어주라. 퀘지띠 네어주라. 흥포관디(紅袍冠帶) 조심띠를⁵¹⁹⁾ 네어주라. 아방 주던 계천문(開天門), 어멍 주던 모옥상잔, 시왕데번지,⁵²⁰⁾ 하늘 옥황(玉皇) 도성문 열려옴던 금정옥술발 천왕낙훤⁵²¹⁾ 네어 주라. 삼천기덕(三千器德), 일만지계(一萬祭器),⁵²²⁾ 멩두멩철 네어주라.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도 네어주라. 고리동반,⁵²³⁾ 안동반 네어주라. 영기(令旗), 몸기 네어주라. 초공 신줄, 이공 연줄. 느단 어깨 웨우, 웬 어깨 느단, 어깨로 감아맞엇구나. 예기마후를 불러라.”

“니나난니난니요. 니나난니난니요.”

금제비청⁵²⁴⁾ 거느리영, 알엿녁에 간 즈북장젯 집이 강 큰굿 전세남⁵²⁵⁾ 헤영 오란 삼시왕에 종명(終命)을 네엇습네다.

유정싱뜨님아기 놓은 연줄로 이 전싱을 그리치난 제주큰굿 십삼 호⁵²⁶⁾가 탄생헤엿습네다.

초공본풀이>일부 혼잔

독주전에⁵²⁷⁾ 게랄안주(鷄卵按酒) 일부(一杯) 혼 잔(盞) 받읍서. 천하(天下) 임정국 데감, 지에(地下) 짐진국 부인 <그냥 그레 놔볼라.> 일부 혼 잔 받읍서. 황금산(黃金山) 주접선성(朱子先生)님 일부 혼 잔 받읍서. 이 산 압은 발이 번고 저 산 압은 줄이 번어 왕데 월산 금하늘 노가단풍조지멩왕아기씨 일부 혼 잔 받읍서. 젯부기 삼형제도 일부 혼 잔 받읍서. 유정싱뜨님아기 일부 혼 잔 받읍서. 고엿선성님 일부 혼 잔 받읍서. 당주하르바님, 당주할마님, 당주아방, 당주어멍, 당주도령, 당주아미, 당주벨감님 일부 혼 잔 받읍서. 마흔으둑 초간주, 서른으둑 이간주, 스물으둑 하간주도 일부 혼 잔 받읍서. 직부일월상세경도 일부 혼 잔 받읍서. 당주일월, 몸주일월, 신영간주일월 일부 혼 잔 받읍서.

큰굿 사무실에 몸 받은 선성님 공철이 아지방, 장구삼춘 데진이 오라바님도 일부 혼 잔 받읍서. 신이 성방 몸 받은 조상도 어머님 일부 혼 잔 받읍서. 큰굿 휘월달이우다.⁵²⁸⁾ 오씨로, 이씨로 네워간 몸받은 조상 일부 혼 잔 받읍서. 이씨 성님 몸 받은 조상 일부 혼 잔 받읍서. 김씨 성님 몸 받은 조상 일부 혼 잔 받읍서. 이씨 동생 몸 받은 조상 일부 혼 잔 받읍서. 오씨 성님 몸 받은 조상 일부 혼 잔 받읍서. 김씨 조케 몸 받은 조상 일부 혼 잔 받읍서. 송씨

516) 약밥약술: 약밥과 약주. 신굿에서 심방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신이 내리는 음식과 술.

517) 보선도: 버선도.

518) 이멍걸이: 여자 심방이 머리에 두르는 띠.

519) 조심띠를: 흥포관디를 입고 가슴에 두르는 띠를.

520) 시왕데번지: 멩두의 하나인 ‘신칼’을 달리 이르는 말.

521) 금정옥술발 천왕낙훤: 무구의 하나인 요령을 부르는 명칭.

522) 삼천기덕(三千器德) 일만지계(一萬祭器): 무구(巫具)를 일컬을 때 쓰는 상투적인 표현.

523) 고리동반: 방석 역할을 하는 ‘병개떡’과 방울 모양의 ‘방울떡’으로 이루어지 떡.

524) 금제비청: 제주도 무악기(巫樂器)인 연물을 치는 소무(小巫)들.

525) 전세남: 병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굿.

526) 제주큰굿 십삼 호: 제주큰굿보존회.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을 두이레인 열나흘 동안 이어지는 큰 굿으로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음.

527) 독주전: ‘독주점’인 듯. 닭다리 혹은 닭고기.

528) 휘월달이우다: 회원들입니다.

조계 몸 받은 조상, 고씨 성님 행원질로 일부 훈 잔 받으서.

천문선성 덕환이, 상잔선성 녀신이, 요량선성 흥글저데, 신칼선성 시왕데변지 일부 훈 잔 받으서. 북선성 조막손이, 장구선성 명절광데, 데양선성 와랭이, 설췌선성 느저왕 나저왕 일부 훈 잔 받으서. 천부답은 문서왕, 고리동벽, 안동벽에 놀던 선성님이 놀메선성 놀문이, 기메선성 기문이, 당반선성 아완신, 떡선성 에에기, 밥선성 제에기, 술선성은 이테백이, 자리비선성 무정계, 향불선성 수도령, 큰굿 전훼원 몸 받은 선성님 일부 훈 잔 협서. 산이 멩두 천두천황, 죽어 멩두 부두데천명 놀던 선생님 일부 훈 잔 협서.

초공본풀이>비념

일부 훈 잔 헤여건 조상님에서 이 큰굿 훼원덜 먹을연, 입을연 네세웁서. 큰행사, 족은행사 전세남⁵²⁹⁾ 육마을 네세웁서. 전수생덜 이 사무실에서 오란 연습혈 때 앞이멍에 너덧 이견,⁵³⁰⁾ 듯이멍에 빠른 이견 네와 줍서. 말명드리, 췌드리 네와 줍서. 고운 춤 네와 줍서. 북이여. 장귀여. 데양이여. 설췌영 잘 뚜들게 협서. 세드림⁵³¹⁾ 잘 나게 협서. 추물공연⁵³²⁾ 잘 허게 협서. 나산 석시도⁵³³⁾ 놀게 협서. 나산⁵³⁴⁾ 열두 본풀이도 허게 헤여 줍서. 조상님에서 이 즈순덜 이디 녹음헤연 가는 즈순, 시리에 잡히게 허지말고, 녹음헤연 가건들랑 녹음은 잘 보존되게 헤여주고,

초공본풀이>주잔넘김

조상님네 받다 씨다⁵³⁵⁾ 남은 건, 시군문 연드리, 어시력이 멩두, 더시력이 멩두, 원살축 신살축, 당주스룩 몸스룩, 신양간주스룩 불러주던 멩두발덜. 입춘굿 허레 덩길 때, 훼원상생(解冤上生)굿 허레 덩길 때, 일본 데마도 바당 훼원상생굿 허레 강 올 적에, 큰전시에, 족은전시에 덩길 적에 뜨라들던 안체포에, 전뎛기에, 차뎛기에 뜨라들던 멩두발덜. 사라봉 이 안네 노는 조상, 이 배꿋디 노는 조상, 큰낭지기, 큰돌지기, 영덕지기, 동설룡, 서설룡, 남설룡, 북설룡, 거부용신 데용신 노는 이런 임신덜까지 많이 열두 소잔입네다. 계잔계수헤연 올립네다~. 상당불법은 초초 이초 불법전더레 도올립네다.

529) 전세남: 병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곳.

530) 이견: 의견.

531) 세드림: 굿의 청신제차 중에 사기(邪氣)를 쫓아내는 제차를 말한다.

532) 추물공연: 제청 안으로 모셔 들인 신들에게 준비한 온갖 정성과 차린 제물을 받아 흠향하기를 청하는 의례이다.

533) 석시도: 석살림도 신을 청해 모신 뒤에 흥겹게 놀려 신명을 살려내는 제차이다.

534) 나산: 나서서.

535) 씨다: 쓰다.

이공본풀이

이공본풀이>들어가는 말미

이공스천도상국님~, 난산국이웨다에~.⁵³⁶⁾

이공본풀이>본풀이

옛날 옛적 청계왕도 삼시당(上試堂), 백계왕도 삼시당, 흑계왕도 삼시당, 원진국이 데감님
살읍데다. 원진국 데감님이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로 잘 살고, 김진국이 데감님이~ 가난공서
사난, 남박세기⁵³⁷⁾ 파명 그날, 그날 구명도식(求命圖食) 해연 살읍데다. 남녀 간에 아기 엇언
호이탄복(後悔歎服) 허난에~ 동계남(東觀音)은 은중절, 서계남(西觀音)은 상세절, 남계남(南觀
音)은 녹농절, 북하산은 미양안동절 푼처⁵³⁸⁾ 직헌 데서(大師)님은 하늘 ㄱ른⁵³⁹⁾ 굴송낙, 지에
ㄱ른 굴장삼,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롬준치,⁵⁴⁰⁾ 둘러메고 백팔염주(百八念珠) 목에 걸고 손에
단주(短珠)를 심고 하늘 ㄱ른 금주랑 철쭉데를⁵⁴¹⁾ 짚언 권제(勸齋) 받으레 금세상에 누립데다.
촌촌(村村), 각리각리(各里各里) 동으로 들언 서으로 나고, 서으로 들언 동으로 나고, 뒤로 받
을덴 흠으로 받았구나. 원진국 데감님 짓알로⁵⁴²⁾ 도느리며,

“에~, 소송은 절이 뺏네다.”

“어느 절당에 데섭니까?”

“동계남은 은중절, 서계남은 상세절, 남계남은 녹농절, 북하산은 미양안동절 푼처 직헌 데섭
네다.”

당도 파락(破落)이 뒤고, 절도 파락이 뒤언 권제삼문(勸齋三文)을 받아당 헌 당, 헌 절 수리
하고 멩 없는 이 멩을 주저. 복 없는 이 복을 주저. 생불(生佛) 없는 즈순(子孫)은 생불을 주
저. 권제(勸齋) 받으레 네렸습네다에~.”

원진국 데감님 권제를 네어 주난, 권제 받앙 나가젠 허난,

“데서님아, 원천강(袁天綱)⁵⁴³⁾ 스주팔자(四柱八字) 고남⁵⁴⁴⁾ 헤어 봅서. 원천강 스주팔자에
아기 엇언 무유유화(無爲而化)⁵⁴⁵⁾ 허렌 훈 팔저파? 아니민 불공 드령 아기 잇이렌 훈 팔저
파?”

원천강 스주영, 단수육갑(單數六甲) 오용팔관(五行八卦) 짚언 곤는 말이,

“아기 엇영 무유유화 허렌 할 팔잔 아납네다.”

이 말을 곱아 두언, 데서님은 권제를 받앙 소곡소곡⁵⁴⁶⁾ 먼 정더레 나고갑데다에~.

원진국 데감님은 김진국이 데감님하고 친헌 지간이난, 김진국이 데감님을 좇앙 간,

536) 난산국이웨다에~: 본디 태어난 곳과 그 내력입니다.

537) 남박세기: 나무바가지.

538) 푼처: 부처.

539) ㄱ른: 가리는.

540)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롬준치: 종이 들고 다니는 자루.

541) 철쭉데를: 죽장(竹杖)을 지팡이를.

542) 짓알로: 아래로.

543) 원천강(袁天綱): 당나라의 점술가. 여기서는 점술서의 뜻으로 쓰임.

544) 고남: 가늌.

545) 무유유화(無爲而化): 노자(老子)의 ‘무위이화(無爲而化)’에서 의미가 변화된 말. ‘애쓰지 않아도 스스
로 그렇게 되다’가 본디 뜻이나 여기서는 무후이화(無後而化)의 뜻으로 쓰임. 즉 부부간에 자식이 없
는 것.

546) 소곡소곡: 거침없이 앞으로 걸어가는 모양.

“데감님아, 읍서. 우리 절간 법당 백일 불공드리레 가게~.”

“난 가난공서 사난 못가쿠다.”

원진국은 데감님 부제로 잘 사난 아기가 기업구나~. 김진국 데감님은 가난공서 사난 아기생각 엇엇구나. 하도 권유를 헤여가난,

“경 허건 읍서. 가게.”

원진국 데감님은 강모딘 강나룩(乾稻),⁵⁴⁷⁾ 수답(水畚)이는 수나룩(水稻),⁵⁴⁸⁾ 모답이는 모나루 상백미(上白米), 중백미(仲白米), 웨백미(下白米) 착쌀 엇이⁵⁴⁹⁾ 출려 간다. 가삿베도 구만 장, 송낙베도 구만 장, 드릿베도 구만 장, 물명지(水禾紬), 강명지, 세양페, 세미녕⁵⁵⁰⁾ 출려 놓고, 김진국데감님은 갓엿 갈 거 엇이난 메쌀⁵⁵¹⁾ 혼 뉘 갓엿 동계남 은중절 높은 절간 법당 백일불공을 갑데다. 갓엿 간 건 은분체에⁵⁵²⁾ 도금⁵⁵³⁾ 올령, 상탕(上湯)에는 메를 짓고, 중탕(中湯)에는 모욕(沐浴) 흐고, 하탕(下湯)에는 수족(手足) 씻천,⁵⁵⁴⁾ 돌아 올 뉘 월광(月光)님 지어갈 뉘 일광(日光)님 중천입니다에~. 당돌님 세양상 받안 읍던 옥계천신님도 사나사나, 백일불공 드렸구나. 데서님이 꼬까마 은저올데⁵⁵⁵⁾ 갓언 나오란 곤는 말이,

“원진국 데감님아, 김진국 데감님아, 오늘은 백일째 뉘는 날입네다. 꼬까마 은저올데 저우리 영 백 근이 차민 아들이 나고, 백 근이 못 차민 여즈식이 날 듯 흐십네다.”

원진국 데감님 꼬까마 은저올데 저우리난 백 근이 못 찾구나.

“원진국 데감님아, 출령 온 건 하영 출려 오락우다만은 정성이 부족흐난 여즈식 탄생허쿠다.”

김진국이 데감님은 꼬까마 은저올데 저우리난~, 메쌀 한 뉘 갓엿 가도 정성이 백 근이 찾구나.

“김진국 데감님아, 출령⁵⁵⁶⁾ 온 건 엇어도 정성이 백 근이 차난 아들이 날 듯 흐십네다. 네려 강 합궁일(合宮日)을 반양 천상베필(天上配匹)을 무어봅서에~.”⁵⁵⁷⁾

부처님전 절 삼베(三拜) 올리고, 금마답⁵⁵⁸⁾ 수리 두고⁵⁵⁹⁾ 올레에 막음 두멍 네령 오멍 말을 걸어간다. 원진국 데감님이 곤는 말이,

“김진국 데감님아, 우리 아덜덜 나거들랑 이성제(義兄弟) 흐고, 딸도 나건 이성제 흐게 어떻흐파?”

“기영 흡서.”

“망간 중에⁵⁶⁰⁾ 우리가 딸나고 아들 나건 읍서. 우리 사둔(査頓)허게~.”

언약(言約) 약속 헤엇구나. 집인 오란 합궁일 받아간다. 천상베필 무으난 원진국 데감님은

547) 강나룩: 발벼의 일종.

548) 수나룩: 논벼.

549) 착쌀 엇이: 쪼개진 쌀 없이.

550) 세미녕: 무명.

551) 메쌀: 제사나 불공 때 신위 앞에 올릴 밥을 지을 쌀.

552) 은분체에: 은부처에.

553) 도금: 돈(錢)과 금(金).

554) 씻천: 씻어서.

555) 꼬까마 은저올데: 까마귀 주둥이 같은 갈퀴에 달아매도록 만들어진 은저울(銀衡) 대추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함.

556) 출령: 차려서.

557) 무어봅서: 뺏어보십시오.

558) 금마답: 마당.

559) 수리 두고: 잠가서 봉한 표지를 하고 흔히 ‘감봉수레 하고’라고 말함.

560) 망간 중에: 만약에.

똥애기 낱데다~. 이름은 월광아미로 이름 지와간다.

김진국 데감님도 합궁일을 반안 천상베필 무으난 아덜이 낱데다. 이름은 사라도령 이름을 지왔구나~.

“우리가 절간 법당에 내려오명 약속허난, 읍서. 우리 똥 나고 아덜 나난 구덕혼서⁵⁶¹⁾ 흐게.”

“기영 흡서.”

구덕혼서 헤여간다.

흔 설, 두 설, 열다섯 십오 세가 당헤여 가난, 김진국 데감님이 원진국 데감 집이 중매(仲媒)를 갑데다. 원진국 데감님은 허락(許諾)을 아니 험데다.

“무사 허락(許諾) 아니 험네까?”

“가난한 집이 우리 똥 아니 보네쿠덴.”

허난, 흥번 돌아오고 두 번 가도 돌아오고 아니 똤로구나. 흐를날은 월광아미가 곤는 말이, “아바님아, 무사 허락(許諾) 아님이파?⁵⁶²⁾ 우린 구덕혼서 헤였우게.⁵⁶³⁾ 잘 살아도 나 팔져, 못 살아도 나 팔져, 나 복력(福力)이우다. 난 아무 집이도 중매 들어 오라도 절데 시집 안 갈 겨우덴.”

허난, 아닌 게 아니라 중매 들어 오라도 아니 간다. 사라도령은 어명 허리 이 밤, 저 밤, 야 사생경, 깊은 밤이 똤민 원진국이 데감님 깊은 즘을⁵⁶⁴⁾ 자민 월광아미 즘자는 창 무똥에⁵⁶⁵⁾ 강 앓아 잇당 붉아⁵⁶⁶⁾ 가민 집더레 오고 어둑어 가민 강 앓앗다건 붉아 가민 집더레 오랏구나. 흐를날은 원진국 데감님 일어난 보난 사라도령이 앓앗단 오꽃허게⁵⁶⁷⁾ 일어상 가난,

‘이거 어떤 일이고 이젠 아니 똤로구나.’

허락(許諾)을 헤였구나.

이바지 오논고, 신랑이 오논고, 신부가 가논고, 사라도령 월광아미 살림은 사난 아긴 베엿구나. 월광아민 월광부인이 똤고, 사라도령은 사라데왕이 똤어 간다. 하늘 옥항에선 서천꽃밭디 멩진국할마님 불리꽃디, 가지꽃, 생불꽃, 환생꽃, 번성꽃을 싱건⁵⁶⁸⁾ 놔 두민 검눌꽃⁵⁶⁹⁾이 똤어 가난 옥항상저(玉皇上帝)님전에 등수(等訴) 드룹데다.

“옥항상저님아, 서천꽃밭데 검눌꽃이 똤어 가난, 꽃감관(花監官)⁵⁷⁰⁾ 꽃쟁인 임명(任命)헤여 줍센.”

허난, 하늘 옥항에서 천할⁵⁷¹⁾ 굽어 보난 사라도령이 사라데왕이로구나. 이만 허민 서천꽃밭 꽃감관 살만허다.

“어서 꽃감관 살레 오렌.”

헤여건 부영세 젓놀게에⁵⁷²⁾ 편지답장이 오랏구나. 흐를날은 사라데왕이 근심 걱정 허난 월광부인 곤는 말이,

561) 구덕혼서: 자식들이 요람에 있을 때 부모들이 맺은 자식들의 혼인 약속.

562) 아님이파: 안합니까.

563) 헤였우게: 했습니다.

564) 즘을: 잠을.

565) 무똥에: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

566) 붉아: 밝아.

567) 오꽃허게: 가만히 있다가 선뜻 하여 경황이 없이 불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을 나타냄.

568) 싱건: 심어서.

569) 검눌꽃: 시들어 가는 꽃.

570) 꽃감관: 서천꽃밭의 주화(呪花)를 관장하는 벼슬.

571) 천할: 천하를.

572) 젓놀게에: 날개에.

“사라데왕님아, 어떻게연 근심 걱정 해염수파?”

“하늘 옥항에서 꽃감관 살레 오렌 임명장이 오랏우덴.”

허난,

“어서 갑서.”

출려 간다. 월광부인 곤는 말이,

“나도 ㄱ치⁵⁷³ 가쿠다.”⁵⁷⁴)

아긴 베언 테독 ㄱ치⁵⁷⁵) 베는 불럿구나. 홀목 심언⁵⁷⁶) 서천꽃밭더레 꽃감관 살레 가단 보난 발에 발병 난 걸음을 걸지 못한다. 이 밤, 저 밤, 야사생경이 뒤엇구나. 깊은 밤이 어욱페기⁵⁷⁷) 으지(依支)헤연 무정눈에⁵⁷⁸) 즘을 잣구나. 듯날 아척은⁵⁷⁹) 천하독(天皇鷄)이 목을 네리고, 지에독(地皇鷄)이 목을 들린 쯤지반반⁵⁸⁰) 울엇구나. 일어난 월광부인 곤는 말이,

“사라데왕님아, 저 독은 어디서 우는 독입네까?”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연들어 만연장제 집에서 우는 독입네다.”

“낭군님아, 난 이젠 베는 불고 발이 발병이 나난 더 이상 못 걸으쿠다. 저 집이 강 나 몸종으로 풀아 두영⁵⁸¹) 어서 갑서예~.”

사라데왕, 월광부인 홀목 심언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연들어 만연장제 사는 집이 먼 올레 들어상,

“몸종 삽서. 몸종 삽서.”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연들어 만연장제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로 잘 사난,

“큰년애기야, 먼 올레 나고 보라. 몸종 사렌⁵⁸²) 험저.”

먼 올레 나간 들어 왕 곤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저 종 사지 맙서. 우리 집 지둥 굽⁵⁸³) 다 빼영 망헉네다.”

“아이고~ 경 허건 셋년아~, 나고 보라.”

셋년이 들어 왕 곤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저 종 사지 맙서. 우리 지둥 굽 다 보고 우리 집 망헉네다.”

“아니 웰로구나. 족은년아, 나고 보라.”

간 오랑 곤는 말이,

“애긴 베엿우다만은, 애긴 나거들랑근에 종으로 부리고, 아버지 동지, 셋달 긴긴 밤이 품사 람이라도 품어사 웰 거 아니우파?”

몸종 사렌 허난,

“어명은 얼마 받으쿠과?”

“돈 백 냥~ 받으쿠다.”

“배 안에 애긴 얼마 받으쿠과?”

573) ㄱ치: 같이.

574) 가쿠다: 가겠습니다.

575) 테독 ㄱ치: 큰 향아리같이.

576) 홀목 심언: 손목 잡아.

577) 어욱페기: 역새 포기.

578) 무정눈에: 무정하게 감기는 눈에.

579) 아척은: 아침은.

580) 쯤지반반: 고요한 밤에 들리는 닭 따위의 울음소리.

581) 풀아 두영: 팔아 두고서.

582) 몸종 사렌: 몸종 사라고.

583) 굽: 밀바닥.

“은 벵 낱 받으쿠다예~.”

몸종을 샀구나.

“이 국(國)에 법(法)은 어떻습네까?”

“우리 국에 법은 부베간(夫婦間)이⁵⁸⁴ 헤어지젠 허민. 밥 한 상(床)을 출려 줍네다.”

“늦인덕정하님아, 밥 한 상 출려다 주렌.”

허단 보난 밥을 출려 먹었구나.

“설운 낭군님아, 벤 애기 이름이나 지와 됴 겁센.”

허난,

“아들랑 낱걸랑 신산만산 할락궁이로 이름 지우곡, 딸란 낱거들랑 신산만산 할라덱이~.”

이름을 지와 두곡 가젠 허난,

“본메 본짱을⁵⁸⁵ 주어 됴 겁센.”

허난, 상동낭에 용열레기⁵⁸⁶ 반착⁵⁸⁷ 갈란 주난, 월광부인 콤에⁵⁸⁸ 콤언 사라도령은 꽃감관 살레 서천꽃밭더레 도올릅데다예~. 그날 저녁은 당허난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연들어 만연장 제 오란 문을 절메 증갓구나.

“이 문 올렌.”

허난,

“이 국에 법은 어떻습네까?”

“우리 국(國)에 법(法)은 벤 애기 나상 몸 허락(許諾)습네다.”

그냥 돌아갓구나. 벤 애기 나난 아덜이 납데다. 아덜 이름은 신산만산 할락궁이 이름을 지와 간다. 그날 저녁은 당허난,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이 국에 법은 어떻 습네까?”

“벤 애기 난 기어덩겨사 몸 허락(許諾)습네다.”

돌아갓구나. 할락궁이가 기어덩겨 간다. 그날 저녁에 또시 오란,

“이 문을 열라. 이 문을 열렌.”

허난,

“이 국에 법은 어떻 습네까?”

“기는 애기 걸영 마당에서 강알에⁵⁸⁹ 작데기 놓아건 물놀이 헤여가사 몸 허락(許諾)습네다~.”

할락궁이가 마당에서 작데기 강알에 낱 물놀이⁵⁹⁰ 노념놀이 헤난 그날 저녁인,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이 국의 법은 어떻습네까?”

“몸 허락(許諾) 안 헤켄.”

허난,

“이 년, 저 년, 죽일 년, 잡을 년 데동통편에 청뎡섭에 목 걸령 죽일 년아.”

뎡⁵⁹¹ 벌역(罰役)을 시겨간다~. 께진 향아리에 물을 질어 오렌 허민~, 월광부인님 허를 저물

584) 부베간이: 부부사이가.

585) 본메 본짱을: 증거가 되는 물건을.

586) 상동낭에 용열레기: 상동나무로 만든 열레빗.

587) 반착: 반쪽.

588) 콤에: 품에.

589) 강알에: 가랑이에.

590) 물놀이: 말(馬)놀이.

591) 뎡: ‘힘든’ 혹은 ‘어려운’ 정도의 뜻 ‘뎡다’는 마음이 몹시 굵고 인색하다는 의미.

양 물을 허벅으로 지어단 비우민 혈어 비고, 비우민 혈어 불고~ ,흐를날은 할락궁이가 산디 지께기로⁵⁹² 늦을⁵⁹³ 꼬안 향아리 굽더레 굽이굽이 사리난 향아리에 물이 ㄱ득앗구나.⁵⁹⁴

‘영 해도 아니 웰로구나.’

멜망일(滅亡日), 고초일(枯焦日) 날에,

“할락궁이야, 피씨~, 좁씨 석 삼 닷 말 칠 세 오 리⁵⁹⁵ 갓언 강 뿌련 밧 불려 텨 오렌.”

허난, 멜망일, 고초일 날에 멩에 진 밧디 간 좁씨 뿌려 텨 오난,

“그 좁씨 강, 좇언⁵⁹⁶ 오렌.”

헤연 멜망일에 강 뿌려부난 비세 ㄱ치⁵⁹⁷ 울멍, 방울방울 좇으단 보난 하나가 떨어 지엇구 나. 좇단⁵⁹⁸ 보난 게미가⁵⁹⁹ 물언 들어감구나. 뽉허게⁶⁰⁰ 시리 발로 불르난⁶⁰¹ 입에 물엇던 거 멜록허게⁶⁰² 바꾸난⁶⁰³ 게미 허리는 좁아진다. 그 걸 갓언 오난에 흐를날은,

“어머님아, 우리 아방은 누게꽈?”⁶⁰⁴

“아이고 나 아덜아, 니네 아방은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연들어 만연장제 니네 아방 아니가.”

“우리 아방 ㄱ뜨민 무사 어멍 텨 벌역(罰役) 시기고, 나도 텨 벌역(罰役) 시깁네까?”

바른말 아니 허난, 흐를은 비가 어실어실⁶⁰⁵ 오랏구나.

“어머님아~, 오늘은 비가 오람수다. 콩이나 보까 볍서~.”

“콩은 어디 시니?”⁶⁰⁶

“장막(帳幕) 걷어 볍서.”

장막을~ 걷언 보난, 콩 흐 텨 잇엇구나. 그 걸 갓디당 정제 오란 솟뚜쟁이 가리천⁶⁰⁷ 콩을 보까 간다. 와닥딱 와닥딱 콩을 보까 가난,

“어머님아~, 올레에 강 볍서. 아방 불림수다.”

가 보난에 밥자,⁶⁰⁸ 국자, 남술,⁶⁰⁹ 솔박이로구나. 뒹악세기,⁶¹⁰ 모지락 비치락,⁶¹¹ 문딱⁶¹² 갓당 방석 앞에 깔아 앓앗구나.

“어멍 흔적 읍서. 어멍 흔적 읍서. 어멍 흔적 읍서.”

“무사?”

“어멍 콩 캄수게~. 콩을 짓입셴.”

592) 산디 지께기로: 발벼의 짚으로.

593) 늦을: 노(繩)를.

594) ㄱ득앗구나: 가득 찼구나.

595) 석 삼 닷 말 칠 세 오 리: 섬, 말, 세, 리는 곡식을 셈하는 단위.

596) 좇언: 주워서.

597) 비세 ㄱ치: ‘비세’는 제비새를 줄임말 ‘제비새가 울듯이’ 정도의 뜻임.

598) 좇단: 찾다가.

599) 게미가: 개미가.

600) 뽉허게: 꼭하게.

601) 불르난: 뺏으니.

602) 멜록허게: 바로 쉽게 뺏어 ‘멜록’은 혀를 잠깐 내밀었다가 집어넣는 모양.

603) 바꾸난: 뺏으니.

604) 누게꽈: 누구입니까.

605) 어실어실: 비 따위가 부슬부슬 오는 모양.

606) 어디 시니: 어디에 있니.

607) 가리천: 뒤집어.

608) 밥자: 밥주걱.

609) 남술: 음식을 조리할 때 젓는 용도의 나무주걱.

610) 뒹악세기: 식되. 집에서 곡식 가루 등을 담아 그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작은 그릇.

611) 모지락 비치락: 다 닳아빠진 빗자루.

612) 문딱: 모두.

허난,

“이디 서난⁶¹³ 솔박이영, 작박이영, 밥자영, 국자영, 모지락 비치락은 어디 가시니?”

“몰르쿠다. 흔적 짓입서 .콩 캄수게.”⁶¹⁴

하도 헤여 가난,

“어멍 흔적 손으로라도 짓입서.”

손으로 젖어 가난, 할락궁이가 어머니 흘목을 심언 별경헌⁶¹⁵ 솟뚜경더레 꼭허게 놀리멍,

“어머님아, 바른말 험서. 우리 아방 어디 갓우파?”

“아이고 나 아덜아, 느네 아방은 제인장제여.”

“우리 아방 ㄱ뜨민 무사 쉼 벌역(罰役) 시깁네까? 영 헤여도 바른말 안허쿠과?”

헤여 가난 어멍이~ 바른말 험다.

“아이고 나 아기야, 이 손 노라~. 바른말 허마.”

그 손을 노난~,

“나 아덜아, 니네 아방은 사라도령 사라데왕 서천꽃밭 꽃감관 살레 갓저.”

“어머님아, 나 아버지 좃앙 강 오크메 아버지 갈 떼 본메 본짱⁶¹⁶ 아니 줍데가?”

언듯 쟁각 허난,

‘상동냥 용얼레기 반착 갈라 주엇구나.’

그걸 내어 노난에,

“어머님아~, 느쟁이 범벅⁶¹⁷ 험서. 소금 닷 뉘 놓아건~ 범벅을 허건 두 게만 멘들아 줍센.”

허난, 느쟁이 갓다건 소금 닷 뉘 놓안 범벅을 두 게 멘들아 준다. 어멍 흘목 심언,

“어머님아, 나 서천꽃밭디 아버지 좃앙 강 오크메 죽을 일이 잇이나, 살 일이 잇어도 나 간 디랑 절데 굴으민 안웁네다.”

“나 아덜아, 흔저 강 오라~.”

먼 올레 나사난 천리둥이가~ 드리쿵쿵 네쿵쿵 주껍구나에~.

“천리둥아, 나도 늬이 집 종살이, 너도 늬이 집 게로구나.⁶¹⁸ 이 범벅 먹으레.”

범벅 하나 던져 주난, 느쟁이 범벅 소금 닷 뉘 난 찬찬헤엇구나.⁶¹⁹ 그거 먹언 물 먹으레 가불 떼에 천 리만이 뛰엇구나. 천 리를 뛰영 간 보난 만리둥이가~ 드리쿵쿵 네쿵쿵 주파⁶²⁰ 가난,

“아이고 만리둥아, 너도 늬이 집 종 살멍 게로구나. 나도 늬이 집 종살이여. 이 느쟁이 범벅 먹으렌.”

주난, 느쟁이 범벅 소금 닷 뉘 노난 먹으난 찬찬헤엇구나. 만 리를 뛰어 갈 떼에 만 리를 뛰엇구나. 가단 보난 발등진⁶²¹ 물 넘엇구나. 발등진 물 넘으난 존등친⁶²² 물을 넘어간다. 존 등친 물을 넘으난 목진⁶²³ 물이 넘엇구나. 서천꽃밭디 가졌구나. 간 보난 궁녀청(宮女廳), 신

613) 서난: 있었던.

614) 캄수게: 타고 있습니다.

615) 별경헌: 별갈게 되어 있는.

616) 본메 본짱: 증거가 되는 물건.

617) 느쟁이 범벅: 메밀을 갈아 가루를 체에 쳐내고 남은 속껍질을 넣어 쑨 음식.

618) 게로구나: 개로구나.

619) 찬찬헤엇구나: 매우 짤구나.

620) 주파: 짓어서.

621) 발등진: 발등까지 오는.

622) 존등친: 허리까지 오는.

623) 목진: 목까지 오는.

녀청(侍女廳)에~ 정남청~ 이 세상에서 열다섯, 십오 세 안네 죽영 서천꽃밭 간 아기덜~, 부제
집이 살던 애기덜, 은그릇, 놋그릇 밥 먹던 애기덜~, 서천꽃밭디 가난 은데양에, 놋데양에⁶²⁴
물을 지영 서천꽃밭 물을 주난~, 이 아기들 꽃은 번성꽃, 환생꽃, 생불꽃~, 활짝 허게 피어건~
꽃감관 꽃생인님 꽃빈장⁶²⁵ 나오민,

“나 아기덜 착하다. 오늘도 간세⁶²⁶ 안혜영 꽃밭디 물 잘 젖구나~.”

앞니머리⁶²⁷ 씨러 주멍~ 칭찬 받암구나. 가단 보단 설운 아기덜~, 이 세상에 가난헌 집에
난 아기덜~, 남박세기 밥 먹던 아긴 차롱착에 밥 먹던 아기, 사기그릇에 밥 먹던 애기덜, 서
천꽃밭든 가난 꽃밭디 물을 주렌 허난 차롱착에⁶²⁸ 물을 질영⁶²⁹ 가다 보민 차롱착에 물이 머
리로 이맹이로 양지더레⁶³⁰ 옷 앞섭더레 떨어지영 꽃밭에 물을 못 주영 비세⁶³¹ 울고, 남박
세기, 사기그릇에 물 질영 가당 쉼정당 마정당에⁶³¹ 발 걸러건 남박세기, 사기그릇 깨져 불민
꽃밭디 물 못 주어근에 꽃감관 꽃생인님 꽃빈장 나오랑 보민 이 아기덜 꽃은 검눌꽃이 뒤엇구
나. 송남 망뎡이로⁶³² 알에 종아리 떼리멍~,

“아침부터 오후 떼꺼지 서천꽃밭디 물 아니 주고, 세경 바리멍⁶³³ 물 아니 주엇구나~. 간세
헤엇구나.”⁶³⁴

알에 종아리 떼려 가민 관디청이 눈물이며. 서산백옥(西山白玉) ⁶³⁵ 양지⁶³⁵ 주옹아방⁶³⁶
연주(煉酒) 지듯 비세⁶³⁷ 울영 이 세상더레 돌아상.

“날 나주던 어머니, 날 나주던 아버지 무신 날에 우리덜 납데가?”

가난한 생활혜영 비세⁶³⁷ 울엄구나. 이 아기덜~ 인정 걸어 두고 서천꽃밭디 큰 쪽낭⁶³⁸ 옷
터레 올라 앓았구나. 상손가락 졸란 연못더레 뿌리난 그 물을 떠단 뿌리난 검눌꽃이 뒤난 꽃
감관 꽃생인님,

“이 거 어떻 헌 일이고~?”

아기덜안티 ⁶³⁹난 아기덜은,

“저 낭 옷터레 봅서. 무지력 실총각이 앓았우덴.”

허난,

“구신(鬼神)이나? 생인(生人)이나? 구신이건 옥항에 올르고 생인이건 내려오렌.”

헌 건 보난 내려 오랏구나.

“너는 누게가 뒤겿느냐?”

“난 아버지 좃안 오랏우다.”

624) 은데양에 놋데양에: 은대야에 놋대야에.

625) 꽃빈장: 꽃구경.

626) 간세: 게으름.

627) 앞니머리: 앞머리.

628) 차롱착에: 대바구니에. 차롱-착 대나 싸리를 쪼개어 네모나게 걸어 속이 깊숙하고 뚜껑이 있게 만
들어 음식 따위를 넣는 그릇.

629) 물을 질영: 물을 걷고.

630) 양지더레: 얼굴로.

631) 쉼정당 마정당에: 덩굴에. ‘정당’은 덩덩이덩굴을 뜻함.

632) 송남 망뎡이로: 소나무 막대기로.

633) 세경 바리멍: 열심히 일하지 않고 다른 곳을 구경하며.

634) 간세 헤엇구나: 게으름을 피웠구나.

635) 서산백옥 ⁶³⁵ 양지: 서산백옥(西山白玉) 같이 하얀 얼굴.

636) 주옹아방: 향로(香爐).

637) 비세 ⁶³⁷ 울영: ‘비세’는 제비새를 줄임말 ‘제비새가 울듯이’ 정도의 뜻임.

638) 쪽낭: 팽나무.

“너네 아바진 누계가 뉘겟느냐?”

“우리 아버지는 사라도령 사라데왕 서천꽃밭 꽃감관 살레 오랏우다.”

“나가 사라데왕이로구나. 너네 어머이영, 나영 돌아살 때 본메 본짱을 잇인디 그 걸 가전 오랏느냐?”

“가전 오랏우다~.”

상동냥 용얼레기 마치난 맛찾구나. 은데양에 물을 떠놓안 서로 손가락을 짚란 물을 피를 노난 피가 합수(合水)가 뉘난,

“분명히 나 아덜이 분명허다. 설운 나 아기가, 니가 이디꺼지 오단 보난 발등진 물, 존등친 물, 목진 물 엇어나?”

“잇입데다.”

“니 나오라부난 니네 어명은 제인장제, 만년장제 집이서 죽언 청뎃섭에 목 걸련~ 신동박⁶³⁹⁾ 알에 묻어 시난 어멍 간 살령 오렌.”

허난,

“살령 오쿠다.”

어멍 살리젠 허난 피 오를 꽃, 술 오를 꽃, 오장육부(五臟六腑) 살아날 꽃 꺼꺼간다. 흥남체를 주난 심엇구나~.⁶⁴⁰⁾ 웃음 웃을 꽃 꺼꺼 준다. 싸울 꽃을 꺼꺼 준다. 아이고 사람 죽을 꽃을 꺼꺼 주엇구나.

“이거는 어멍 살릴 꽃이고, 어멍 살리젠 허민 흥남체를 뚜드리른 어멍 살아난다 .요 꽃은 갖연 간 제인들어 제인장제, 집이 간 풀어 노렌.”

허난, 내려 오라 간다. 제인들어 제인장제 집에 들어 오난 죽이젠 헤여 가난,

“아이고 요레들 다 읍서. 이레들 다 모입서.”

다 앓앗구나. 웃음 웃을꽃을 헤여 노난 웃음벨탁을⁶⁴¹⁾ 향천데급(仰天大及) 웃음을 웃어 간다.

‘이만 웃으민 뉘엇구나.’

이제랑 싸울꽃을 네어 놓저. 싸울꽃을 네어 노난 니 머리, 나 머리 허운데기 심으멍⁶⁴²⁾ 이 귀차지,⁶⁴³⁾ 저 귀차지 떼리멍 싸와간다.

‘요만 싸우민 뉘엇구나.’

멜망꽃을 노난,

‘문딱 다 죽엇구나~.’

메죽은뜰아기⁶⁴⁴⁾ 하나만 남안 어디 가신곤 보난 장방⁶⁴⁵⁾ 알에 곱앗구나.⁶⁴⁶⁾ 장방 알에 간 심어 오란에~,

“이 년아, 저 년아, 우리 어멍 죽언 어디 간 던져부렀느냐?”

“아이고 나 오라방, 나 오라방 나아~.”

“나가 누계냐?”

639) 신동박: 동백나무.

640) 심엇구나: 잡앗구나.

641) 웃음벨탁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큰 소리로 웃어가는 모양을.

642) 허운데기 심으멍: 머리카락을 잡으며.

643) 귀차지: 귀와 뺨 부근. 귀싸대기.

644) 메죽은뜰아기: 맨 막내딸.

645) 장방: 방처럼 꾸며 놓은 공간.

646) 곱앗구나: 숨엇구나.

“나 니네 누님이엔.”

허난,

“너네 어머이 우리 집에 오라갓느냐? 너네 아방이 우리 집에 오라갓느냐? 어떻게엔 너영 나영 오누이지간이 뉘 수가 잇갓느냐? 너 죽이기 전에 우리 어멍 죽연 어디 간 던저볼엇느냐? 흔적 바른말 허렌.”

허난~,

“어서 글렌 헤연.”

간 보난 어머니 누운 자린 거미줄이 잇엇구나. 거미줄을 헤쳐 놓고 신동박 알이로구나.⁶⁴⁷⁾ 신동박 알에 영 보난 청뎃섭에 목을 걸련 죽엇구나~. 돈딱 헤천 어머니 빼를 즈근즈근 모셔단 놓아건~ 피 오를 꼳, 술 올를꼳, 오장육부 살아날 꼳 놓안,

“어머님~, 이거는 어머님 떼리는 메가 아니고 어머님 살리는 메우다.”

홍남체로 흥번, 두 번, 삼세 번을 떼려 가난 어머님 피 올라간다. 오장육부 살아난다~. 어머니~ 감테 7똥⁶⁴⁸⁾ 머리, 절박7찌 허터 논 머리,

“아이고 나 아덜아, 어머니 봄줍이라.⁶⁴⁹⁾ 너미⁶⁵⁰⁾ 늦게 자젓구나~.”

“나 어머님 살렸구나. 어머님아 읍서. 나 어머님 누어난 자리에 흑인들사⁶⁵¹⁾ 네부리야~. 어머니 본메 본짱 무어보져.”

방울방울 방울떡 일곱 게를 만들아⁶⁵²⁾ 간다. 안팎으론 열네 게 멘들아 놓아 간다. 심방집은 안팎으로 스물으덥 게 방울떡을⁶⁵³⁾ 멘들아 놓고, 어머님 청뎃섭에 목을 걸련 죽엇이난 방울떡 더레 청뎃섭 꽃아 놓고, 신동박 알에 즘을 잠시난~ 어머님 신동박 하나도 본메 본짱 놓앗구나. 본메 본짱 놓아 건 청너울, 백너울⁶⁵⁴⁾ 벨이⁶⁵⁵⁾ 솜솜,⁶⁵⁶⁾ 둘이 솜솜 고리안동벽,⁶⁵⁷⁾ 자동벽을⁶⁵⁸⁾ 마련 헤영 죽은긋 혈 뎡 고리동반 하나 허고, 큰데 세왕 스갓(私家) 집이긋 혈 뎡 고리동반을 두 게 멘들고~, 심방집이긋 혈 뎡 안팎으로 고리안동벽 네 게를 멘들앙 두 게는 뎃섭으로 본메를 놓고 두 게는 신동박으로 본메 무는 법이 마련 뉘엇우다.

어머님 살련~ 서천꽃밭디 가난, 어머님은 저싱유모로 인간에 오랑 어멍 베 안에서 간 아기덜, 어멍 베 베꿏디 나오란 혼 설, 두 설, 열다섯, 십오 세 안에 간 아기덜, 서천꽃밭 가민 우는 애기덜~, 안아근에 저싱유모로 키웁고, 우는 애기 젓가슴 헤연 젓도 맥연 키와 주고, 업영도 키와 주고 험셴 헤연, 저싱 유모로 들어 사고 신산만산 할락궁인 아미도령 처소로 들어 낫습네다. 이공서천도산국님 난산국도 풀엇우다. 본산국도 풀엇습네다.

이공본풀이>비념

647) 알이로구나: 아래로구나.

648) 감테 7똥: 감태같은. 해조류의 하나.

649) 봄줍이나: 봄잠이나.

650) 너미: 너무.

651) 흑인들사: 흑인들.

652) 만들아: 만들어.

653) 심방집은 안팎으로 스물으덥 게 방울떡을: 심방집의 큰곳에서 올리는 4개의 고리동반떡을 뜻함.

654) 청너울 백너울: 고리동반을 만들 때 떡과 뎃가지를 너울지로 감싸는 절차. 너울지는 백지에 마름모 꼳의 구멍이 여러 개 뚫어 놓은 모양. 즉 너울지는 원강암이가 죽어 동백나무 아래 거미줄이 쳐 있던 모양을 본 뜬 것.

655) 벨이: 별이.

656) 솜솜: 송송.

657) 고리안동벽: 고리동반 방식 역할을 하는 ‘빙개떡’과 방울 모양의 ‘방울떡’ 개로 이루어진 떡.

658) 자동벽: 고리안동벽.

상가지⁶⁵⁹⁾ 꽃 꺼꺼지게 맏서~. 중가지 꽃 꺼꺼지게 맏서. 하가지 꽃 꺼꺼지게 허지 맏서~.
이공서천도산국 연질로 난산국입네다예~.

659) 상가지: 윗가지.

삼공본풀이

삼공본풀이>들어가는 말미

삼공안당주년국님~, 난산국입네다예~.

삼공본풀이>본풀이

옛날 옛적 강이영성이서불~, 홍문수천 너실부인 샅데다. 옷상식은⁶⁶⁰ 강이영성이서불이 살고, 알상식은⁶⁶¹ 홍문수천너실부인님이 샅데다. 농소를 지은 흉년(凶年)이 들었구나. 밥 빌어당 죽 썬⁶⁶² 먹고 구명도식(求命圖食) 못허난~, 흐를날은 강이영성이서불은 알엿녁에 풍년(豐年)이나 들어서카부덴⁶⁶³ 알엿녁더레 네렸구나~. 알엿녁 홍문수천너실부인님도 흉년 드난 우잇녁에나 풍년 들어서카부덴 우잇녁이더레 얻어먹으레 가단 보난~, 삼도전 세 커리에서⁶⁶⁴ 만났구나. 만난 이 말 저 말 허단 보난,

“아지방은 누게파?”

“나는 옷상식 강이영성이서불이우다.”

“난 알상식에 홍문수천너실부인님이우다. 무사⁶⁶⁵ 이디까지⁶⁶⁶ 옵데가?”⁶⁶⁷

“알엿녁에 흉년 들언 우잇녁이더레 얻어먹으레 감수다.”

“나도 우잇녁에 흉년 들언 알엿녁이더레 감수다.”

“아이고~ 우리 훈 팔저(八字) 훈 사주(四柱)로구나 옵서.”

홀목 심은 계⁶⁶⁸ 오꽃 정이 들었구나~.⁶⁶⁹ 홀목 심영~ 얻어먹으레 덩기단⁶⁷⁰ 보난에 부베간(夫婦間)을⁶⁷¹ 정헤였구나. 찬물 훈 사발 떠 놓안 부베간 인연(因緣)으로 사는 것이 아기 베엿구나~. 늬이 집 헛간에서 아긴 나난 동네 사름이,

“아이고 귀헌 애기 낳았구나.”

은그릇에 밥을 떠다 주난 이 아긴~, 은장아기로 이름 지왔구나. 은장아기덜은 홀목 심언 얻어먹으레 덩기단 보난~, 따신⁶⁷² 아긴 베엿구나. 늬이 집 헛간에서 애긴 나난 이번도 툷 낳구나.

“아이고 이 애기덜~.”

동네 사름들이 늦그릇에 밥을 떠다 주난 늦장아기로 이름 지왔구나~. 툷 성제(兄弟)⁶⁷³ 홀목 심언 덩기단 보난, 또신 애긴 베언 난 건 보난 또시 툷이로구나. 이 아기라근에 남박세기에⁶⁷⁴ 밥을 떠 단 주난 가문장애기로 이름 지은 게 가문장애긴 나난에~, 흐를 이틀 살림이 폐

660) 옷상식은: 가문장아기 부신명 또는 그 출생지 윗마을은.

661) 알상식은: 가문장아기 모신명 또는 그 출생지 아랫마을은.

662) 썬: 끓여.

663) 들어서카부덴: 들었을까 봐.

664) 삼도전 세 커리에서: 세 거릿길에서.

665) 무사: 왜.

666) 이디까지: 여기까지.

667) 옵데가: 왔습니까.

668) 홀목 심은 계: 손목 잡은 것이.

669) 정이 오꽃 들었구나: 정이 어느새 들었구나.

670) 덩기단: 다니다가.

671) 부베간을: 부부사이를.

672) 따신: 다시는.

673) 툷 성제: 여형제 자매(姉妹)를 말함.

674) 남박세기에: 나무바가지에.

와지어 간다.⁶⁷⁵) 엇인⁶⁷⁶) 곡식(穀食)이 나와 간다~. 엇인 밭이⁶⁷⁷) 나와 간다. 밭디 농스(農事) 지언 허단 보난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 잘 살았구나.

흐를날은 비가 어실어실⁶⁷⁸) 오라 가난 강이영성이서불, 흥문수천너실부인,

“야~ 큰년아, 셋년아,⁶⁷⁹) 족은년아,⁶⁸⁰) 이레 오라.”⁶⁸¹)

오란 앓았구나.⁶⁸²)

“큰년아, 나 톨애기야, 은장아기야, 닌 누게 덕(德)에 살았디?”⁶⁸³)

“하나님도 덕이우다.⁶⁸⁴) 지에님도 덕이우다. 아버지, 어머니 덕이우다~.”

“아이고 은장아기 나 톨 착허다. 너 방으로 들어가라~. 나 톨아기야 늦장아기, 이레 오라~. 닌 누게 덕에 살았시니?”

“하나님도 덕이우다. 지에님도 덕이우다. 아버지, 어머니 덕이우다~.”

“아이고 나 톨 착허다. 늦장아기야, 니 방으로 들어가라.”

족은톨애기 불러단,

“가문장아기야, 닌 누게 덕에 살았디?”

“하나님도 덕이우다. 지에님도 덕이우다. 아버지도 덕이우다. 어머님도 덕이우다만은 나 뱃
뽕⁶⁸⁵) 알에 선 7뭇으로⁶⁸⁶) 살았수다.”

“아이고 요년, 생긴 년 하루 세 떼 밥 뽕끄랭이 멕이멍⁶⁸⁷) 살단 보난 베포롱 알에 선 7뭇이
이 거 무신 말이넌 혼자 나고가라~.”⁶⁸⁸)

네쫓아부난, 먼 올레⁶⁸⁹) 나고간다.

“큰년아~, 가문장아기 어마니나 가시니⁶⁹⁰) 먼 올레 강 보렌.”

허난~, 은장아기 먼 올레 나간 몰팡돌에⁶⁹¹) 상⁶⁹²) 굳는 말이,

“아이고 가문장아기야, 흔적 도망가라.⁶⁹³) 아버지, 어머님 몽둥이로 느⁶⁹⁴) 떼리레 오람덴.”

굴았구나.⁶⁹⁵) 이 말을 들언 가명 허는 말이,

“우리 늦장언니랑, 은장언니랑 저 알에 내려 사건 청주쟁이, 흑주쟁이⁶⁹⁶) 몸으로 환싱(幻生)
협서~.”

675) 페와지어 간다: 퍼져간다.

676) 엇인: 없는.

677) 밭이: 밭이.

678) 어실어실: 비 따위가 부슬부슬 오는 모양.

679) 셋년아: 둘째 년아.

680) 족은년아: 막내 년아.

681) 이레 오라: 이리로 오라.

682) 앓았구나: 앓았구나.

683) 살았디: 살고 있느냐.

684) 덕이우다: 덕입니다.

685) 베포롱: 배꼽.

686) 선 7뭇으로: 여자의 성기를 뜻함.

687) 뽕끄랭이 멕이멍: 배가 뽕룩하게 먹이며. ‘뽕그랑-’이 기본형이고 ‘뽕끄랑-’은 된말.

688) 혼자 나고가라: 빨리 나가거라.

689) 먼 올레: 거릿길 쪽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

690) 어마니나 가시니: 얼마만큼이나 갔는지.

691) 몰팡돌에: 하마석(下馬石)에. 노뚝돌에.

692) 상: 서서.

693) 흔적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694) 느: 너.

695) 굴았구나: 말했구나.

696) 청주쟁이 흑주쟁이: 청지네 흑지네.

은장아기, 늦장아기 물팡돌에 네리난 주녕이 몸에 환생 허엿구나에~. 아방 어멍이,
“늦장아기야, 느네 큰성도 아니 오고 훈적 간 보라. 족은년 가문장아기 어마꿈이나⁶⁹⁷ 가시
니?”

이번은 걸름⁶⁹⁸ 우터레⁶⁹⁹ 간 굳는 말이,

“가문장아기야, 훈적 도망가라. 아버지, 어머니 느 떼리레 몽둥이 들런 오람져.”

“우리 늦장언니랑 저 걸름 앞에 내려 사건 굶벙이 몸으로 환싱허렌.”

헤엿구나. 늦장아기 네리난 굶벙이 몸에 환싱허엿구나. 늦장아기 굶벙이 몸에 환싱허난 은
장아기, 늦장아기, 가문장아기 간 곳 엿이난,

어느 날 갑자기 강이영성이서불 남답법답(南答北答) 너른 전답(田畝)~ 간 곳디 엿고~, 흐를
아침에 배가 고파 간다. 겁질에⁷⁰⁰ 배고판 덩기단 지방 턱에⁷⁰¹ 걸리난 앞눈이 어둑엇구나~.
앞눈이 어둑언~.

가문장아긴 가명, 가명 헤는 열락서산(日落西山)에 다 지어 간다. 가단 보난 마 파는 소리가
우르릉 쿵쿵, 우르릉 쿵쿵 나난 마 파는 디 갖구나.

“아이고 어딜 가민 인가처(人家處)나 잇우과?”

큰마통이 굳는 말이,

“나 마 파는디 정신 엿인디 나 몰른덴~.”

후욕노욕(詬辱怒辱) 허엿구나~. 나왔구나. 가단 보난 우르릉 쿵쿵, 우르릉 쿵쿵 또 마 파는
디가 잇엇구나. 셋마통이 마 파는 디 간,

“어디 가민 인가처(人家處)나 잇우과?”

후욕누욕(詬辱怒辱) 헐다. 가단 보난 또시 마 파는 디가 잇엇구나. 족은마통이안티 갖구나.

“갈 길은 멀고 헤는 열락서산(日落西山)에 다 지난 깊은 밤이 뉘엄수다. 어디 인가처(人家
處)나 잇우겐?”

허난, 족은마통이 굳는 말이,

“요디⁷⁰² 가당 볍서. 피조리 초막살이⁷⁰³ 잇읍네다.”

아닌 게 아니라 가단 보난 피조리 초막살이 잇엇구나.

“주인 잇건 나그네 무서⁷⁰⁴ 볍서~.”

“아이고 어디랑 주인 자고 어디랑 나그네 잡네까? 우리 큰마통이, 셋마통이, 족은마통이 마
팡 오락 난데없는 사람이 집이 들어 낫덴 후욕노욕 허민 안웁네다. 훈적 갑센.”

허난,

“난 딛 사람⁷⁰⁵ 집을 지영 납네까? 밧을 지영 납네까? 정제⁷⁰⁶ 구석이라도 빌려 줍서.”

하도 불쌍해엿구나. 정제 구석 빌려 주엇구나.

흐꿈 잇이난⁷⁰⁷ 우르릉 쿵쿵, 우르릉 쿵쿵~ 큰마통이가 마 판 들어오란 정제에 보난 난데없

697) 어마꿈이나: 열마꿈이나.

698) 걸름: 거름.

699) 우터레: 위에.

700) 겁질에: 겁결에.

701) 지방 턱에 문지방 턱에.

702) 요디: 여기.

703) 피조리 초막살이: 매우 작고 형편이 안 된 초가집 막살이.

704) 무서: 뻣어.

705) 난 딛 사람: 길을 나서 다니는 사람.

706) 정제: 부엌.

707) 흐꿈 잇이난: 조금 있으니.

는 여자가 맞이난 어멍안티 후욕노욕(詬辱怒辱) 헤여간다. 셋마통이도 들어오란 어멍안티 후욕
누욕 한다. 족은마통인 보난,

‘인척이 보아난⁷⁰⁸⁾ 여자로구나.’

안으로 들어간다.

큰마통이 마 판 오란 마를 숲안⁷⁰⁹⁾ 한복판은 자기가 먹고, 우이 머린 어멍 주고, 콩지는 저
가문장아기 주엇구나. 셋마통이도 마 판 오란 마를 숲안 가운데 이녁⁷¹⁰⁾ 먹고, 콩지 꼴랭인
어멍 주엇구나. 족은마통이 마판 오란 마를 숲안 어멍은 한복판 주고, 이녁 콩지 먹고, 어서
가문장아기 머릴 주엇구나.

가문장아기도 밥 훈 상을 출련⁷¹¹⁾ 안에 들어 간,

“큰마통이 이 밥 먹읍서.”

“우리 조상 떼부떠 아버지, 어머니 떼부떠 아니 먹어난 밥 안 먹음네다.”

“셋마통이 이 밥 먹읍서.”

“우리 큰성님도 안 먹어난 밥 나도 안 먹음네다.”

“족은마통이 밥 먹읍센.”

허난, 밥 수까락에 밥을 거련 후후 불명 먹어 가난, 큰마통이도 꼴각꼴각 먹구정⁷¹²⁾ 헤엿구
나. 셋마통이도 춤만⁷¹³⁾ 꼴각꼴각 먹구정 허엿구나.

“훈번 먹어 보견 흐끔만 드렌.”

허난, 손바닥더레 노난 호~ 불명 먹엇구나~. 깊은 밤인 뉘어 줌을 자젠 허난, 큰마통이 방
에 들어 가 문을 똑똑 두드리난, 눈도 아니 걸어 뜬다. 셋마통이 방에 들어 간,

“이 문 올센.”

문을 똑똑 두드리난 눈도 아니 뜬다~. 족은마통이 방에 들어 가난 문을 올앗구나. 서른으릅
닛바디⁷¹⁴⁾ 들런 웃음 웃엇구나. 훈 이불자리에 누엇구나.

뫼날 아척은⁷¹⁵⁾ 큰마통이 마 파는 딘⁷¹⁶⁾ 간 보난 물똥만 미삭허고,⁷¹⁷⁾ 셋마통이 마 판 디
간 보난 쉼똥만 미삭허고, 족은마통이 마 판 딘 간 보난 금이여, 은이여 잇엇구나. 그 걸 좇어
단 푼난⁷¹⁸⁾ 남답법답, 너린 전답, 유기전답을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로 잘 살앗구나.

흐를날은 가문장아기가 족은마통이안티 곤는 말이,

“오늘부터 백일잔치 헤여 보게마썸.”

“어서 기영 허렌.”⁷¹⁹⁾

허난, 우리나라 방방곡곡(坊坊曲曲)에 앞눈 어둑은 사름들은 다 오렌 걸인⁷²⁰⁾ 잔친 헤염덴
강이영성이서불, 흥문수천너실부인도 소식을 들엇구나.

“웁서. 낭군님아 우리도 강 보게.”

708) 인척이 보아난: 일찍이 보았던. 아까 보았던.

709) 숲안: 삶아서.

710) 이녁: 자기.

711) 출련: 차려서.

712) 먹구정: 먹고 싶어.

713) 춤만: 침만.

714) 닛바디: 잇바디(齒列).

715) 뫼날 아척은: 뫼날 아침은.

716) 딘: 곳에서.

717) 미삭허고: 한 가득 하고 한 데 너무 많이 모아지거나 여기저기 널려져 어지러운 상황.

718) 푼난: 파니깐.

719) 기영 허렌: 그렇게 하라고.

720) 걸인: 거지.

“우리 어둡은 눈에 어떻게연 가?”

“경 해도⁷²¹) 읍서. 강 보게~.”

너실부인은 지팽이는 앞이 심고, 강이영성은 뒤에 지팽이 짚어 앉안 소식 들으멍, 들으멍 가문장아기 사는 집이 갖구나. 가문장아기 먼 올레 들어오는 건 보난 우리 아방, 우리 어멍이 들어오람구나.

“늦인덕정하남야, 저 할망, 하르방 봐지건들랑 우으로⁷²²) 주당 알로⁷²³) 강 끊어 불고, 알로 강 주당 우으로 강 끊어 불고, 가운데 주당 알로 끊어불렌.”

허난,

이디 강 앓아도 안 주고, 저 디 강 앓아도 안 주난 강이영성이서불, 흥문수천너실부인,

“읍서. 가게. 우린 여기서도 못 얻어먹을 팔자(八字)가 닳우우다.”

일어사젠⁷²⁴) 허난, 가문장아기 안성노기(安城鑰器), 도용칠반상(統營漆板床) 출려다 놓안,

“요레 앓입서.”⁷²⁵)

밥 흔 상을 놓앗구나.

“요 밥을 먹읍센.”

헤난 첫 수꾸락에 목이 탁 메엇구나.

“할으바지, 할마님 옛말이나⁷²⁶) 곱아 봅서.”⁷²⁷)

“난 옛말도 모릅네다.”

“본말이나⁷²⁸) 곱아 봅서.”

“본말도 모릅네다.”

“살아온 정네(情禮) 쟁각 허멍 곱아봅서~.”

<놀레>

오닐~ 오닐~ 오닐이라에~

날도~ 종양~ 오늘이랑~

들도 종양~ 오늘이랑~

성도 열만가실선가

옛날~이랑~ 옛적에~

웃상식은 강이영성~이서불이~

살읍데다

알상식은 흥문수천~너실부인

부베간은 멧언 사난

큰똥아긴 솟아난다

은장아기~ 이름 지웁고

셋똥아긴 솟아나니

721) 경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722) 우으로: 위로.

723) 알로: 아래로.

724) 일어사젠: 일어서려고.

725) 앓입서: 앉으세요.

726) 옛말이나: 옛말. 여기서는 ‘살아온 내력’을 의미함.

727) 곱아 봅서: 말해 보십시오.

728) 본말이나: 보고 들은 말이나.

늦장아기 이름 지우고
 족은똥아기 솟아나난
 가문장아기~ 이름지완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 잘 살았구나
 흐를날은~ 아기들 불령
 큰똥아가 너는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공발신(行動發身) 허엿느냐
 하나님도~ 덕입네다
 부모님도 덕입네다
 셋똥아기~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공발신 허엿느냐
 아버지~ 덕입네다
 족은똥아기 베포롱⁷²⁹ 알에 선 7똥은⁷³⁰ 살았수다
 가문장아기~ 쫓겨나니
 큰마통이 셋마통이 족은마통이~
 만나건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로 잘 살았수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가문장아기네다~. 아버지 나 이 술 한 잔 받았 어서 먹읍서~.”

엄뜻 허난,

“아이고 나 똥이여.”

아버지, 어머니 앞눈 어둑엇단 텃구나.

나똥 7똥 전상,⁷³¹ 드똥 7똥 전상, 손부산이 전상, 글 흐기도 전상, 활 흐기도 전상, 농스
 지기 전상이로구나. 물질흐기 전상, 심방질흐기 전상이여~. 만상이여~. 전상 없는 일이 잇습네
 까. 악하고 독하고 모진 전상이랑 천지왕 골목더레 네놀리져~. 청죽독에 청스룩도 네놀리자.
 탁죽독에 흑스룩도 네놀리자. 소주독에라건 백스룩 네놀리자~. 머리 아픈 전상, 눈 아픈 전상,
 코 아프고, 입 아프고, 누단 어깨 청비게, 웬 어깨 흑비게,⁷³² 오장육부 삼백 스혈 스테에 아
 프는 전상, 술 먹언 광질흐는⁷³³ 전상, 천지왕 골목더레~ 네놀리자.

어질고 순한 전상이랑 먹을연, 입을연 큰굿 전세남 네올 전상이라~. 연양당주더레 네놀리고
 스가(私家)집이 굿 헤나민 마을마다 부제집으로 네놀리고, 심방집이는 마을마다 큰심방집으로
 남자 심방 집은 황수(行首)집으로 김씨나, 한씨민 김황수 집이, 한황수 집으로 네놀리젠 하고,
 여자 심방덜은 강씨나, 고씨나, 김씨 똥민 강택이 집으로 네놀리자. 안택이 집으로 네놀리자.
 허는 법입네다.

스가집에 마을 도청(都廳)굿을⁷³⁴ 흘 떼는 도청 앞마당으로 네놀리자. 관덕정(觀德亭) 마당
 으로 네놀리자. 시청(市廳)마당으로 네놀리자. 읍면동리사무소로 네놀리는 거고, 개인집은⁷³⁵

729) 베포롱: 배꼽.

730) 선 7똥은: 여자의 성기를 뜻함.

731) 전상: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

732) 누단 어깨 청비게 웬 어깨 흑비게: 광증이 들 때 빙의되는 순간의 느낌을 표현하는 말.

733) 광질흐는: 미친 짓 하는.

734) 도청굿: 마을 곳곳을 돌며 액을 없애고 안녕을 기원하는 굿.

부제집이라~. 묵은성은⁷³⁶ 안판관 집으로 네놀리자. 화북(禾北)은 허자수 집으로 네놀리자. 삼양(三陽)은 오민 안판관 집으로 네놀리자. 신촌(新村)은 오민 고만호 집으로 네놀리자. 김동지 집으로 네놀리자. 조천(朝天)은 오민 김철방 집으로 네놀리자. 함덕(咸德)은 오민 한구장 집으로 네놀리자. 북촌(北村)은 가민 이만경 집으로 네놀리자. 동복(東福)은 오민 심만호 집으로 네놀리자. 김녕(金寧)은 오민 황부제 집으로 네놀리자. 월정(月汀)은 가민 한동지 집으로 네놀리자. 행원(杏原) 가민 이판관 집으로 네놀리자. 한동(漢東)은 가민 허자수 집으로 네놀리자. 팽대(坪垔)에 가민~ 고만호 집으로 네놀리자. 부데각 하르방 집으로 네놀리자. 상세화린(上細花里-ㄴ) 가민 정찰방 집으로 네놀리자. 하돈(下道-ㄴ) 가민 김장수 집으로 네놀리자. 종달(終達)리 김만호(金萬戶) 벼슬⁷³⁷ 허던 집으로 네놀리자.

글로 저레는⁷³⁸ 심방은 덩기명 아니 헤어난 모르겟습네다. <우리 이씨 선생님 산 떼 일로 허민 신천리, 하천리, 표선까지 다 헛인디, 그거는 헤뵈자 다 모르는 일이고, 나 이디까지만 허겟습네다.>

735) 개인집은: 개인집은.

736) 묵은성: 제주시 삼도동의 지명(地名).

737) 벼슬: 벼슬.

738) 글로 저레는: 그리로 저리는.

세경본풀이

세경본풀이>들어가는 말미
세경신중마누나님 난산국입네다.

세경본풀이>본풀이

옛날 옛적~ 천하 김진국 데감님 살읍네다. 쯤진국이 부인님이 부베간에 멧언 사난, 이십스물, 사십서른이 넘어도 남녀간에 아기 엇언⁷³⁹ 호이탄복(後悔歎服)허십네다. 남당법당 유기전답 물모쉬 좋고, 종하님 거느리는 게 정이 엇인 정수냄이 거느리령 사압네다. 흐를날은 김진국 데감님이 삼천선비, 일만선비 바둑 장계 노념놀이를 허난 걸추(傑出)헌 선비가 곤는 말이, “김진국이 데감님아 아기 엇인 돈을 기영⁷⁴⁰ 땅⁷⁴¹ 가민 아들 잇영 주웁 먹을 거파? 딸이 잇영 주웁 먹을 거파?”

이 말을 들으난, 김진국 데감님은 두던 바둑 장계를 놓아 똥 내려오랏구나. 높은 낭에 세집승이 세끼 낭 먹이 물어단 오조조 일럼구나.

“날만 못헌 세 가막세도⁷⁴² 아기 세끼 하나 놓안 오조조 일럼구나.”

내려오단 보난, 황천데국(仰天大笑) 웃음 소리가 나앗구나. 간 보난 피조리 초막살이⁷⁴³ 돌찌귀 거적문을 들앗구나.⁷⁴⁴ 창꼬냥을 뜨안 툄란⁷⁴⁵ 보난 얻어먹는 계와시덜이⁷⁴⁶ 아이 세끼 허나 놓안, 아방안티 신⁷⁴⁷ 애기 어명한티 가민 황천데국, 어명한티 잇인 애기 아방안티 가민 황천데국 웃음 웃엄구나. 집이 오란 정술덱이가 밥 훈 상 출령⁷⁴⁸ 노난 밥을 아니 먹으난, 쯤진국이 부인님이,

“이 밥을 먹읍서. 웃을 일이 잇우다.”

그 밥을 먹엇구나. 앞데자를 열어 놓안 논다. 은단뽕(銀丹瓶)에 서단마게,⁷⁴⁹ 능화도비(菱羅塗壁), 소라만단지, 각진장판(角壯壯版)에 둥그려도 웃음이 아니 나오랏구나.

동계남(東觀音) 은중절, 서계남(西觀音) 상세절, 남계남(南觀音) 녹농절, 북하산 미양안동절 푼처⁷⁵⁰ 지컨 데서님 하늘 굴른 굴송낙, 지에 굴른 굴장삼,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를⁷⁵¹ 둘러 받안 김진국 데감, 쯤진국 부인 사는 짓알로 도느리며,

“소승은 절이 뵈네다.”

“어느 절당에 데섭네까?”

“동계남 은중절에 살암수다. 우리 법당에 당도 파락(破落)이 뵈고, 절도 파락이 뵈난 권제삼문(勸齋三文)을 받아단 헌 당, 헌 절 수리허고 멩(命) 없는 이 멩을 주저. 복(福) 없는 이 복을

739) 엇언: 없어.

740) 기영: 그렇게.

741) 땅: 따서.

742) 가막세도: 까마귀도.

743) 피조리 초막살이: 매우 작고 형편이 안 된 초가집 막사리.

744) 들앗구나: 달앗구나.

745) 툄란: 툄어서.

746) 계와시덜이: 거지들이.

747) 신: 있는.

748) 출령: 차려서.

749) 서단마게: 마게. ‘서단’은 앞의 ‘은단’에 맞춘 조운(調韻).

750) 푼처: 부처.

751)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를: 종이 들고 다니는 자루를.

주저. 생불(生佛) 없는 죽순은⁷⁵² 생불을 주저. 권제를 받으려 네렸습네다.”

높이 들러 낮이 스르르 권제를 받았 가가난, 김진국 데감님,

“데서님아, 원천강(袁天綱) 스주팔자(四柱八字) 우리 부베간⁷⁵³ 골라 봅서. 원천강 스주팔자에 아기 엇언 무유유화(無爲而化) 허렌 현 팔저괘?⁷⁵⁴ 아니민 불공(佛供)이라도 드리민 애기 잇일 팔자괘?”

단수육갑(單數六甲) 오용팔괘(五行八卦) 지편 곤는 말이,

“아기 엇영 무유유화 허렌 현 팔전 아니우다. 영급(靈給) 좋앙 좋은 법당에 강 불공 드러 봅서.”

헤여두고 데서님은 권제를 받았 절간 법당더레 소곡소곡⁷⁵⁵ 도올라가십데다예~.

김진국 데감님, 죽진국이 부인님 강모디는⁷⁵⁶ 강나룩,⁷⁵⁷ 수답(水畝)이는 수나룩,⁷⁵⁸ 모답이는 모나룩 심엇구나. 상백미(上白米), 중백미(中白米), 웨백미(下白米) 착쓸 엇이⁷⁵⁹ 출려 간다. 가삿베도 구만 장, 송낙베도 구만 장, 드리베도 구만 장, 물멍지(-明紬), 강멍지(-明紬), 세양페, 세미녕,⁷⁶⁰ 고리비단(--緋緞), 한비단(-緋緞), 능화도비(菱羅塗壁) 마바루에 실렸구나. 금마답에⁷⁶¹ 수리 두고,⁷⁶² 올레에⁷⁶³ 막음 두언 첩첩삼중(疊疊山中)을 올랐구나.

싱근 돌에,⁷⁶⁴ 물팡돌에 쉬엇구나. 안네서 데서(大師)님이 곤는 말이,

“소스야, 소스야, 먼 올레 나고 보라. 어느 양반이 덕에서 불공을 오람시니? 네눈이반동게가⁷⁶⁵ 중이는 보민 두 발을 들롭고, 하인은 보민 누영 주꾸는 네눈이반동게가 네 발을 들렁 드리쿵쿵 주꿍구나.”

소사중은 먼 올레 나간 싱근 돌에 물팡돌이구나.

“소승은 절이 뵈네다. 어느 양반이 덕(宅)에서 불공 읍데가?”

“너히 법당에 영급이 좋덴 허난, 우리 천하 김진국 데감 죽진국 부인님이렌.”

허난,

“안드로 들어옵서.”

들어가난 안사랑, 밧사랑, 네웨사랑을 출렸구나. 갓영 간 거 은분체에⁷⁶⁶ 도금⁷⁶⁷ 올려간다. 상탕(上湯)에는 매를 짓고, 중탕(中湯)에는 모욕(沐浴)허고, 하탕(下湯)에는 수족(手足) 씻엇구나. 돌아올 땐 월광(月光)이, 지어갈 땐 일광(日光)이, 중천비단 당돌님 세양상 받아 오던 옥계 천신 일월님 사나사나, 백일 불공을 드렸구나. 백일째 뒹는 날 데서님 꼬까막 은저울데⁷⁶⁸ 갓

752) 죽순은: 자순은.

753) 부베간: 부부간에.

754) 팔저괘: 팔자입니다.

755) 소곡소곡: 거침없이 앞으로 걸어가는 모양.

756) 강모디는: 강답(-畝)은 건답(乾畝). 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곧 마르는 논.

757) 강나룩: 밧벼의 일종.

758) 수나룩: 논벼.

759) 착쓸 엇이: 쪼개진 쌀이 없이.

760) 세미녕: 무명 면포(綿布).

761) 금마답에: 마당에.

762) 수리 두고: 잠가서 봉한 표지를 하고. 흔히 ‘감봉수레 하고’라고 말함.

763) 올레에: 거릿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에.

764) 싱근 돌에: 심은 돌에.

765) 네눈이반동게가: 눈가에 점이 있어 네 눈으로 보이는 제주산 토종 사냥개.

766) 은분체에: 은부처에.

767) 도금: 돈(錢)과 금(金).

768) 꼬까막 은저울데: 까마귀 주둥이 같은 갈퀴에 달아매도록 만들어진 은저울(銀衡) 대추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함.

영 오란 곧는 말이,

“오늘은 백일이 됐으다. 백 근이 됐민 아덜이 나고, 백 근이 못 차민 여즈식(女子息)이 날 듯 허십네다.”

꼬까막 은저올데 저우리난,

“출령 온 건 하영⁷⁶⁹ 출령 오랏우다만은 백 근이 못 차난, 여즈식이 날 듯 험네다. 내려강 합궁일(合宮日)을 받안 천상베필(天上配匹) 무어 봅센.”

허난, 김진국 데감님, 조진국 부인님 훈천님 절 삼베 올리고 금마답에 수리 두고 올레에 막음을 두고 첩첩산중(疊疊山中) 내려오라 간다. 헤는 열락서산에 다 지엇구나. 어욱폐기 으지혜여⁷⁷⁰ 무정눈에⁷⁷¹ 즘을⁷⁷² 자난 선몽(現夢)이 됐엇구나. 앞이명엔 돌님이여. 뒷이명엔 돈 양단 어깨 금산세벌 벳힌 듯한 아기씨가 콤더레⁷⁷³ 들어오난 엄뜻 일어난난 꿈이로구나. 헤몽산에 간 해몽(解夢)해엇구나.

집이 오라 합궁일을 받았구나. 부베간이 천상베필을 무으난⁷⁷⁴ 석 돌 열흘 백일이 됐난 전이 먹던 음식이 아니로구나. 전이 먹던 밥이 아니여. 밥에는 골네⁷⁷⁵ 나고, 장에는 장칼네가⁷⁷⁶ 나고, 물에는 펄네가⁷⁷⁷ 나고, 옷 입던 옷에는 뚝네가⁷⁷⁸ 나암구나.⁷⁷⁹ 아홉열 들이 나난 것 보난 여즈식이 나앗구나.

“이름이 지와 보저.”

우리 부베간 절간에 강 불공 드련 조청(自請)헤연 난 애기난 조청비로 이름을 지엇구나.

훈 설 두 설 넘어간다. 예시일곱 설 넘어간다. 열다섯 십오 세가 당헤여가난 상다락에 노념 한다. 중다락에 노념한다. 하다락에 노념한다. 흐를은 정술덱이가 오랏구나.

“야 정술덱아, 니 손은 무사⁷⁸⁰ 경 곱닥허니?”⁷⁸¹

“상전님 모른 소리말서. 상전님은 아침이 일어나 바 이불자리도 아니 게고, 마당도 아니 찢고, 정제가 강 밥도 안헤고, 그릇도 아니 씻치고, 솥전도 아니 들르난 얼마나 손이 곱과? 난 종이러부난 맨날 아침이 일어나민 밥 허저. 마당 쓸저. 정제에서 그릇 씻치저. 솥전 들르당 보민 손톱에 검은 피 거멍 헤엇인디, 주천강 연네못디 강 맨날, 맨날 상전님 입어난 옷 소담해단⁷⁸² 보난 손이 곱닥허웁네다.”

“정술덱아, 나도 허민 고을 꺼가이?”

“아이고 상전님은 놀아난 손이난 더 곱웁네다.”

조청비 입던 옷 7는데 질누끼에⁷⁸³ 물마께 놓안 연소담을 네렛구나.

하늘 옥항에 문왕성에 아덜 문도령은 붓짐을 메연 알엇녁⁷⁸⁴ 거무선쟁한티 넘어가단 보난,

769) 하영: 많이.

770) 으지혜여: 의지하여.

771) 무정눈에: 무정하게 감기는 눈에.

772) 즘을: 잠을.

773) 콤더레: 품에.

774) 무으난: 맺어서.

775) 골네: 군내. 본래의 맛이 변하여 나는 좋지 아니한 냄새.

776) 장칼네가: 묵은 장에서 나는 냄새가.

777) 펄네가: 물비린내.

778) 뚝네가: 땀냄새가.

779) 나암구나: 나는구나.

780) 무사: 왜.

781) 곱닥허니: 고우니.

782) 소담해단: 빨래하다.

783) 7는데 질누끼에: 가는 대나무로 만든 등에 짐을 져 나를 때 쓰는 큰 바구니에.

주천강 연네뭇디 오랏구나. 넘어가단 얼핏 보난,
 ‘꽃 785) 아기씨가 연세답을 헤염구나.’
 남자이 기십으로 786) 입불연을 헤여보저. 기불연을 헤여보저.
 “지나가던 선비우다. 목이 787) 기리난 물 훈 직만 788) 줍센.”
 허난, 어서 포주박을 네령 주엇구나. 그걸로 물을 탕탕 세 번 떼리고 이레 활락, 저레 활락
 젓언 물을 떼 수양버들 잎세길 주난, 문도령은 그걸 푸푸 불명 먹엇구나. 먹영 곤는 말이,
 “얼굴은 보건디는 양반이 같아도 속마음은 쌍놈만도 못헙네다.”
 “무신 덕분에 그런 말을 곱암수꽈?”
 “무신 덕분에 물을 탕탕 세 번 떼립디가?”
 “물에도 거머리 잇이난, 789) 거머리 알더레 떨어지렌 떼렛우다.”
 “이레 활락, 저레 활락 무사 젓입디가?”
 “검질 끄레기 잇어부난, 검질 꺼레기 이레 활락, 저레 활락 젓엇우다.”
 “무신 덕분에 수양버들 잎세권 띠웁데가?”
 “급히 가는 사람 물을 먹으면 체허난 후후 불명 체나지 말렌 안넛우덴.”
 허난, 문도령도 그 말에 즈청비 얼굴 보난, 훈빱 반헤고 즈청비도 그 말을 곱으멍 문도령
 얼굴 보난 천하 도령이로구나. 둘이가 훈빱 빠졌구나.
 “웁서. 우리 통성명(通姓名)이나 헤여 보게.”
 “기영 험서.”
 “난 하늘 옥항에 문왕성이 아덜 문도령입네다. 알엿넉 거무선생안티 글공부 감수덴.”
 허난,
 “난 주년국 땅에 즈청비우다.”
 즈청비가 꺾를 790) 네엿구나.
 “나영 785) 쌍둥이가 잇우다. 글공부 가젠 허난 글공부 갈 선비가 벗이 엇언 잇이난 우리
 집이 강 우리 동생 데령가기 어떻허꽈?”
 “어서 기영 험서.”
 문도령 강 785) 오랏구나.
 “이 올레에 사십서.”
 안네 들어강,
 “아버지, 어머니 나 알엿넉에 글공부 강 오쿠다.”
 “아이고 야, 야, 예편년이 791) 남도 낫저. 792) 글이렌 현 건 무신 글이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헤여 봅서. 이제만이 아버지, 어머니 죽으면 축지방(祝紙榜)은 누게
 가 쓸 꺼꽈?”
 그 말을 들으난 맞앗구나. 아버지, 어머니 허락(許諾) 허난, 여자 방에 강 여자 옷 다 벗어
 두고 남자 방에 강 험벽으로 793) 가슴을 감안 남자 옷을 입엇구나. 붓짐을 등에 미엇구나.

784) 알엿넉: 아랫넉.
 785) 꽃 785): 꽃 같은.
 786) 기십으로: 기운(氣運)으로.
 787) 787) 목이 마른 상태.
 788) 물 훈 직만: 물 한 모금만.
 789) 잇이난: 있으니.
 790) 꺾를: 꺾를.
 791) 예편년이: 여편네가.
 792) 남도 낫저: 나기도 낫다.

먼 올레 나오란 문도령 박지난 절을 소곡 헤엿구나. 문도령이 굳는 말이,
 “긓사⁷⁹⁴) 들어간 조청비하고 무사 영 얼굴이 ㄱ뜨과?”⁷⁹⁵⁾
 “우리는 혼 어멍, 혼 아방 난 애기난 응, 얼굴이 ㄱ뜨주 틀릴 수가 잇습네까? 난 조청도레
 가 뵈네다.”
 “옵서. 가게.”
 알엿녁에 네렸구나.
 알엿녁에 네리난 그날 밤을 지세우젠 허난, 조청비가 다시 꺾을 네여 간다. 이불 속더레 은
 데양에 물을 떠단 은젓가락을 놓앗구나. 무정눈에 줌도 혼즘 안 자 튼 눈으로 세앗구나. 듯
 날⁷⁹⁶⁾ 아척은⁷⁹⁷⁾ 일어나난 문도령이 굳는 말이,
 “야, 조청도레야, 무신 덕분에 이불 속에 은데양에 물을 떠 놓안 은젓가락을 걸천디?”
 “모릅데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 나올 적에 글도 자원(壯元), 활도 자원하젠 허민
 요축 행 떨어지민 돈딱 떨어지고, 아니 떨어지민 글도 장원된데 험디다.”
 허난, 그 말이 조청비 꺾에 넘어가앗구나. 듯날 저녁부떠는 문도령은 은데양에 물을 떠단
 은젓가락 놓안 이레도 누웁 못 자고, 저레도 누웁 못 자고, 튼 눈으로 날을 세고 조청비,
 ‘문도령 저거 떨어지민 아니 뵈 켜난 줌 혼즘 못 잘 켜여. 나랑 므음 낱.’
 이레 돌아 누웁, 저레 돌아 누웁 줌 자는 것이 듯날부떠 삼천 서당에 가민, 하늘천 따지
 헤여 가민 문도령 밤세낭⁷⁹⁸⁾ 줌 혼즘 못 자난, 꼬박꼬박 조로왔구나. 조청비는,
 “하늘천 따지.”
 글도 자원헤여 간다. 활도 자원헤여 간다. 흐를날은 문도령이 오란 굳는 말이,
 “야, 조청도레야, 오라. 느영 나영 씨름이나 헤여 보게.”
 “기영 허라.”
 대답은 헤여동,
 ‘난 여자라부난 문도령 어땡행 이겨보코.’
 춤지름⁷⁹⁹⁾ 갖디단 양귀따지에 문지락허게 불랏구나. 문도령이 씨름허젠 헤여 가민 문도령이
 들라와라 가민 오른쪽더레 돌아사불고, 또 돌아와 가민 왼쪽더레 돌아사 가고 문도령도,
 ‘요눔으 조석 나 가는 방향을 피핸구나. 혼번 저 머리나 심영 열메당⁸⁰⁰⁾ 부찌주.’
 놀려 들언 머리를 심는 게 귀차지, 양볼따지 미끄락허난 춤지름 불라비엿구나.⁸⁰¹⁾
 ‘요떼로구나.’⁸⁰²⁾
 조청빈 놀려 들언 문도령 허리띠 심영 앞다리 탁허게 걸천, 열메당 부찌부난 씨름도 지엇구
 나. 문도령은 흐루는 잇이난,
 “야, 조청도레야, 이레 오라.”
 “무사?”
 “오라. 니영 나영 오늘랑 오즘 골길락⁸⁰³⁾ 허여 보게.”

793) 험벽으로: 형겅으로.

794) 긓사: 금방.

795) ㄱ뜨과: 같은가요.

796) 듯날: 뒷날.

797) 아척은: 아침은.

798) 밤세낭: 밤새도록.

799) 춤지름: 참기름.

800) 열메당: 걸쳐 메다가.

801) 불라비엿구나: 발라버렸구나.

802) 요떼로구나: 이때로구나.

‘난 여자라부난 어떻허코?’

옆이 보난 물 허나 잇인 게 물통을 싸낫구나. 물통 두 게에다 왕데 무작에⁸⁰⁴ 무껌⁸⁰⁵ 강알에⁸⁰⁶ 꼭허게 좁전⁸⁰⁷ 잇구나. 문도령은 으섯 발을 곱기난, 쯤청비는 잇는 힘을 베에 주언 확허게 헌 곱긴 게 열두 방청을 곱겼구나. 어리석은 문도령 쯤청비 꺾에 넘언 글도 떨어지고, 씨름도 허난 지어불고, 오줌 곱길락 허난 지어불고, 아침이 일어난 은데양에 물을 땡 세수를 헤노렌 허난, 하늘 옥항에서 부영이 젓놀게에 수양버들 잎세귀에 특허게 떨어졌구나. 바레보난 하늘 옥항에서,

‘문도령아, 흔적 올라오라. 서수왕에 장게 들라예~.’

문도령은 책불을 싸암구나. 쯤청빈 보난,

“야, 문도령아, 무사 책불을 썸시니?”

“우리 아버지 올라 오랑 서수왕에 장게 들렌 험덴.”

허난, 아이고 쯤청비 어떻허민 좋고,

“야, 올 때도 ㄱ치⁸⁰⁸ 오랏인디 니만 갈티야?”⁸⁰⁹

“오라. 우리 ㄱ치 가게.”

“오라. 기영 허라.”

가가난 쯤청비가 따시 꺾을 네여 간다.

“야, 문도령아, 이레 오라. 우리 삼천서당에 글공부 허단 보난 글 땡들 아니 올르느냐? 오라. 우리 모욕(沐浴)행 가게.”

물통이 두 게 잇이난,

“문도령아, 넌 씨름도 지고, 오줌 곱길락도 지고 허난 너랑 알통에서 모욕허라. 나랑 문딱⁸¹⁰ 니한티 이기난 옷통에 강 모욕허마.”

“기영 허렌.”

허난, 어리석은 문도령은 옷 우알로 민작허게 벗언 이레 풍당, 저레 풍당 몸모욕허여 간다.

‘이떼나 바릴 꺾가? 저떼나 바릴 꺾가?’

헤여도, 문도령 아니 바레여 가난 쯤청빈 보션을 벗언 다리를 물더레 커난 첨방첨방 헤엿구나.

‘어리석은 문도령아, 영 헤여도 남녀 구별을 못헤염구나.’

츨단,⁸¹¹ 츨단 수양버들 잎사귀 팬지를 띠완 간다.

‘난 쯤청도레가 아니고, 쯤청비가 뉘어지다.’

알통더레 던지난, 문도령은 그걸 받고나 쯤청비 멘발로 주년국 땅더레 와락치락, 와락치락 가간다. 아이고 문도령은,

‘요거 쯤청비로구나. 흔 이불자리에 즘을 자고, 씨름을 허고, 오줌 곱길락을 헤여도 나가 눈치를 못 체엿구나엔.’

헤여, 쯤청비를 어떻행 심으로 바지를 입는 게 흔 가달⁸¹² 속더레⁸¹³ 두 게 들어가고, 우이

803) 곱길락: 갈길락.

804) 무작에: 마디에.

805) 무껌: 묶어서.

806) 강알에: 사타구니에.

807) 좁전: 사이에 끼어 넣고.

808) ㄱ치: 같이.

809) 갈티야: 갈 것이냐.

810) 문딱: 모두.

811) 츨단: 참다가.

옷을⁸¹⁴) 입는 게 우뚝지에⁸¹⁵) 걸치는등, 마는등,

“야, 쯤청비야, 쯤청비야, 가던 걸음 멈추왕 올레에 사시라 나가 헐 말이 잇저.”

그 말을 들은 쯤청비도 사앗구나. 문도령이 강 아이고 흘목⁸¹⁶) 심영⁸¹⁷) 사실 말을 다 곱아가난,

“웁서. 우리 오늘밤이랑 우리 집이 강⁸¹⁸) 장⁸¹⁹) 갑서.”

“어서 기영 현.”

“이디 잇입서. 나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한테 강 허락(許諾) 말앙 오쿠다.”

안네 들어강 남자 방에 간 남자 옷 벗어두고 여자 방에 강 여자 옷 입언,

“아버지, 어머니, 글서당에 강 오랏우다.”

“아이고 나 뜰애기 착허다.”

“아버지, 어머니, 곱을 말 잇우다.”

“무신 말이고?”

“갈 떼도 7치 가고, 올 떼고 7치 오난 갈 길은 멀고 헤는 다 지엄수께. 이 밤, 저 밤, 야 상경 어떻헉네까? 우리 집이 장 가게 헤여 줍서.”

“남자가? 여자가?”

“남자우다.”

“열다섯이 넘엇걸랑 우리 방에 보네고, 열다섯이 아니 넘엇걸랑 느네 방에 데령 가렌.”

허난,

“열다섯 아니 넘엇습네다.”

문도령이 데령 방 안네 오란 그 밤을 지세와 상다락에, 중다락에, 하다락에 노렘헤연 문도령만 네볼엇구나. 흐를날은 쯤청비한티,

“나 옥항더레 올라가키여.”

“어서 기영 헉서. 본메 본짱을⁸²⁰) 줍센.”

허난, 상동낭 용얼레기⁸²¹) 반착 갈란 주엇구나.

“모릿날⁸²²) 스오시(巳午時) 뉘민 나가 네리켄.”

헤여동, 문도령 옥항더레 올라 가부난 모릿날 스오시(巳午時)가 뉘어도 아니 네렛구나. 상다락에 노렘헌다. 중다락에 노렘헌다. 하다락에 노렘헤연 하도 심심허난, 남창구문을 열언 보난 늬이 집 종하님덜 물 등어리에, 쉼 등어리에 설피낭⁸²³) 헤영 무꺼 놓고 물머리, 쉼머리 메화꽃 헤연 꼽아 놓고 아지랭이 아물아물 콧노레 불르멍 내려오람구나. 쯤청빈 용심이 낮구나.

“요눔으 쯤석 우리 집이 정이 엇인 정수넬이 오늘도 밥 뽕그랭이 먹언 멧방석 닦은 머리광 어디 강 짐 잠신고?⁸²⁴) 요눔으 쯤석 어디 신고?”⁸²⁵)

812) 가달: 다리. 바지 한 쪽 부분.

813) 속더레: 속에.

814) 우이 옷을: 윗옷을.

815) 우뚝지에: 어깨에.

816) 흘목: 손목.

817) 심영: 잡아서.

818) 강: 가서.

819) 장: 자고.

820) 본메 본짱을: 증거가 되는 물건을.

821) 상동낭 용얼레기: 상동나무로 만든 얼레빗.

822) 모릿날: 모레.

823) 설피낭: 썩레나무.

824) 잠신고: 자고 있나.

춧단⁸²⁶⁾ 보난, 아닌 게 아니라 뱃⁸²⁷⁾ 과랑과랑 나는디 으지에 줌 잠구나.

“아이고 요놈으 즈석아, 늬이 집이 정하님덜은 굴미굴산, 아야산⁸²⁸⁾ 올라강 설피낭도 헤영 오고, 메화꽃도 꺼경 오고, 콧노레도 불르는디 너는 오늘 뽕그랭이 밥 먹영, 니⁸²⁹⁾ 사냥만 헤 염느냐?”

“아이고 상전님아, 상전님아, 나도 행 와집네다. 물 벵 세도 네여 줍서. 쉼 벵 세도 네여 줍서. 한기 도치도⁸³⁰⁾ 네여 줍서.”

네여 주난,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곳 올라 강 동더레, 서더레, 남더레, 북더레, 가지더레 물 석,⁸³¹⁾ 쉼석⁸³²⁾ 무꺼두고 동더레 누워 혼줍, 서더레 누워 혼줍 줌자단 보난 일어낭 보난, 말 모른 짐승 애가 콤콤 몰란 느란느란 다 죽엇구나. 메툽 닳은 손툽으로 쉼가죽도 베껴 간다. 물가죽도 베껴 간다. 설피낭 걷언 멍게낭⁸³³⁾ 고쟁이 바수완 익엇이나? 혼 점 설엇이나? 혼 점 허멍, 물 벵 세, 쉼 벵 세 다 먹언 물가죽, 쉼가죽 비장 옷으로 등에 지언 내려오라 간다. 내려오단 보난 주천강 연네뭇디가 잇엇구나. 물오리 혼 썩이 이레 활랄, 저레 활랄 히어 텅겸시 난.

“우리 상전님은 저 물오리 혼 썩만 마청 강 안네믄 지꺼질테주.”⁸³⁴⁾

어평허리 한기 도치로 흑허게 던지난, 물오린 한기 도치 빠지는 풍덩허는 소리에 놀레연 날 아가불엇구나.

“아이고 잘헤먹어라. 잘헤먹어라.”

물 벵 세, 쉼 벵 세도 다 잡아 먹으고, 한기 도치 일러부난⁸³⁵⁾ 어평허리. 확허게 우알로⁸³⁶⁾ 옷 벗언 던져두고 물 속에 강 한기 도치 건전 오란 보난, 핏체 7픈 도둑놈덜은 물가죽, 쉼가죽 갖영 가명⁸³⁷⁾ 정이 엇인 정수넬이 구쟁이 점벵이⁸³⁸⁾ 옷도 문딱 갖영 가불엇구나예~.

“어평허민 좋고?”

가운데 77심만⁸³⁹⁾ 드랑허게 등겻구나. 옆이 보난에 모시 잇구나. 모시 툽안 가운데 77심 정 당줄로 무경,

‘낮이 가가민 늬이 집 종덜 알민 안 웰로구나.’

이 밤, 저 밤, 야상경, 깊은 밤이 뉘난 와락차락 오란 울담 넘영 간 장독 안에 간 주쟁이⁸⁴⁰⁾ 썩 잇엇구나. 듯날 아적은⁸⁴¹⁾ 정술텍이 밥 허젠 장 거리레 강 보난 주쟁이가 덜씩덜씩 덜씩덜씩 헤염구나.

“아이고 상전님아, 귀신이 나앗우다.”

825) 신고: 있나.

826) 춧단: 차야.

827) 뱃: 별.

828) 굴미굴산 아야산: 깊은 산속.

829) 니: 머릿니.

830) 도치도: 도끼도.

831) 물석: 말고삐.

832) 쉼석: 쇠고삐.

833) 멍게낭: 망개나무. 혹은 청미래덩굴이라고 함.

834) 지꺼질테주: 기뻐하겠지.

835) 일러불고: 잃어버리고.

836) 우알로: 위아래로.

837) 가명: 가면서.

838) 점벵이: 잠방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흠바지.

839) 77심만: 감만. 물건을 만드는 밀바탕이 되는 물질. = 77심 여기서는 남자의 성기를 뜻함.

840) 주쟁이: 주저리. 띠나 짚으로 둥글게 엮어 가리 꼭지 따위에 덧덮는 물건.

841) 아적은: 아침은.

“어느 것고?”
“장독 안이우다.”
“구신이나? 생인이나? 구신(鬼神)이건 옥항에 올르고 생인(生人)이건 나오렌.”
혜연, 나온 건 보난 정이 엇인 정수냄이 우알로 옷 옷 벌경허게 벗언 나오랏구나.
“아이고 요놈으 즈석 물 백 세, 췌 백 세는 어디 갓느냐? 한기 도치는 어디 갓느냐? 너 구
쟁이 점병인 어디 갓느냐?”
정이 엇인 정수냄이 꺾을 네엇구나.
‘우리 상전님은 문도령 말이렌 허믈 지꺼 지난.’
거짓말을 헤여 간다.
“아이고 상전님아, 모른 소리 맙서. 굴미굴산 앞머리 올라간 보난 하늘 옥항에 문왕성이 문
도령이 궁네청, 시네청들광 연네못디 오랏입데다. 몸모옥 허단 나도 꺾 몸모옥 헛인디 올라
갈 떼 나 옷 갓영 가벗우덴.”
허난, 후욕노욕(詬辱累辱) 허단 서른여덟 니빳디 허우덩씩 들러간다.
“계난 따시 오켄 해냐?”
“아이고 상전님아, 모릿날 스오시(巳午時)가 됴민 오켄 헛디다.”
“니 그디 좃앙 가질티야?”⁸⁴²⁾
“좃앙 가집네덴.”
허난,
“어서 기영 허건 정술덱아, 구쟁이 점병이 정수냄이 옷 멘드라⁸⁴³⁾ 주라.”
옷 멘드라 입젓구나.
“그덜 좃앙 가젠 허민 어떻헤영 가민 뉘느니?”
“느쟁이범벅예⁸⁴⁴⁾ 나 정심에랑 소금 놓는둥, 마는둥 허고, 상전님 정심에랑 소금 닷 뉘 낱
협서.”
“그덜 가젠 허민 어떻헿 가느니?”
“세(新) 물을 네여 놓서.”
세 물을 네여 놓앗구나. 세 물을 네여 노난 물안장을 올려간다. 군중 구쟁이닥살이로구나.
군중 구쟁이닥살은⁸⁴⁵⁾ 알더레 톡허게 놓안,
“상전님아 올라 샅서.”
올라 사난 구쟁이 딱살은 등 막 물을 꺾꺾 찢러부난 하늘만씩 땅만씩 들러킨다.
“아이고 상전님아, 네립서.”
“무사?”
“요거 봅서. 말 모른 세 짐승도, 물 짐승도 오늘은 나 등에 탕 가민 문왕성이 문도령 만날
꺼옴, 막 와당탕와당탕 티염수꺾⁸⁴⁶⁾ 안 뉘니다.”
“어떻허민 뉘느니?”
“물머리 코스(告祀)협서.”
“물머리 코순 어떻허느니?”
“뉘지머리 하나 헤영 놓서. 씨암톡⁸⁴⁷⁾ 잡앙 놓서. 밥 헿 놓서. 술 올립서.”

842) 가질티야: 갈 수 있겠느냐.

843) 멘드라: 만들어.

844) 느쟁이범벅예: 메밀을 갈아 가루를 체에 쳐내고 남은 속껍질로 된풀처럼 썬 음식.

845) 구쟁이닥살은: 소라껍질은.

846) 티염수꺾: 날뛰고 있고.

올려간다. 물 앞더레 놓안 절 헤 가명 물총 하나 헤영 준비헤엿구나. 소꼭 헤동 제반 건너 단 물 귀더레 지르난 스투룩 허게 들어가난, 물은 귀 속에 물 들어가난 절레절레 허난.

“아이고 상전님아, 요레 바레 봅서. 말 모른 짐승도 지꺼점수께. 상전 먹단 건 하인이 먹고, 하인 먹던 건 게뉘지가⁸⁴⁸⁾ 먹읍네덴.”

“갓영 강 먹으렌.”

허난, 쉼막에 간 빙애기만씩⁸⁴⁹⁾ 뉘지머리엔 씨암닭 몸머리 문딱 먹언 베가 뽕그랑허게 나왓 구나.

“상전님아, 이 정심밥 집서.”⁸⁵⁰⁾

“닌 어떻허젠?”

“난 이젠 물 버릇을 ㄱ리차사⁸⁵¹⁾ 뉘 켜 아니꽈?”

물 안장에 구쟁이딱살 베끗더레 네쳐동 물 안장 우터레 올라 탄다 물 또꼬망⁸⁵²⁾ 확허게 딱 리명,⁸⁵³⁾

“이라 어서 걸렌.”

허난, 물은 천장, 만장 굴미굴산, 아야산, 오조방산을 올르난 정이 엇인 정수넴이 물석을 무 꺼두고, 상전 올 때??지 무정눈에 즘을 자앗구나. 쯤청비는 정심밥을 싹 굴미굴산을 올라가젠 허난, 설피낭 낭가지에 열두 복(幅) 호탄치메도⁸⁵⁴⁾ 다 짓어진다. 올라간 보난,

“아이고 요놈으 쯤석아, 너 상전안티 정심밥 지어 오렌 행 너 먼저 올라완 너 뉘 허는 짓이 나?”

“아이고 상전님아, 그런 소리 맙서. 물 버릇 ㄱ리쳐난 머리 흥번 돌려나민 아니 뉘난 나도 그냥 여기 잇우덴 허난 읍서. 우리 정심 먹게. 나랑 저디 강 먹쿠다.”

“무사 그덜 갈티?”

“아는 사름은 종하고 먹엄덴 허고, 모른 사름은 우리안티 두갓이렌⁸⁵⁵⁾ 험넬께.”

“기여 갓영 강 먹으렌.”

허난, 정수넴인 소금 놓는둥, 마는둥 허난 빙애기만씩 먹어간다. 쯤청빈 소금 닷 뉘 노난 먹 어가난 찬찬헤엿구나.⁸⁵⁶⁾

“아이고 정이 엇인 정수넴아, 니 밥 이레 왕 ㄱ찌 먹으라.”

“무사 말이꽈?”

“니 꺼영, 나 꺼영 출레⁸⁵⁷⁾ 출리명 ㄱ찌 먹게.”

“안 뉘넬다. 안 뉘넬다. 상전 먹단 건 종이 먹고 종이 먹단 건 게뉘지가 먹읍넬다.”

허난, 경 허건 갓영 강 먹으렌, 상전 꺾 갓영 강 출레로 이녁 밥을 다 먹엇구나. 쯤청비는 찬찬헌 거 먹으난, 애 콤콤 몰랐구나.

“정이 엇인 정수넴아, 애가 콤콤 몰람시난 물 흥 직만 도라. 물 흥 직만 도라.”

847) 씨암뜯: 씨암뜯.

848) 게뉘지가: 개뉘지가.

849) 빙애기만씩: 병아리만큼.

850) 집서: 짚어지십시오.

851) ㄱ리차사: 가르쳐야.

852) 또꼬망: 똥구멍.

853) 딱리명: 때리면서.

854) 호탄치메도: 홀단치마도.

855) 두갓이렌: 부부라고.

856) 찬찬헤엿구나: 짚구나.

857) 출레: 반찬.

“읍서. 요레 읍서.”

가단 보난, 물이 잇연 놀려 들언 먹젠 허난,

“상전님아, 요 물 먹지 맙서. 요 물은 세가 먹는 물이우다.”

아이고 가단 보난 또 물이 잇엇구나. 놀려 들언 먹젠 허난,

“요 물은 몰 벅 세가 먹는 물이우다.”

애가 콧콧 더 몰라간다. 가당 보난 주천강 연네뭇디가 잇엇구나. 놀려 들언 먹젠 허난,

“상전님아, 상전님아, 이 물은 처녀총각이 죽은 물이라부난, 요 물을 먹젠 허민 우알로 민짜 허게 벗이고, 궁둥인 하늘 우터레 올리고, 아구턱은 물더레 데연 먹어사 뵈네덴.”

허난,

“아이고 안 먹키여. 안 먹키여. 죽으면 죽어도 난 기여 못허켤.”

허난,

“나 바레 봅서. 나 먹는 거 바레 봅서.”

정이 엇인 정수냄이 옷 우알로 민짜허게 벗언, 궁둥인 하늘 우터레 올려 놓고, 아구턱은 물 더레 데연 할랄 먹어가난, 즈청빈 물 먹는 거 보난 애가 더 몰랐구나.

‘아이고 죽음과 삶이 맞서라.’

옷 민짜허게 벗어두고, 궁둥이 하늘 우터레 올린 물을 먹엇구나. 정이 엇인 정수냄은 이때 로구나. 상전님 옷 갖연 물가이 빙빙허게 돌아,

“상전님아, 상전님아, 물구럼더레 바레 봅서. 하늘 옥항에 문왕성 문도령 궁녀청, 시녀청 노 념놀이 헤염수께.”

바레여 보난,

‘아이고 정수냄이로구나. 아이고 나가 저거안티 이때??지 속앗구나. 어떻허민 좋고?’

“아이고 정수남에 나 옷 도라. 나 옷 도라.”

“안 뵈네다. 상전님 앵두 ㄱ뜯 입수나⁸⁵⁸) 쪽허게 한번 빨아봣이민⁸⁵⁹) 좋구다.”

“아이고 정이 엇인 정수남아, 나 입술 뺨는 거보다 나 방에 강 꿀단지 할트민⁸⁶⁰) 그거보다 더 돌아진덴.”⁸⁶¹)

“안 뵈니다. 상전님아 젓통이나 한번 몽실몽실 문직아⁸⁶²) 봣이민.”

“아이고 나 젓통 문직아 보는 거보다 나 방에 강 보라 가지깽이가⁸⁶³) 더 좋아진다.”

“안 뵈네다. 아끼씨 좃데 ㄱ뜯 허리 안아 봣이민 좋구다.”

“나 좃데 ㄱ뜯 허리 안아 방 무시 거 혈티? 나 방에 가민 나 베던 베게 베민 안아 보민 그 거가 더 좋아진다.”

“안 뵈니다. 경 허건 상전님아 손이나 한번 심어보쿠다.”

“안 뵈니다. 안 뵈다. 나 방에 강 보라 나 수(繡) 노는 수틀 심어지민 그거보다 더 좋아지 덴.”

허난, 정이 엇인 정수냄이 풋죽 ㄱ찌⁸⁶⁴) 용심이 나간다.

‘아이고 요거 달레사 뵈로구나.’

858) 입수나: 입술이나.

859) 빨아봣이민: 빨아봤으면.

860) 할트민: 훗으면.

861) 돌아진덴: 달다고.

862) 문직아: 만져.

863) 가지깽이가: 밥그릇 뚜껑이.

864) 풋죽 ㄱ찌: 팔죽처럼. 팔죽이 끓을 때 부글거리는 모양처럼.

“정이 엇인 정수남아, 저래 바레보라 헤는 다 지엄시네, 이 밤, 저 밤, 니영 나영 이 산중에 자젠 허민 이슬이라도 피헤사 될 거 아니꽈?”

그 말에 빙삭허게⁸⁶⁵ 웃엇구나. 동더레 벌은 가지 서더레 무껏구나.⁸⁶⁶ 서더레 벌은 가지 동더레 무껏구나. 돌은 좃어단 도리도리 싸앗구나.

“정수남아, 나가 안네 강 불 피우건 닐랑⁸⁶⁷ 불 고망 막으라. 경 헤사 브름 고망 막을 꺼 아니꽈?”

“기영 험셴.”

정수넴인 베꿏디 사고 즈청빈 안네서 불을 살랏구나. 불 나오는 고망 봐지는 디 강 꼭허게 돌고망 막으민 안네서 즈청비 빠불고,⁸⁶⁸ 바꿏디 불고망 막으민 즈청빈 빠불고 허는 게 먼동이 터엇구나. 정수넴이 꺃죽꺃찌 다시 용심이 나앗구나.

“정이 엇인 정수남아, 꺃죽꺃찌 용심이 나지마라. 요레 오라. 나 동무렵⁸⁶⁹ 베영 누렌.”

허난, 서른여덟 닛바디가⁸⁷⁰ 허우덩씩 들렁 와들랑 오란 상전님 동무렵을 베엿구나. 아이고 쉼시렁 님은 손이 젓가심더레 설푹설푹 들어오라 가난,

‘아이고 요놈으 즈석 살령 놔두민 나가 요거한티 죽어질로구나.’

옆더레 바레보란 키까시가⁸⁷¹ 잇이난 꺼꺼당 웬 귀로 꼭허게 찢르난 늑단⁸⁷² 귀로 나오난, 늑단 귀로 꼭허게 찢르난 웬 귀로 나오난 피가 별경허멍 정이 엇인 정수넴이 죽엇구나예~. 멩게남⁸⁷³ 이파리 툃툃허게 더꺼두고 몰안장을 타앗구나.

“이 몰아, 저 몰아,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허컬랑 오라. 나 넬 좃아건 우리 집더레 걸렌.”

와락치락, 와락치락 네령오라 가는구나. 내려오단 보난 백발노인(白髮老人)이 바둑 장겘 두 단 넘어가가난,

“어평허난 물은 탕 감저만은⁸⁷⁴ 무지력 실총각이⁸⁷⁵ 귀에 피 나건 앞이 샷구나.”

이 말을 들으난, 즈청비 가심이⁸⁷⁶ 잘락 털어지엇구나. 집이 오랏구나 집이 간,

“아바님아, 어머니아, 곶을 말이 잇우다.”

“무신 말이고?”

“종이 귀허꽈? 아니민 자식이 귀허꽈?”

“아이고 그거 무신 말이고? 종이사 데령 살단 실피민 종반역⁸⁷⁷ 시겨불주만은 자식이 더 귀헤지덴.”

허난,

“아바지여, 어머니여, 곶을 말 잇우다. 하도 정이 엇인 정수넴이가 나를 죽이젠 허난 나 죽여동 오랏우덴.”

허난,

865) 빙삭허게: 방긋하게.

866) 무껏구나: 묶엇구나.

867) 닐랑: 너는.

868) 빠불고: 빼버리고.

869) 동무렵: 무릎.

870) 닛바디가: 잇바디(齒列).

871) 키까시가: 꾸지뽕나무가. =콧냥.

872) 늑단: 오른쪽.

873) 멩게남: 망개나무. 혹은 청미래덩굴이라고 함.

874) 감저만은: 가고 있는데.

875) 무지력 실총각이: 무지렁이총각. 머리를 풀어헤친 총각을 얹잡아 부르는 말.

876) 가심이: 가슴이.

877) 종반역: 종의 신분을 벗김.

“아이고 요년아, 요년아, 어떻게민 사람 죽여지느니? 나고 가렌.”

허난, 여자 방에 강 여자 옷 벗어두고, 남자 방에 강 남자 옷 입언, 갓을 쓰고 쉼막에 강 물 하나 네영, 몰안장 걸언 물 우이 탄, 먼 올레 나사근 가명 가명 가단 보난, ㅎ끌락헌⁸⁷⁸) 아 기덜이 부영이를 잡안.

“니가 잡앗이나? 나가 잡앗이나?”

싸웁구나.

“아기덜아 느네 무사 영 싸웁시니?”

“부영이를 나가 먼저 잡앗우다.”

“나가 먼저 잡앗우다.”

“싸웁지 말라. 부영이 나 주라.”

돈 혼 냥씩 주어두고 가단 보난 방(榜)을 부찢구나. 김정싱 데감님이,

‘서천꽃밭디 난데엇이 부영이가 서방말다 부영부영 각시말다 부영부영 하도 울어부난 이 부 영이 잡아주민 단뜰애기 조운(自願) 사위허켄.’

허난,

‘아이고 이거 좋은 일로구나.’

즈청비 들어간.

“지나가는 선비우다. 오늘밤이 나가 부영이를 잡으쿠다.”

경 행 ,

“우리 집 단뜰애기 조운(自願) 사위헤쿠덴.”

허난,

“물이랑 쉼막더레 강 쉼 석을 무꺼동 읍센.”

헤연 가명 굳는 말이,

“말 모른 짐승도 너미 멀리 오랏우다. ㅎ썰⁸⁷⁹) 밀죽은 못헤여도 물이라도 떠단 주렌,”

헤연 물을 떠다 주난, 물총을 뽑안 셋바닥을 꼭허게 무경 잇엇구나.

“이 몰아, 저 몰아, 우리 집이서사 밀죽을 먹엇주만은 요디선⁸⁸⁰) 어디 밀죽을 먹어지느니? 요 물이라도 먹으렌.”

허멍, 총을 확허게 클르난 할탁할탁 먹으난 김정싱 데감님은,

‘과연 부젯집이 자제로구나예~.’

안네 들어간 즘을 잔다. 이 밤, 저 밤, 야사생경, 깊은 밤이 뉘난 즘청비 우알로 옷 멘들락 허게 벗엇구나. 옛돌⁸⁸¹) 알더레 헤트레이⁸⁸²) 갈라지엇구나.

“정이 엇인 정수남아, 부영이 몸에 환싱(幻生)헤엇건 나 젓가심더레 느리라.”

ㅎ끔 잇이난 부영이가,

‘각시말다 부영부영 서방말다 부영부영’

즈청비 젓가심더레 앓앗구나. 옆에 활을 잇단 꼭허게 찢런 옛돌 알더레 놓아뉘 안네 들어오 단 즘을 잔, 듯날 아척은 김정싱 데감님이 호통소리가 나앗구나.

“야 저 방에 든 손님 네보네라. 어저께 밤에도 부영이가 울어도 잡질 안헛덴.”

허난, 눈을 부비멍 창문을 열엇구나.

878) ㅎ끌락헌: 조그만 한.

879) ㅎ썰: 조금.

880) 요디선: 여기서는.

881) 옛돌: 디딤돌. =잇돌.

882) 헤트레이: 벌러덩.

“하도 피곤행 줌 자단 부영이 소리 나난, 활을 마쳤우다. 옛돌 알더레 바레 봅서.”
 옛돌 알에 바레 보난 부영이가 죽언 잇엇구나. 김정싱 데감 단똥애기안티 장계를 들엇구나.
 단똥애기가 흐를은 오란,
 “아바님아, 어머님아, 사위 헤 놓은 게 너무 도고(道高) 높은 집이 사월 헤엇우다.”
 “아이고 나 똥아, 그계 무신 말이고?”
 “두갓이엔⁸⁸³ 헤연 오늘??지 품사랑 훈번도 안헤엄수덴.”
 헤난,
 “그거사 무신 말이고?”
 즈청비 불러단,
 “어떻행 부베간이 품사랑을 훈번도 아니 험시니?”
 “그계 아납네다. 모릿날⁸⁸⁴ 스오시(巳午時) 똥민 서울 상경 과거 보레 덩겨 가야 똥 꺼라부
 난, 몸을 어떻 ㄱ찌 서끄지 안 험수덴.”
 허난, 그 말도 들영 보난 맞앗구나.
 “웁서. 이제랑 서천꽃밭디 꽃구경이나 강 보게.”
 간 보난,
 “요건 술⁸⁸⁵ 올를 꽃, 요건 피 올를 꽃, 요건 오장육부 살아날 꽃.”
 흐나 씩, 흐나 씩 꺼꺼⁸⁸⁶ 앓안 쿨더레 쿨엇구나. 집이 오란 상동낭 용얼레기⁸⁸⁷ 반착 갈란
 주멍,
 “나 서울 상경 가오쿠다예~.”
 물을 타 앓언,
 “이 몰아, 저 몰아, 정이 엇인 정수넴이 죽은 디 좃안 걸렌.”
 허난,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꽃을 올랏구나. 정수넴이 죽은 디 간 보난 빼만 술그랑⁸⁸⁸ 헤
 엇구나. 빼를 다 모다다⁸⁸⁹ 놓앗구나. 술 올를 꽃, 피 올를 꽃, 오장육부 살아날 꽃을 놓안 흥
 남체로 삼세 번 푸드난, 멧방석 ㄱ튼 머리 박박 긁으멍,
 “상전님아, 봄줍이나 너미⁸⁹⁰ 늦게 자젧우다.”
 “오라. 가게. 우리 아방, 우리 어멍, 나보다 니가 더 귀허덴.”
 허난, 물 똥터레 테완 집이 오랏구나.
 “아바님아, 어머님아, 자식보다 더 귀헌 종을 살련 오랏우덴.”
 허난,
 “아이고 요거사 무신 말이니? 나 아기야, 촌마 진정 사름을 죽이고 살리고 헤엇이나? 나 느
 ㄱ튼 애기 필요엇덴 나고 가렌.”
 허난, 아방 눈에 굴리난다.⁸⁹¹ 어멍 눈에 실지난다.⁸⁹² 즈청비 먼 올레 나사난,
 ‘어딜 가민 좋고?’

883) 두갓이엔: 부부라고.

884) 모릿날: 모레.

885) 술: 살.

886) 꺼꺼: 꺾어.

887) 상동낭 용얼레기: 상동나무로 만든 얼레빗.

888) 술그랑: 고스란히.

889) 모다다: 모아다.

890) 너미: 너무.

891) 굴리난다: 거슬린다.

892) 실지난다: 벗어난다.

걸으멍, 걸으멍 가단 보난 베틀 소리가 질각질각 나왔구나. 헤는 열락서산 다 지엿구나. 이 밤, 저 밤, 야삼생경 다 지어가난 간 보난 피조리 초막살이에,⁸⁹³⁾

“주인 잇건 나그네 멧입서.”⁸⁹⁴⁾

주모할망이 나완 굳는 말이,

“아이고 이레 왕 바레 봅서. 어딜랑⁸⁹⁵⁾ 주인 자고 어딜랑 나그네 잠네까?”

“난 디 사람 집을 지영 납네까? 밧을 지영 납네까? 정제 구석이라도 빌려 줍서.”

안네 들어가난 사실 말을 곱앗구나.

“난 부모도 엇고, 나 혼자우덴.”

허난,

“아이고 난 주모할망이여. 나 얘기가 엇져. 오라. 우리 양부모 자식 삼으께.”

“아이고 어머니님 고맙수다. 어머니님 요건 누게 울영⁸⁹⁶⁾ 이 미녕을⁸⁹⁷⁾ 짬이꽈?”

“하늘 옥항에 문도령이 서수왕에 장게 들언 짜는 미녕이렌.”

허난,

“어머니님아 베 고프우다. 밥 훈 직만 줍센.”

헤영, 주모할망 정지에 밥 허레 가부난, 베틀 우이 앓안 질각질각 짬구나. 문도령이 생각허 난 관디청이 눈물이여. 서산백옥(西山白玉) 7튼 양지 주용아반⁸⁹⁸⁾ 연주지듯 비세 7치⁸⁹⁹⁾ 울 어간다. 눈물은 똑똑 떨어지난 눈물자국이 금바둑도 옥바둑 7치 헤엿구나. 학이세도 그려간다. 공작세도 그려간다. 마지막에 처리를 헤엿구나. 가련허다 가령비 불쌍허다 쯔청비 이름을 헤 연 세겜구나.

“어머니님아, 요거 갖영 옥항에 강 누게 짬 미녕이렌 곱건, 주년국 땅 쯔청비 짬 미녕이렌 곱 아 줍서예~.”

주모할망은 그 미녕은 옥항에 갖영 가난, 문도령 굳는 말이 그거를 밧구나.

“할마님아, 요건 누게가 짬 미녕이우꽈?”

“주년국 땅 쯔청비가 짬 미녕이여.”

“쯔청비 어딿우꽈?”⁹⁰⁰⁾

“아이고 우리 집이 수양(收養)똥로 잇져.”

“강 곱아 줍서. 나 모릿날 스오시(巳午時) 뉘민 네려 가켄 곱아 줍센.”

헤연, 주모할망은 네려오랏구나.

“어머니, 가난 뉘엔 곱디가?”

“아이고 쯔청비야, 모릿날 스오시(巳午時)가 뉘민 문도령 오켄 헤렌.”

허난, 모릿날은 당허난 주모할망은 사위 오민 씨암탸 잡아간다. 쯔청빈 방 안에서,

‘어느 떼가 뉘 건고?’

무똥에⁹⁰¹⁾ 창 무똥에 앓안 잇엇구나. 스오시(巳午時)가 다 뉘어가난 문도령이 네렛구나. 문도령도 쯔청비 빨리 만나젠 문을 열젠 헤여가난, 안에서 쯔청비 하도 지꺼지언⁹⁰²⁾ 문도령 훈

893) 피조리 초막살이에: 사는 형편이 아주 초라한 초막(草幕)살이에.

894) 나그네 멧입서: 손님으로 집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895) 어딜랑: 어디에는.

896) 울영: 어떤 대상을 위하여.

897) 미녕을: 무명을.

898) 주용아반: 향로(香爐).

899) 비세 7치: ‘비세’는 제비새를 줄임말 ‘제비새가 울듯이’ 정도의 뜻임.

900) 어딿우꽈: 어디 있습니까.

901) 무똥에: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

번 장난이난 헤여 보저. 바농을⁹⁰³ 꼭허게 찢르난 피가 벌경허게 낫구나. 문도령은,
 ‘요거 인간에 사름 올 떼 아니여.’
 뒤도 아니 돌아보란 옥항더레 올랏구나. 흐김 잇이난 할마님이 씨암탸을 출런 오랏구나.
 “아이고 어머니, 노실이⁹⁰⁴ 나압데가?⁹⁰⁵ 이거 무신 일이꽂? 씨암탸은 무신 씨암탸이우꽂?
 무사 밥은 두 게우꽂? 수꾸락은 두 게우꽂?”
 사실은 보난,
 “요년, 너 행실(行實)이 요만허난 너 아방 어멍 안네도 눈에 실찌가 낫구나.⁹⁰⁶ 나도 느 ㄱ
 뜬⁹⁰⁷ 애기 필요엿다. 어서 나고 가라.”
 쯤청빈,
 ‘어딜 가민 좋고? 우리 아방, 우리 어멍, 나 나젠 허난 절간 법당에 불공 드런 낫구나.’
 절간 법당 들언 가난 데공단에⁹⁰⁸ 머리 삭발(削髮)헌다. 하늘 곁른⁹⁰⁹ 굴송낙, 지에 곁른 굴
 장삼,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⁹¹⁰ 웨우 ㄴ단 메엿구나. 동으로 들언 서으로 나아간다.
 서으로 들언 동으로 나아간다. 뉘로 받을 딴 흡으로 받아간다. 흡으로 받을 딴 뉘로 받안 권
 제(勸齋)를 받으레 덩기단 보난, 주년국 땅에 오랏구나. 주년국 땅에 오란 보난 궁녀청, 시녀
 청덜 질레에 앓안 데성통곡(大聲痛哭)을 헤염구나.
 “아이고 궁녀청 시녀청덜아, 무사 이디 앓안 데성통곡을 울엄수꽂?”
 “하늘 옥항에 문도령이 주년국 땅에 네릴 떼 쯤청비허고 모욕(沐浴)허난 물을 평 오렌 허난
 좃지⁹¹¹ 못헤영 영 울엄수덴.”
 허난,
 “나가 쯤청비난 그 물을 뜨민 나 ㄱ치 데령가쿠다.”
 “기영 험서.”
 그 물을 떠주난 궁녀청, 시녀청들광 하늘 옥항더레 오랏구나. 하늘 옥항에 올라간 문도령네
 집이 간 권제를 받앙 나오멍 먼 올레 폭낭⁹¹² 우이 올랏구나. 그날 저녁은 당허난 일출동경
 (日出東嶺)에 등허게 떠엿구나. 문도령도 창문 베꿏디 앓안 일출동경(日出東景)을 보멍,
 “저 들은⁹¹³ 곱기는 곱다만은 계수나무 박힌 듯 헤여도 주년국 땅 쯤청비만이 아니 고올로
 구나.”
 쯤청비도 폭낭 우이서,⁹¹⁴
 “저 들은 곱기는 곱다만은 하늘 옥항에 문왕성 문도령만은 아니 고올로구나.”
 영 허단 보난, 문도령이 귀썰미 사름 소리가 나앗구나. 먼 올레 나앗구나. 폭낭 우터레 보난
 아이고 사람 산 거 닷으난,
 “구신이냐? 쎡인이냐? 귀신이건 옥항에 올르고 쎡인이건 알더레 네려오렌.”

902) 지꺼지언: 기빠서.

903) 바농을: 바늘을.

904) 노실이: 노망이. 늙어서 제 정신을 잃어버리는 노망을 점잖게 이르는 말.

905) 나압데가: 낫습니까.

906) 실찌가 낫구나: 벗어났구나.

907) 느 ㄱ뜬: 너 같은.

908) 데공단에: 중의 머리를 깎는 칼.

909) 곁른: 가린.

910)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 승려가 재미(齋米)를 얻으려 다닐 때 등에 지는 배낭.

911) 좃지: 찾지.

912) 폭낭: 팽나무.

913) 들은: 달은.

914) 우이서: 위에서.

헤연 내려온 건 보난에,

‘낮에 우리 집이 권제 받으레 오라나난 중이로구나.’

“누게가 뵈네까?”

“나는 주년국 땅 조청비우다.”

“조청비민 나 문도령인데 우리 그떼 헤여질 떼 본메 본짱⁹¹⁵ 잇일 꺾디 갖연⁹¹⁶ 잇우짜?”

네놓은 건 보난 상동냥 용열레기 문딱허게 맞앗구나.

문도령은 조청비 흘목 심엉 방에 들어간 이불자리에 누웠구나. 듯날 아침은 늦인덕 정하님 세숫물 드려 노난 조청비허고 세수허난 나온 건 보난 물이 더러웠구나. 밥상을 출령⁹¹⁷ 안내 드려 보네난 문도령은 밥 헛 수꾸락도⁹¹⁸ 아니 먹는데 밥사발이 비연 나오랏구나. 필아곡절(必有曲折)허다. 손꼬냥 창꼬냥 똥란⁹¹⁹ 안터레 쏘아 보난 머리 까끈⁹²⁰ 중허고 ㄱ찌 밥 먹고, ㄱ찌 세수허고, ㄱ찌 즈 잤구나. 늦인덕 정하님은 문왕성이안테 굴레 가가난 조청빈 벌써 알 았구나.

“문도령님아, 흐김 잇이민 아바님, 어머님이 불를 꺼우다. 아바님, 어머님 불를 꺼난 강 목 은 옷이 좋으짜? 세(新) 옷이 좋으짜? 목은 사름이 좋으짜 세 사름이 좋으짜? 목은 장이 좋으 짜? 세 장이 뉘네께?⁹²¹ 헤연 문딱 목은 거가 좋덴 허건 나안티 장게 들고 문딱 세 거 들건 서수왕에 장겔 듸서에~.”

아닌 게 아니라 흐김 잇이난 아바지, 어머니가 불럼구나. 간 아바지 어머니안티,

“아바지, 어머니, 굴을 말이 잇우다.”

“무신 말이고?”

“목은 사름이 좋으짜? 세 사름이 좋으짜?”

“목은 사름은 속엔 말 굴아주고, 세 사름은 성격 몰르난 속펜 말 못허난 난 목은 사름이 좋 다.”

“세 옷이 좋으짜? 목은 옷이 좋으짜?”

“세 옷은 방장봉장⁹²² 못 입으고, 목은 옷은 방장봉장 입으난 목은 옷이 좋다.”

“세 옷이 좋으짜? 목은 장이 좋겐?”

허난,

“목은 장은 빗깔이 엇어도 깊은 맛 잇고, 세 장은 빗깔이 고와도 깊은 맛이 엇이난.”

“아이고 경 허은 아바지, 어머님, 난 그날 알엿녁 네릴 떼 주년국 땅 조청비영 언약허난 나 서수왕에 장겔 아니 들쿠덴.”

허난,

“요건 무신 말이고?”

서수왕 똥애기한티 막펜지⁹²³ 보네난, 서수왕 똥애기 이 막펜지 술안⁹²⁴ 방 안네 먹언 석 들 열흘 백일이 뉘난, 세 몸에 환싱(幻生)허엿구나. 머리아 두통세, 눈으로 굴롱세, 코에야 송

915) 본메 본짱: 증거가 되는 물건.

916) 갖연: 가지고.

917) 출령: 차려서.

918) 수꾸락도: 숟가락도.

919) 똥란: 똥어서.

920) 까끈: 깎은.

921) 뉘네께: 답니까.

922) 방장봉장: 아무렇게나 편하게 입는 모양.

923) 막펜지: 서로 혼인을 약속하여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 예장(禮狀).

924) 술안: 태워서.

념세, 입에는 악심세, 목에는 ㄱ는세, 가슴에 이열(裏熱)세, 오금에 조작세, 인간에 내려서 첫 살럼 첫 애기, 남저(男子)에 공방세, 여자에 헤말럼,⁹²⁵⁾ 어린아기엔 경봉(驚風), 경짱(驚症).

남자여자 시집장계 가민 첫 수꾸락 제반 견언, 세각시 상 세 밥 세신랑 상 알더레 노민, 그 시집장계 강 잘 살고 첫 수꾸락을 그냥 먹으면 시집장계 강 못 사는 법입네다.

“즈청비가 우리 집 메누리 뒤젠 허민, 진양도폭을⁹²⁶⁾ 짱⁹²⁷⁾ 올리렌.”

허난, 푸리⁹²⁸⁾ 몸에 환싱헤여 아버지 몸 치수를 알안 진양도폭을 지언 올렛구나.

“어머니 호탄치메,⁹²⁹⁾ 저구리, 멩지줄장옷⁹³⁰⁾ 지영 올리렌.”

허민, 푸리 몸에 환싱헤연 열두 복(幅) 호탄치메 저구리 멩지줄장옷을 헤여 가난,

“경 헤도 아니 뒤켜. 야, 쉬운데 자 구덩이 파라.”

쉬운데 자 구덩이 파난,

“석 섬 슷을 비우라.”

불을 와랑와랑 살렛구나. 작두를 놓아건 곤는 말이,

“그디서 이디까지 건너오민 우리 집이 메누리렌.”

허난, 비세 ㄱ치 울어간다 문도령이 즈청비 흘목 심영,

“즈청비야, 오늘만이 죽어도 우리 집이 구신이로구나.”

이 말을 곱아가난 즈청비 관디청에 눈물이로구나. 서산베옥 ㄱ쁜 양지 주용아반 연주지듯 비세 ㄱ치⁹³¹⁾ 울어간다.

“멩천 ㄱ쁜 하늘님아, 나가 무신 쥬가⁹³²⁾ 잇우파? 문도령 하나 좃앙 온 쥬벳기 엇우다. 나를 죽일컬랑 알랑실랑 타는 이 불구덩이 속더레 떨어지영 죽고, 나를 살려주컨들랑 보은 낭게 한 낭게 앓인 낭게⁹³³⁾ 줍썩허게⁹³⁴⁾ 끼와 줍서. ㄱ랑 빗발, 세 빗발이나 네어 줍서.”

헤여 가난, 앓인 낭게, 한 낭게 줍수 끼어 간다. ㄱ랑빗발, 세빗발 떨어지어 가난 와랑와랑 살라 오던 슷이 점점, 점점 꺼져 가난, 즈청빈 흰 자국 두 자국 넘어간다. 다 넘어가난 문도령 이 오란 흘목 심영,

“아이고 고생헤엇저.”

허난, 즈청비도 흰 자국만 네리믄 뒤엇구나. 흰 자국을 마음을 놓안 네리는 게 뒤 발꿈치가 베엇구나. 피야 별경허게 나난,

“아이고 씨아바님 씨어머님 알민 어떻허리?”

속치메로 폭허게 씨난, 그 법으로 열다섯 여자 뒤어가민 흰 둘에 흰번 월경 오는 법을 마련 헤엇우다예~.

씨부모에 효도헤여 간다. 남편에 공덕헤여 간다. 씨형제 간 씨방상에⁹³⁵⁾ 화목헤여 간다. 궁 안네션 어서 문도령이 푸데쌌이나 헤여 보카, 즈청비 푸데쌌이나 헤여 보카, 영 헤도 안 뒤고,

925) 헤말럼: 남녀 사이를 벌여지게 하는 사기(邪氣).

926) 진양도폭을: 도포(道袍)의 하나를.

927) 짱: 짜서.

928) 푸리: 파리.

929) 호탄치메: 흘단치마.

930) 멩지줄장옷: 명주줄장옷.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에 얼굴을 가리느라고 머리에서부터 길게 내려 쓰던 옷.

931) 비세 ㄱ치: ‘비세’는 제비새를 줄임말 ‘제비새 같이’ 정도의 뜻임.

932) 쥬가: 죄가.

933) 보은 낭게 한 낭게 앓인 낭게: 안개를 이르는 표현.

934) 줍썩허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변화하는 모양.

935) 씨방상에: 시댁 친족에.

정 해도 안 뉘난, 흐를날은 문도령을 궁 안네 불렀구나. 조청빈 불써 알았구나. 멩지숨을 갖다 단 문도령 가심더레 속속 집어 노명,⁹³⁶⁾

“낭군님아, 오늘 궁 안네 들어가민 궁녀청, 시녀청덜이 독술을 줄 꺼난, 절데 입에 노민 죽어집네다. 가슴팍 알더레만 늣센.”

헤연, 궁 안네 들어간 궁녀청덜이,

“나 술 흐 잔 먹읍서. 나 술 흐 잔 먹읍서.”

가심팍 알더레만 비와가난 술은 아니 취헛구나. 이젠 집더레 오젠 물안장 우터레 올라 가가난 주모할망안티,

“할마님아, 삼도전 세커리에 갖단 요 독술 흐 잔만 문도령 멕여 줍센.”

허난, 할마님 먼저 나오란 삼도전 세커리 앓았구나. 문도령 물 탄 넘어가난,

“아이고 문도령아, 요 술 흐 잔만 풀아도라.”⁹³⁷⁾

‘요 할망 술은 독 아니 잇일테주.’

헤연, 흐 잔을 먹어난 죽엇구나. 물안장 우터레 특허게 걸쳐지난 말 모른 짐승도 집이 오란 마당더레 헤트랑허게⁹³⁸⁾ 노난,

“아이고 잘헤먹어라. 잘헤먹어라.”

문도령 방 안네 강 이불자리 폐완 늣져 두고, 조청비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곳 올란 메미여,⁹³⁹⁾ 붕에기여.⁹⁴⁰⁾ 잡아단 방 안네 그득 잡아 놓아고, 가시헤여단 가시방석 멘드라⁹⁴¹⁾ 논다. 쉼틀⁹⁴²⁾ 헤여단 쉼즈베기를⁹⁴³⁾ 멘드라 놓았구나. 아닌 게 아니라 어둑어 가난 핏체 그든 도둑놈덜은 조청비 푸데쌈허레⁹⁴⁴⁾ 들어오랏구나.

“우리 낭군님 앓아난 방석에나 흐번 앓아봅서.”

헤연 방석은 주연 앓이난, 동꼬냥 짹짹 짹 짹 질러불엇구나.

“우리 낭군님 먹어난 즈베기⁹⁴⁵⁾ 흐번 먹어봅센.”

헤연, 먹어난에 쉼즈베기⁹⁴⁵⁾ 난 니가 와찌끈, 와찌끈 다 니빨이 꺼꺼지어 간다.

“우리 낭군님 좁자는 방에나 들어가 봅센.”

헤연, 방 문을 여난에 문소리에 메미 붕에기가 웅웅 울어간,

“아이고 문도령 죽지 안현 코골명 줍 잠구나.”

핏체 그든 도둑놈덜 다 가부난, 조청빈 옛날 김정싱 데감 딱님한티 장계 들언 서천꽃밭디를 아난,⁹⁴⁶⁾ 강 서천꽃밭디를 강 문도령 살릴 꽃을 꺼꺼 오란 문도령을 살렸구나.

“문도령님아, 나 당신 좃안 오젠 허난 김정싱 데감 집이 단똥애기 조운(自願) 사위헤엿이난, 그디 강 초보름 살건 나한티 왕 후보름 살고, 나한티 후보름 살건 그디 강 초보름 삼센.”

허난, 문도령은 지꺼지언 알옛녁에 네렸구나. 김정싱 데감 집인 가난 단똥애기 곤는 말이,

“아이고 낭군님아, 어떻헿 저싱 그떼 얼굴이 아니우덴?”

936) 노명: 넣으면서.

937) 풀아도라: 팔아주라.

938) 헤트랑허게: 벌러덩하게.

939) 메미여: 매미여.

940) 붕에기여: 풍덩이여.

941) 멘드라: 만들어.

942) 쉼틀: 쇠를.

943) 쉼즈베기를: 쇠로 만든 수제비를.

944) 푸데쌈허레: 보쌈하려고.

945) 즈베기: 수제비이니깐.

946) 아난: 아니깐.

허난,

“강 과거 보젠 현 게 속 타단 보난 얼굴도 다 변형됐던.”

허난, 폭하게 고정들었구나. 아이고 그 집이서 초보름 산다. 후보름 살아도 아니 오라간다. 하늘 옥항에 세변난리(世變亂離)가 나았구나. 하늘 옥항에 세변난리가 나난 문도령안티 부영세 첫날게에 수양버들 잎세귀 헤연 펜지 답장을 보냈구나.

‘흔적 올라 옵서. 하늘 옥항에 세벤난리 낫우덴.’

세수허단 보난, 은데양에 떨어지언 세수허단 물안장 꺼꾸로⁹⁴⁷⁾ 헤연 하늘 옥항에 올랐구나 예~. 세변난리 다 막으난에 옥항상전님 곤는 말이,

“열두 히망 곡식(穀食)을 주었구나. 너네랑 인간에 제석할망으로 들어사렌.”

허난, 문도령, 조청비 열두 히망 곡식 가전 금세상(今世上)에 칠월 열나흘 데백중(大百中)날 내려오랐구나. 내려오난 주년국 땅에 간 보난 아버지, 어머니 죽어불고 정이 엇인 정수넌인 폭삭하게 늙은 베고판 허리 굽언 덩겜구나.

“아이고 상전님아, 상전님아, 베고프우다. 밥이나 흐깁 먹게 헤여 줍센.”

헤연, 가단 보난 명에⁹⁴⁸⁾ 진 밧디 물 백 세, 쉼 백 세 종하님덜은 아이고 밧 같고 헤염구나.

“그디 강 밥 흔 직 주렌 허라.”

가난에,

“우리 종 먹을 것도 엇저.”

후욕노욕(詬辱怒辱)허난,

“뭇엔 글아니?”

“종 먹을 것도 엇덴 험디다.”

“이 밧디랑 정씨 뿌리지 말라. 이 밧디라건 밧 가는 장남에 강녕이 찢 게 께어지게 허라. 밧 가는 사름 벳보섭⁹⁴⁹⁾ 께어지게 허라. 물 백 세, 쉼 백 세 세풀에 나가건 봉에기징 불러주라. 강녕이징 불러주라.”

이 밧디라건 흉년(凶年)을 멘드라 간다. 가단 보난 할망, 하르방 골갱이⁹⁵⁰⁾ 농스 헤염구나.

“그디 강 밥 흔 직 줍서.”

허난,

“흔저 먹으라. 우린 집이 가민 또시⁹⁵¹⁾ 밥 잇젠.”

허난,

“어떻허니?”

“그디 가난 밥 줍디다.”

“요디랑 정씨를 뿌리라.”

정씨를 뿌려간다.

“무췌 으름, 췌 으름⁹⁵²⁾ 열게 허라.”

흐나 두 게, 흐나 두 게 농스를 겘우와 가난,

“명에 진 밧딘 보리 갈 건디랑 데우리랑⁹⁵³⁾ 나게 허고, 조랑 갈 건 와시리 들게 허고 허

947) 꺼꾸로: 거꾸로.

948) 명에: 발머리.

949) 벳보섭: 벳보습. 쟁기의 벳과 보습.

950) 골갱이: 호미.

951) 또시: 또.

952) 으름: 열매.

렌.”

헤연, 허나 두 게 세단 보난에 곡석 하나가 엇구나. 뭘고? 하늘 옥항에 강 보난 뭇물씨가⁹⁵⁴ 떨어지엇구나. 즈청비 갖연 오젠 허난 브름이 하도 불언 좃쟁이에⁹⁵⁵ 좁전 네령오단 보난 뭇물씨는 네 귀가 낫구나. 뿌리젠 허난 브름이 부난 강태공(姜太公) 서목시(首木手) 낭 비어난 디 톱밥 잇이난, 톱밥에 박박허게 뿌런 뿌리난 뭇물⁹⁵⁶ 농스는 두 불 농스 지고, 늦어도 헤영 먹는 법이고 빨라도 헤영 먹는 법이우다.

뭇물 깍장은⁹⁵⁷ 히영허게⁹⁵⁸ 꽃⁹⁵⁹ 피는 법이로구나. 옛날 바당에 즈수덜 물에 들레 가민 물속곳⁹⁶⁰ 입어가민 이 가닥 들씩, 저 가닥 들씩 헤단 보민 물속곳 다 벗어나져 가난 버리줄 별모작⁹⁶¹ 헤연 속웃에 드는⁹⁶² 법을 마련헤엿우다. 뭇물씨가 별모작?치 멘든 것이 별모작이 뉘엇우다.

칠월 열나흘 데백중 상 받던 세경하르방은 들물 썩간이고, 할마님은 썰물 썩간이고, 상세경은 문도령이고, 중세경은 즈청비고, 하세경은 정이 엇인 정술덥입네다예~. 세경청은 세경테우리청 거느리영.

세경본풀이>테우리청 지사귀

○○야 저레 강⁹⁶³ 주잔권잔 네여단 나사민 천왕 테우리청, 지왕 테우리청, 인왕 테우청, 일곱귀양, 아홉신양. 일소장에, 이소장에, 삼소장에, 사소장에, 오소장에, 육소장에, 칠소장에, 팔소장에, 구소장에, 십소장, 십일소장, 십이소장 놀던 테우리청. 정이(旌義) 관목관(監牧官) 김덥에 헌마공신(獻馬功臣) 받아 옴던 물 백 세, 쉼 백 세 두에 테우리청 지사겨 드립네다. 절로 나사민 수망리 노는 테우리청. 옷귀에⁹⁶⁴ 목장에, 수산 목장에, 성읍리 목장에, 송당 제동목장에 노는 테우리청. 옷다랑쉬에 놀던 테우리청. 옷선흠 알선흠 놀던 테우리청. 저 할로영산 위로 놀던 테우리청. 옷바메기, 알바메기, 옷선흠, 알선흠에 노는 테우리청. 제주 경마장에 노는 테우리청이로구나. 데정 목장에 노는 테우리청. 일곱장남 아홉췌 수멍이 아덜 수멍이 톱덜? 지 많이 많이 열두 소잔입네다예~.

<세경본 풀엇우다예.>

953) 테우리랑: 귀리(燕麥).

954) 뭇물씨가: 메밀씨가.

955) 좃쟁이에: 겨드랑이에.

956) 뭇물: 메밀.

957) 깍장은: 꽃은.

958) 히영허게: 하얗게.

959) 꽃: 꽃.

960) 물속곳: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옷.

961) 별모작: 매듭단추.

962) 드는: 다는.

963) ○○야 저레 강: 소무를 부르며 주잔 넘김을 하라고 지시하는 말임.

964) 옷귀에: 위미리에.

차사본풀이

차사본풀이>들어가는 말미

천왕 처서관장(差使官長)님, 지왕 처서관장님, 인왕 처서관장님, 연직(年直), 월직(月直), 일직(日直), 시직스제(時直使者), 옥황(玉皇) 군부도서(禁府都事), 저싱 이원스제(二元使者), 이싱은 강림스제(姜臨使者), 요왕국은 부원군(府院國) 스제, 멩두 멩감 삼처서, 옥황은 화덕처서님, 기혜년 몸받은 처서님, 눈이 붉어 황스제(黃使者), 코이 붉어 모람스제, 입이 붉어 악심스제(惡心使者), 아미도령 처서, 본당 처서, 신당 처서, 노중처서(路中差使), 도약처서(毒藥差使), 전량처서(結項差使), 부명처서(非命差使) 관장님 난산국입니다.

차사본풀이>본풀이

옛날이라 옛적에 동경국에 범무왕 데감님이 살읍데다. 부베간(夫婦間)이 아들은 낳는 게 아홉 성제(兄弟) 낳읍데다. 우으로도⁹⁶⁵ 삼형제가 멩(命)이 부족하고, 알로⁹⁶⁶ 삼형제도 멩이 부족하고, 가운데로⁹⁶⁷ 삼형제는 열다섯 십오세가 당협데다. 광양고을은 광양생이 두갯이가⁹⁶⁸ 샅데다.

동계남(東觀音)은 은중절, 서계남(西觀音)은 상세절, 남계남(南觀音)은 녹농절, 북하산은 미양안동절 푼처⁹⁶⁹ 직헌 데서(大師)님이 단 팔십(八十)을 살았구나. 흐를날은 소서(小師)를 불러,

“난 단 팔십을 사난, 모릿날⁹⁷⁰ 스오시(巳午時)가 뉘어 소거전명허건, 남 천 바리 뉘언 확장 시겨두고, 너랑 데서로 헤영 동경국 범무왕 아기 삼형제 데려당 소서로 앓지렌.”

헤영구나. 모릿날 스오시가 당허난, 푼처 직헌 데서님 소거전명(四顧定命)헌다. 남 천 바리 뉘언 확장을 시겨두고, 푼처 직헌 데서님은 하늘 굴룬⁹⁷¹ 굴송낙, 지에 굴룬 굴장삼,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⁹⁷² 둘러메언 소곡소곡⁹⁷³ 네렸구나. 동경국 범무왕 짓알로 도느리며,

“소승은 절이 뵈네다.”

“어느 절당에 데섭니까?”

“동계남 은중절에 살암수다.”

권제(勸齋) 반앙 가젠 허난,

“데서님아, 우리 아들 삼형제 원천강(袁天綱) 스저팔저(四柱八字) 7남⁹⁷⁴ 헤여 봅서.”

단수육갑(單數六甲) 지편 허는 말이,

“멩도 부족헐 듯 허십네다. 영급 좋은 법당에 강 멩과 복을 이읍센.”

헤여두언, 데서님은 권제를 반앙 절간 법당더레 소곡소곡 올라갓구나. 범무왕 아기 삼형제는 비세 7치⁹⁷⁵ 울어간다.

965) 우으로도: 위로도.

966) 알로: 아래로.

967) 가운데로: 가운데로.

968) 두갯이가: 부부가.

969) 푼처: 부처.

970) 모릿날: 모레.

971) 굴룬: 가린.

972)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름준치: 종이 재미(齋米)를 얻으러 다닐 때 등에 지는 배낭.

973) 소곡소곡: 거침없이 앞으로 걸어가는 모양.

974) 7남: 가늌.

975) 비세 7치: ‘비세’는 제비새를 줄임말 ‘제비새 같이 운다’는 정도의 뜻임.

“설운 아기덜아, 절간 법당에 강 멩(命)과 복(福)을 이영 오렌.”

허난, 강모딘 강나룩,⁹⁷⁶⁾ 수답은 수나룩,⁹⁷⁷⁾ 모답이는 모나룩, 상백미(上白米), 중백미(中白米), 웨백미(下白米) 착쌀 엇이⁹⁷⁸⁾ 출려간다. 물멩지, 강멩지 등에 지언 첩첩산중(疊疊山中)을 올라간다. 갓영 간 건 은분체에⁹⁷⁹⁾ 도금⁹⁸⁰⁾ 올령, 상탕(上湯)에는 메를 짓고, 중탕(中湯)에는 모욕(沐浴)허고, 하탕(下湯)에는 수죽(手足) 싯쳐 백일 불공을 드려가는, 흐를날은 데서님이 굳는 말이,

“범무왕 삼형제야, 인간에 강 권제삼문(勸齋三文)을 받앙 올라오렌.”

허난, 범무왕 아들 삼형제가 권제 받으레 동으로 들언 서으로 난다. 서으로 들언 동으로 나간다. 흙으로 솥솥들 받앙 절간 법당더레 올라 보난 테역단풍이⁹⁸¹⁾ 잇엇구나. 삼형제가 테역단풍더레 헤트랭이⁹⁸²⁾ 걸러지언 잇이난, 일출동경(日出東景)이 두둥실 띠엇구나. 이 아기덜 삼형제가 비세같이 올라간다.

“저 둘은⁹⁸³⁾ 곱기는 곱주만은 계수나무 박힌 듯 허여도 허공에 뜬 둘이라. 우리 고향땅 아바님 보아지고, 어머님도 보아지고, 우린 무슨 날에 난 팔저(八字)고.”

비세 ㄱ치 올라가난,

“나 동생덜아, 오라. 우리 절간 법당에 강 권제 받은 거 푼처님전⁹⁸⁴⁾ 올려두고, 데서님헌테 허락(許諾)받앙, 우리 고향땅 강 오기가 어떻허넨?”

“어서 기영 헉서예.”

삼형제가 절간 법당 들어간다. 권제 받앙 온 거 푼처님전 은분체에 도금 올려두고,

“데서님아, 데서님아, 우리는 부모고향산천에 강 오쿠덴.”

허난,

“아이고 설운 아기덜아, 아직 멩과 복을 다 못 이엇저.”

“못 살쿠다. 강 오쿠덴.”

허난,

“설운 아기덜아, 경 허민 느네덜 과양국을 조심헤영 넘어가질티야?”⁹⁸⁵⁾

“넘어가질쿠덴.”

허난,

“느네 갓영 온 거 물멩지, 강멩지 헉 사름이 세 필씩 등에 지라.”

등에 지엇구나. 푼처님전 절 삼베(三拜) 올려두고, 금마답에⁹⁸⁶⁾ 수리 두고,⁹⁸⁷⁾ 올레에 막음을 두고 첩첩산중(疊疊山中) 내려오라 간다.

과양국이 당허엇구나.

과양국이 당허난 난데엇는 시장끼가 ㄱ이 ㄱ이⁹⁸⁸⁾ 나앗구나. 앞더레⁹⁸⁹⁾ 헉 자국을 걸민, 듯

976) 강나룩: 발벼의 일종.

977) 수나룩: 논벼.

978) 착쌀 엇이: 쪼개진 쌀알 없이.

979) 은분체에: 은부처에.

980) 도금: 돈(錢)과 금(金).

981) 테역단풍이: 단풍 든 잔디에.

982) 헤트랭이: 벌러덩.

983) 둘은: 달은.

984) 푼처님전: 부처님전.

985) 넘어가질티야: 넘어갈 수 있겠느냐.

986) 금마답에: 마당에.

987) 수리 두고: 잠가서 봉한 표지를 하고. 흔히 ‘감봉수레 하고’라고 말함.

988) ㄱ이 ㄱ이: 목이 마른 상태.

터레⁹⁹⁰) 두 자국을 걸어간다.

“아이고 절간 법당에 데서님 굳는 말이 맞다. 나 동생덜아 허리띠 졸라 무끄라.”

“허리띠 졸라 무꺼도, 시장끼가 ㄱ이낭 못 가쿠다.”

앞더레 바레보난, 청기와 집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 집이 잇구나.

“나 동생덜아, 죽음과 삶이 맞서느냐? 이 집인 부제집이여. 식은 밥 물 혼 직이나⁹⁹¹) 얻어 먹게.”

“큰성님 먼저 들어갑서.”

들어가명 나사명,⁹⁹²)

“소승은 절이 뵈네다.”

과양생이 각시가 굳는 말이,

“아이고 어떻허난 우리 집이 중이 애기 들영 오람시니? 수벨캄아, 수장남아, 저 중이랑 웬 귀로 떼리건 ㄴ단 귀로 네우리영⁹⁹³) 명석걸음⁹⁹⁴) 헤여보라.”

“아이고 셋성님아, 들어갑서. 큰성님 안 오람수다.”

셋성님 들어강,

“소승은 절이 뵈네다.”

과양생이 두갯이,

“수벨캄아, 수장남아, 저 중도 웬 귀로 네우리건 ㄴ단 귀로 네우령 명석걸음 헤여보라.”

큰성님도 아니 나오고, 셋성님도 아니 나오난, 죽은아시 들어가단 보난 성님덜 명석걸음 헤여구나.

“아이고 요 어른아, 저 어른아, 우리도 원레 중이 애기덜 아납네다. 범무왕 아기덜 삼형젠데 절간 법당 백일 불공 들영 오단 시장끼가 나난 식은 밥에 물 혼 직 얻어먹젠 들어오랏인디, 동냥은 아니 주건 쪽박을 껴지 맙센.”

헤여가난,

“아이고 요것사,⁹⁹⁵) 무신 말이고 수벨캄아, 수장남아, 저 중덜 식은 밥에 물 즈양⁹⁹⁶) 수꾸락⁹⁹⁷) 세 계영 네여 주렌.”

허난, 혼 수꾸락 먹으난 눈이 벨롱허고,⁹⁹⁸) 두 수꾸락 먹으난 시장끼가 멀리고,⁹⁹⁹) 세 수꾸락 먹으난 허리띠 끈이 클러지엇구나.

“우리 절간 법당에 늬이 밥 아니 먹나.”

등에 꺼 비련¹⁰⁰⁰) 혼 사람 석 자씩 끊영 수건 네여 주난, 수벨캄 수장남은 그걸 갖영 들어가난,

“그 애기덜 어드레 가니?”

989) 앞더레: 앞으로.

990) 뒷터레: 뒤로.

991) 혼 직이나: 한 모금이나.

992) 나사명: 나서면서.

993) 네우리영: 내후려쳐서.

994) 명석걸음: 명석말이. =명석거리.

995) 요것사: 요것이.

996) 즈양: 말아서.

997) 수꾸락: 손가락.

998) 눈이 벨롱허고: 눈이 약간 트이다. 배고픔을 벗어나게 되니 형편이 나아졌다는 뜻임.

999) 멀리고: 가고.

1000) 비련: 부려서.

“동경국더레 갑데다예.”
 “수벨캄아, 수장남아, 안사랑, 밧사랑, 네웨사랑 출려 노렌.”
 허난, 출려 놓앗구나. 아이고 멘보선 바람에 나강 동경국더레 바레멍,
 “설운 아기덜아, 가던 걸음 거 멈추라. 아이고 느네덜 가젠 허민 헤는 다 지엇이네. 이 밤,
 저 밤, 야삼경(夜三更), 깊은 산중에 어디 강 잘티?¹⁰⁰¹⁾ 우리 집에 장 가렌.”
 허난, 안으로 들어가난,
 “철년주(千年酒)여. 말년주(萬年酒)여. 이테백이 먹다 남은 포도주로구나. 요 술 훈 잔 먹으
 민 철년을 사고 말년을 산덴.”
 허난,
 “우리 절간 법당에 술과 고기 아니 먹읍네덴.”
 허난,
 “아이고 우리도 절간 법당 갈 떼 술과 고기 아니 먹어도, 절문 뱃끼디¹⁰⁰²⁾ 나오민 먹어진
 덴.”
 허난, 과양생이 꺀에¹⁰⁰³⁾ 넘어간다. 못 먹는 술을 먹엇구나. 이레착, 저레착 등에 꺼 이레
 비려, 저레 비려가난 과양생이 각시 확하게 놀려 들언 안아단 통쇄에 종갓구나. 종가 놓안,
 “넬 아척이¹⁰⁰⁴⁾ 일어나민 요걸 좃일 거난.”
 삼년 묵은 찰지름,¹⁰⁰⁵⁾ 육년 묵은 촌간장을 헤여단 석탄불에 와상와상 꺀어당,¹⁰⁰⁶⁾ 웬 귀로
 지우리난 ㄴ단¹⁰⁰⁷⁾ 귀로 나왔구나. ㄴ단 귀로 지우난 웬 귀로 나오난, 범무왕 아덜 삼형제 과
 양생이 두갓이 손에 죽엇구나~.
 이 아기덜 가망이에 툃툃허게 썬다. 가망이에 툃툃허게 쌍,
 “수벨캄아, 수장남아, 돌 무경 주천강 연네뭇디 강 수장(水葬) 시겨동 오민 느네 종반열 시
 겨주마.”
 “기영 헉셴.”
 허난, 돌 무경 주천강 연네뭇디 강 수장 시기난, 요왕에선 범무왕 아기덜 삼형제 빨간
 꽃,¹⁰⁰⁸⁾ 노란 꽃, 파란 꽃 연꽃으로 환싱(幻生)헤엇구나.
 뭇날¹⁰⁰⁹⁾ 아척¹⁰¹⁰⁾ 과양생이 물 물 멕이레 물석¹⁰¹¹⁾ 심영 가,난 난데엇는 꽃은 피고 시체
 아니 텃구나. 물은 물을 먹젠 헤연 물 주뎡이 물더레 먹어가가민, 삼색백이¹⁰¹²⁾ 꽃이 놀려 들
 언 물 주뎡이 박박 모지르난 물은 말 모른 짐승이난 앞발만 풍덩풍덩 찍어간다. 집이 오랑 각
 시헌티 굴으난, 과양생이 각시 ㄱ는데 질누끼에¹⁰¹³⁾ 빨레 소답¹⁰¹⁴⁾ 물소 물마께 놓안 연네뭇
 디에 네렸구나. 물팡돌에 앓안 빨레 월랑실랑 허단,

1001) 잘티: 잘 것이냐.
 1002) 뱃끼디: 밖에.
 1003) 꺀에: 꺀에.
 1004) 아척이: 아침에.
 1005) 찰지름: 찰기름.
 1006) 꺀어당: 끓여서.
 1007) ㄴ단: 오름쪽.
 1008) 꽃: 꽃.
 1009) 뭇날: 뒷날.
 1010) 아척: 아침.
 1011) 물석: 말고삐.
 1012) 삼색백이: 삼색박이.
 1013) ㄱ는데 질누끼에: 가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1014) 소답: 빨래.

“아이고 우리 집이 테운 꽃이랑, 나 앞더레 오렌.”

물마께로 증곰증곰¹⁰¹⁵⁾ 물을 앞더레 등겨가난 앞이 오는 꽃은 빨간 꼬장이로구나.¹⁰¹⁶⁾ 불긋, 불긋 용심이 난 듯 헤엿구나. 꺼꺼¹⁰¹⁷⁾ ㄱ는데 질누끼에 담아간다. 두에 오는 노랑 꼬장은¹⁰¹⁸⁾ 비세 ㄱ치 우는 듯 헤영 오랏구나. 꺼꺼 ㄱ는데 질누끼에 담아두고, 세 번째 오는 파랑 꼬장은 방실방실 웃는 듯 꺼꺼 ㄱ는데 질누끼에 놓앙 집이 오란 앞 무똥에¹⁰¹⁹⁾ 듯 무똥에 쟁기주동에 꺼꺼 걸 꽃아 놓앗구나. 과양생이 각시 아침이 쓸 거리레 가민 삼색벚기 꽃이 놀려 들언 앞살작, 뒷살작 북북 메고, 장 거리레 가 가민 앞살작, 뒷살작 북북허게 메고, 조반 밥상 출려 들어가민 일갑 상투를 클르고,¹⁰²⁰⁾ 정싱¹⁰²¹⁾ 밥상 출령 들어가민 이갑 상투를 클르고, 저녁 밥상 출령 들어가민 삼갑 상투를 클러가난,

“요 꽃은 곱다만은 행실이 굿덴.”

헤연, 청동아리(靑銅火爐)더레 북북 구견 불을 살라부난, 빨간 구슬, 노란 구슬, 파란 구슬로 환싱(幻生)헤엿구나. 옆집이 청타구 마구할마님 청분체¹⁰²²⁾ 들런 불 담으레 오랏구나.

“아이고 애기어멍아, 불이나 잇건 이레 불 흥끔 도라.”

“정지에 강 봅서.”

숫강알¹⁰²³⁾ 부지땡이로¹⁰²⁴⁾ 헤치난 불 엇엇구나.

“할마님 청동아리 불하시로¹⁰²⁵⁾ 헤청 봅서.”

청동아리에 불하시로 헤청 보난,

“아이고 이디 구슬이 잇덴.”

허난,

“요레 줍서.”

죽허게 빼여 각진장판(角壯壯版)에 놓안 동그려 간다. 손바닥에 놓안 동글동글 노렴헌다. 입바닥에 놓안 이빨 사이로 혃바닥으로 동글동글 놀려 가난 목 알더레 네렛구나.

석 들 열흘 백일이 뉘여가난 과양생이 각시가 먹던 밥에는 굴네가¹⁰²⁶⁾ 나고, 먹던 장에는 장칼네가¹⁰²⁷⁾ 나고, 입던 옷엔 뚝네¹⁰²⁸⁾ 나고, 먹던 물엔 펄네가¹⁰²⁹⁾ 난다. 일곱 ㄹ뎡 아호¹⁰³⁰⁾ 열 들은 뉘언 아기 난 건 보난, 아덜 삼형제가 낫구나. 과양생이 두갯이 하도 지꺼지언 우리 상세관 어전에 서신(書信)을 올리난,

‘게세끼랑¹⁰³¹⁾ 낫느냐? 도세기세끼랑¹⁰³²⁾ 낫느냐? 도세기체¹⁰³³⁾ 석 섬을 내여 주엇구나.’

1015) 증곰증곰: 조심스럽게 하는 모양.

1016) 꼬장이로구나: 꽃이로구나.

1017) 꺼꺼: 꺾어.

1018) 꼬장은: 꽃은.

1019) 무똥에: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

1020) 클르고: 풀고.

1021) 정싱: 점심.

1022) 청분체: 청부채.

1023) 숫강알: 아궁이.

1024) 부지땡이로: 부지깽이로.

1025) 불하시로: 부젓가락으로. ‘하시(はし)’는 젓가락을 뜻하는 일본어.

1026) 굴네가: 본래의 맛이 변하여 나는 좋지 아니한 냄새가.

1027) 장칼네가: 목은 장에서 나는 냄새가.

1028) 뚝네: 땀냄새.

1029) 펄네가: 물비린내가.

1030) 아호: 아흠.

1031) 게세끼랑: 개새끼를.

1032) 도세기세끼랑: 돼지새끼를.

노는 것도 활소리여. 노는 것도 글소리여. 혼 설 두 설 열다섯 설 십오세(十五歲)가 당헤엿구나.¹⁰³⁴⁾

흐를날은 이 아기덜 삼형제가 곤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서울 상시관(上試官)에 과거(科擧) 보래 가쿠다. 서울 상시관에 과거 본덴 헤염수다.”

“아이고 느네덜 어느 손땅에 맞지고, 발땅에 맞지고, 죽영 아니 웬다. 가지 말렌.”

허난,

“사나이 데장부(大丈夫)로 낫인디,¹⁰³⁵⁾ 과거 혼번 못 본덴 허는 말이 뉘 말이우꽂? 허락(許諾)협센.”

허난,

“어서 기영허라.”

서울 상시관에 강 도올랏구나예~.

큰아덜은 문서급제(文選及第), 셋아덜은 장원급제(壯元及第), 작은아덜 팔도도자원(八道都壯元)이로구나. 어수예(御賜花), 비수예, 삼만관속(三萬官屬), 피리단절, 옥단절, 행금,¹⁰³⁶⁾ 주테 들렁 와락치락 과양국더레 네렛구나예~.

동안(東軒) 마당에 과겻기가¹⁰³⁷⁾ 둥둥 뜨난, 과양생이 각시 아침에 일어남 보난, 동안 마당에 과겻기가 떠엿구나.

“아이고 나년이 팔저(八字)여. 나년이 소저(四柱)여. 아이고 우리 애기덜은 삼천선비 밭에서 죽엇이멍, 손에서 맞앙 죽엇이멍, 어느 집은 산천이 좋앙 과거헤영 오람신고.¹⁰³⁸⁾ 아이고 저 산천 좋은 집은 나 앞서서 혼 날 혼 시에 문딱 죽어불렌.”

후욕노욕(詬辱怒辱) 헤엿구나예~.

흐꿈 잇이난, 과양생이 집더레 과겻기가 둥둥 떠엿구나.

“아이고 나 아기덜 착허다. 문전(門前) 모른 공서(公事)가 잇이느냐?”

문전더레 평풍 쳐놓고, 상 출랑 절을 헤엿구나.

“아이고 우리 애기덜 절헤나건 우리도 과거절 받으젠.”

암만 앓아 기다려, 사 기다려헤여도, 아기덜은 안 일어나난 필아곡절허다. 와다닥 놀러들언 네영 영 보난, 과양생이 아덜 삼형제 벌써 죽영 저싱 초소렴(初小殮) 질을 걸엄구나~.

“나년이 팔저로구나. 이 아기덜 혼 날 혼 시에 삼형제가 나고, 혼 날 혼 시 삼형제가 과거허고, 혼 날 혼 시에 죽엇구나.”

앞बाट, 뒷बाट, 옆बाट 임시 출병막(出兵幕)을 출려 놓고, 원님앞이,

“무신 덕분에 죽엇이리랴?”

아침 소지, 낮 소지, 저녁 소지에 벅 소지, 석 들 열흘 벅일이 뉘언 아홉 상자 반이 뉘어도 원님한테 이렇단 말이 엇이난, 하도 부애가 나앗구나. 흐를날은 넘어가멍,

“게 ㄱ똥¹⁰³⁹⁾ 짐치원아, 쉼 ㄱ똥¹⁰⁴⁰⁾ 짐치원아, 득도¹⁰⁴¹⁾ 죽이젠 허민 씨 깎을¹⁰⁴²⁾ 냉겨동

1033) 도세기체: 돼지먹이.

1034) 당헤엿구나: (그 나이에) 다다랐구나.

1035) 낫인디: 낫는데.

1036) 행금: 거문고. 거문고는 삼국사기에 거문고는 중국 진(晉)나라의 칠현금(七絃琴)을 고구려의 왕산악(王山岳)이 개조하여 만든 악기인데 이를 연주하자 검은 학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 그래서 이름을 현학금(玄鶴琴)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현학금(玄鶴琴)을 줄여 현금(玄琴)이라고도 한다.

1037) 과겻기가: 과거급제 하였다고 알리는 깃발이.

1038) 오람신고: 오고 있는가.

1039) 게 ㄱ똥: 개 같은.

죽이는 법인데, 우리 아덜 삼형제가 무신 덕분에 나고, 무신 덕분에 과거하고, 무신 덕분에 죽었이리랴? 아침 소지(所志), 낮 소지(所志), 저녁 소지(所志) 석 들 열흘 아홉 상자 반이 돼어도, 이 소지 절처(決處)를 못허난, 이 고을 떠나라 똑똑헌 원님 낵 이 소지(所志) 절처(決處)를 허여보켜이.”

넘어가명 이 말을 곱으난, 원님은 하도 기가 맥헛구나. 책불(冊佛)을 싸앗구나. 마마부인 굳는 말이,

“원님아, 원님아, 이 많은 스실(事實)로 책불을 쌓으면 뵈니까? 나 말을 들읍서. 우리 고을에 똑똑하고 영력헌¹⁰⁴³ 관장(官長)이 누게가 잇우파?”

“강림이 강파디가 잇우다. ㄹ덥(八) 술은 뵈난 사랑(使令)에 이참(入參)허고, 여레덥(十八)은 나난 문 안네도 기생호첩(妓生好妾), 저 문 벅끼디도 기생호첩(妓生好妾), 강림이 강파디가 잇우다.”

“오늘 저녁이랑 이수팔수(二數八數) 토령법(土壟法)을 놓서. 넬랑 열 관장에 사발통지(沙鉢通紙)를 돌립서. 사발통지 돌령 관장 하나 떨어지건 염라데왕(閻羅大王) 데려당 이 소지 절처(決處)허는 건 어땡헛네까예~?”

“어서 기영 헛서.”

그날 저녁 이수팔수 토령법을 논다. 듯날 아척 게폐문(開閉門)을 열어간다. 열 관장에 사발통지를 돌리난, 관장 하나가 떨어졌구나.

“누게가 뵈겟느냐?”

“강림이 동안(東軒) 마당 궐(闕)입네다~.”

강림이 기생호첩에 들언 동안 마당 궐(闕)을 네엇구나. 동안 마당에 내려오난 앞밭디는 작두를 걸라. 듯밭디는 버텅을¹⁰⁴⁴ 걸라. 즈각(刺客)놈을 불러다가 강림이 목에 큰칼을 씨어건¹⁰⁴⁵ 죽이젠 동이 꺾짜, 서이 꺾짜 허난 강림이 굳는 말이,

“죽을 일이 잇이민 살 일이 잇는 법이고, 무신 덕분에 나 목에 큰칼을 씨우데가?”

“열 관장에 궐(闕)이 뵈엇우다.”

“어땡허민 살아집네까?”

“그 칼에 목을 베영 죽으쿠가? 아니민 저싱 강 염라데왕(閻羅大王)을 데려 오쿠가?”

“나 이떼까지¹⁰⁴⁶ 관장직을 살앗인디, 이만헌 일로 죽을 수가 엇입네다. 저싱 강 염라데왕을 데려오겟습네다.”

목에 큰칼을 베껴간다. 목에 큰칼을 베껴두고 관장패(官長牌) 네여 둔다. 종이 소지(所志)를 네어두난 콤에¹⁰⁴⁷ 콤어간다. 강림이,

‘어딜 가민 좋고? 어딜 가민 좋고?’

이방왕(吏房)에 들어강,

“날 살려 줘서.”

“원님 허는 일이 우린 모릅네다.”

1040) 췌 7뵈: 소 같은.

1041) 독도: 닭도.

1042) 깡을: 값을.

1043) 영력헌: 영리한.

1044) 버텅을: 형틀을.

1045) 씨어건: 씨워서.

1046) 이떼까지: 이때까지.

1047) 콤에: 품에.

상방왕(刑房房)에 들어감 강림이,

“살려줍센.”

허난,

“원님 허는 일 우린 모릅네다.”

“어딜 가켤?”

사령방(使令房)에 들어가도,

“원님 허는 일 우린 모릅네다.”

글로 성방방에 들어가도,

“원님 네는 일 우린 모릅네다.”

“어딜 가리?”

마마부인한테 가난,

“아이고 강림아, 오늘 가민 언제 올 꺼고, 나 술 혼 잔 먹고 가라.”

권주가(勸酒歌)를 불러주난,

“이 세상에 살 땐 술친구가 좋아도 나갈 땐 저싱 갈 땐 나 혼자로구나예~.”

강림이 동안(東軒) 마당 나사난, 동서(東西) 막음 헤엿구나. 아이고 오늘 가민 언제 올 중 몰르난 조강지처(糟糠之妻) 사는 디나 들어가젠 먼 올레 들어가단 보난, 강림이 큰각시 도웨이¹⁰⁴⁸ 방에 도웨이¹⁰⁴⁸ 절구데 물보리¹⁰⁴⁹ 놓앙,

“이어 방에 이어 방에 낭군님아, 올레 정살남을¹⁰⁵⁰ 견어동 들어 읍데강?¹⁰⁵¹ 가시낭을¹⁰⁵² 견어동 들어동 읍데강? 범주리낭¹⁰⁵³ 가지나 견어동 들어옴이파?”¹⁰⁵⁴

이 말을 들은 체도 안혀여 안네 들어감 보난, 훌어멍 살림 든든하게¹⁰⁵⁵ 살았구나. 훌아방은 거적문을¹⁰⁵⁶ 돌아도¹⁰⁵⁷ 훌어멍은 은동이가 아홉 게 뉘게 튼튼한 살림을 살았구나. 안네 들어갓구나. 이불자리 폐완 벤 베게가 용수(湧水) 뉘게 강림이 비세?치 울엇구나. 강림이 큰 각신 옛 정은 호정(好情)이라, 밥 혼 상을 출령 문을 열젠 허난 문을 잔뜩 중갓구나.

“아이고 이 어룬아, 저 어룬아, 이 중근 문이나 열어봅서. 여자이렌 허는 거는 산더레 돌아 앓 앙 소피(所避)를 보양 치멧각¹⁰⁵⁸ 젓는 줄 모른 게 속 좁은 게 여자우다. 그 말 혼 마디에 이 문을 중급데가? 중근 문이 열어봅서예~.”

열관 안네 들어갓구나.

“이 밥이나 먹읍서.”

첫 수꾸락에 목이 탁 맥헛구나.

“나한티 속팬¹⁰⁵⁹ 말 험서. 난 당신한티 가문머리¹⁰⁶⁰ 육갑 갈라 데완 시집을 오란, 당신

1048) 도웨이: 복숭아나무.

1049) 물보리: 아직 충분히 여물지 않아 물기가 많은 보리.

1050) 정살남을: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大門) 대신 가로 걸쳐놓는 길고 굽직한 나무을.

1051) 읍데강: 읍니까.

1052) 기사낭을: 가시나무를.

1053) 범주리낭: 실거리나무.

1054) 들어옴이파: 들어오고 있습니까.

1055) 든든하게: 단단하게.

1056) 거적문을: 문짝 대신에 거적을 친 문을.

1057) 돌아도: 달아도.

1058) 치멧각: 치맛자락.

1059) 속팬: 속의.

1060) 가문머리: 검은머리.

없는 살림 오늘까지 살았우께. 나한테 속편 말 못허쿠꽂? 속편 말 헤여봅서.”

아이고 강림이가 입을 열어간다.

“저싱 강 염라데왕 데령 오렌 허난, 저싱더레 가는 질에 당신 마지막으로 보왕 가젠 들어오 구렌.”

허난,

“원님이 본메 본짱을¹⁰⁶¹ 줍데가?”

“주어라.”

“네어봅센.”

헌 거 보난 흰 종이에 검은 글을 네여 놓았구나.

“아이고 낭군님아, 오늘까지 관장직(官長職)을 살아도 저싱 글도 모르고, 이싱 글도 모릅네 까? 이싱에 사름들은 흰 종이에 검은 글을 쓰고, 저세상 글은 흰 종이에 검은 글이나~ 쓰는 법이우다. 흰 종이에 붉은 글을 써사 저싱 사람 쓰는 글 아니우꽂? 요 밥 먹읍센.”

헤연, 동안 마당에 네렸구나.

“원님아, 원님아, 이걸 갖연 검은 머리가 백발(白髮)이 뉘도 저싱 못갑네다. 흰 흥에¹⁰⁶² 붉은 글을 줍서. 붉은 흥에 흰 글을 네여 줍센~.”

그때 넌 법으로 빨간 멩전법(銘旌法) 마련헤엿우다. 흰 독세기로 글을 써근에 믱물 7루 히허게 치민 사람 죽어 멩전법을 마련헤엿우다예.

집이 오란, 강림이 큰각시 석 섬 쓸을 서 말에 다듬고 서 말 쓸은 석 뉘에 다듬았구나. 몰방에 놓안 찍어간다.

“이어 방에 이어 방에.”

이 방에 찍엇구나. 체할망¹⁰⁶³ 불러단 체를 치난, 체 알에 7루는 줍진도 줍진다. 강남서 들어온 조그만 멩솥에,¹⁰⁶⁴ 일본서 들어온 조그만 멩시레,¹⁰⁶⁵ 초징, 이징, 삼징을 놓았구나. 서각(書閣)을¹⁰⁶⁶ 띠운다. 우이 꺼는,

“문전하르바님, 낭군님 저싱 감수다. 질토레비¹⁰⁶⁷ 질칸관(一監官) 맥입서.”

가운디 꺼는,

“조왕할마님, 강림이 저싱 감수다. 청셋비로 헤칩서. 흑셋비로 헤칩서.”

멘 알에 낀 강림이 정싱 밥을 싣구나.

“낭군님아, 일어낭 저싱 갑서.”

포따리 하나 네여 논다.

“요걸 입읍센.”

허난, 입어간다. 남방사주(藍紡紗紬) 붕에바지,¹⁰⁶⁸ 백방사주(白紡紗紬) 접저구리,¹⁰⁶⁹ 벌통 행견 백록버선(白綾--), 한삼모시(韓山--), 두루막,¹⁰⁷⁰ 남수와시(藍水禾紬) 적괘지(赤快子), 울문데단(雲紋大緞) 안을 바쳐, 숯구리 데행침(大行纏)을 허고, 앞에는 논론 논 제(字), 뉘에는

1061) 본메 본짱을: 증거가 되는 물건을.

1062) 흥에: 종이에.

1063) 체할망: 체질을 잘하는 사람.

1064) 멩솥에: 메 솥에.

1065) 멩시레: 제사에 올릴 시루떡을 지는 시루.

1066) 서각(書閣)을: 서신(書信) 정도의 뜻임.

1067) 질토레비: 길잡이.

1068) 붕에바지: 솜바지.

1069) 접저구리: 겹저고리.

1070) 두루막: 두루마기.

임금 왕 제(字), 관장패(官長牌)는 등에 지고, 종이 소지는 콤에 콤고, 홍사줄(紅絲紬)은 옆이 치어간다. 바농¹⁰⁷¹⁾ 하나를 갖영 오란, 관디(冠帶)에 퀘지(快子) 앞더레 꼭허게¹⁰⁷²⁾ 짚러구나. 강림이 먼 올레 나사난 아그랑작대기,¹⁰⁷³⁾ 불 부튼 부지땡이¹⁰⁷⁴⁾ 짚언 엄똥 허난, 할마님이 넘 어감구나.

“아이고 여잔 꿈에만 봐도 세물(邪物)이다, 사나이 데장부(大丈夫) 가는 길에 할마님 영 질을 갈람신고?”

할마님은 미치젠¹⁰⁷⁵⁾ 강림이 뛰어가민 할마님도 뛰어가고, 강림이 걸어가민 할마님도 걸어가구나. 가단 높은 동산이 잇이난 동산더레 강림이 잇이난, 할마님도 강림이 옆더레 오라 쉬엇구나. 필아곡절(必有曲折)허다. 할마님한테 절을 소곡허난,¹⁰⁷⁶⁾

“아따 어떤 장방향수가 우리 ㄱ똥 늑신네안티¹⁰⁷⁷⁾ 절을 헤염신고?”

“할마님, 그런 말씀 맏서. 우리 집에도 노부모(老父母)가 잇습네다. 읍서. 우리 정싱밥이나 먹게.”

정싱밥은 네여 논 거 보난,

“할마님, 정싱밥허고 나 정싱밥은 헛 솟똥 헛 손메우다.”

그때 욱을 헤엇구나.

“이놈, 저놈, 궤썸헌¹⁰⁷⁸⁾ 놈, 너허는 행실은 궤썸허여도 너네 큰각시 사는 조왕할마님이영. 나 저싱길 청셋비도 헤쳐구나. 흑셋비로 헤쳐구나. 울로¹⁰⁷⁹⁾ 가당 보라. 백발노인(白髮老人)이 앓안 바둑 장계 두엄시난, 그딜 가민 너 저싱갈 질 알아진덴.”

허난, 엄똥 허난 할마님이 감감무중헤엇구나. 따시 걸영 가단 보난 백발노인이 삼각수(三角鬚) 거시령 바둑 장계 두엄구나, 절을 소곡허난,

“어디 사는 장방향수가 우리 늑신네한테 절을 헤염신고?”

“우리 집도 노부모가 잇습네다. 읍서. 우리 정싱밥이나 먹어보게.”

정싱밥은 네여 논 거 보난, 헛 솟디¹⁰⁸⁰⁾ 헛 손메가 뉘엇구나.

“어똥허난~ 할마님 정싱허고 나 정싱은 하르바님과 ㄱ뜨짜?”

“이놈, 저놈, 궤썸헌 놈 나는 너네 큰각시 집 문전하르방이로구나. 나는 너 저싱질 가리차주레 오랏구나. 일흔여덟 헛 ㄱ르¹⁰⁸¹⁾ 질¹⁰⁸²⁾ 세당 나머지 너 들어갈 질이여. 가당 보민 질토레비¹⁰⁸³⁾ 질을 다깜시난,¹⁰⁸⁴⁾ 나 밥이랑 ㄱ찌 먹고 너 밥이랑 그 질토레비 주어보민 알아볼 도리(道理)가 잇어지다예~.”

일흔여덟 헛 ㄱ르 질을 네여 준다. 요 질은 원왕감서(元王監司) 원병서(眞兵使)가 들어간 질, 시왕감서(十王監司) 신병서(新兵使)가 들어간 질, 짐추염나(金緞閻羅)는 테선데왕(泰山大

1071) 바농: 바늘.

1072) 꼭허게: 찌르는 모양.

1073) 아그랑작대기: 사냥꾼이 눈 위에서 짚고 다니는 Y자 모양의 작대기.

1074) 부지땡이: 부지쟁이.

1075) 미치젠: 이르려고 하면.

1076) 소곡허난: 몸을 숙이는 모양을 하니깐.

1077) 늑신네안티: 늑은이한테.

1078) 궤썸헌: 궤심한.

1079) 울로: 여기로.

1080) 솟디: 솟에.

1081) ㄱ르: 고비.

1082) 질: 길.

1083) 질토레비: 길잡이.

1084) 다깜시난: 닦고 있으니깐.

왕) 들어간 질, 범 7쁜 스천대왕(四天大王) 들어간 질, 초제(初第) 진광대왕(秦廣大王) 들어간 질, 이제(二第) 초관대왕(初江大王), 제삼(第三)은 송교대왕(宋帝大王), 제네(第四) 오관대왕(伍官大王), 다섯은 염나대왕(閻羅大王), 오섯은 번성대왕(繁盛大王), 일곱은 테선대왕(泰山大王), 여덟은 평등대왕(平等大王), 아홉은 도시대왕(都市大王), 열시왕(一十王)이 들어간 질, 지왕대왕(地藏大王), 생불대왕(生佛大王), 자득생명(左頭生命), 우득생명(右頭生命), 십오동존(十五童子), 십육스제(十六使者), 이십(二十)은 소판관(使判官), 이구(二軍) 제왕(諸王) 들어간 질, 천왕 처서(天皇差使), 지왕처서(地藏差使), 인왕처서(人皇差使), 연직(年職), 월직(月職), 일직(日職), 시직스제(時職使者), 금부도서(禁府都事) 들어간 질, 멩두멍감(冥道明官) 삼처서(三差使) 요왕(龍王) 거북스제 들어간 질,

“강림아, 너 들어갈 질은 재미연뽕만 현 질이로구나에-.”

어주릿질, 비주릿질,¹⁰⁸⁵ 눈비역은¹⁰⁸⁶ 한탈나무,¹⁰⁸⁷ 가시덤불, 띠덤불을 넘어가는구나. 가 단 보난 질토레비 질을 다끄단 베고판 무정눈에¹⁰⁸⁸ 줍을 잡구나. 강림이 정심밥 네여 노난 무정눈에 줍자당도 와들랭이¹⁰⁸⁹ 일어난 그 밥을 먹언 듯터레¹⁰⁹⁰ 베레보난 하늘과 7뜯헌 관 장이로구나.

“어떻헤영 나 베 고평 줄 알앙 나 밥을 줍이파?”¹⁰⁹¹

“무신 덕분에 베 고평명 이 질을 다감수겐?”

허난,

“난 저싱 염나대왕(閻羅大王) 몸 받은 이원제빈디, 모리날 스오시(巳午時)에 알엿녁 조복장 제집이 단뜰애기 아판 전세남¹⁰⁹² 허난, 염나대왕 네리게 뉘난 미리 질을 다감수다.”

“나는 이싱에 원님 몸 받은 강림이 강파딘디, 저싱 염라대왕 데리레 감수다.”

“아이고 이싱 동관(同官)님아, 검은 머리 백발이 뉘도 갈 수가 엿는 게 저싱이우다. 본메 본 짱¹⁰⁹³ 갓영 읍데가? 뉘이우파?”

그 법으로 사름은 죽으민 동심절(同心結)을 무어사 뉘는 법이우다에~.

동심절을 네여 놓앗구나.

“가젠 허민 신체는 못 갈 꺼난, 혼(魂)으로 갓당 읍서.”

혼적삼을 네여 준다. 이구산에 올랐구나.

“강림이 본, 강림이 본, 강림이 본입네다.”

강림이 삼혼정(三魂情) 저싱 초군문(初軍門)에 당헤엿구나. 모릿날 스오시(巳午時)가 당허난, 선베, 후베, 걸람베, 조삼베 기(旗) 들은 이, 창(槍) 들은 이, 행금(玄琴) 주테 들은 이덜 와락 치라 저싱 염나대왕님이 내려온다. 초군문에 본메 본짱을 부껴시난,

“저건 누게가 부껴느냐?”

허난,

“강림이가 부껴우덴.”

허난, 강림이를 심영 오렌 허, 난 강림이 붕에 눈을¹⁰⁹⁴ 부릅뜬다. 청동(靑銅) 7뜯 풀따시

1085) 어주릿질 비주릿질: 울통불통하여 고르지 못한 길.

1086) 눈비역은: 풍설(風雪)은.

1087) 한탈나무: 산딸기나무.

1088) 무정눈에: 무정하게 감기는 눈에.

1089) 와들랭이: 누웠다가 급히 일어나는 모양.

1090) 듯터레: 뒤로.

1091) 줍이파: 주는 것입니까.

1092) 전세남: 병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곳.

1093) 본메 본짱: 증거가 되는 물건.

를¹⁰⁹⁵) 걸어간다. 벼락 7튼 소리 와락치라 치어간다. 첫번째 가마에 빈 가마, 두 번째 가마도 빈 가마, 세 번째 가마도 빈 가마, 다섯 번째 가마에 강 보난, 염나데왕(閻羅大王)님도 강림이 한티 드난 가마 연분줄에¹⁰⁹⁶) 툭툭허게¹⁰⁹⁷) 앓았구나예~. 염라데왕님이 곧는 말이,

“아이고 강림아, 인정주마. 소정주마. 흔 베코만¹⁰⁹⁸) 녹에도라.¹⁰⁹⁹) 흔 베코만 녹에도라.”

허난 법으로 염나데왕(閻羅大王)님도 인정 걸어난 법이 잇습네다. 우리 인간 사름덜토¹¹⁰⁰) 죽영 가민 열두 문에 인정 거는 법입네다.

강림이 인정 걸어주난 스문절박(私門結縛) 끈을 클렀구나.

“오라. 나영 7찌 내려가게.”

“어디 갈 꺼파?”

“알엿녁에 조복장제집이 단똥애기 아판 전세남 험저. 오라. 가게.”

네령 오라간다. 미여지벵디¹¹⁰¹) 오난,

“암만 똑똑헤여도 이거 어떻 열만이나 똑똑헌고?”

흔번 보젠 헤연 염나데왕님은 미여지벵디에 7랏으로¹¹⁰²) 환싱(幻生)헤여부난, 강림인 듯터 레 바레보난 염나데왕 암시카부덴¹¹⁰³) 허난, 강림이 염나데왕 일러불엇구나.¹¹⁰⁴) 미여지벵디에 암만 슬퍼도¹¹⁰⁵) 엇었구나. 7만이 앓안보난 7랏¹¹⁰⁶) 하나가 이레 흔들, 저레 흔들 헤염구나. 아이고 고랏을 확허게 후리난, 염나데왕(閻羅大王)이 번뜻허게 나오란,

“똑똑허다. 영력허다 오라. 네리게.”

알엿녁에 네렸구나.

알엿녁에 네리난 천도천왕(天都天皇), 지도지왕(地都地皇), 인도인왕(人都人黃), 삼간지 오룬 지법으로¹¹⁰⁷) 천신기는 지낫츰고, 흑신기는 지드투고, 천지이망주¹¹⁰⁸) 하늘이 칭칭허게 신수푸고, 삼버릿줄¹¹⁰⁹) 줄싸매여¹¹¹⁰) 데통기, 소통기, 지리에기, 양산기, 줄전나비¹¹¹¹) 놓고, 안으로 비저나무¹¹¹²) 상당클,¹¹¹³) 계수남은 중당클, 준지남은 하당클 춤실 7튼 오리베로 말 귀 7치 네 귀 즘썩 헤영 팔만금세진(八門金蛇陳) 치여놓고,

“저싱왕도 왕이웨다. 이싱왕도 왕이웨다.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옹셴.”

허난,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은 안으로 들어갓구나.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은 들어가도 강림이

1094) 봉에 눈을: 봉황새처럼 동그랗게 부릅뜬 눈을.

1095) 풀다시름: 팔뚝을.

1096) 연분줄에: 연(輦)가마의 채.

1097) 툭툭허게: 갑자기 힘없어 하는 모양으로.

1098) 베코만: 밧줄의 한 고만.

1099) 녹에도라: 늦추어 달라. 누그러지게 해 달라.

1100) 사름덜토: 사람들도.

1101) 미여지벵디: 아무 거침없이 트인 널따란 별판.

1102) 7랏으로: 가라지로.

1103) 암시카부덴: 오고 있는 줄 알고.

1104) 일러불엇구나: 잃어버렸구나.

1105) 슬퍼도: 살퍼도.

1106) 7랏: 가라지. 벧과의 한해살이풀.

1107) 삼간지 오룬지법으로: 삼강오룬법(三綱五倫法)으로.

1108) 천지이망주: 곳을 할 때 큰대를 세우는 법을 말함.

1109) 삼버릿줄: 큰대를 묶는 세 갈래의 줄.

1110) 줄싸매여: 단단히 묶어 매니.

1111) 데통기 소통기 지리에기 양산기 줄전나비: 큰곳 할 때 마당에 세우는 큰대를 장식하는 기메의 종류.

1112) 비저나무: 비자(櫃子)나무.

1113) 상당클: 곳을 할 때 제장 벽의 상단에 달아매는 선반으로 신들이 좌정함.

는,

‘이때나 오랜 혈 꺾가? 저때나 오랜 혈 꺾가?’

헤연 오랜 말 엿이나,

‘요놈은 조석(子息) 큰심방 꺾심허다.’

강림이 소문절박(私門結縛)을 시키난, 한창 데시왕맞이 허단 큰심방이 마당에 툭툭 둥글어 갖구나예~. 아무래도 똑똑하고 영등헌, 영력헌 연당 앞에 신소미(神小巫)가 잇엇구나. 상계상을¹¹¹⁴ 네여 논다. 저싱기를 네여 논다.

“저싱왕도 왕입네다. 이싱왕도 왕입네다. 엿그제께 염나데왕(閻羅大王) 데리레 가던 강림이 강파디 살려 읍서예~.”

영 허난 법이 잇고, 우리 팔저(八字) 곳인 사름덜은 강림이가 저싱 데령 가는 게 아니고, 삼도멩감 삼쳐서(三差使)가 데령 가는 법이라, 옛날 옛적 남천문밖 유정싱뜨님아가기가 싱근 돌에,¹¹¹⁵ 물팡돌에¹¹¹⁶ 노념놀이 헤염시난, 파란공에 육간제비를¹¹¹⁷ 콤에 콤어동 가난 열일곱은 나난 눈 어둡고, 스물일곱 나난 눈 뜨고, 서른일곱 나난 눈 어둡고, 마흔일곱 나난 눈 뜨고, 시운일곱 나난 눈 어둡고, 예순일곱 나난 눈 떤, 알옛녁에 조복장제집이 간 보난 단돌애기 열두 매 무꺼시난,

“영 헤 봅서. 맥(脈)이나 지퍼 보게.”

맥은 지평 보난, 속 맥은 죽고 살고 걸 맥은 죽엇구나.

“이 아기 시왕법난에 잡혔우덴.”

백지알데김 놀런¹¹¹⁸ 십 년만이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에 오란,

“십 년 전에 우리 집이 오랑, 소지(所志)에 꺼꺼시난 곳 헤줍센.”

헤연, 시왕법난에 잡히난, 남천문밖 유정싱뜨님아가기 삼시왕에 물멩지 올령 목을 걸런 놀리난, 어인테인(御印打印) 수리감봉 막음주어근, 신소미 네여 주언, 알옛녁에 간 큰곳 전세남 헤연, 일흔일곱에 삼시왕에 종명(終命)헤어나난, 팔저 곳인 집인 곳 혈 떤민 이 데목에 멩두멩감 삼쳐서도 오리정 신청궤도¹¹¹⁹ 신메웁네다예~.¹¹²⁰

강림이가 안네를 들어가난, 시왕당클¹¹²¹ 앞에 팽풍(屏風)을 치라. 팽풍을 치난 네 귀 접상(擗床)을 놓앗구나. 낮인 역가(役價), 밤인 중석,¹¹²² 열 말 쓸 왕구역, 데덕빵 금시리¹¹²³ 치여단 올리난, 데덕방 금시리 앳앗구나. 앳이난에 낮인 역가, 밤인 중석, 열 말 쓸 왕구역, 데덕방 금시리 둥글둥글 놀려가난,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은 청데 고고리¹¹²⁴ 올라 가불고, 강림인 일어산 보난 염나데왕(閻羅大王)이 엿구나.¹¹²⁵ 아이고 염나데왕(閻羅大王) 따시 일러변¹¹²⁶ 좃단 보난, 파리 몸에¹¹²⁷ 환싱헤연 청데 고고리에 간 보난 염나데왕(閻羅大王)이 잇엇

1114) 상계상: 시왕맞이의 제상 차림 가운데 하나를.

1115) 싱근 돌에: 심은 돌에.

1116) 물팡돌에: 하마석(下馬石)에.

1117) 육간제비를: 엽전 모양의 무구를.

1118) 백지알데김을 놀런: 백지알데김 제차를 할 때 백지를 접은 뒤 산판으로 눌러 다짐을 한다는 뜻.

1119) 오리정 신청궤도: 초감제에서 신을 청해 들이는 소제차.

1120) 신메웁네다예: 신을 메웁니다. ‘신메우다’는 해당 제차에서 신을 청하여 모시는 것을 말함.

1121) 시왕당클: 큰곳을 할 때 설치하는 네 개의 당클 가운데 시왕을 모시는 당클.

1122) 중석: 끼니 외로 중간에 먹는 음식.

1123) 금시리: 시루.

1124) 고고리: 이삭. 여기서는 꼭대기의 뜻임.

1125) 엿구나: 없구나.

1126) 일러변: 잃어버리고.

1127) 파리 몸에: 파리 몸에.

구나. 따시 소문절박(私門結縛)을 허난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굳는 말이.

“훈적 내려 강 잇이라. 모릿날¹¹²⁸ 스오시(巳午時)가 당허민 나가 알엿녁더레 내려가마. 동안(東軒) 마당더레 내려가넨.”

허난,

“어서 기영 험서.”

앞에는 놀 혼 혼 쩌(字), 뒤에는 임금 왕 쩌(字)를 네여 준다. 백강생이¹¹²⁹ 네여 주멍,

“가당 보민 백강생이가 행기못더레 빠질 꺼난, 니도 그디 강 빠지민 이싱더레 가진덴.”

허난,

“어서 기영 험서.”

백강생이 뜨랑 내려오단 보난, 행기못이 잇엇구나. 백강생이 들어간 강림이도 들어간 이싱에 오랏구나. 이구산에 간 신체에 삼문에 들어간 와들랭이 일어사난 불빛이 보와전 간 보난 강림이 큰각시 집이로구나. 강림이 저싱 강 사흘 살안 오란 보난, 이싱은 삼 년 첫 식격날¹¹³⁰ 뒤엇구나.

“요 문 열라. 요 문 열라~.”

“아이고 뒷집이 박포수건 넬랑¹¹³¹ 읍서. 넬랑 오민 식게 튼물(退物) 안네쿠덴.”

허난,

“나가 저싱 갖다 온 강림이엔.”

허난,

“우리 낭군님이건 퀘지(快子) 앞자락 네여 줍센.”

네여 논 건 보난, 나갈 떼 찢룬 바농이¹¹³² 꺼꺼지엿구나.

“아이고 낭군님, 살안 오랏구나. 아바님아, 낭군님 살아서 오랏우다. 어머님아, 낭군님 살아서 오랏우다.”

성제간덜 다 불르난, 아바님은 들어오멍 오른 손목 심영 앓앗구나. 어머님은 들어오멍 웬 흘목을 심연 앓앗구나.

“아바지랑 성편법(姓便法) 마련험서. 어머님이랑 웨편법(外便法) 마련험서. 아바지 나 엇이 난 어떤 떼 쟁각이 나압떼가?”

“아이고 나 아덜아, 므디므디 쟁각나고, 마디마디 쟁각나고 난 남자난 모든 말을 거풀영¹¹³³ 살아져라.”

“아바지 살당, 살당 이세상 떠나민 왕데¹¹³⁴ 꼭어당 방장데¹¹³⁴ 지프고, 모든 말을 거풀어 주난, 시메웃을¹¹³⁵ 알단을 풀영 아바지 삼년상 공 가파 안네쿠다. 어머님아, 나 엇이난 어떤 떼 쟁각이 납떼가?”

“아이고 나 아기야, 어멍 먹먹헌 가심이여.¹¹³⁶ 가시가지 쟁각이 나라. 굿인 말이나 좋은 말이나 다 가심더레 물어져렌.”

허난,

1128) 모릿날: 모레.

1129) 백강생이: 흰 강아지.

1130) 식격날: 기일제삿날.

1131) 넬랑: 내일.

1132) 바농이: 바늘이.

1133) 거풀영: 풀어서.

1134) 방장데: 상장(喪杖).

1135) 시메웃을: 상복(喪服).

1136) 가심이여: 가슴이여.

“아이고 우리 어머니, 살당, 살당 이세상 떠나불민 동더레 번은 머구냥¹¹³⁷⁾ 끊어당 방장대 지프고, 모든 걸 다 감추앗이난 시메옷은 알단 감추완 삼년상 공 가팡 안네쿠다예~. 성제간덜은 나 옛이난 어떤 때 생각이 나넨?”

“아이고 열두 돌 넘엄시난 잇입데다.”

“성제간은 옷 우이 브름이여.”

열두 돌 건복법(巾服法) 마련허고,

“일가방상으로는¹¹³⁸⁾ 나 옛이난 생각이 나아전고?”

“큰일 때 생각이 나난.”

큰일 때 고적 치는 법을¹¹³⁹⁾ 마련허고, 기생호첩(妓生好妾)덜을 불러단,

“나 옛이난 어떤 때 생각나니?”

“아이고 여저 팔전 뒤옹박 팔저. 훈 지방 넘음이나 두 지방 넘음이나.”

“느네덜 열 얘기 나도, 아무 필요 엇저. 옷 앞섭 가로삭삭허 젓이민 늬이로구나. 느네덜 앞 발로랑 가렌.”

보내여두고, 조강지처(糟糠之妻) 불령,

“나 옛이난 어떻게연 뒤엇인고?”

“설운 낭군님아, 죽은 수절(守節)도 지컨 앓인걸, 산 수절을 무사 못 지경 앓입네까? 아이고 살암시난 낭군님 살안 오랏우덴.”

허난에, 열녀비(烈女碑)를 세와간다. 효녀비(孝女碑)를 세와간다.

“나영 7찌 살아도 남녀 간에 야기 엇어도, 나보다 당신 먼저 세상 떠나민, 나가 복 입영 일년상(一年喪) 상제 헤여줄로구나예~.”

돈딱 가부난, 두갇이 뽀끈허게 안앙 누엇구나. 뚝날 아치는 옆집이 박포수는 오늘 강림이 첫 식게 넘어나난, 식겅 퇴물(退物)에 술 훈 잔 먹젠 오단 보난, 먼 올레 들어오단 보난 생깃 주둥에¹¹⁴⁰⁾ 갓도 걸어지고, 옛돌¹¹⁴¹⁾ 알에 신발도 벗어지난, 창꼬냥 톨랑 보난 두갇이 뽀끈허게 안앙 누난, 동안(東軒) 마당에 밀서(密書)가 들엇구나. 앞밭디랑 장도(長刀) 걸라. 뚝밭디랑 은 버텨¹¹⁴²⁾ 걸라. 조각(刺客)놈을 불러라. 강림이 동안 마당 네리난 큰칼을 씨앗구나.

“무사 나를 큰칼을 씨암수파?”

“너 어떻게 저싱 강 오렌 허난, 아니 간 낮에는 펡풍(屏風)에 살고, 밤에는 이불살림 살앗느냐?”

“삼척해동(三尺孩童)도 등을 보렌 헤엇우게. 나 등을 바레봅서. 모릿날 스오시(巳午時)가 뒤민 염나데왕(閻羅大王) 네림네덴.”

허난, 아난 게 아니라 모릿날 스오시(巳午時)가 뒤난, 너분 목로 천둥치고, 좁은 목로 베락치고, 동으로도 청구름, 서으로도 백구름, 와락치라 와락치라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동안(東軒) 마당에 네리난, 원님은 겁질에 생깃지등으로 환싱헤엇구나. 강림이 목에 큰칼을 베껴두고,

“이 집은 누가 지엇느냐?”

“강태공(姜太公) 서목시(首木手)가 지엇우다.”

1137) 머구냥: 머귀나무.

1138) 일가방상으로는: 일가 친족으로는.

1139) 고적 치는 법을: 장사 때 친족끼리 떡을 만들어다 부조하는 법을. 대개 팔촌 이내의 친족이 쌀 한 말 정도의 떡을 의무적으로 부조함.

1140) 생깃지등에: 마루방과 큰방 구들 사이에 세운 기둥.

1141) 옛돌: 디딤돌.

1142) 버텨: 형틀.

“데톱을 갖영오라. 너가 아니 세운 지둥이나?”

“나 지둥 안 세앗우다.”

데톱으로 썰렌 허난, 피가 벌경허게 난 게 원님이 환생허엿구나. 그 법으로 집을 짓이민 나무에도 나무 쌀성 잇는 법이라, 세 집을 지어건 성주풀이¹¹⁴³⁾ 헤여사 그 집을 사는 법입네 다예~.

“어떻 험 일로 나를 청헛느냐?”

하도 후욕(詬辱)헤여가난, 원, 원님은 돌돌 돌돌 털어가난 강림아 곧는 말이,

“저싱에도 왕이 잇고, 이싱에도 왕이 잇인디, 왕과 왕끼리 무사 경 큰 소리 침이파?”

“어떻헹 나를 청헛느냐?”

“우리 고을에 과양생이 두갯이가 혼 날 혼 시에 아덜 삼형제 나고, 혼 날 혼 시에 과거 헤연 오고, 혼 날 혼 시에 죽으난, 출병(出兵)을 헤여두고, 아침 소지, 낮 소지, 저녁 소지, 석 들 열흘 아홉 상자(箱子) 반이 뉘난, 백소지(白所志) 절처(決處)헤여 줍서.”

“과양생이 두갯이 심어오라.”

심어 오랏구나 .

“낱느냐?”

“낱우다.”

“과거 헤연 오랏느냐?”

“과거 헤연 오랏입디다.”

“죽엇느냐?”

“죽엇우다.”

“어디 묻엇느냐?”

“앞밧디, 뒷밧디, 옆밧디 출병(出兵)을 헤엿우다.”

“출병막(出兵幕)을 헤치라.”

출병막을 헤치난 뼈(骨) 간 곳도 엇엇구나. 술(肉) 간 곳도 엇엇구나. 그떼에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곧는 말이,

“너네덜 범무왕 아기덜 삼형제 중이 행척 출런 오랏이난, 죽연 어디 간 던젧느냐?”

“아이고 나 일이여. 나 일이여. 나 발등 도끼로 나데로 찍엇구나. 그 아기덜 주천강 연네못디 던젧우덴.”

허난, 주천강 연네못디 내려간다. 한박이여.¹¹⁴⁴⁾ 족박이여. 갓단 물을 퍼가도 이 물을 못 퍼트구나. 저싱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요왕 황제국님아, 범무왕 아기덜 삼형제 신체 좃젠 헤염수다. 이 물이나 뺨따 줍서.”¹¹⁴⁵⁾

주천강 연네못디 바짝 돌르난, 들물이 잇고, 썰물이 잇엇구나. 가운데로 강 보난 뼈만 슬그랑¹¹⁴⁶⁾ 헤엿구나.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네릴 떼 서천꽃밧디 들언 범무왕 아기덜 삼형제 살릴 꽃, 말 길을 꽃, 술 오를꽃, 오장육보(五臟六腑) 살아나는 꽃을 놓안 흥남체로 떼렷구나. 범무왕 아기덜 삼형제 와들령이 살아나앗구나예~. 염나데왕(閻羅大王)님 곧는 말이,

“설운 아기덜아, 느네덜랑 아방국을 좃앙 가라. 어멍국을 좃앙 가라.”

동경국더레 보네엿구나.

1143) 성주풀이: 가옥이나 건물을 신축하였을 때 하는 곳.

1144) 한박이여: 함박이여. 함지박이여.

1145) 뺨따 줍서: 줄어들게 하여 주십시오.

1146) 슬그랑: 고스란히.

“아흠 장남 불르라. 일곱 쉼¹¹⁴⁷⁾ 불르라. 일곱 장남 불르라. 아흠 쉼 불르라.”

불러다 놓았구나.

“과양생이 두갓이 열두 메 무끄라.”

열두 메 아흠 쉼더레 무껏구나. 일곱 장남은 석을 잡아 이 골목, 저 골목 곳엿¹¹⁴⁸⁾ 덩겨가
난,¹¹⁴⁹⁾ 열두 빼가 갈기갈기 찢어지었구나.

“경 해도 아니 뉘키여. 도에낭¹¹⁵⁰⁾ 방에에, 무에낭¹¹⁵¹⁾ 절구데에¹¹⁵²⁾ 낱 독독허게 뵈이라.
”¹¹⁵³⁾

뵈이난,

“너네덜 산 때도 사름 피 빨아 먹었이난, 죽영 가도 사름 몸에 돌아 앓연 피 빨아 먹영 살
렌, 오뉴월(五六月) 나건 모기 몸에 환싱허고, 칠팔월(七八月) 나민 국다기¹¹⁵⁴⁾ 몸에 환싱허
렌.”

허연 마련헤였구나. 일곱 장남이 곤는 말이,

“우리덜 사람 죽여낫젠, 사람 구실 못허면 어떻험네까?”

“너네덜은 사람 죽어나건, 귀양풀이¹¹⁵⁵⁾ 헤영 오곡밥을 주건 그 집이 편안(便安)허게 허고,
사람 죽어난 귀양풀이 안헤건 다시 석 돌 백일 안네에 급헌 처서(差使) 보내영 얻어먹으라.”

아흠 쉼,

“우린 어딜로 들어갑네까?”

“너네랑 아흠 신앙 쉼막을 좇이허라예~.”

일곱 장남 아흠 쉼 법지법(法之法) 마련헤여둔,

“원님아, 원님아, 강림이가 하도 똑똑허고, 영력허난¹¹⁵⁶⁾ 저싱더레 데령 가쿠다.”

“안웁네다.”

“경 허건 저싱 초보름 살건, 이싱 후보름 데령 샅서.”

“안웁네다.”

“몸천을 가지쿠가? 혼을 가지쿠가?”

아이고 원님은 강림이 얼굴 보명,

“나 몸천을 가지쿠덴.”

허난,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은 강림이 삼혼(三魂)을 건언 저싱더레 가불엇구나예~. 지동투
인¹¹⁵⁷⁾ 7라 곤는 말이,

“강림이 이레 데령 오라. 우리 강림이 저싱 갖다 온 말이나, 곤고¹¹⁵⁸⁾ 술 혼 잔이나 먹게.”

“강림아.”

편편,¹¹⁵⁹⁾

1147) 쉼: 소름.

1148) 곳엿: 끌고.

1149) 덩겨가난: 다니니깐.

1150) 도에낭: 복숭아나무.

1151) 무에낭: 산호나무.

1152) 절구데에: 절구에.

1153) 뵈이라: 빨아라.

1154) 국다기: 각다귀.

1155) 귀양풀이: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고 난 뒤에 벌이는 제주도 곳.

1156) 영력허난: 영리하니깐.

1157) 지동투인: 기동통인(妓童通引). 관아의 심부름꾼.

1158) 곤고: 말하고.

1159) 편편: 아무 것도 없다는 뜻.

“강림아.”

편편,

“아이고 원님아, 강림이 죽은 거 다행이다.”

“아이고 능왕(稜杖)대를 영 거셔보라.”

능왕대를 빠나네, 와들레잉이 얹어지었구나.

“아이고 강림이 죽었우다. 어땡허민 좋고?”

강림이 큰각시 부고(訃告) 전허난, 강림이 큰각시 동안 마당 네 구석 둥그르멍,

“아이고 원님아, 우리 낭군님 염나데왕(閻羅大王) 데령 오고 헤엿인디 죽이렌 말이 뭇 말이 파?”

하도 둥그르난, 시운데 자 수페머리가 허터지었구나. 산뎃지께기로¹¹⁶⁰ 머리 무꺼난 법으로 옛날은 머리 푼 상제렌 헤영 성복 전에 머리도 안 굵고¹¹⁶¹ 머리도 아니 빗고 허는 법이우다.

“어서 가게.”

집이 오란, 집이 오란 방 안네 이불자리 눅져 두고, 혼적삼 들렁 지붕 상마루래¹¹⁶² 올라 초흔, 이흔, 삼흔 헤연 섭섭허다. 초소렴(初小殮)도 섭섭허다. 상물¹¹⁶³ 숲양¹¹⁶⁴ 데령허연 섭섭허다. 입관(入棺)헤연 섭섭허다. 열두 메 메치 클런 섭섭허다. 칠성판(七星板) 더꺼 섭섭허다. 성복(成服)헤어도 섭섭허다. 아침제, 낮제, 저녁제도 섭섭허다. 일포(日脯)헤어 섭섭허다. 동관(動棺)헤어 섭섭허다. 금마답에 고벨(告別) 헤어 섭섭허다. 먼 올레 상이와당¹¹⁶⁵ 몰켓냥¹¹⁶⁶ 꾸며근 어기영차 담벌¹¹⁶⁷ 불령 설베,¹¹⁶⁸ 질베¹¹⁶⁹ 둥겨 하메헤영 섭섭허다. 북망산천(北邙山川) 올라강 계광(開棺) 파도 섭섭허다. 하관(下官)헤도 섭섭허다. 상게판(上蓋板), 중게판(中蓋板), 하게판(下蓋板) 더꺼 멩전 더꺼 궂이¹¹⁷⁰ 질러 섭섭허다. 테역단풍¹¹⁷¹ 봉분(封墳) 싸도 섭섭허다. 초우제(初虞祭), 제우제(二虞祭), 삼우제(三虞祭) 헤도 섭섭허다. 초허루 색일(朔日), 보름 색일(朔日) 섭섭허다. 석 들 열흘 졸곡(卒哭) 헤어 섭섭허다. 열두 들 소상(小喪), 스무넛 들 데상(大喪), 석 들 백일 담제(禫祭) 헤어 가난, 죽은 이 가심 무강무강 석어가는데 풀어지난, 산이 가심도 풀어지었구나.

강림이 큰각시가 법지법(法之法)을 마련헌덴, 우리 인간은~ 죽은 날을 잊어볼지 안혀젠, 신체 묻은 디랑 팔월 보름 뒤편가건 벌초(伐草) 소분 법 마련허고, 셋들 그믐날 저싱문 열려 초허를날 이세상에 오라가고, 오월 초나흘날 저싱문 열려 오월단오 이세상 오라가고, 팔월 추석 열나흘날 문 열영 팔월 보름날 추석에 이세상 오라가고, 죽은 날은 제삿법(祭祀法) 마련헤연, 옛날은 부모 죽언 효성(孝誠)이 지극허민 시묘살이도 허고, 아침, 점심, 저녁 상식도 출려 놓고, 삼년상(三年喪) 허당 시국변천(時局變遷)허난, 일년상(一年喪) 허단 일년상 헤여가단, 경헤어도 이제는 백일 탈상(脫喪)허단, 사십구제(四十九祭) 허단, 이젠 삼일로 다 산에서 탈상허

1160) 산뎃찌께기로: 발벼 지푸라기로.

1161) 굵고: 감고.

1162) 상마루래: 용마루에.

1163) 상물: 향물.

1164) 숲양: 삶아서.

1165) 상이와당: 상여(喪輿)화단.

1166) 몰켓냥: 상여의 밑을 받치는 장강목(長杠木).

1167) 담벌: 담불소리. 제주도 굿 제차 중 석살림 할 때 한집안 내지 씨족(氏族) 수호신(守護神)을 즐겁게 놀리는 대목의 노래.

1168) 설베: 운상할 때에 상여에 매어 앞으로 잡아당기게 된 참바.

1169) 질베: 짐을 지는 데 쓰는 줄.

1170) 궂이: 꼬챙이.

1171) 테역단풍: 잔디에 단풍이 든 모양.

는 법이 뉘엇우다예~.

법지법을 마련헤연 저싱은 가난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강림아, 강림아, 인간에 강 팔십 노인 노장덜 데령오렌.”

허난, 가마귀 적베지(赤穉旨) 쿨에¹¹⁷²⁾ 쿨언 내려오라 가난, 가마귀 앞더래 오란,

“아이고 강림아, 기영 걸영 언제 갈티? 나 젓놀게¹¹⁷³⁾ 부찌라. 나가 날아 갓당 오켄.”

허난, 가마귀 젓놀게 부찌난, 가마귀 인간에 내려오단 보난,

“물 죽은 밧디덜 물피쟁이덜¹¹⁷⁴⁾ 물 잡암구나. 저디 강 앓안 물피 훈 점이나 연영 먹젠.”

옆인 보난 똥소레기가¹¹⁷⁵⁾ 잇엇구나. ㄱ찌 앓안 까악까악 울어가난 물피쟁이덜 물 발톱 담
양 흑허게 던지난, 까마귀 낱당 보난 젓놀게 꺾 떨어지난 돌 알에 구렁이 나오란 응큼허게 먹
어붙엇구나. 옆이 똥소레기 잇이난,

“야 젓베지 봤냐?”

“안 봤저.”

“나 젓베지 도라.”

“안 봤저.”

이제나 까마귀허고 똥소레기 호호호 똥소레기 싸우는 법입네다. 인간에 오라건 굴을 말이
엇엇구나. 봐지는양,

“어른도 읍서. 아이도 읍서. 늑신네도 읍서. 젊은이도 읍서. 남자도 읍서. 여자도 읍서.”

하도 까악까악 울엇구나. 저싱이 츠레가 엇이 저싱문이 ㄱ득으난¹¹⁷⁶⁾ 염나데왕(閻羅大王)님
은,

“이거 어평헌 일이고? 백발노인 노장덜 데령 오렌 허난 가마 이거 어른도 아이도 엇이 막
오랏구나. 강림이 심영 오라.”

강림이 심영단,

“너 어평헌 일이냐?”

“아이고 그계 아납네다. 가마귀 젓놀게 부졌우다.”

“가마귀 심어 오라.”

보리냥 행불에 밀남 보린 체로,

“어디 일러붙엇느냐?”

“돌 알에 구렁이한티 일러붙엇우다.”

허난, 그 법으로 베음은 아홉 번 열 번 도환싱 구사십생(九死十生)허는 법입네다.

하도 뚜드려부난 창진¹¹⁷⁷⁾ 두루 서꺼지고, 멧독엔 검은 독이 뉘어지고, 몸천은 시커멍허고,
걸음은 걸젠 허난 걸지 못헤연 앙금주축 걸어간다. 염나데왕(閻羅大王)도 법지법 마련허는디,

“나도 인간에 오랑 법지법을 마련허저. 아침에 우는 까마귀 아이 죽고, 낮에 우는 까마귀는
젊은이 죽고, 미시에 우는 까마귀는 노인, 노인네가 죽고, 초저녁에 와자자 울민 동네에 폐싸
움 나고, 야밤중에 굶이 우는 까마귀는 도릿나 살인(殺人), 역적(逆賊), 도둑, 방화(放火) 날 까
마귀네다. 까마귀도 너미 울민 반쳐서(半差使)엔 허웁네다예~.”

강림이가 저싱 가난, 염나데왕(閻羅大王)님이 곧는¹¹⁷⁸⁾ 말이,

1172) 쿨에: 품에.

1173) 젓놀게: 날개.

1174) 물피쟁이덜: 말 잡는 사람들.

1175) 똥소레기가: 술개가.

1176) ㄱ득으난: 가득하니깐.

1177) 창진: 창자는.

“강림아, 동방색이가 삼천년(三千年)을 살안 데리레 가민 어른이 뉘고, 데리레 가민 아이가 뉘고, 데리레 가민 남저가 뉘고, 여저가 뉘염시난 너 강 동방색일 심영 오렌.”

허난, 주년국 땅에 오랏구나. 주년국 땅에 오란 검은 솟을 골체에¹¹⁷⁹⁾ 놓안 와각질각 싯첫 구나. 아이고 소스만인 동방색이로구나. 뉘 뉘 뉘이레 오란 보난 검은 솟을 골체에 뉘 알각질 각 싯침시난,

“무사 경 싯침이파?”

“아이고 모름데가? 검은 솟도 싯침시민 힌덴 헤연 싯침수다.”

“나가 동방색인디, 나가 요거 처음 듣는 말이로구나.”

‘요 어른이 동방색이로구나.’

헤연 강림이가 저싱더레 데령 간 법잇습네다~. 처서님 난산국에 풀엇습니다.

차사본풀이>주잔넘김

<○○야> 주잔덜랑 네여다가 시군문 연드리에 주잔덜랑 천왕처서(天皇差使), 지왕처서(地皇差使), 인왕처서(人皇差使)님, 연직(年職), 월직(月職), 일직(日職), 시직스제(時職使者), 금부도서(禁府都事), 이원스제(二元使者), 강림스제(姜林使者), 부원군스제(府院君使者), 멩두멩감 삼처서(三差使), 화덕처서(火一差使), 기헤년 몸 받은 처서, 눈이 붉언 황스제(黃使者), 코이 불어 모란스제, 입이 붉영 악심스제(惡心使者), 아미도령 처서, 본당처서(本堂差使), 신당처서(神堂差者), 노중처서(路中差使), 도약처서(毒藥差使), 절량처서(結項差者) 주잔입네다. 일곱귀양 아 흠신양 두에도 주잔입네다. 많이 많이 열두 소잔입네다에~.

1178) 곧는: 말하는.

1179) 골체에: 삼태기에.

지장본풀이

역도전은 네여당~,¹¹⁸⁰⁾ 각오각당(各位各堂), 자우접상 신공시 옛선성님⁷⁷지 우올리난 각발분식(各飯分食) 헤엿우다~. 므른¹¹⁸¹⁾ 떡 먹영 애가 콧콧 몰라온다. 친청주 타당 신과세에 열리난, 시왕(十王) 앞으론 청도전 청하늘 신평어 올리고 삼시왕 앞으론 신제당 신평어 올립네다.

청도전 청하늘~
백도전 백하늘~
흑도전 흑하늘~
도전에 보리로~
난산국 본풀자~
신지장 신평자~
헤만국 본이여~
들만국 본이여~
강남은 천저국~
일본은 주년국~
서천은 서약국~
남산과 여삭이~
자식이 없어서~
무후(無後)와 허는고~
동계남(東觀音) 은중절~
연수로 끌리난~
지장이 땅으로~
소로롱 소로롱~
지장이 아기씨~
숫아나 나는고~¹¹⁸²⁾
흔 설에 나는 헤~
어머님 젓가슴~
연조세 부른다~
두 설이 나는 헤~
아바지 무릅에~¹¹⁸³⁾
연조세 부른다~
세 설이 나는 헤~
할마님 무릅에~
연조세 부른다~

1180) 옆도전은 네여당: '시루떡의' 옆 부분을 찢어 내다. 시왕맞이의 '나까시리 놀림'이라는 재차에서 '도전침'을 하게 되는데 이때 둥근 시루떡의 중심 부분을 사각형으로 하여 그 외 옆 부분을 잘라서 찢어 내는 것을 '옆도전을 낸다'라고 함.

1181) 므른: 마른.

1182) 숫아나 나는고: 태어남을 의미함.

1183) 무릅: 무릎.

네 설이 나는 해~
 하르바지 무릅에~
 연조세 부른다
 다섯 설 나는 해~
 어머니 죽는고~
 ㄹ섯(六) 설 나는 해~
 아버지 죽는고~
 일곱 설 나는 해~
 할마님 죽는고~
 ㄹ덥(八) 설 나는 해~
 하르바지 죽는고~
 아홉 설 나는 해~
 웨삼춘(外三寸) 덕(宅)으로~
 피방을 가는고~
 계(犬) 먹던 접시에~
 술납을¹¹⁸⁴ 죽는고~
 죽으라 허는고~
 지장에 아기씨~
 어디로 가리요
 삼도전 세커리~¹¹⁸⁵
 냥 앓아 가는고~
 하늘에 옷 주고~
 지아(地下)가 밥 주고~
 하늘에 부엌세~
 땅 알에 도닥세~
 흔 놀게¹¹⁸⁶ 깔린다~¹¹⁸⁷
 흔 놀게 더핀다~¹¹⁸⁸
 이러쿵 저러쿵~
 열다섯 십오 세~
 왕구녁 가는고~
 은장이 거리도~
 다 제껴 놓고서~
 동서 우으로~
 착허던 소문(所聞)이 나난~
 문수의 덕에서~
 중매(仲媒)가 오는고
 허락(許諾)을 허는고~

1184) 술납: 술밥. 술가락으로 밥의 양을 계산해서 줌.

1185) 세커리: 삼거리.

1186) 놀게: 날개.

1187) 깔린다: 깎다.

1188) 더핀다: 덮는다.

이바지 오는고~
 신량이 오는고~
 신부가 가는고~
 여레섯(十六) 나난에~
 생남(生男)을 봄데다~
 나 메놀¹¹⁸⁹ 아기야~
 착험도 착허다~
 출림도 출렸저~
 유기(鑿器)야 전답(田畝)을~
 다 물려 주는고~
 열일곱 나난에~
 씨어멍 죽는고~
 여레덥(十八) 나난에~
 씨아방 죽는고~
 열아홉 나난에~
 서방님 죽는고~
 곧 스물 나난에~
 생남자 아올랑~
 오독독 죽는고
 지장에 아기씨~
 삼도전 세커리~
 씨누이 덕으로~
 피방을 가난에~
 흰 지방 넘으난~
 죽일 말 허는고~
 두 지방 넘으난~
 잡을 말 허는고~
 씨누이 나 딸년~
 베흥이¹¹⁹⁰ 닷 뉘(升)여~
 이(蠶)가야 닷 뉘여~
 어디로 가리요~
 아바지 입던~
 진양은 도포근~¹¹⁹¹
 어머니 입던~
 열두 복(幅) 호탄치메~¹¹⁹²
 겹어야 놓고서~
 주천강 연네못디~

1189) 메놀: 며느리.

1190) 베흥: 벼룩.

1191) 진양은 도포근: '진양도포'를 의미하며, 도포(道袍)의 하나.

1192) 호탄치메: 홑단치마.

연소답¹¹⁹³) 가는고~
 쪼꼬만¹¹⁹⁴) 아기씨~
 예숙을 제깬다~¹¹⁹⁵)
 은장이 거리여~
 늦장이 거리여
 지장이 아기씨~
 데서(大師)님 만난다~
 소서(小師)님 만난다~
 나 팔저(八字) 나 스저(四柱)~
 골라야 줌센 허난~
 초년(初年)은 좋아도~
 중년(中年)이 굿수다~
 중년이 굿어도~
 말년(末年)이 좋수다~
 씨부모 서방님~
 생남자를~
 초세남¹¹⁹⁶) 올립서~
 이세남 올립서~
 삼세남 올립센 허난~
 유에를¹¹⁹⁷) 싱근다~
 유에를 빠는고~
 물명지(水明紬) 강명지
 세양패 세미녕~¹¹⁹⁸)
 할마님 드리여~¹¹⁹⁹)
 초감제 드리여~
 초공 드리~
 이공 드리~
 삼공에 드리여~
 시왕(十王)은 양비게~
 청비게 백비게~
 어러비게¹²⁰⁰) 법이로다~
 처서(差使)님 드리여~
 풀찌야 깃음이여~¹²⁰¹)

1193) 연소답: 빨래.

1194) 쪼꼬만: 조그만.

1195) 예숙을 제깬다: 수수께끼를 한다.

1196) 초세남: 처음 하는 전세남. '전세남'은 병든 환자를 살리기 위한 곳.

1197) 유에를: 누에를.

1198) 세미녕: 무명.

1199) 드리여: 다리여. 굿을 할 때 걸어놓거나 깔아놓는 긴 천을 말하는데 신이 이 드리를 밟아 내린다
고 함.

1200) 청비게 백비게 어러비게: 시왕맛이 할 때 긴 천을 이용하여 제장의 천정 등에 여러 방향으로 감고
연결하는 장식.

일월(日月) 드리여~
 선왕(船王) 드리~
 본향(本鄉)에 동지거리~
 풀찌야 거리여~
 눈물수건 뚝수건~
 꺾음이로구나~
 당주(堂主) 드리 몸주 드리~
 신연은 간주 드리~
 초간주 이간주~
 하간주 드리여~
 아강이 베포여~¹²⁰²⁾
 직부야 잘리여~¹²⁰³⁾
 멩두치메¹²⁰⁴⁾ 꺾음~
 요랑치¹²⁰⁵⁾ 꺾음이여~
 복체에~
 장구베 꺾심이여~
 데양체 꺾심이여~
 허다야 남은 건~
 아강이 베포여~
 직부야 잘리여~
 호룽은 줌치메연~¹²⁰⁶⁾
 권제(勸齋)를 받는다~
 물방에¹²⁰⁷⁾ 놓는다~
 도에남¹²⁰⁸⁾ 방에에~
 무에남¹²⁰⁹⁾ 절굿데~
 물방에 놓는고~
 청비발 아기씨¹²¹⁰⁾ 데려당~
 이여도 방에여~
 이여도 방에여~
 가시여 오름~
 강정당 집에~
 세콧 일른 방에~¹²¹¹⁾

1201) 풀찌야 꺾음이여: 팔찌 감이여. 왼 팔에 감는 천을 말함.

1202) 아강이 베포여: 아강베포. 종이 쌀을 얻으러 다닐 때 지는 땀빵인 듯함.

1203) 직부야 잘리여: 직부잘리. 삼베자루 종이 재미(齋米)를 얻어 넣는 자루.

1204) 멩두치메: 신칼치메. 종이를 여러 갈래로 잘라 신칼에 달아맨 것.

1205) 요랑치: 요령치메. 요령에 달아맨 여러 갈래의 천.

1206) 호룽은 줌치메연: 호름줌치. 종이 쌀을 얻으러 다닐 때 쌀을 넣어 지게 된 주머니 비슷한 것인 듯 함.

1207) 방에: 방아.

1208) 도에남: 복숭아나무.

1209) 무에남: 산호나무.

1210) 청비발 아기씨: 처녀.

전싱(前生) 궂인~
 으섯 성제 가난~
 즈직즈직~
 방아를 짚는고~
 체할망¹²¹²⁾ 불르라~
 체 알에 ㄱ를은¹²¹³⁾ 줌질다¹²¹⁴⁾
 체 우이 ㄱ를은 굴다¹²¹⁵⁾
 강남서 들어온~
 조그만 멧숫에~¹²¹⁶⁾
 일본서 들어온
 조그만 멧숫에~
 초징 이징~
 삼징을 노는고~
 불화식 네운다~
 서각을 띠운다~
 물펜이어~
 들레월병 갈레성~
 손은 송편 멘들양~
 초흔 불리 초세남
 이흔 불리 이세남
 삼흔 불리 삼세남
 올릿이난~
 지장이 아기씨
 좋은 일 헤엿저~
 서천은 꽃밭디~
 환싱(還生)을 허는고~
 천양세 몸으로~
 지왕세 몸으로~
 인왕세 몸으로~
 하늘에 부엉세~
 땅 알에 도닥세~
 알당은 노념세~
 밧당은 시념세~
 애 믋른 세랑 물 주고
 베(腹) 고평 세랑 쓸¹²¹⁷⁾ 주명

1211) 세콧 일른 방에: 세 사람이 둘러서서 짚는 방아인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방아 짚는 일이 어긋
 남을 뜻함.

1212) 체할망: 체로 가루를 치는 할머니.

1213) ㄱ를: 가루.

1214) 줌질다: 물건이 잘고 가늘다.

1215) 굴다: 굽다.

1216) 멧숫에: 밥 짓는 솥에.

주어나 훨쩍~

지장본풀이>비념

날로 날역(日厄)

들로 들역(月厄)

월역(月厄), 시력(時厄), 관송(官訟), 입송(立訟), 한라산공, 앞진동, 밋진동 고비 척척 우올리
난 이 지장은 누게 일룬 지장 이 지장이로구나.

지장본풀이>군병지사귀

지장만보살 신평으난, 동(東)으로도 일천(一千) ㄱ루 쩡, 서(西)으로도 일천(一千) ㄱ루 쩡,
이삼스월(二三四月) 봄 고사리왓디¹²¹⁸⁾ 즈진허난, 탕천(撐天)헌 듯 니 담 절벽이여. 니 쉼뿔이
아니메 우리 집 축담이 무나 무서지느네.¹²¹⁹⁾ 우리나라 일도 도벽 하갑수령 주서참봉도 다 저
바당을 건너가젠 허민, 인정(人情)을¹²²⁰⁾ 거는 법입네다. 인정을 걸엇습네다. 인정(人情)을 걸
영 삼명두 혼합(混合)시에, 계벽(開闢)시에 일어나던 군병(軍兵)이로구나. 떡 기린¹²²¹⁾ 군병, 밥
기린 군병, 술 기린 군병이랑 저 먼 정에 하영, 하영 안네건 젓인 걸랑 먹곡, 므른 걸랑 갖영,
경 헤여도 아니가민 총베에¹²²²⁾ 물 적저당 소문절박(私門結縛) 시길거난, 하영하영 먹어근~
천지왕 골목더레 인(人)과 신(神) 곱 갈릅네다예-.

지장본 풀엇습니다예.

1217) 쌀: 쌀.

1218) 고사리왓디: 고사리 밭에.

1219) 무나 무서지느네: ‘무사 무너지느네’의 잘못된 뜻함. 왜 무너지겠는가.

1220) 인정: 굿을 할 때 신에게 바치는 돈, 옷, 지전(紙錢) 등.

1221) 기린: 굶

1222) 총베: 말의 갈기나 마소의 꼬리털로 만든

멩감본풀이

멩감본풀이>들어가는 말미

천왕멩감(天皇冥官), 지왕멩감(地皇冥官), 인왕멩감(人皇冥官), 동(東)이 가민 청멩감(靑冥官), 서(西)이 가민 백멩감(白冥官), 남(南)인 가민 적멩감(赤冥官), 북(北)이 가민 흑멩감(黑冥官), 중앙(中央)은 황신멩감(黃神冥官), 산으론 산신멩감(山神冥官), 물로는 요왕멩감(龍王冥官), 베론 가민 선왕멩감(船王冥官), 농수(農事)집엔 제석멩감(帝釋冥官), 책 보는 집인 책불멩감(冊佛冥官), 불도(佛道)집인 불도멩감(佛道冥官), 전생(前生) 그르친 집인 당쥬멩감(堂主冥官)입네다. 일흔으덱(七十八) 도멩감(都冥官)님전~ 난산국은¹²²³ 어딿네까.

멩감본풀이>본풀이

옛날 옛적이라. 주년국땅~ 소스만이가 낱데다. 세 슬 나난 어멍 죽어불고, 다섯 슬 나난 아방 죽어불고, 밥 빌어단 죽 썬 먹영 덩겜시난, 장승데감뜨님 만났구나. 흘목¹²²⁴ 심어건 덩기는 게 남녀구별법(男女區別法)을 알았구나. 찬물 혼 사발 떠 놓안 입장갈림¹²²⁵ 허난, 아기는 낫는 것이 미르끄르 보리끄르 오망 속속 솟아난¹²²⁶ 가난하고 서난허니 아기덜은~ 베가 고파 비세 7치¹²²⁷ 울었구나. 허를날은 소스만이 각시가 쉬헌데 자 수페머리 끊영,

“장에 강 돈 석 냥 받앙 읍서. 쏘 사당 배고픈 아기덜 멕영¹²²⁸ 살게.”

“어서 기영¹²²⁹ 험서.”

장에 간 돈 석 냥을 받안 오단 보난~, 사람 소리가 웅성웅성 소리 나고 사람 소리 나는 딴간 보난, 사름덜은 도리도리 모였구나~. 무스 걸 놓아근 사렌 헤염신곤 허난 부지땡이¹²³⁰ 닳은 걸 풀암구나.

“저건 뭇이엔 혼 거파?”

“요건 마세조총이라.¹²³¹ 늑는 썩에 불을 허민 백발백중(百發百中), 떼는¹²³² 노루에 불질 허민 백발백중 뉘민 궤기는 먹고 가죽은 풀민 가난한 집이 부제(富者)뉘네다.”

허난,

“얼마 받을 거파?”

“돈 석 냥을 받으쿠덴.”

헤연, 웃독지에¹²³³ 들어 메연 집이 오라간다. 소스만이 각신 아기덜은 미르끄르 보리끄르 난 아기덜 베가 고파건,

“밥을 줍서.”

비세 7치 울엄구나. 어서 집으로 들어간다 보난 어깨에 부지땡이 닳은 걸 메연 오난,

“요 어른아, 돈을 줍서. 쏘 사당 아기덜 밥 헨 멕이쿠덴.”

1223) 난산국은: 본디 태어난 곳은 그 내력은 본풀이는.

1224) 흘목: 손목.

1225) 입장갈림: 혼인(婚姻).

1226) 솟아난: 태어난.

1227) 비세 7치: 비세같이. 비세는 제비보다 조금 큰 세로 비가 올 듯할 때 잘 운다고 함.

1228) 멕영: 먹여서.

1229) 기영: 그렇게.

1230) 부지땡이: 부지깽이.

1231) 마세조총: 마상조총(馬上鳥銃)이라.

1232) 떼는: 뛰는.

1233) 웃독지에: 어깨 죽지에.

허난,

“쓸데신 요거 상 오그라.”

“요건 뵈이우꽈?”

“마세조총인데 뵈는 노루에 백발백중이로구나. 노는 꿩에 불을 노민 백발백중 맞힌덴.”

허난,

“요거 무신 말이꽈? 요 어른아, 세엄¹²³⁴ 엇인 어른아, 아기덜 봅서. 비세 7치 올엄수께.”

그걸 옷독지에 둘러메연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꽃을¹²³⁵ 도올라건 노는 꿩에 불질 허난 허탕(虛蕩)한다. 뵈는 노루에 불질 허난 허탕 해엿구나. 그날 밤은 산에서 자게 뵈난,

“드르릉 주년국에 소스만아, 뵈구르르~ 주년국 소스만아.”

세 번 불러건 대답 헛젠 해난, 두 번만 불렀구나. 뵈날 아적 먼동금동 데명천지(大明天地) 붉은 날이 뵈엿구나. 간밤이 불러난 디로 간 보난 소스만이로구나. 백년조상(百年祖上)이 잇입 데다. 백년조상이 곧는 말이,

“소스만아, 나는 백정성이 아들인데, 노리각록¹²³⁶ 사농 오랏다건 총은 나가 쓰던 총이고, 나를 모성 강 너네 집이 연양상고팡이 모시민, 부제팔명¹²³⁷ 뵈와주크덴.”

허난,

“어서 기영 헛셴.”

해연, 소스만이 백년조상을 가져건 내려오라간다. 먼 올레 몰쿠실낭에¹²³⁸ 걸어두곡, 옛날 도 산천(山川)이 좋민 즈부(子婦)가 잘 뵈는 법이라, 안드로 들어강 큰각시안티 사실말을 7 난, 소스만이 각시가 멘보선 바람에 나간 보난에, 몰쿠실낭에 백년조상이 알더레 떨어지언,

“뵈구르르 소스만아, 소스만아.”

해염구나.

“아이고 조상님아, 어떻게 일이꽈?”

그 법으로 옛날도 오뉴월 뵈영 몰쿠실낭 알에 누엿다. 으식헛민 포 떠는 병을 엇는 법입네 다.

소스만이 각시 집이 들영오란 상물¹²³⁹ 숲아 놓안 모욕제계(沐浴齋戒) 해연 연양상 7팡에 올리난, 뵈날 부며 노리각록도 백발백중, 노는 꿩에도 백발백중 뵈난에 어서 가족은 풀고 궤 긴 먹곡 허난, 가난허던 소스만이 청기와 집을 출려 놓아건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로 잘 살암구나.

헛를날은 소스만이 노리각록 사농¹²⁴⁰ 잡으레 가난, 꿩 헛 마리, 노루 헛 마리 못 잡앗구나. 필하곡절(必有曲折)허다. 집더레 오단 보난 백년조상은 옆뵈디 나왔구나.

“아이고 조상님아, 무사 베꿏디¹²⁴¹ 나옴데가?”

“너네 각시가 너 이름을 불러난, 나를 네쫓가라.”

“죽을 일이 잇이민, 살 일은 모름니겐.”

허난,

1234) 세엄: 셈.

1235)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꽃을: ‘매우 깊은 산’의 뜻으로 씀.

1236) 노리각록: 노루.

1237) 부제팔명: 부자가 되어.

1238) 몰쿠실낭에: 먹구슬나무에.

1239) 상물: 향물.

1240) 사농: 사냥.

1241) 베꿏디: 바깥에.

“널라그네~ 집이 가건 상물 숲양 모옥제게 헤여근에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꽃을 도올라가 테역단풍¹²⁴² 좋은 딜로 가건, 우으로 쪽지팽풍(-屏風),¹²⁴³ 네 귀 접상(摺床) 팽풍 헤연, 주년 국 스사만이엔 이름 씨여근 밥도 세 그릇, 술도 석 잔, 초신 세 베, 출령 백보(百步) 베꿇디 업덴¹²⁴⁴ 허곡, 너네 각시라건 천도천왕, 지도지왕, 인도인왕, 상간지오륜지법으로¹²⁴⁵ 헤여근 어서 큰굿허라.”

그와 같이 큰굿을 헤엿구나. 데시왕(大十王) 연맞이가 넘어갑데다. 소스만이도 산에 간 업데 난, 저싱 삼처사(三差使)가 출려근 와락치라, 와락치라 내려간다. 불빛 보아전 강 보난 베고판 밥 먹고, 신발 떨어지언 세(新) 신발 신고,

‘누게가¹²⁴⁶ 우리 생각 헤연 출려났인고?’

팽풍더레 보난, 주년국땅 소스만이 이름을 적언 잇엇구나.

‘앗차불사. 우리가 소스만이 데리러 오논디 소스만이 출려 논 음식을 먹엇구나.’

“소스만아, 소스만아, 너를 데리레 오랏구나.”

“아이고 갈 일이우다만은 우리 집이 강 우리 각시덜 애기덜 흥번 마지막으라도 보양 가쿠 덴.”¹²⁴⁷

허난,

“어서 기영 허라.”

집인 오란¹²⁴⁸ 보난 큰굿 헤영 시왕맞이 헤엿구나. 천오 방액 올리난에 어서 소스만이가~ 저싱 삼처사에 방액(防厄)을 올리난,

“너야, 소원(所願)이 뭐가 잇겟느냐? 너영 난 흥 년에 난 동갑(同甲)이 잇겟느냐?”

“잇읍네다.”

“누게냐?”

“오만입네다.”

“너 대신 오만을 데령 가민.”

헤연, 저싱을 가니,

“너는 인간에 간 뇌물(賂物)을 받안 오랏구나.”

목에 큰칼을 씨앗구나. 목에 큰칼을 씨우난 그날 저녁에 자심판관(左審判官), 우심판관(右審判官), 책갑(冊匣)지기 넘어가다근,

“소스만아, 소원 흥마디만 굴라.”

“경 흥건들랑 오늘밤에 이몽성이 염라데왕(閻羅大王)님 깊은 즘을 자건, 주년국땅 소스만이 이름 알에 열십 자 알에 보민 석 섬 자가 잇습네다. 석 섬 자를 열십 자를 놓아 줍센.”

허난, 삼십이로구나.

“삼십이난 열십 자 웃터레 세 하나만 올려놔 줍센.”

허난, 그 웃터레 춤 먹을 춤 붓에 젓정 웃터레 올려 놓니, 모릿날 스오시가 됩니 염라데왕 님이,

“어서 소스만이 목에 큰칼을 처형허렌.”

1242) 테역단풍: 잔디에 단풍이 든 모양.

1243) 쪽지팽풍(-屏風): 쪽을 내어 칸을 가른 병풍.

1244) 업덴: 옆드려.

1245) 상간지오륜지법으로: 삼강오륜법(三綱五倫法)으로.

1246) 누게가: 누구가.

1247) 가쿠덴: 가졌다고.

1248) 오란: 와서.

허난,

“염라대왕님이 저싱 문서(文書) 한번만 확인(確認)헤여 줘센.”

헤엿구나.

“저싱 문서 한번 확인 헤여 줘센.”

허난, 날아가는 세 혼 자를 굶어 놓았구나. 삼십(三十)이 아니라 삼천(三千)이로구나. 그땠에 소스만이 두갯이가 아방, 어멍 식계¹²⁴⁹⁾ 안 헨 죄로 저싱 삼처서를 불렀인디, 저싱 삼처서에 방엑 올린 소스만이 죽을 목심을 살아나고, 소스만이 죽을 목심을 살아나난에 어서 큰 칼에 하옥시겼단 살아났습네다.

옛날 동방색(東方朔)이 삼천년(三千年)을 사난 강림이가 데령 갓십네다. 강림이가 데령 저싱 가난 옛날 괄괘(郭璞)이¹²⁵⁰⁾ 시아방, 주요기는 메누리, 시아방, 메누리가 상통천문(上通天文)¹²⁵¹⁾ 기지역신을 네엇구나. 상통천문 기지역신허니, 메누리를 죽이젠 저싱 삼처스를 불르난 메누리는 벌써 알았구나. 처서님 올만 허난 올레간 독¹²⁵²⁾ 혼 무리에 날게에 주요기엔 이름 씨난 저싱 데려간 법이 잇습네다예~. 소스만이 난산국입네다예~.

1249) 식계: 제사(祭祀).

1250) 괄괘(郭璞): 중국 서진(西晉) 말에서 동진(東晉) 초의 학자.

1251) 상통천문(上通天文): 천문(天文)을 잘 앎.

1252) 독: 닭.

칠성본풀이

칠성본풀이>본풀이

장나라 장설룡에 데감님 살읍데다. 송나라 송설룡이 부인님이 살읍데다. 남단법답(南畝北畝) 유기전답(鋤器田畝) 좋읍데다. 이십스물 삼십서른 뉘어도 아기 엇언¹²⁵³ 모후유화(無爲而化) 허십데다. 좋은 몸천 동계남(東觀音) 은중절 법당(法堂) 수록¹²⁵⁴ 올린난 아기씨가 탄생을 허 읍데다. 흰 설 두 설 서너 설이 뉘어가난,

“장나라 장설룡이 데감님 천하(天下) 베실¹²⁵⁵ 살레 읍서. 송나라 송설룡 부인님은 지에(地下) 베실 살레 읍센.”

허난,

“아덜이나 그뜨민 책실(冊實)로나¹²⁵⁶ 데령 거주만은 딸 조식(子息)이랑 아니 뉘로구나. 늦 인덕정하남아, 우리덜 천하 베실, 지에 베실 살레 갓당 올 떼까지 아기씨 궁 안네서 밥을 주곡, 옷을 주엄시민, 종반역¹²⁵⁷ 시겨주민.”

허난, 아방 중근¹²⁵⁸ 열쇄 어멍 갓영 간다. 어멍 중근 열쇄 아방 갓영 간다. 일은으덜 상거심 조심통쇄¹²⁵⁹ 질로¹²⁶⁰ 절강 증가두영, 천하 베실, 지하 베실 살레 간다. 아기씨는 미릿 나 오란 아버지 탕 가는 가마(駕馬) 연분줄에¹²⁶¹ 가단 보난 묵은 각단밭디¹²⁶² 세 각단밭더레 떨어지난 흥학흥학 울어간다. 데스님이 네립데다.

“나 데령 걸읍서.”

“난 물론다.”

소스님이 네립데다.

“나 데령 걸읍센.”

얼굴은 보난,

“우리 법당(法堂)에 오란, 불공(佛供) 들연 난 애기로구나.”

묵은 각단 세 각단을 비연¹²⁶³ 오장삼을¹²⁶⁴ 멘들안 장삼 속에 담앙 앓언¹²⁶⁵ 내려 오라간다. 권제(勸齋) 받으레 동(東)으로 들연 서(西)으로 나아간다. 아기씨는 보난 간고무중 헤엿구나.¹²⁶⁶

“장설룡 데감님, 송설룡 부인님아, 아기씨 간고무중 헤엿우다. 삼 년 베실 석 들에, 석 들 베실 단 사흘에 막강¹²⁶⁷ 읍센.”

1253) 엇언: 없어서.

1254) 수록: 수록 불공.

1255) 베실: 벼슬.

1256) 책실(冊實): 책 심부름꾼. 수행비서.

1257) 종반역: 종의 신분을 벗김.

1258) 중근: 잠근.

1259) 상거심 조심통쇄: 큰 빗장으로 채우는 자물쇠.

1260) 질로: 저절로.

1261) 가마(駕馬) 연분줄: 가마 채.

1262) 각단: 성장이 나빠서 키가 작은 띠(茅) 초가지붕을 이는 재료로 쓰임.

1263) 비연: 비어서.

1264) 오장삼: 띠나 짚을 재료로 하여 가방 모양을 만들고 그 속에 고기 따위를 담아 가지고 다니게 만든 물건. 무속의례에서 오장삼은 굿을 마칠 때 제물을 조금씩 넣어 멀리 들로 나가 버릴 때 사용함.

1265) 담앙 앓언: 담아 가지고.

1266) 간고무중 헤엿구나: 간 데 없구나.

1267) 막강: 마쳐.

헤연, 무강 오란 아기씨를 좇젠 수소문을 네여도 못헤였구나. 흐를은¹²⁶⁸ 잇이난,
 “소승은 절이 뵈네다.”
 “너네 법당(法堂) 강 불공 드련 난 얘기 간고무중 헤였구나. 단수육갑(單數六甲) 오용팔관
 (五行八卦)을 짚어보렌.”

허난, 데스님은,
 “앗아도¹²⁶⁹ 앓인디 불 만 사도¹²⁷⁰ 산 디서 불 만헨 디 잇우덴.”

허난,
 “요 놈이 중이 조훼(造化)로구나. 저 중 심으렌.”

허난, 축지법을 쓴다. 보은낭계, 한낭계를¹²⁷¹ 잔뜩 헤연, 철리말리(千里萬里), 말리(萬里)만
 이 도망가부렸구나. 올레에¹²⁷² 간 보난 싱근 돌에, 몰팡돌(下馬石)이 잇엇구나. 오장삼이 잇
 엇구나. 그디 클런¹²⁷³ 보난 아이고~ 유울엇구나.¹²⁷⁴ 애기 베염 7치¹²⁷⁵ 눈은 펠롱, 아이고
 베는 태독 7치 베엇구나. 누추허고 더럽고 추접허다.¹²⁷⁶ 동이 와당 쉼철인 아덜 불러다가 무
 쉼설갑을¹²⁷⁷ 짚 저 바당더레 띠우난에 들물 나민 서이 와당, 쉼물 나민 동이 와당더레 흥당
 망당 떠 덩기단 남방국더레 들영 온다.

산지 칠머리로¹²⁷⁸ 들젠 허난 칠머리 감찰지관(監察地官)이 쉼어지영¹²⁷⁹ 못네 들로구나. 화
 북(禾北)으로¹²⁸⁰ 들저 굼등지 가릿당 한집이 쉼어근 못네 들어간다. 삼양(三陽)으로¹²⁸¹ 들젠
 허난 삼양 감낭 알 시월 도병수(十月都兵事)가 쉼영 못네 들로구나. 신촌(新村)은¹²⁸² 큰물머
 리 들젠 허난 큰물머리 한집이 쉼영 못네 든다. 조천(朝天)¹²⁸³ 관탈 알로 들젠 허난 세긋할마
 님이 쉼연 못네 들로구나. 신흥(新興)으로¹²⁸⁴ 들젠 허난 볼렛낭 박씨 할마님이 쉼어지영 못네
 들엇구나. 함덕(咸德)으로¹²⁸⁵ 들젠 허난 혼 물 두 물 서물할망 급서왕 한집이 쉼영 못네든다.
 북촌(北村)¹²⁸⁶ 다레섬 모로 들젠 허난 영산조, 노산조, 금백조 가릿당이 쉼어근 못네 든다.
 동북(東福)으로¹²⁸⁷ 들젠 허난 동북은 상이와당¹²⁸⁸ 몰켓낭¹²⁸⁹ 굴묵낭¹²⁹⁰ 일뤼 한집 쉼영 못
 네 든다. 김녕(金寧)으로¹²⁹¹ 들젠 허난 알성세기 밧성세기¹²⁹² 쉼어근 못네 들엇구나. 무주

1268) 흐를: 하루.
 1269) 앓아도: 앓아도.
 1270) 사도: 서서도.
 1271) 보은낭계 한낭계: 안개.
 1272) 올레: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
 1273) 클런: 풀어서.
 1274) 유울엇구나: 시들어 말랐구나.
 1275) 베염 7치: 뱀같이.
 1276) 추접허다: 더럽다.
 1277) 무쉼설갑: 무쇠로 만든 상자.
 1278) 산지 칠머리: 제주시 건입동에 속한 지명(地名).
 1279) 쉼어지영: 세어서.
 1280) 화북(禾北): 제주시 화북동.
 1281) 삼양(三陽): 제주시 삼양동.
 1282) 신촌(新村):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283) 조천(朝天):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284) 신흥(新興):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1285) 함덕(咸德):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286) 북촌(北村):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287) 동북(東福):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1288) 상이와당: 상여화단.
 1289) 몰켓낭: 상여의 밑을 받치는 장강목(長杠木).
 1290) 굴묵낭: 느티나무.
 1291) 김녕(金寧):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월정(月汀)은¹²⁹³ 들젠 허난 베롱게 헤신당이 썬연 못네든다. 행원(杏源)으로¹²⁹⁴ 들젠 허난 남당 알에 중이데서가 썬연 못네 들엇구나. 한동(漢東)으로¹²⁹⁵ 들젠 허난 황세웃빳 웃세웃빳 부데오름 상갈키 솟아나듯 구월 구일 한집이 썬영 못네들엇구나. 평대(坪垞)로¹²⁹⁶ 들젠 허난 고씨 책볼 깃마리로¹²⁹⁷ 들젠 허난 먼동 소천국이 썬영구나. 저 상세와리(上細花里)¹²⁹⁸ 물코 조계와당으로¹²⁹⁹ 들젠 허난 천조 백조 하르바님 금상 한집이 썬여지영 못네 들로구나. 상두(上道)로¹³⁰⁰ 들젠 허난 도래 막음질 썬영 못네 든다. 하도(下道)로¹³⁰¹ 들젠 허난 난드르 각 시당이 썬여지연 못네 들로구나. 종달이(終達里)로¹³⁰² 들젠 허난 알로 두문계¹³⁰³ 소섬에서 가지 갈라오던 장하르방 장할망이 썬연 못네 들엇구나. 오조리(吾照里)로¹³⁰⁴ 들젠 허난 족지 할망당에 안족지 밋족지가 썬연 못네 든다. 시흥리(始興里)로¹³⁰⁵ 들젠 헤엇더니 시흥리는 허 씨 여천 김씨 여천 두루 할망 썬영 못네 들엇구나. 성산포(城山浦)로¹³⁰⁶ 들젠 허난 향퍼두리¹³⁰⁷ 짐통정(金通情) 만리토성(萬里土城)을 들렛구나. 들물 고게 탕 앓언 오는 게 함덕(咸德) 무생이코지에¹³⁰⁸ 올랐구나. 옛날 평사동(平沙洞)¹³⁰⁹ 일곱 집이 일곱 즈수(潛嫂) 옛날 앞물에 들레 동경국 메망사리¹³¹⁰ 금태와 아끈¹³¹¹ 빗창¹³¹² 한 빗창 아끈 갈코리¹³¹³ 들런 물에 들렝 오란 무생이코지 보난에 무쇄설갑이 잇엇구나. 그걸 봉간,¹³¹⁴

“니가 봉갓이나? 나가 봉갓이나?”

하도 싸움 타작이 낫구나. 영물¹³¹⁵ 송동지 하르바님 송동바구니¹³¹⁶ 불락 춤데¹³¹⁷ 들란 앞물애야 불락 낚으레 네려오단 보난 일곱 집이 일곱 즈수 싸왓시난,

“아이고 요놈이 씨베난 년덜야, 무사 영 아침 물에 들레 오란 니 머리, 나 머리 튼으멍 싸왓시냐?”

“하르바지 요거 나가 봉갓우다.”

“나가 봉갓우다.”

1292) 알성세기 밋성세기: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속한 지명(地名).

1293) 월정(月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294) 행원(杏源):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295) 한동(漢東):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296) 평대(坪垞):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297) 깃마리로: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동동 바닷가 마을의 옛 이름.

1298) 상세와리(上細花里):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299) 물코 조계와당으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속한 지명(地名).

1300) 상도(上道):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1301) 하도(下道):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302) 종달이(終達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303) 두문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의 포구(浦口) ‘두무닛계’라고도 함.

1304) 오조리(吾照里):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305) 시흥리(始興里):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306) 성산포(城山浦):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

1307) 향퍼두리: 향파두리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있음.

1308) 무생이코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속한 지명(地名).

1309) 평사동(平沙洞):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마을.

1310) 메망사리: 해녀들이 물질할 때 채취한 해산물을 담아 놓는 도구.

1311) 아끈: 작은.

1312) 빗창: 해녀들이 물질할 때 전복을 채취하는 도구.

1313) 갈코리: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소라 성게 등을 따는 데 쓰는 도구 호미와 비슷함. = 깔쿠리.

1314) 봉간: 주워서.

1315) 영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속한 지명(地名).

1316) 송동바구니: 아주 작은 바구니.

1317) 춤데: 낚싯대.

“이레 오라. 그 속에 은(銀)이 드나, 금(金)이 드나 허걸랑 느네덜 갈랑 쓰고, 그 곱은 나 봉초(封草)곽 헤민 좋키여.”

“어서 기영 험서.”

블락 춤데로 [음영] 상거심 조심통쇄 질로 절강허게 열엇더니 눈은 펠록 세는¹³¹⁸ 멜롱 끄진 파뜩헤영,

“아이고 요놈이 씨베난 년덜아, 요기 은이여. 금이여.”

블락 춤데로 케우리난,¹³¹⁹ 아이고 일곱 집이 일곱 즘수덜토 나 앞더레 온 건 빗창으로 케쿠려볼고, 깔쿠리로 케쿠려부난, 바당에 물질허레 가난 머리짱¹³²⁰ 들런 못허고, 눈엔 보은낭게, 한낭게 즘수 끼와볼고, 우으로¹³²¹ 어깨짱, 알로¹³²² 설사짱(泄瀉症), 베(腹)에 포만짱(飽滿症), 난 일곱 집이 일곱 즘수 아프난, 아무 떼도 아프난, 삼양 이원신한티 문복(問卜)지레 가난,

“이거 떡도 일곱 게, 밥도 일곱 게, 술도 일곱 게 낭¹³²³ 칠성제(七星祭)를 지네렌.”

허난, 떡이여. 밥이여. 술이여. 귀기여. 헤연 일곱 정반씩 난 칠성제를 허난, 어느 떼 아파난 것도 닳지도 안 헤연 다 낫앗구나. 일곱 집이 일곱 즘수 바당에 물질 허레 가민 데전복, 소전복, 문둥구쟁이,¹³²⁴ 몽계여,¹³²⁵ 전복망사리 ㄱ득ㄱ득 헤연 오라근 부제(富者)로 잘 살아 가난,

“나도 헤여보저.”

“나도 헤여보저.”

옛날은 평사동(平沙洞)으로 함덕(咸德)으로 칠성제(七星祭)를 헤여 가난, 혼 물 두 물 할망 급서왕 한집 곶아,

“이거 보라. 마흔으둑 상단골, 서른으둑 중단골, 스물으둑 하단골. 혼 물, 두 물, 서 물 뒤어도 아무도 아니 좃앙 오람저. 저거 강 네좃아동 오렌.”

허난, 급서왕이 강 곤는¹³²⁶ 말이,

“너네덜 이 맛을 아니 떠나민 선흘꽃¹³²⁷ 도올랑¹³²⁸ 들굽낭¹³²⁹ 작데기 끈어당 케우려볼켄.”¹³³⁰

허난,

“오라. 가계.”

헤연, 아기 데려 앓영 얼로 가코 풀섭 속으로 솔솔 허멍 금성동을¹³³¹ 넘어간다. 함덕 금성동을 넘어가난 가단 보난 높은 동산이로구나. 올라 사난 여기 만세만 불림직헌¹³³² 동네여.

1318) 세: 혀(舌).

1319) 케우리난: 흠뿌리니.

1320) 머리짱: 머리 아픈는 증상.

1321) 우으로: 위로.

1322) 알로: 아래로.

1323) 낭: 놓아서.

1324) 구쟁이: 소라.

1325) 몽계: 문어.

1326) 곤는: 말하는.

1327) 선흘꽃: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숲.

1328) 도올랑: 올라서.

1329) 들굽낭: 두릅나무.

1330) 케우려볼켄: 이리저리 흠어지게 하겠다고.

1331) 금성동: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속한 지명(地名).

1332) 불림직헌: 부를 것 같은.

만셋동산으로¹³³³) 이름을 지와 두고, 신촌(新村)은 들어가난 열녀문(烈女門) 가에 들어가졌구나. 이 동넨 열녀가 남직허다. 열녀문으로 세와 두언, 신촌은 가난 걸어도 그디 걸어도 그디 아이고 요긴 집도 질다.¹³³⁴ 진드리로¹³³⁵) 이름 지와 두고, 삼양(三陽)은 들어가난 장수덜이 큰 돌 들런 이레 들러 놓고, 저레 들러 놓고 뜰동산으로¹³³⁶) 이름을 지와 두고, 화북(禾北)은 내려가단 보난 네창¹³³⁷) 바위 잇엇구나.

“아기덜 이레 오라. 목은 옷 벗영 가시낭더레 걸치라. 물 속더레 들어강 모욕(沐浴)허렌.”

모욕헨 나오난, 물이 팬칙팬칙허난 베릿네엔¹³³⁸) 이름을 지와 두고, ㄱ으니믄를¹³³⁹) 올라 사난 애가 콧콧 몰랐구나. 제주 백성(百姓)덜 ㄱ으니믄를 올라 사민 송스(訟事)도 잇어불만 헐로구나. 동(東門), 서문(西門), 남문(南門) 다 쎄연 못네 지엇구나. 산짓물은¹³⁴⁰) 가락쿓물이엔도 험니다. 산짓물에 물도에 간 소랑소랑¹³⁴¹) 누원 잇이난, 송대장(宋大靜) 부인은 물 질레¹³⁴²) 가단 보난 베음이 일곱이 살언 잇엇구나. 앞치메 벗영,

“우리 집이 테운¹³⁴³) 조상이러건 이레 답아집센.”

물 질언 나완 보난 답아지엇구나. 갓언 오란 송대장 집더레 놓안 송대장 부인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로 잘 살앗구나. 흐라 흐를은 나간 보난 관덕정(觀德亭) 마당에 들어갓구나. 관덕정 마당에 들어간,

“아이고 요기 잇일만 허덴.”

잇이난, 이방왕(吏房房), 성방왕(刑房房)덜이 케우려부난, 벼득자, 소득자 겐 배부른동산으로 이름을 지와근에 이디도 갓저. 저기도 갓저. 경 굽네다만은,¹³⁴⁴

“이젠 나 아기덜아, 오라. 우리 다덜 허터져야 뵈로구나. 큰똥애긴 어디 갈티?”¹³⁴⁵)

“난 관덕정 동앞마당 츠지우다.”

돌췌뜰아기,

“추수(秋收)할망으로 들어샷구나.”

셋췌뜰은,

“이방왕 성방왕도 츠지우다.”

넛췌뜰아덜은,

“동가원(東果園) 서가원(西果園)이우다.”

다섯췌뜰아는,

“동창고(東倉庫)도 네 츠지 서창고(西倉庫)도 네 츠지.”

으섯췌뜰애긴,

“옥(獄)할망으로 츠지허쿠다.”

일곱췌엔도 곱고 으섯췌엔도 험니다.

1333) 만세동산: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속한 지명(地名).

1334) 집도 질다: 길기도 길다.

1335) 진드리: 진드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너른 들판을 이르는 지명(地名).

1336) 뜰동산: 제주시 삼양동에 속한 지명(地名).

1337) 네창: 내(川).

1338) 베릿네: 제주시 화북동에 속한 지명(地名).

1339) ㄱ으니믄: 제주시 건입동에 속한 지명(地名).

1340) 제주시 건입동에 속한 지명(地名).

1341) 소랑소랑: 가늘고 길쭉한 모양.

1342) 물 질레: 물 길러.

1343) 테운: 인연 있는.

1344) 굽네다만은: 말합니다만은.

1345) 갈티: 갈 테냐.

“메죽은뚝애긴 어딜 갈티?”

“나는야 뒤으로 가민 감낭¹³⁴⁶ 알, 배낭¹³⁴⁷ 알, 미깡낭¹³⁴⁸ 알로 청주쟁이,¹³⁴⁹ 흑주쟁이
어멍 우리덜 짠 오라나난 한라산을 띠로 돌령 자정(坐定)허쿠다. 어멍은 어딜로 가쿠과?”

“날은 애기덜아, 난 연양상고팡(上庫房)에 들어강 검은 독은 누른 독 데두지,¹³⁵⁰ 소두지,
큰 낭(木) 알이, 족은 낭(木) 알이, 소라만단지로 자정(坐定)을 허키여. 설운 나 아기덜아, 다
자정혈 디 자정헤엇당 정월 나건들랑 과세(過歲) 받을 때랑 요량¹³⁵¹ 소리 들엉 다 좃앙오렌.”
영 헤연 마련을 헤엿수다 .

칠성본풀이>비뉼

옛날은 동짓돌 나면 7실¹³⁵² 들언 좁쌀 네오민 오메기떡¹³⁵³ 헤여근, 동짓돌 첫 축일(丑日)
날 축일도 허고, 주쟁이도 묵은 각단 세 각단 헤여당 주쟁이 짱 한라산 띠를 돌령 열두 곡식
(穀食)을 갈아 먹영 살암수덴 헤영, 밧디 농스 들이치는 거 백지에 다 싸건 주쟁이 알에 제를
묻으는 법입네다. 아방국은 장설룡데감, 어멍국은 송설룡부인 소피골 고장 남밭 솟아나던 아
리룡 아기공단 아기 비단아기 산으론 가민 산신칠성(山神七星), 물론 가민 요왕칠성(龍王七
星), 베론 가민 선양칠성(船王七星) 집이 오민 터신인 듯, 지신(地神)인 듯 궁기궁기마다¹³⁵⁴
들어갓당 쟁명(淸明) 삼월 뉼민, 궁기궁기 나오른거들랑 하다 이집이 돌아보지 맙서. 이 사
라 봉 큰굿 사무실 안네 돌아보지도 맙서. 죽은 설로 산 설로 눈에 펜식허게 허지 맙서. 우영팻
도¹³⁵⁵ 돌아보게 맙서. 축담도 밧게¹³⁵⁶ 허지 맙서. 마당 구석 올레 구석 무똥¹³⁵⁷ 구석 돌아
보게 허지 맙서. 양에왔디¹³⁵⁸ 사령 누게 맙서. 미나리왔디 사령 누게 맙서. 독통에도¹³⁵⁹ 사
령 누게 허지 맙서. 날레¹³⁶⁰ 널어논 디도 사령 늣게 허지 말앙, 독헌 인간덜 만나민 옛날은
긴지름도 뿌려불고, 석이(石油)지름도 뿌려불고, 소금도 뿌려불고, 독헌 인간덜 만나민 소주(燒
酒)에 술 뉼영 담아불고, 옥항에 허멍이 선달도 헤여근에 허는 법이우다. 아흠 번 죽영 열 번
도 환쟁허는 법이옴네다. 칠성 한집님아 세경 너른 땅 멩에 진 밧디 농스 지건들랑¹³⁶¹ 하다
씨 일러불게¹³⁶² 허지 맙서. 불리¹³⁶³ 앓는 걸랑 단지만씩 잘 낫게 험서. 고고리¹³⁶⁴ 차는 걸
랑 덩드렁¹³⁶⁵ 마께만씩¹³⁶⁶ 잘허고, 옛날도 궤는¹³⁶⁷ 갈민 7물아사¹³⁶⁸ 헤먹옴네다. 궤는 물

1346) 감낭: 감나무.

1347) 배낭: 배나무.

1348) 미깡낭: 굴나무. ‘미깡’은 일본어 *미칸*.

1349) 주쟁이: 주저리. ‘주저리’는 띠나 짚으로 동글레 엮어 가리 꼭지 따위에 덧댄는 물건.

1350) 데두지: 큰 뒤주. 쌀 따위를 담아 주는 세간.

1351) 요량: 요령. 심방이 들고 다니는 무구인 ‘멩두’의 하나.

1352) 7실: 가을.

1353) 오메기떡: 제주의 떡 종류 가운데 하나.

1354) 궁기: 구멍.

1355) 우영팻: 텃밭.

1356) 밧게: 밧게.

1357) 무똥: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1358) 양에왔디: 양하 밧.

1359) 독통: 닭장.

1360) 날레: 별을 찌기 위하여 멩석에 널어놓은 곡식.

1361) 농스 지건들랑: 농사를 지거든.

1362) 일러불게: 잃어버리게.

1363) 불리: 뿌리.

1364) 고고리: 이삭.

1365) 덩드렁: 탄탄하고 미끄닥하며 동글넓적한 짚 따위를 두드리는 돌판.

1366) 마께: 방망이.

을 아홉동이 지영 살아불민 장마만 지문 궤농스는 아니 지는 법이우다. 보리에랑 테우리에 제초(除草) 시겨주고, 조에랑 와서리 들게허지 맙서. 나부역, 두무역 일게 허지 맙서. 미깡냥 밧디도 나부역, 두무역 허게 허지 말아근예, 먹을 연, 입을 연 동창고도 체웁서. 서창고도 체웁서. 남창고, 북창고도 체와 줍서예. <예 칠성본 풀엇우다예.>

1367) 궤: 깨.

1368) ㄱ물아사: 가물어야.

문전본풀이

문전본풀이>들어가는 말미

일문전 하나님 난산국에¹³⁶⁹ 본 풀정¹³⁷⁰ 험네다.

문전본풀이>본풀이

옛날이라 옛적에 남선고을 남선비가 살읍데다. 여산고을 여산고을 부인님이 사난 부베간(夫婦間)을 맺으난, 아덜은 낳는 게 일곱 성제(兄弟)¹³⁷¹ 나난, 일곱째 아덜은 녹두생인으로 이름을 지왔구나. 그 해에 농수를 지난 흉년(凶年)이 들었구나. 흐를날은 남선비가~,

“설운¹³⁷² 아기덜아, 아버지 육지장사 강 오크메¹³⁷³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꽃을¹³⁷⁴ 도울랑¹³⁷⁵ 올 곧은 남,¹³⁷⁶ 실 곧은 남 비어당¹³⁷⁷ 베나 허나 멘들어 도라.”¹³⁷⁸

“어서 기영¹³⁷⁹ 험서.”

일곱 성제가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꽃을 도울랑 올 곧으고, 실 곧은 남 비어당 베를 허나 멘드난, 전베독선(全一獨船) 실었구나. 장젓맛이 벨꺾사¹³⁸⁰ 방구삼체(放鼓三次)¹³⁸¹ 동동 울령 파도치어, 절치어¹³⁸² 가명, 가명 가는 것이 오동나라 오동고을이 당험데다. 선창(船艙)에 닷¹³⁸³을 무건 삼부릿줄¹³⁸⁴ 줄싸메난 동이맞이¹³⁸⁵ 네립데다. 노일제데귀일이 뜰 깍치메¹³⁸⁶ 앞이 입언 내려오란,

“선주(船主)님아, 선주님아, 우리 집이 선주집을 무읍서.”¹³⁸⁷

“어서 기영 험서.”

노일제데귀일이 뜰 집이 간 선주집을 무엇구나. 그날로부터 바둑 장기 노념놀이¹³⁸⁸ 헤여 가난, 풀아 먹는 것이 전베독선 다 풀아 먹어 간다. 노일제데귀일이 뜰 첩을 삼아 가는구나. 나중엔 먹을 거 엇어가난 탄 간 베꺾지 풀아 먹으난, 남선비 화가 올르난 앞눈이 어둑었구나. 덩들봉사가 뉘난에 피조리 초막(草幕)살이¹³⁸⁹ 돌쩌귀 거적문¹³⁹⁰을 달안 잇이민 쳇죽이라

1369) 난산국: 본디 태어난 곳과 그 내력.

1370) 풀정: 풀려고.

1371) 성제: 형제.

1372) 설운: 서러운.

1373) 오크메: 올 테니.

1374)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꽃: 깊은 산을 뜻함.

1375) 도울랑: 올라서.

1376) 남: 나무.

1377) 비어당: 베어 다가.

1378) 멘들어 도라: 만들어 주라.

1379) 기영: 그렇게.

1380) 장젓맛이 벨꺾사(別告祀): 장젓맛이 별고사는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 바치는 고사를 말하는 데 이는 선왕신(船王神)인 영감을 대접하는 뜻.

1381) 방구삼체(放鼓三次): 방고삼차(放鼓三次). 북을 세 번 동동치는 것으로 출항신호.

1382) 절: 물결(波).

1383) 닷: 닷.

1384) 삼부릿줄: 세 갈래로 나누어 묶어 고정하는 줄.

1385) 동이맞이: 베동이맞이 배를 맞이하는 어린 중.

1386) 깍치메: 풀치마.

1387) 무읍서: 묶어 가십시오.

1388) 노념놀이: 놀음놀이.

1389) 피조리 초막살이: 보잘 것 없는 초막살이.

1390) 거적문: 문짝 대신에 거적을 친 문.

도¹³⁹¹) 넘어가는 개(犬) 먹어불카부덴¹³⁹²) 다우리명¹³⁹³) 살았구나.

남방국에선 남선비 나 가건덴 연삼년(連三年) 뒤편도 소식(消息) 기별(寄別) 엇었구나. 그 헤에 농술 지던 풍년이 드난에 여산국이 부인님은 이 밤, 저 밤, 야삼경(夜三更) 뒤편가민 상동냥 용얼레기¹³⁹⁴) 춤실 일곱 발 무경 이 밤, 저 밤, 깊은 밤중 저 바당에 강 들이치멍,

“낭군님아, 설운 낭군님아, 가다건 바당에 베 파산 뒤편 죽엇걸랑 상동냥 용얼레기 머리카락 올라오곡, 살았걸랑 소식 기별 듣게 헤여 줍서.”

일렛제¹³⁹⁵) 뒤편는 날 용얼레기 건전 보난 머리카락 혼정 아니 올랐구나에~.

“설운 아기들아, 니네 아방 좃앙오크메 아방 탄 간 거 7치 베나 ㅎ나 멘들어 도렌.”

허난, 일곱 성제가 굴미굴산, 아야산, 신산꽃을 도올랐구나. 올 곧은 남, 실 곧은 남 비어단 베를 멘드난 뜻을 올렸구나~. 일곱제 녹두생인안티 굳는 말이,

“나 아덜아, 어멍 갈 적에 요 뜻 들고, 니네 아방 좃앙 올 때도 요 뜻을 들앙 오민, 니네 어멍인줄 알고 다른 뜻을 들앙 오민 니네 어멍 아니엔.”

녹두생인안티만 굴아 두곡, 장전맛이 벨코스 방구삼체 둥둥 울리난 파도치어 절치영 가멍, 가멍 가는 것이 오동나라 오동고을은 당헤엇구나. 선창에 베슬 닷을 묶엇구나. 지장밧디를¹³⁹⁶) 넘어가난 지장밧디 세¹³⁹⁷) 돌리는 애기들이,

“이 세, 저 세, 너무 옥은 체¹³⁹⁸) 말라. 밥주리¹³⁹⁹) 옥은 세도 아이 놓은 그물에 들고, 남선비 옥은 깬에도 노일제데귀일이 톨 호탕 넘언, 전베독선 다 풀아 먹고, 앞눈봉손 뒤편 앓았구나. 주어~ 저 세~.”

여산국 부인님이 지장밧디 들어간다.

“설운 아기들아, 7사¹⁴⁰⁰) 노래 ㅎ 곡지만 더 불러도라. 니네 머리 위에 갑사(甲紗)뎡기 드러주멘.”

ㅎ난, 다시 ㅎ번 불러주엇구나. 머리에 갑사뎡기 드러주고,

“그덜 가젠 ㅎ민 어덜 가느니?”

“요 제 넘읍서. 저 제 넘읍서. 가당 보민 피조리 초막살이 돌쩌귀 거적문을 들안 잇우덴.”

허난, 요 제 넘고, 저 제 넘고 가단 보난 피조리 초막살이 돌쩌귀 거적문 들안 잇구나.

“주연 잇거든 나그네 무어서 뵙서.”

“아이고 요레¹⁴⁰¹) 바레 뵙서. 어디랑 주인 자고 어디랑 나그네 잡네까?”

“난 디 사람 집을 지영 납네까? 밧을 지영 납네까? 정제 구석이라도 빌려 줍센.”

허난, 정제 구석을 빌려 주엇구나. 정제 구석 빌려 주난 밥이나 헤영 먹젠 웨말치¹⁴⁰²)를 올 언 보난, 멘날 쳇죽만 썬어먹어 나난 쳇죽이 잇구나 앞밧디 놀려든다. 뒷밧디 열려든다. 옆밧디 놀려들언 삼수세기¹⁴⁰³) 걷어단 솟을 북북허게¹⁴⁰⁴) 싯쳐된¹⁴⁰⁵) 갓영 간 쓸을 난 밥 ㅎ상을

1391) 쳇죽: 겨죽.

1392) 먹어불카부덴: 먹어 버릴까 봐.

1393) 다우리명: 쫓으면서.

1394) 상동냥 용얼레기: 상동나무로 만든 얼레빗.

1395) 일렛제: 이레째.

1396) 지장밧디를: 기장 밧에를.

1397) 세: 새.

1398) 옥은체 ㅎ지: 약은척하지.

1399) 밥주리: 참새.

1400) 7사: 아까. 금방.

1401) 요레: 여기를.

1402) 웨말치: 한 말들이 술.

1403) 삼수세기: 한삼덩굴.

출려근,1406)

“주인아지바님아,¹⁴⁰⁷⁾ 주인 모른 나그네가 잇읍네까? 이 밥을 먹읍센.”

허난에~, 첫 수꾸락 들르난 목이 매엇구나.

“아지바님아, 옛말이나¹⁴⁰⁸⁾ 곱아 봅센.”

“옛말도 모름네다.”

“본말이나 곱아 봅서.”

“본말도 모름네다.”

“아지바님 살아온 정네(情理) 생각허멍 곱아 봅센.”

허난,

“나는야 남방국의 남상국이고~, 우리 집 부인은 여산국이 부인이고, 아덜 입곱 성제 난 가
난헤연 옥지장사 오랏단 노일제데귀일이 똥 호탕에 넘연 전베독선 다 풀아 먹영, 핫짐에 앞는
어독연 가도 오도 못헤영 영 앓앗우덴.”

허난에,

“낭군님아 ,낭군님아, 나가 여산국입네다. 낭군님 좃안 오랏우다.”

똥똥 훑홀목¹⁴⁰⁹⁾ 심연 만단정황(萬端情懷) 이루노렌 허난~, 노일제데귀일이 똥 동네잔치집
이 간 심부름 헤연 깍치메에 쳇죽 혼 적 밥 빌어 오단 흑허게 던지멍,

“아이고 요놈, 저놈, 죽일 놈, 잡을 놈. 날랑 놈이 집이 강 눈치밥 먹으멍 쳇죽이라도 멕이
단 보난 지나가는 술간나이¹⁴¹⁰⁾ 놓안 노념놀이 헤염구나.”

“아이고 설운 정네(情女)야, 이리오라. 남방국에른 우리 큰부인이 나를 좃안 오랏구나.”

“아이고 성님아, 성님인줄 알앗이민 무사 후욕노욕(詬辱怒辱) 험네까~? 나 승(凶)보지 맵서
예~.”

“웁서. 성님아, 오젠 헤난 똥넨들¹⁴¹¹⁾ 아니 납네까? 연네못디 몸 모욕(沐浴)가게.”

몸 모욕가난 옷을 벗연 앓앗구나.

“아이고 나 동싱(同生)아, 이리 오라. 니 등을 밀어주마.”

“아이고 나 성(兄)님, 우으로 비운 물이 발등더레 떨어져도 알로¹⁴¹²⁾ 비운물이 머리 우터
레¹⁴¹³⁾ 올릅네까? 설운 성님부터 모욕헨 나 등을 밀어 줍센.”

그 말도 들연 앓앗구나. 노일제데귀일이 똥 앞이 간 등 돌아 앓이난, 물박으로 물을 떠 헨
번, 두 번 헤단 떼 미는 체 허단, 물더레 가락허게¹⁴¹⁴⁾ 걸려불엇구나~.¹⁴¹⁵⁾ 여산국이 부인님
감테(甘苔) 7 뜯 절박머리¹⁴¹⁶⁾ 골골산산 흠어 노멍 물 알더레 7라앗앗구나.¹⁴¹⁷⁾ 노일제데귀일

1404) 복복허게: 무엇을 말끔하게 없애는 모양.

1405) 싯쳐똥: 싯어두고.

1406) 출려근: 차려서.

1407) 아지바님: 여자가 동기(同氣) 이외의 손위의 남자를 높이어 부르는 말.

1408) 옛말: 여기서는 ‘살아온 내력’을 의미함.

1409) 똥똥 훑홀목 심연: 따뜻한 손목 잡고 .

1410) 술간나이: 여기서는 ‘근본 없는 여자’ 정도의 뜻.

1411) 똥넨들: 똥 냄새인들.

1412) 알로: 아래로.

1413) 우터레: 위로.

1414) 가락허게: 세차게 미는 모양.

1415) 걸려불엇구나: 걸어 밀어버렸구나

1416) 절박머리: 결이 좋은 머리. 동래의 오구곳에서 불리는 <바리공주>에서도 “손에 찌는 옥지환 반달
같은 절박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다. 흥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形成과 展開” 『구비문학연구』
제집(한국구비문학회).

이 똥은 이녁¹⁴¹⁸) 옷은 벗어두고, 여산국이 옷으로 문땀 굴아입언 집이 가,
 “아이고 낭군님아, 낭군님아, 그년, 저년 행실이 귀썸헨 죽여똥 오랏우다. 그년이 누게짜?”
 아이고 노일제데귀일이 똥, 행실이 귀썸헨 죽여똥 오랏우덴 허난,
 “아이고 잘 죽였저. 나 앞눈 어둔 거 그년 덕분에 어둑엇덴.”
 허난, 노일제데귀일이 똥이 곤는 말이,
 “아이고 낭군님아, 읍서. 이제랑 우리들 애기들 좃안 남방국더레 가게~.”
 베 진 곳 알 돌에 네렛구나~. 베에 닷을 걷언근에 돛을 다른 걸로 돌아 간다. 남방국더레
 들언 오라가난 물머리에 산 보난 아기덜,
 “우리 어멍 강 아방 좃앙 오람구나.”
 큰아들은 망건(綱巾)벗어 드릴 놓고, 둘째 아덜 저고리 벗언 드릴 놓고, 셋체 아들은 바지
 벗언 드릴 놓고, 네 번째 아덜 행경(行纒) 벗어 드릴 놓고, 다섯번째 아덜 보선 벗어 드릴 놓
 고, 요섯체 아덜 두루막 벗언 드릴 놓고, 일곱째 똑똑하고 영력한 녹디생인 곤는¹⁴¹⁹) 말이,
 “우리 어멍은 아니우다.”
 “어떻헨 알아질티?”
 “어멍이 갈 떼 돛을 들멍 나 올 떼민 이 돛을 들앙 온덴 허엿인디, 온 건 보난 그 돛을 아
 니 들안 다른 돛을 들앗우다. 우리 어멍 아납네다.”
 칼선다리¹⁴²⁰) 놓앗구나~. 칼선다리 놓안근 베에서 네렛구나.
 “어머님아, 어떻게연 우리 어멍 얼굴이 아니우다.”
 “아이고 나 아기덜아, 니네 아방 강 좃아오젠 헨 게 배멀미가 나앗구나. 수절끼(水疾氣)
 가¹⁴²¹) 나앗구나. 아이고 얼굴도 변헤엿구나.”
 “경 흐짜? 걸읍서.”
 가단 골목에 오난 이 골목도 주악,¹⁴²²) 저 골목도 주악,
 “어머니, 무사 우리 골목 못 좃임이짜?”
 “니네 어멍 멀미 헤염시네.”
 “이레 들어 걸읍서.”
 들어간다~. 이 올레, 주악 저 올레 주악허난.
 “무사 우리 올레 못 좃암수과?”
 “니네 아방 좃아오젠 헨 게 배멀미가 나앗구나.”
 핑계만 잡아간다.
 “집이 강 밥협서.”
 밥헤연 행 건 보난, 아방 받던 밥은 족은아들안티 가고, 족은아들 밥상은 아방안티 가고, 밥
 사발도 바꾸고, 수꾸락도 바꾸고, 국사발도 바꾸난 아기들은 투런투런¹⁴²³) 헤엿구나. 녹디생인
 곤는 말이,
 “요거 봅서. 우리 어멍은 절대 영 안 협니다. 우리 어멍 아니우다.”
 똥날은 남선빈 올레에 나가불고, 이 아덜 일곱 성젠 초신 삼으레 가부난 방 안에서 생각허

1417) 7라앗앗구나: 가라앗앗구나.

1418) 이녁: 자기.

1419) 곤는: 말하는.

1420) 칼선다리: 칼날이 위로 향한 모양.

1421) 수절끼(水疾氣): 뱃멀미.

1422) 주악: 기웃. 갈팡질팡 헤매는 모양.

1423) 투런투런: 이해할 수 없어 의아한 모양.

난,

‘요것들 눈치 알았구나. 요것들 눈치 아난 이녁 어멍 아니믄 날 죽일로구나.’

남선비 들어올만허난 각진장판에¹⁴²⁴⁾ 둥굴어¹⁴²⁵⁾ 가는구나.

“아이고 베야.¹⁴²⁶⁾ 아이고 베야.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 아팜 죽어지켜.”

남선빈 어둑은 눈에 들어오단,

“아이고 부인님아, 이거 어떻게 일이파?”

“아이고 낭군님아, 나 몸에 병이 낫우다.”

“아이고 어떻게민 좋고?”

“약 먹어도 아니 좋음직허우다.”

“어떻허민 좋크라?”

“옆집이 김정시안티¹⁴²⁷⁾ 강 문복단점(問卜斷占) 지영 옵센.”

올레로 나가분 세에, 올담 녀영 먼저 강 김정시안티 곤는 말이,

“우리 집 서방 오랑 나 신병은 절데 약 먹어도 아니 좋고, 아들 일곱성제 죽영 애¹⁴²⁸⁾ 네영 먹켄, 요 말 혼 마디만 골아 줍센.”

언약을 헤여 두엇구나. 나오 노렌 허난 남선비 어둑은 눈에 들어온다.

“어떻헌 옵데가?”

“아이고 우리 집 큰부인이 아팜 오랏우다.”

단수육갑(單數六甲) 지평 곤는 말이,

“약 먹어도 안 좋구다.”

“어떻허민 좋쿠과?”

“아덜 일곱 성제 애 네영 먹어사 좋쿠텐.”

허난,

“아이고 요거 무슨 말인고? 이 아기들 죽이렌 헨 말이 뭇 말이리.”

어둑은 눈에 올레로 터덕터덕 걸언 들어온다. 남선비 오라가난,

“아이고 베야. 아이고 베여~.”

마리¹⁴²⁹⁾ 구석, 청방¹⁴³⁰⁾ 구석 난간더레 조약하게 앓안,

“아이고 게난 무시 거엔 곱데가?”¹⁴³¹⁾

“아이고 가난 아덜 일곱 성제 죽영 애 네어 먹어사 좋켄.”

허난,

“아이고 낭군님아, 이거 어떻게 일이파? 죽으믄 죽으주 난 그 애기들 죽영 아니 살아났쿠텐.”

거짓치 안 허게 손가락에 춤 불란 눈물 나는 책 헤여가명,

“아이고 낭군님아, 아니 뺨직허우다.”

“어떻허민 좋크라?”

1424) 각진장판에: 유기름 칠한 좋은 장판에.

1425) 둥굴어: 똥굴어.

1426) 베야: 배(腹)야.

1427) 김정시안티: 김지관에게. ‘정시’는 지관(地官).

1428) 애: 간(肝).

1429) 마리: 마루.

1430) 청방: 창방. 마루와 부엌 사이에 있는 작은 마루.

1431) 곱데가: 말합니까.

“긫사¹⁴³²) 소문 들으난 삼도전¹⁴³³) 세커리에 멩텅이¹⁴³⁴) 쓴 점쟁이 잇덴 험디다. 그디 가근 에 들어뵘 오랑 애기들 죽연 애 네어 먹연 나 살아나민, 나 혼 배(腹)에 세 쌍둥이씩 나 세 번만 나민 아흙 성제가 될 거 아니꽈?”

“아이고 그 말도 드난 맞다.”

남선비 어둑은 눈에 먼 올레 난다. 나가부난 굴목에 간 멩텅이 갖언 셋담으로 헨 셋질로 와 라치라,¹⁴³⁵) 와라치라 간 삼도전 세커리에 멩텅이 썩 앓앗구나. 남선비 듯 넘어가거난,

“어디레 가는 아지바님이우꽈?”

“아이고 난 우리 집 부인님 아판 여기 멩텅이 쓴 점쟁이 잇덴 허연 문복지레 오랏우다.”

“아이고 요레 읍서. 나가 멩텅이 썩 앓앗우다.”

단수육갑(單數六甲) 오용팔괘(五行八卦) 지평 하는 말이,

“아니 뉘쿠다.”

“무사 말이꽈?”

“아들 일곱 성제 잇우과?”

“잇우다.”

“죽영 애 네영 먹영 살아사 나쿠덴.”

허난, 이 말을 들으난 남선빈 기가 맥헛구나. 어둑은 눈에 터달터달 집더레 온다. 멩텅인 들 러 데껴두고, 셋질로 셋돌담 튀영 집에 오란 앓안 아이고 구석구석 둥굴어 가명 울어간다. 남 선비 오랏이난,

“강 읍데가? 아이고 가난 무시 거연 곧디가?”

“흔 말에 지어렌.”¹⁴³⁶)

허난,

“흔적 험서.”

창고에 간 창도(長刀)칼을 네고 놓고, 근 7세 신돌¹⁴³⁷) 놔 슬강슬강 칼을 굴아간다. 옆집이 청타고 마고할망 저녁밥 허젠 천분체¹⁴³⁸) 들렁 불 빌레 오랏구나.

“아이고 남선비야, 아덜들도 잇인디 무사 어둑은 눈에 그 칼을 굴암시니?”

“아이고 할마님 모르는 소리 맏서.”

“사실이 영 뉘우덴.”

허난, 할망은 갑자기 천분체 들러 데껴두고, 아덜 일곱 성제안티 간 보난 웃음벨탁들을¹⁴³⁹) 헤염구나.

“아이고 아기들아, 니네 어멍 아판 니네 아방 문점 지난, 니네들 죽영 애 네영 먹어서 산덴 허난, 니네 아방 죽이젠 니네 아방 칼 굴암서렌.”

허난, 비세 7치¹⁴⁴⁰) 울어간다. 일곱체 아들 곤는 말이,

“나 성님아, 나 성님들 요거 봅서. 우리 어멍은 죽으믄 죽어볼주. 우리들 죽영 살아나지 안 험네다. 읍서. 가게. 울민 헤결 뉘네까?”.

1432) 긫사: 금방.

1433) 삼도전: 세 갈래로 난 길.

1434) 멩텅이: 망태기.

1435) 와라치라: 고관의 행차 때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

1436) 흔 말에 지어렌: 다시 점을 쳐도 같은 점괘가 나온다고.

1437) 신돌: 솥돌.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1438) 천분체: 부채.

1439) 웃음벨탁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큰 소리로 웃는 것을.

1440) 비세 7치: 비세같이. ‘비세’는 제비 모양의 새인데 비가 올 듯할 때 잘 우는 새.

성님덜 데런 오란 올레에 세와 두곡 안에 간,

“아버지, 무사 우리 네버된 아버지가 이 칼을 글미짜?”

사실 말을 ㄱ난,¹⁴⁴¹⁾

“아버지 잘해엿우다. 아긴 따시 나민 메기¹⁴⁴²⁾ 아니짜만은 부몬 다시 가민 못 읍네께. 경허주만은 아방 속으로 난 애기 어떻 일곱 번을 죽이고, 애를 어떻 일곱 게 네고 묻어 주젠 해도 일곱 구덩이 흑 흰 삽씩 덮어주젠 해도 일곱 삽 아버지 어독은 눈에 안뵈네다. 그 칼을 나 주건 나가 성님들 애 네영 오랑 어떻 먹영 아니 뉘거들랑 나 하난 죽이는 게 어떻허짜?”

그 말도 들은 맞앗구나. 칼을 네어 준다에~. 그 칼을 가전 먼 올레 나산,

“설운 성님들아, 읍서. 읍서. 가게~. 읍서. 가게~. 건삼 ㄱ뜬¹⁴⁴³⁾ 지레¹⁴⁴⁴⁾에, 노용삼¹⁴⁴⁵⁾ ㄱ뜬 고운 얼굴, 서산베옥(西山白玉) ㄱ뜬 양지¹⁴⁴⁶⁾ 관디청¹⁴⁴⁷⁾ 눈물이로구나. 주옹아방¹⁴⁴⁸⁾ 연 주지던 비세 ㄱ치 올명,

“멩천 ㄱ뜬 하늘님아~, 멩천 ㄱ뜬 하늘님아~, 어멍, 어멍, 우리 어멍, 혼정 잇건 우리 일곱 성제 죽을 일이 잇우다.”

허난,

“어멍 우리 일곱성제 살려줍센.”

허멍, 비세 ㄱ치 올명 올라가단 보난 헤는 열락서산(日落西山)에 다 지언 이 밤, 저 밤은 뉘엇구나. 어옥폐기¹⁴⁴⁹⁾ 으지한 일곱 성제가 으지헤연 무정눈에 즘을 자난 어멍이 선몽(現夢)헌다.

“노리각녹(角鹿)이 네렴시난 흔적¹⁴⁵⁰⁾ 일어나라. 노리각녹을 죽이젠 헤민 바른말 헐꺼여. 흔저 일어나라~.”

일어난 보난 꿈이로구나. 올라 가단 보난 노리각녹이 네린다. 노리각녹을 죽이젠 허난,

“날 죽이지 말라. 난 산신령이여. 나 뒤에 산툯¹⁴⁵¹⁾ 일곱 마리 오람시난 흔 ㄱ종자¹⁴⁵²⁾ 냉겨두고 으섯 마리 애 네영 가렌.”

허난,

“거짓말 아니 것느냐?”

노리팍을 콩지를 찼갓구나. 입은 옷 베련¹⁴⁵³⁾ 콩지로 탁허게 부찌난,¹⁴⁵⁴⁾ 노리각녹엔 검은점도 이고 흰점도 이고 노리엔 콩지가 엽는 법입네다.

올라가단 보난 산툯 일곱 마리 내려오람구나. 으섯 마리 죽영 애 네고 일곱 마리째엔 씨전 중 냉겨두고 애 갖연 내려온다. 내려오단 보난 왕데(王竹)앗디 잇엇구나. 왕데बाट디 들어간 활을 멘든다. 창을 멘든다 집이 갖연 온다.

1441) ㄱ난: 말하니.

1442) 메기: 끝.

1443) 건삼 ㄱ뜬: 무성한 삼(麻)같은.

1444) 지레: 키.

1445) 노용삼: 늙은 삼(麻).

1446) 양지: 얼굴.

1447) 관디청(觀德亭): 제주도 제주목관아지 앞에 있는 조선시대의 정자.

1448) 주옹아방: 향로(香爐).

1449) 어옥폐기: 억새.

1450) 흔적: 빨리. 어서.

1451) 산툯: 멧돼지.

1452) 씨종존: 씨로 삼는 종자(種子)

1453) 베련: 뜯어.

1454) 부찌난: 붙이니.

“성님들랑 올레에 사십서. 나가 먼저 들어강 요걸 안네영¹⁴⁵⁵) 아무 말도 엇걸랑 우리 솔짝 허게 무너사고,¹⁴⁵⁶) 요거 안네도 허나만 더 먹어지켄 헤민 나가 성님들 불르건 동서남북으로 놀러듭서~.”

안에 들어간,

“어머님아, 성님들 죽영 애 네영 오랏우다.”

“아이고 나 아기가, 고생허였구나. 요레 네비똥 나가라. 약 먹는다 사름보민 안똥덴.”

허난, 나오멍 총~ 손가락 춤 불란¹⁴⁵⁷) 창고냥 풀라된 난¹⁴⁵⁸) 베꿏디서 안터레¹⁴⁵⁹) 바레보 난,¹⁴⁶⁰) 입바이만¹⁴⁶¹) 불긏불긏¹⁴⁶²) 칠헤똥 베게 알더레 놓앗구나.

“아이고 베여. 자라 베여. 아이고 베여. 아이고 배여~ .허나만 더 먹엇이민 낮아지켄.”

허난, 안으로 들어갓구나.

“어머님아, 어머님아, 흥번 이불자리나 게고 어머님 예, 방안이나 치웁고 어머님 머리카 흥 번 빗어 안네똥 나랑 죽으쿠편.”

허난,

“신병난디 방도 안 치우고, 이불자리도 아니 게고 머리카도 안 빈똥.”

허난,

“이년, 저년, 죽일년, 대동통편에 청똥삽에 목 걸렁 죽일 년아.”

시운데 자 수페머리 심어 이레착, 저레착¹⁴⁶³) 열려 메당 저리 두고 베게 아래 으섯 게 갓언 지봉 상모루레 올랏구나

“아이고 요 동넛 어른덜~, 우리 집이 보양 정다십서.¹⁴⁶⁴) 아기들이 다심티헌 게¹⁴⁶⁵) 아니고 어멍이 다심티헤연 우리 죽당 살아났우다. 우리 방 정다십서. 여~ 설운 성님들 살앗걸랑 동서남북으로 활발멍, 살발멍 와락치라 놀러 듭서~.”

설운 성님들 와락치라 놀러 드난, 노일제데귀일이 툇은 겁질에 든는 것이 얼로 도망가고, 벅장(壁穢)을 튼영 굴목¹⁴⁶⁶) 거기로 나오랑 통세에 강, 시운데 자 수페머리에 목을 걸련 죽엇구나. 남선빈,

“이거 무신 말이고?”

겁질에¹⁴⁶⁷) 들단¹⁴⁶⁸) 올레에 정살남¹⁴⁶⁹)에 발 걸련 죽엇구나.

“노일제데귀일이 툇 심어다 난 본푸세헤어보져.”

머린 비어다가 저 바당에 던져부난 듭북으로¹⁴⁷⁰) 설연헤였구나.¹⁴⁷¹) 머리뺏은 께어단 던져

1455) 안네영: 드러서.

1456) 무너사고: 물러서고.

1457) 춤 불란: 침 발라.

1458) 풀라똥난: 똥어두어니.

1459) 안터레: 안으로.

1460) 바레보난: 바라보니.

1461) 입바이만: 입가에만.

1462) 불긏: 붉게.

1463) 이레착 저레착: 이 편 저 편으로 정처 없이 움직이는 모양.

1464) 정다십서: ‘정다시다’는 어떤 일에 크게 혼이 나서 다시는 아니할 만큼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뜻.

1465) 다심티헌: 의붓자식을 학대해서 차별하는 태도. 다슴티허다.

1466) 굴목: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아궁이 바깥 부분.

1467) 겁질에: 겁결에.

1468) 들단: 달리다가 .

1469) 정살남: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大門) 대신 가로 걸쳐 놓는 길고 굽직한 나무. = 정낭.

1470) 듭북으로: 뜰부기로. 밤색 조류(藻類)의 하나 얇은 바다 밑의 너럭바위에 붙어 자람.

부난 통세에¹⁴⁷²) 돛도구리로¹⁴⁷³) 설연헤엿구나. 눈은야 왕방울로, 코는야 침통(鍼筒)으로, 귀는 전나기(電話機)로, 입은 마이쿠로, 니빨은 데우살로 마련한다. 젓통은 가지깁으로,¹⁴⁷⁴) 갈비뼈는 끊어당 상동낭 용얼레기로, 벳또롱은¹⁴⁷⁵) 끊어단 먹보말로,¹⁴⁷⁶) 또꼬냥은¹⁴⁷⁷) 끊어다가 물문지름으로,¹⁴⁷⁸) 남선비 좋아하단 건 데전복, 소전복으로 마련 헤엿구나. 벳부기는¹⁴⁷⁹) 끊어단 바당에 물망실이로¹⁴⁸⁰) 환싱을 시겻구나. 손은야 쉼시령으로, 허벅지는 통세에 지들팡으로,¹⁴⁸¹) 발은야 곰베로,¹⁴⁸²) 손톱발톱은 군벳으로¹⁴⁸³) 마련을 한다. 베설은 흘타단 베 헤는 사름덜 밧줄로 설현한다. 도에남 방에¹⁴⁸⁴) 무에남¹⁴⁸⁵) 절국데 독독허게¹⁴⁸⁶) 뿌런 허공더레 뿌리난에, 모기 몸에 국다귀¹⁴⁸⁷) 몸에 환싱헤엿구나.

“옵서. 성님들 이제랑 우리 어멍 좃아가게~. 오동나라 오동고을 주천강 연네뭇디 설운 성님덜랑 이디서 이 물을 펴집서.¹⁴⁸⁸) 날랑 서천꽃밧디 강 설운 성님덜아 강 오쿠덴.”

허난, 한박이여. 족박이여. 갓당 암만 물을 퍼도 못 펴구나. 녹디생이는 서천꽃밧디 가건 어멍 살릴 꽃 꺼깁 내려오란보난 물은 봉봉 헤엿구나.

“요 물 뵙따 줍서.¹⁴⁸⁹) 우리 어멍 신체나 좃으겐.”

허난, 한강바당 바짝 몰랐구나. 들물도 생기고, 썰물도 생기는 법이라. 어멍 빼 문안 오랏구나. 말 굴을 꼳, 솔 오를 꼳, 오장육부 살아날 꼳 놔 흥남제로 삼세번 푸드리멍,

“어머님 떼리는 메가 아니고, 어머님 살리는 메우다~.”

삼세번 떼리난~, 감태 7튼 저 머리 박박 굶은다.

“아이고 나 아기들아, 봄좁이라 너무 늦게 자졌구나~.”

“나 어머님 누워난 디 흑인들 네부리야~.”¹⁴⁹⁰)

가운데레 모다난 낫구나. 가운데 오름만이 높으난, 녹디생인 왕주먹을 꼭하게 들이 치난 시리구멍이로구나. 옛날은 식계날이나,¹⁴⁹¹) 멩질(名節)날이나 첫 시리 치어 나민 고망 툄라다근¹⁴⁹²) 일문전(一門前)에 올리는 법입네다. 어머님 데런 남방국에 오랏구나.

“우리 어멍 언 디 줍 자나난 돌을 좃어단 도리도리 나완 웨말치, 서말치, 큰숫, 작은숫 앳엇

1471) 설연헤다: 마련하다. 본디 의미는 ‘땃자리나 거적 따위를 깔아 자리를 만들다’ 여기서는 ‘마련하여’의 의미.

1472) 통세에: 변소. 돼지 기르기를 겸한 변소.

1473) 돛도구리로: 돌을 파서 만든 돼지 먹이통.

1474) 가지깁으로: 밥그릇 뚜껑.

1475) 벳또롱은: 배꼽은.

1476) 먹보말로: 밥고등으로.

1477) 또꼬냥은: 툄구멍은. 항문은.

1478) 물문지름으로: 말미잘로.

1479) 벳부기: 배.

1480) 물망실이로: 해파리로

1481) 지들팡으로: 사람이 변을 볼 때 양발을 디디도록 되어 있는 재래식 변소의 발판으로.

1482) 곰베로: 곰방메로.

1483) 군벳으로: 딱지조개으로.

1484) 도에남 방에: 복숭아나무 방아.

1485) 무에남: 산호나무.

1486) 독독허게: 균일하게 잘 빵는 모양.

1487) 국다귀: 각다귀.

1488) 펴집서: 푸고 있으십시오 .

1489) 뵙따 줍서: 줄어들게 하여 주십시오.

1490) 네부리: 내버리겠는가.

1491) 식계날이나: 제사(祭祀)날이나.

1492) 툄라다근: 툄어다가.

구나.”

“어머님 모른 음식 먹읍네까? 모든 음식이랑 이 조왕에서 마련해연 아침, 점심, 저녁 어머님 불 솥양 모든 밥을 협서. 식계 멩질 때도 요기서 해영 문전더레 상 보네민 나도 일문전에서 상 받아나민 어멍국 조왕더레 보네쿠덴.”

해연 마련해여두고,

“어떻허리 설은 큰성님은 어디 가쿠과? 큰성님은 갑을동방(東方) 청대장군(靑大將軍), 두 번째 성님은 경진서방(西方) 백대장군(白大將軍), 세 번째 성님은 남방(南方) 적대장군(赤大將軍), 네 번째 성님은 북방(北方) 흑대장군(黑大將軍), 다섯 번째 성님은 중앙(中央) 황대장군(黃大將軍), ㅅ섯 번째성님은 옛날 친구간법(新舊間法)¹⁴⁹³ 이제도 친구간법 잇우다. 동서남북으로 해민 동으로, 북으로, 서으로, 남으로 훈 바퀴 뺩헝게 둘멍 대장군으로 츠지허연 상을 받는 법이고, 일문전은 일곱체 아덜 녹디생인이 츠지고, 아바지는 올레에 정살남에 발을 걸령 죽엇이난 올레 철갈이로 상 받는 법이고, 옛날엔 정제하고 통세는 두 씨앗이라부난,¹⁴⁹⁴ 멀리 잇어사 뉘영 정제서 그릇 싯쳐난 물이나, 싯 싯쳐난 물이랑 통세더레 보네곡 통세에선 버리치 귀기 하나라도 정제에 들어오민, 이게 동티살(動土煞)이 나는 법이곡, 옛날은 통세에 강 똥 싸고 오줌 싸고 할 때랑 통세 똥오줌 싸레 가당 지들팡 알에 빠정 죽으민, 옛날은 똥떡 백 게 해영 백사름 맥여사 멩(命)과 복(福)을 이영 산덴 합니다. 일문전 하나님 난산국에 본을 풀었 습니다.

문전본풀이>비뉘

제주큰굿보존회 사무실에 성주님, 오방신장님 앞문전은 여레뉘 밧문전은 스물여덜 일르럭 데법천황(大法天王) 하나님, 초허루는 초덕조왕, 초이틀은 이덕조왕, 초사흘은 삼덕조왕 할마님 훈 달 앓양 옥황(玉皇)에 세 번 올락 네력 허멍, 이 조왕 소도리¹⁴⁹⁵ 헝 옥황에 올르게 맵서. 옥황에 소도리 이 조왕에 네리게 맵서. 까스버너에나 전기렌지에나 이 단 전기누전도 뉘게 허지 말고, 터에 터신도 터신 은동허게 맵서. 지신 은동허게 하지 맵서. 올레주목지신님도 이 올레로 급헌 일을 모두 막아 건 오늘 열두 본풀이 마지막으로 헤엿습네다. 어떻헌 일로 이 거 멘날 메칠 이런 소리 나암신고 영 허지 말앙, 저 올레로 주잔들랑 네어당 이 올레 안에, 올레 베꿏디, 이 터에, 이 터 베꿏디에 노는 이런 임신들 많이 많이 열두 소잔입네다. 자○○ 이 즈손도 열두 본풀이 기록 냉기고, 케이씨테레비에서도¹⁴⁹⁶ 이 즈손(子孫) 오랑 이 연구자료 갖영 가건 연구 자료도 잘 냉기고, 이 즈손들 비 온 날, 눈 온 날, 안게 낀 날 브름 분 날 옛 이 운전 해영 한라산을 가운데 중심 두영, 밤낯으로 운전(運轉)뉘곡 연구허레 뉘기멍 찰영헝레 뉘기멍, 거릿데장, 질데장 녁 날 일, 훈 날 일, 다칠 일도 모두 막아주고, 큰굿보존회 사무실에서도 이 즈손들 오랑가는 질에 다 굿인 일이랑 모두 막아 먹을 연, 입을 연 네와 줍서예~.

1493) 친구간(新舊間): 대한(大寒) 후 일부터 입춘(立春) 전 일까지의 기간.

1494) 두 씨앗이라부난: 처첩사이여서. ‘시앗’은 남편의 첩.

1495) 소도리: 고자질.

1496) 케이씨테레비에서도: KCTV에서도.